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xchange
in Manchuria and East Asia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

Manchuria and East Asian Cultural Practices and Glocal Diversity

November 3 (Fri.) 2023
10:00 – 18:30

Hybrid

Inha University's 60th Anniversary Hall 112,
Zoom(Online Webinar)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컬 다양성

2023년 11월 3일(금) 10:00 – 18:30

하이브리드 방식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112호

ZOOM 회의실

HOST: Th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 Inha University's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만주학회,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Co-Hosts: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Exchange, BK21FOUR Research Division for Glocal Multiculture Education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BK21FOUR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

Sponsors: Inha Universit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인하대학교, 한국연구재단

November 3 (Fri.), 2023, 10:00 – 18:30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 10:30	Opening Ceremony	Zoom: https://inha-ac-kr.zoom.us/j/81248602164
	Moderator Hyun Sik Choi (Inha Univ., Korea)	
	Opening Remark Young Hoa Son (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Exchange)	
	Kyung Suk Park (Vice-President, Th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	
10:30 – 11:30	Topic Presentation	
	Transnational Manchuria and Manchurian Western	
	Suk Jung Han (Dong-A Univ., Korea)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ethnic minority culture in Northeastern China	
	Young Soon Kim (Inha Univ., Korea)	
11:30 – 11:40	Photo Time	
11:40 – 13:00	Lunch & Break Time	
13:00 – 14:50	Session 1	Chair Hyoung Duck Kwak (Myungji Univ., Korea)
13:00 – 13:25	Can the Multiculturalism Approach Guarantee “Animal Rights”?: Military Animal Memorials and the Japanese Army	
	Toshihiko Kishi (Kyoto Univ., Japan)	
13:25 – 13:50	The Problematic Representation of Imperial and Colonial Customs –The Case of Korean–Japanese–Manchurian ‘Local’ Representations in Postcards	
	Hyun Sik Choi (Inha Univ., Korea)	
13:50 – 14:15	The Colonial Ideal of Harmony of the Five Tribes and Educational Ideology Based on Lineage of Koreans in Manchukuo	
	Yun Jeong Jo (Kookmin Univ., Korea)	
14:15 – 14:50	Discussion All Participants	
14:50 – 15:00	Break Time	
15:00 – 16:50	Session 2	Chair Hai Ying Huang (Inha Univ., China)
15:00 – 15:25	The Concept, Path and Prospect of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Jin Yu Qi (Minzu University of China, China)	
15:25 – 15:50	Manchuria and Korean Ethnic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ae Ho Kim (Konan Univ., Japan)	
15:50 – 16:15	Discussion o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Manchu hunting: as well as the effect of Manchu hunting on sports	
	Juan Juan Zang (Shandong Women’s Univ., China)	
16:15 – 16:50	Discussion All Participants	
16:50 – 17:00	Break Time	
17:00 – 18:20	Session 3	Chair Woo kyung Im (Sungkyunkwan Univ., Korea)
17:00 – 17:25	Recognition of “others” in An Soo-gil’s “Manju” period works	
	Hai Ying Li (Ocean University of China, China)	
17:25 – 17:50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in Manchuria: Agricultural Immigrants	
	Jeong Ran Kim (Oxford Univ., England)	
17:50 – 18:10	Discussion All Participants	
18:10 – 18:30	Closing Ceremony	Moderator Young Sub Oh (Inha Univ., Korea)
18:10 – 18:20	Research Ethics Education	
18:10 – 18:20	Closing Remark Young Soon Kim (Director,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2023년 11월 3일(금) 10:00 - 18:30

09:30 - 10:00	등록	
10:00 - 10:30	개회식	Zoom: https://inha-ac-kr.zoom.us/j/81248602164
	사 회 최현식 (인하대)	
	개회사 손영화 회장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인하대)	
	박경석 부회장 (만주학회, 연세대)	
10:30 - 11:30	주제발표	
	트랜스내셔널 만주와 만주웹스텐	
	한석정 명예교수 (동아대)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문화의 형성과 변천	
	김영순 교수 (인하대)	
11:30 - 11:40	사진촬영	
11:40 - 13:00	중식 및 휴식	
13:00 - 14:50	Session 1	좌장 곽형덕 (명지대)
13:00 - 13:25	다문화주의 접근법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 군용동물(軍用動物) 위령비와 일본 육군	
	貴志俊彦 (교토대, 일본)	
13:25 - 13:50	제국과 식민지 풍속 표상의 문제성 - 한·일·만 '향토' 재현 사진업서의 경우	
	최현식 (인하대, 한국)	
13:50 - 14:15	오족협화라는 식민지적 이상과 재만 조선인의 교육 혈통주의	
	조윤정 (국민대, 한국)	
14:15 - 14:50	토 론 참여자 전원	
14:50 - 15:00	휴식	
15:00 - 16:50	Session 2	좌장 황해영(黃海英) (인하대)
15:00 - 15:25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의 개념과 방향, 전망	
	祁進玉 (중앙민족대, 중국)	
15:25 - 15:50	만주 지역과 한민족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김태호 (코난대, 일본)	
15:50 - 16:15	만주족 수렵활동의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臧涓涓 (산둥여자대, 중국)	
16:15 - 16:50	토 론 참여자 전원	
16:50 - 17:00	휴식	
17:00 - 18:20	Session 3	좌장 임우경 (성균관대)
17:00 - 17:25	안수길의 '만주'시기 작품에 나타난 '타자' 인식	
	李海英 (중국해양대, 중국)	
17:25 - 17:50	만주의 말라리아와 식민지 개척지: 농업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김정란 (옥스포드대, 영국)	
17:50 - 18:10	토 론 참여자 전원	
18:10 - 18:30	폐회식	사 회 오영섭 (인하대)
18:10 - 18:20	연구 윤리 교육	
18:10 - 18:20	폐회사 김영순 소장 (다문화융합연구소, 인하대)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손영화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술대회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주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하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으며, “BK21FOUR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과 함께 공동으로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는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벌 다양성」입니다. 만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 다시 말해, 한국, 중국, 몽골, 만주의 문화는 서로 깊이 관련이 있으며, 이 지역의 문화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좋은 연구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문화실천과 글로벌 다양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지역적 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제적 영향을 끼치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매우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는 만주문화의 다양성과 그 영향, 만주지역에서의 한민족의 삶, 문화, 질병, 동북아문화경제공동체, 안수길의 만주시기 작품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깊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와 협력하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토론이 풍부한 학회가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열정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즐기고, 새로운 학문적 성찰의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
손영화



안녕하세요! 만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석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학술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와 만주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공동 국제학술대회가 알차게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제 발표”를 맡아 강연해 주시는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 자리를 찾아주신 객석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만주 및 동아시아의 문화 실천과 글로벌 다양성”입니다. 역시 “글로벌 다양성”이라는 말이 눈에 확 띄입니다. 제가 만주를 잘 모르지만, 만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실천”을 통해 “글로벌 공간”으로서의 만주, 그리고 이를 내포한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다양성”을 고찰한다는 구상인 듯합니다. “문화 실천”은 그 자체로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통해 “글로벌 공간”으로서의 만주 및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또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가 지향해 오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와도 잘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인 듯합니다.

이상의 취지에 걸맞게 오늘 열 분의 훌륭한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의 ‘만주 연구’를 위해 초석 놓으시고, 2001년 ‘만주사 연구회’를 토대로 만주학회를 창립한 이래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한석정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입니다. 또한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인 김영순 선생님께서 “중국 동북 지역의 소수 민족 문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는데, 평소 ‘다문화 사회’ 문제를 깊이 천착해 오신 선생님께서 중국의 ‘다문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수 민족’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시니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큼니다.

이밖에, ‘문화 실천’의 다양성을 고찰하는 국제학술대회답게 정말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와 ‘동물의 권리’, 풍속을 표상하는 ‘향토’ 재현 사진엽서, ‘오족협화’와 교육 혈통주의, 문화경제 공동체 개념과 전망, 만주와 한민족의 역사, 수렵 활동이 스포츠에 미친 문화적 영향과 특징, 문화 작품에 나타난 ‘타자’, 말라리아 문제 등등 제목만 보아도 흥미롭습니다. 오늘 좋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주학회로서는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인하대 '다문화융합 연구소' 김영순 소장님, 중간에서 인연을 맺어주신 최현식 선생님,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후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살려 앞으로도 뜻깊은 교류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3.

만주학회 부회장
박경석

Abstract	001
Topic Presentation	015
1 Transnational Manchuria and Manchurian Western Suk Jung Han (Dong-A Univ., Korea)	017
2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Ethnic Minority Culture in Northeastern China Young Soon Kim (Inha Univ., Korea)	029
Session 1	039
1 Can the Multiculturalism Approach Guarantee “Animal Rights”?: : Military Animal Memorials and the Japanese Army Toshihiko Kishi (Kyoto Univ., Japan)	041
2 The Problematic Representation of Imperial and Colonial Customs – The Case of Korean–Japanese–Manchurian ‘Local’ Representations in Postcards Hyun Sik Choi (Inha Univ., Korea)	065
3 The Colonial Ideal of Harmony of the Five Tribes and Educational Ideology Based on Lineage of Koreans in Manchukuo Yun Jeong Jo (Kookmin Univ., Korea)	087
Session 2	111
1 The Concept, Path and Prospect of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Jin Yu Qi (Minzu University of China, China)	113
2 Manchuria and Korean Ethnic History –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ae Ho Kim (Konan Univ., Japan)	153
3 Discussion o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Manchu Hunting : As well as the Effect of Manchu Hunting on Sports Juan Juan Zang (Shandong Women’s Univ., China)	163
Session 3	183
1 Recognition of “Others” in An Soo-gil’s “Manju” Period Works Hai Ying Li (Ocean University of China, China)	185
2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in Manchuria: Agricultural Immigrants Jeong Ran Kim (Oxford Univ., England)	205
Research Ethics Education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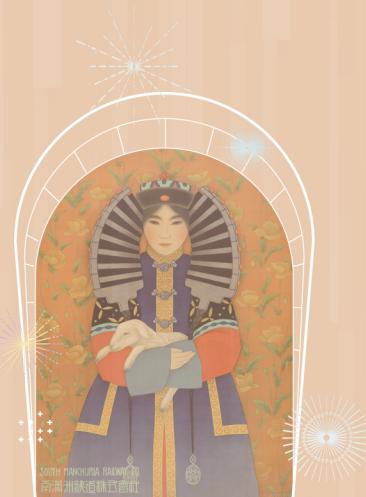
영문초록	001
주제발표	015
1 트랜스내셔널 만주와 만주웨스턴 한석정 명예교수 (동아대)	017
2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문화의 형성과 변천 김영순 교수 (인하대)	029
Session 1	039
1 다문화주의 접근법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 군용동물(軍用動物) 위령비와 일본 육군 貴志俊彦 (교토대, 일본)	041
2 제국과 식민지 풍속 표상의 문제성 - 한·일·만 ‘향토’ 재현 사진업서의 경우 최현식 (인하대, 한국)	065
3 오족협화라는 식민지적 이상과 재만 조선인의 교육 혈통주의 조윤정 (국민대, 한국)	087
Session 2	111
1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의 개념과 방향, 전망 祁進玉 (중앙민족대, 중국)	113
2 만주 지역과 한민족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김태호 (코난대, 일본)	153
3 만주족 수렵활동의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臧涓涓 (산둥여자대, 중국)	163
Session 3	183
1 안수길의 ‘만주’시기 작품에 나타난 ‘타자’ 인식 李海英 (중국해양대, 중국)	185
2 만주의 말라리아와 식민지 개척지: 농업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김정란 (옥스포드대, 영국)	205
연구윤리교육	231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xchange
in Manchuria and East Asia

**Manchuria and East Asian
Cultural Practices and Glocal Diversity**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컬 다양성



Abstract

| 영문초록

Topic Presentation 01

Transnational Manchuria and Manchurian Western

Suk Jung Han (Dong-A Univ., Korea)

By valorizing Manchuria as the stage of heroic resistance, 'Manchurian Western' performed a pivotal historiographical role of reproducing nationalism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Their masculine protagonists were no other than the symbol of South Korean nation assuming the mission of modernization. Manchuria, however, has a long history of ethnic cohabitation from Qing dynast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t further absorbed several millions of people from adjacent regions and, thereby, exhibited transnational elements in several realms. The official ideology of Manchukuo, 'harmony of five ethnicities' was based on this history. Manchurian Western had a fundamental disjuncture of representing fierce nationalism in the transnational setting.

The films tried to solve the stress of the Cold War through exotic scenes. Manchuria was an alien land, transcending narrow Korean perimeter. Once revealed, their exotic gaze expanded to the Japanes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A great paradox is that the films adapted not only the postwar Japanese 'continental genre,' Hollywood western, spaghetti western, but also the prewar works of Manchuria Film Association. Some Manchurian Western films later tried to transcend the obsessive Korean nationalism. The parodying, adaptation, synchronic and diachronic intermixing was their peculiarity. In the long term, such a creative hybridity proved to be the resources of the future Korean Wave, which is simultaneously pursuing both directions of globalization and nationalism.

Topic Presentation 02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Ethnic Minority Culture in Northeastern China

Young Soon Kim (Inha Univ., Korea)

The author's interest in Chinese minority culture stems from academic exchanges with the 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in Beijing. In 2015, my research team translated a Chinese ethnography written by Professor Yang Sung-Min, who wa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at this university. The Korean translation was divided into three volumes and titled <Chinese Ethnography 1, 2, and 3> and the subtitle was <56 peoples, One country>. Afterwards, I participated in the field researches conducted in Yunnan and Sichuan provinces in southwest China, and Liaoning, Jilin, and Heilongjiang provinces in northeast China. In particular, because the ethnic minority culture in northeastern China has deep cultural similarities with our people and deep cultural context, it was expected that studying the ethnic culture of this region would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Korean society, where cultural diversity is increasing. After three field trips to Northeast China from 2015 to 2018, the cultural ethnography <Understanding Minority Culture in Northeast China> (Bookkorea, 2021) was published. This manuscript was published by Kim Young-soon, Hwang Hae-young, and Jang Yeon-yeon (2021). This is an excerpt from "Understanding Minority Culture in Northeastern China," Book Korea, pages 15-30.

Culture contains the soul of a nation, and the nation's historical origins, production, and lifestyle are intact in their living culture.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each nation faces. As humans live in various geographical environments, they adapt to the natural environment for survival. These adaptations shaped their early culture and gave rise to various forms of life, including gathering, hunting, farming, and nomadism. Unlike the Han Chinese culture in the central plains, most ethnic minority regions created a material, spiritual, and institutional culture based on the natural ecosystem. This creates cultural quality and meaning unique to each nation. If classified based on ethnology, this is a nature-worshipping and material-based ecological culture. This culture has been closely linked with the natural ecosystem, from production methods to lifestyles, from conceptual areas to practical processes, and has become one.

Session 1-1

Can the Multiculturalism Approach Guarantee “Animal Rights”? : Military Animal Memorials and the Japanese Army

Toshihiko Kishi (Kyoto Univ., Japan)

In the purview of this scholarly endeavor lies the aspiration to elucidate the nexus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the concept of 'animal rights'. However, my talk does not venture into the intricate theoretical tapestry of 'animal rights' or seek to advocate for its merits. My primary objective is to discern the multifaceted dynamics inherent to the interrelation of fauna and human societies, particularly during epochs wherein the ethos of 'animal rights' was ostensibly acknowledged — notably during wartime. Such a focus emerges from the observation that war often curtails the liberties of both homo sapiens and other species under the pretext of mobilization, simultaneously disseminating narratives that seemingly uphold these very rights. Within this discourse, our attention pivots to the wartime milieu of imperial Japan and Manchukuo. In these territories, a facsimile of multiculturalism — embodied in ideals such as ethnic 'independence' and the 'symbiotic coexistence of the five races' — was propounded. I seek to interrogate the realities faced by wartime mobilized species, namely horses, dogs, and pigeons, and question if their rights were either upheld or relegated to obscurity. By foregrounding these empirical insights, we aspire to inaugurate a novel academic dialogue, contrasting the oft-neglected historical discourse on 'animal rights'.

My talk will proceed with the following structure.

Introduction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culturalism Approach and the "Animal Rights" Theory

1. institutional treatment of military animals before and during the war
 - (1) "Personification" of military animals
Implementation of "draft inspection" / Celebration of going to war / Military merit badge / Military training / Erection of Memorial Monuments, holding memorial services
 - (2) Control of military animals
Japan Horse Association / Imperial Military Dog Association / Dainippon Military Pigeon Association
2. Two Trends in Postwar Animal Memorials
 - (1) The dedication of the Yasukuni Shrine Cenotaph
 - (2) As part of the peace movement

Conclusion

多文化主義アプローチは「動物の権利」を保証できるか — 軍用動物慰霊碑と日本陸軍

貴志俊彦（京都大学東南アジア地域研究研究所・教授）

多文化主義と「動物の権利」の関係の進展を目的としながらも、本報告の目的は、「動物の権利」を理論的に掘り下げたり、それを擁護したりすることではない。むしろ、「動物の権利」が疑似的に尊重された時代、すなわち戦時下における動物と人間社会との関係性についての諸事実を洗い出すことを課題としている。なぜなら、戦争は動員する人や動物の権利を抑圧する一方で、あたかもこうした権利を容認したかのようなプロパガンダを浸透させよう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ここでは、戦時下の帝国日本および満洲国において、民族の「独立」や「五族協和」など疑似的な多文化主義が標榜されるなかで、戦争に動員された軍馬、軍犬、軍鳩をめぐる環境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それは保証されたのか、あるいは疎外されたのか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これまでの歴史学で看過されてきた「動物の権利」論に対して、まずは諸事実を掘り起こすことで、この問題への学問的門戸を開放することを試みるものである。報告の構成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はじめに～多文化主義アプローチと「動物の権利」論の関係

1. 戦前・戦中における軍用動物の制度的処遇

(1) 軍用動物の「人格」化

「徴発検査」の実施／出征祝い／軍功章／軍事訓練／慰霊碑の建立、慰霊祭の開催

(2) 軍用動物の統制化

日本馬事会／帝国軍用犬協会／大日本軍用鳩協会

2. 戦後の動物慰霊の二つの潮流

(1) 靖国神社の慰霊碑奉納を契機として

(2) 平和運動の一環として

おわりに

Session 1-2

The Problematic Representation of Imperial and Colonial Customs – The Case of Korean–Japanese–Manchurian ‘Local’ Representations in Postcards

Hyun Sik Choi (Inha Univ.,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s in which Japanese imperialism imaged and characterized the ‘local’ in Japan, Manchuria, and Korea. Japanese imperialism imperialized the ‘local’ of its own country and colonies around empires, the pinnacle of new civilization and power. However, in doing so, it performed the paradox of peripheralization, thoroughly ‘provincializing’ the ‘local’ of the three countries. At first glance, the postcards’ views and attitudes toward the ‘local’ in Japan, China, and Korea appear to be homogeneous. In reality, however, they consistently adhere to a carefully calculated strategy of differential hierarchization and subordinate systematization.

In the case of Japan’s ‘local’, the postcards erase the image of pre-modernity and colonialism as much as possible, reorganizing and positioning it as a place of ‘national spirit’ and unity. Manchuria’s ‘local’ is dichotomized into the original Manchuria of ignorance and the state-of-the-art base of ‘welfare filled’ with ‘Japanese spirit’, based on a high-modernization strategy. On the other hand, the ‘local’ of Joseon is represented by taking pre-modern Joseon(people) and their lives in isolation, or by displaying them alongside modern artifacts constructed by imperial capital(technology).

The production of these differentiated images of the ‘local’ in these three countries reveals the insidiousness and violence of the gaze from a position of power. The imperial gaze does not objective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local or colonized areas, but rather rearranges, shapes, and categorizes the conquered places to suit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colonial power. The effects of colonization in Manchuria and Korea are revealed in the following ways. Japanese imperialism’s violent acts of rule the warm experiences and beautiful memories of the ‘homeland’ of the colonized ‘human animals’ who were derided as ‘coolies’ and ‘yobos’ into the ‘ominousness of desertion’. As a result, the ‘homeland’ of the deprived or lost peoples and selves is always left as a blank space, and by repeating it again and again, it is bound to fall into a space of ‘death-in-life’ that can never be recovered.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only frown upon and increase the intensity of our criticism of th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f barbarism and savagery, contempt and degradation, assimilation and exclusion, that Japanese colonialism inscribed on Korean subjects and their lands.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find sharp eyes and ways to peel away even a little bit of the typical colonial (un)consciousness or pre-determined stereotypes imposed by this terrible colonial discourse. In short, gestures and actions that carefully search for traces or indicators of a ‘life-in-death’ that in some way slips or splits from the ‘Japanese spirit’ become more urgent.

Session 1-3

The Colonial Ideal of Harmony of the Five Tribes and Educational Ideology Based on Lineage of Koreans in Manchukuo

Yun Jeong Jo (Kookmin Univ., Korea)

The Colonial Ideal of Harmony of the Five Tribes and Educational Ideology Based on Lineage of Koreans in Manchukuo

Jo, Yunjeong(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educational passion displayed by Joseon migrants during the period of Manchukuo's imperial education policy following the Sino-Japanese War. Manchukuo was a nation-state that was a product of the colonial imagination, aiming to bring together people from five different ethnic groups – Japanese, Korean, Manchurian, Mongolian, and Russian – in harmony.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ducation system in 1937, Japanese was enforced as a mandatory subject across all school levels. Furthermore, the reduction in the duration of the school year created obstacles for Manchu or Korean students aspiring to advance to higher-level institutions. Research on education in Manchukuo has focused on revealing that the Japanese education plan was put into place with a view to nurturing royal imperial subjects. Engaging in education inherently assumes the existence of educational authority and the relative freedom of those who carry it out. And this inevitably leads to a desire to imitate the educated, which undermines the authority of the educator.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of individuals who embraced it, in order to analyze the reactions of Korean teachers, parents, students, and community leaders within the educational context of Manchukuo. Using education-related articles from newspapers and Ahn Soogil's novel as my sources, I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culture of Koreans who embraced Japanese educational policies and dissected the school motifs in the novel to uncover the flaws in the ideology of harmony of the five tribes in Manchukuo. In the educational movement of Koreans in Manchukuo, there were not only conflicts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but also internal conflicts among Koreans. By examining these factors, this study delineated the difference between educational ideals and the real circumstances.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among Koreans residing in Manchukuo is noteworthy because it exposes the flaws in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era and the conflicting opinions of Koreans living in Manchukuo who sought to appropriate it.

Keywords: Manchukuo, Koreans in Manchukuo, the ideology of harmony of the five tribes, education policy, new education system, educational passion, Education Supporters' Association for Korean in Manchukuo, community leaders, appropriation

Session 2-1

The Concept, Path and Prospect of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Jin Yu Qi (Minzu University of China, China)

The existences of historical connections, intertwined racial-ethnic affinities as well as efficient communications and intensive interactions among the northeast Asian nations have shortened the distances for all inhabitants in the region culturally, economically and personally. By taking advantage of abundant regional cultural and traditional resources, the construction of NEACEC with its appealing has enhanced the regional inter-cultural identity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circumstance of the extensive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within the region against globalization. In contrast to the “Globalization Theory,” this article depicts the “Theory of Local Knowledge” in order to bring in an in-depth discussion of potential access an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ACEC.

Keywords: Northeast Asia, Cultural Economic Community, Geopolitics, Cultur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Transnational Mobility

Session 2-2

Manchuria and Korean Ethnic History –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ae Ho Kim (Konan Univ., Japan)

日本 甲南大學 教授 金泰虎

This presentation identified the footsteps and borders of the countries focusing mainly on the Korean people in Manchuria over tim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and examined the stages of their activiti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people in Manchuria, it outlined their distribution as an ethnic group, the history of their borders, their power as a political group, and the events and movements that changed their boundaries under those forces. The borders surrounding the Korean people were developed based on the conventional theory, and a new theory on border history was also introduced.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point of view, the footsteps of the Korean people in Manchuria ended in Gojoseon, Buyeo, Goguryeo, and Balhae. However, according to the new theory, the footsteps of the Korean people in Manchuria continued after the Unified Silla Dynasty, into the Middle Ages and early modern times. Historically, Manchuria was not only a region from Gojoseon to Buyeo, Goguryeo, and Balhae, but also a region where the Korean people were active in opposing Japanese colonial rule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nation-state. Even today, the Korean people in Manchuria, China, live as a minority ethnic group called Korean-Chinese.

Session 2-3

Discussion o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Manchu Hunting: As well as the Effect of Manchu Hunting on Sports

Juan Juan Zang (Shandong Women's Univ., China)

By employing literature, investigative approaches, and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origin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etal functions of hunting activities within the Manchu community. The goal is to offer a reference point for research on traditional sports culture among the Manchu people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The research asserts that hunting as a productive activity is a manifestation of the Manchu people's diligence and wisdom, bearing strong ethnic and regional traits. It encompasses cultural elements such as totem worship, folk religion, and ethnic fusion. Its societal functions are primarily manifested in ethnic aesthetics, the preservation of social order, the enhancement of cohesion, and the perpetuation of culture.

Keywords: Hunting; Manchu sports; Cultural symbolism; Societal functions.

Session 3-1

Recognition of “Others” in An Soo-gil’s “Manju” Period Works

Hai Ying Li (Ocean University of China, China)

An Su-gil positioned 'us', the Korean people, in the Manchurian Empire, not as pioneers but as docile contributors who contributed to the founding of the nation. He thought that it was only at the cost of Ik-su's death that a truce was called in Manchuria, and Sohyeon-jang, who committed tyranny against Koreans who were ambiguous in the name of fighting against Japanese invasion, c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 of China. He emphasized that the early migration of Koreans to Manchuria happened under the policy of attracting Korean farmers, which was in accordance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Manchurian' development plan. By emphasizing that behind the initial migration to Manchuria, there was a policy of attracting Korean farmers according to the Chinese government's development plan for Manchuria, and he argued that Koreans were far from pioneers by emphasizing that Korean farmers cultivated wastelands abandoned by natives rather than already cultivated land into paddy field. This is because, as a Korean writer in Manchuria, An Su-gil was keenly aware of the Korean people's 'stuck-in-between' situation. In fact, this work is a paradox of the Manchurian writer Orang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people's position as an intermediary between 'Naisen ittai(Unity in Japan and Korea)' and 'Seonman-ilyeo(Unity in Korea and Manchukuo)'.

As for the 'Manchurians', the natives who take up the absolute majority of 'Manchuria'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others to the Koreans, Su-gil Ahn saw them as brothers-like neighbors who should be reconciled beyond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Most of the images of Manchurians in An Su-gil's works from the 'Manchurian' period are portrayed positively and favorably toward Koreans, and objective. In case of malicious intent, he tried to analyze the cause and background of such malicious intent in detail from historical and social aspects and sugges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In particular, An Su-gil's style of discourse, in which the 'Manchurian' farmers began to understand and accept Korean immigrants as neighbors in return for their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is also seen in the works of the 'Manchurian' writer Lee Gyo of the time. If the Korean writer believed that reconciliation and harmony with the native 'Manchurians' was a desirable relationship that must be achieved even at the expense of Koreans, the author of 'Manchurian' believed that because of the sacrifices of the Korean people, the indigenous people of 'Manchuria' were able to break away from distrust and prejudice against Koreans, who were foreigners, and truly accept them as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recognition that both sides were based on the sacrifice of Koreans is significant.

The image of the Japanese appears very rarely in An Su-gil's works as well as other writers, and An Su-gil viewed the Japanese as the de facto rulers of Manchuria, with whom the true harmony was impossible to be realized. In 'Manchuria', the 'Japanese' and 'Koreans' are in a relationship of the dominators and the dominated, the initiate and the initiated, and they could ask and give help, but they could not achieve true inner harmony of spiritual connection.

Session 3-2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in Manchuria : Agricultural Immigrants

Jeong Ran Kim (Oxford Univ., Englan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Manchuria was designated as a key producer of raw materials for Japan and cereal was one of its most important resources. When Japan acquired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 and southern part of Manchuria, the Japanese government sent Japanese farmers to the new territories for strategic reasons. They were supposed to cultivate crops and raise livestock on the vast lands of South Manchuria, mobilising cheap labour forces such as Chinese and Koreans. Particularly, Korean farmers were designated to reclaim waste-land and develop waterways for rice farming in Manchuria. However, this policy produced ecological disruption and, combined with the mass movement of migrants, this resulted in malaria becoming a new menace in South Manchu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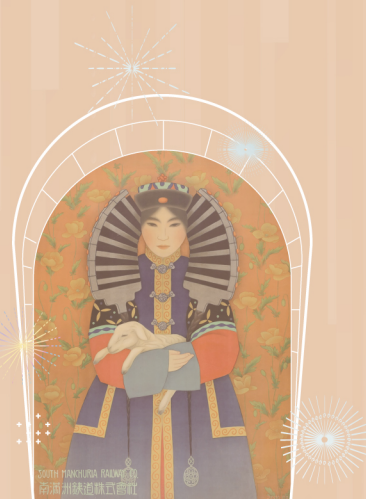
After Manchukuo was established in 1932, the northern region of Manchuria, which bordered the Soviet Union, came under the Japanese influenc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Kwantung Army began to move forward with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emigration to the hinterland in Manchuria. As a result, the malaria outbreak extended to northern Manchuria, debilitating farmers' physical strength and causing a huge loss of manpower for agriculture. Wartime austerity added to the problem by causing a severe shortage of commodities including anti-malarial drugs. As a result, farmers became extremely vulnerable to malaria. A few Japanese experts devised two methods to control malaria at low cost.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ontrol the disease in those ways alone, because effective malaria control requires intensive mosquito control and adequate medical treatment with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coordinated with better public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These socio-economic factors never improved for farmers in Manchuria under the war regime and anti-malarial methods could not bear fruit over the long term, particularly for Korean farmers who, as imperial subjects, lived in poorer conditions.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xchange
in Manchuria and East Asia

Manchuria and East Asian Cultural Practices and Glocal Diversity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컬 다양성



Topic Presentation | 주제발표

1 Transnational Manchuria and Manchurian Western Suk Jung Han (Dong-A Univ., Korea)

트랜스내셔널 만주와 만주웨스턴
한석정 명예교수(동아대)

2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Ethnic Minority Culture in Northeastern China

Young Soon Kim (Inha Univ., Korea)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문화의 형성과 변천
김영순 교수(인하대)

서론

오랜 기간 만주는 항일운동의 성지로 인식되어왔다. 여기에는 196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조선인 독립군이 일본군과 맞서 통쾌한 활극을 벌이는 만주웨스턴의 공헌이 있었다. 이것은 과거의 노골적인 항일영화에 식상한 관객들에게 할리우드 웨스턴풍의 액션을 선사하면서 장기 흥행을 이어갔다. 독립군과 일본군 양자만을 등장시켜 절대다수의 여타 에스닉을 삭제하는 등 만주 근대사를 단순화시켰으나, 만주는 기실 트랜스내셔널한 곳이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수백만의 인구를 흡인한 동양의 엘도라도였고, 만주족을 포함, 십여개 에스닉들이 거주했던 무대이다. 만주국(1932-1945)의 문화 세계는 동서양 요소들이 뒤섞였다. 그 공식 이념인 오족협화는 이런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

만주웨스턴은 만주국의 국책영화회사인 만주영화협회(만영滿映)가 제작한 영화들과 60년대 할리우드 영화, 스파게티 웨스턴 등의 공식적, 통시적인 영향의 산물이다. 이 배경은 강박적 항일 내셔널리즘을 흔들 소지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우선 만주웨스턴의 여러 국제적 영향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트랜스내셔널 만주를 항일 내셔널리즘으로 처리하려는 그 사명의 어느 지점에서 균열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리하여 글로벌시대에 한국 내셔널리즘의 위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트랜스내셔널 만주

20세기 전반 만주는 중국, 조선, 일본의 지식인, 예술가, 농민 수백만명을 유인했다. 일본의 농본적 이상주의자들이 도래하고, 일부는 러시아적 생활양식에 이끌리기도 했다. 조선, 중국, 일본, 러시아 문학가들은 여러 잡지를 통해 수백 편의 문학서적을 출판, '만주문예', '만주낭만'이라는 문학 장르를 탄생시켰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광수 등 조선 선각자들의 행선지가 도쿄였다면, 1930년대 조선 지식인들의 행선지는 만주였다. 만주 기행문도 크게 유행했다. 러시아혁명 후 하얼빈으로 피난 온 백계 러시아인들은 일본 클래식 음악의 창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만주는 동서양 노래의 실험장이 되었다. 조선과 일본에서 만주에 관한 가요가 수백 개나 만들어졌다. 오늘날 창춘 구 중심가인 바다부(八大部)에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관공서 건축양식도 동서의 혼합 디자인이다.

또한 만주는 유라시아니즘의 싹이 돋았던 곳이다. 일본과 독일의 파시스트 동맹은 사회동원, 통제경제 등에 관한 지식과 문화교류를 마련했다. 이 맥락에서 1943년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자신의 『만주환상곡』을 지휘했다. ‘동양의 파리’ 하얼빈에는 러시아인을 포함, 무려 53종의 에스닉과 45종의 언어가 공존했다.¹⁾ 한때 약 6만 명의 서양인들이 살았던 이곳에 수십개의 서양풍 바로크식 건물들이 세워졌다.²⁾ 이들은 중국대륙 최초의 백화점, 맥주(하얼빈맥주), 택시, 그리고 하얼빈역, 러시아 총영사관(후일 아마토호텔), 여러 성당, 외국인 묘지 등 슷한 문화유산을 남겼다.³⁾ 유대계 문화비평가 크라카우어가 1920년대 파리에서 관찰한 “이질성의 공존”이⁴⁾ 하얼빈 거리에도 존재했다.

만주웨스턴 전사

만주웨스턴의 성공비결은 항일 내셔널리즘의 강요나 단순한 선악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하얼빈, 북만주 등(을 가리키는) 광활한 지형과 설원 장면, 중국 여인과 마적, 비적이 등장하는 이국적 분위기, 마상의 전투, 스키부대, 일본 관동군 트럭과 헌병대 사이드카, 암흑가의 배신, 삼각관계, 화려한 배역 등 풍부한 오락거리에 있다. 특히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듯한 장동휘와 가련한 여인상을 거부한 육체 파 배우 김혜정의 조합은 흥행의 보증수표였다. 식민제국의 생활권이었던 동아시아는 해방 후 민족국가의 심상지리로 그 경계가 조정되었다. 해방 후의 귀환서사들도 일본, 만주 등지에서서의 부끄러운 기억과 경험을 청산하고, 새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구조와 경계로 이루어졌다.⁵⁾ 이것은 만주 출신 안수길이 좁아터진 서울 하늘 아래에서 만주 체류 시절에 대한 짙은 그리움인 ‘만주 노스텔지어’에 사로잡히고, 시인 김수영이 꿈꾼 상상의 국제여행(1965년의 「시작 노트2」)조차 일본, 미국, 서유럽, 홍콩으로 제한된 “폐쇄적, 반쪽자리 지정학”이었다.⁶⁾ 만주웨스턴은 정치,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절반에 갇혀 살던 관객들에게 경계 너머의 세상을 선사했다. 이영재가 말한 대로, 냉전구도의 폐색감이 만주가 상상되는 출발점이었다.⁷⁾

1930년대 조선사회에 일었던 해외진출 붐의 첫 행선지가 만주였다. 만주웨스턴은 1930년대의 만주, 1940년대의 동남아 등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영역인 대동아공영권을 따라 시선을 확장시킨다. 해방 전 조선의 지식인들도 만주, 중국, 남양을 젠더화된 식민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깜둥이 나의 여인아, 어서 너의 키-타를 들어...”라고 노래한 1940년대의 남양 담론에서 야릇한 오리엔탈리즘이 드러난다.⁸⁾ 해방 전후 제작된 일본의 영화와 가요들은 조선인들에 은은하게 영향을 미쳤다. 일본군

1) Thmas Lahusen, “Introduction,” *South Atlantic Quarterly*, vol. 99, no. 1 (2000), p. 2.

2) 이들의 인구는 1931년 약 6만 명였다가 1940년 3만 명으로 줄었다. Mark Gamsa, *Harbin: A Cross-cultural Biograph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20), pp. 136, 194;

3) 紀風輝, 『哈爾濱尋根』(哈爾濱: 哈爾濱出版社, 1996), pp. 164-202.

4) Siegfried Kracauer, *The Mass Ornament: Weimar Essays*, tr. Thomas Lev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 43.

5) 정종현,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40집(2006), p. 148.

6) 한수영, 「내부망명자의 고독-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1집(2012), pp. 286-287.

7) 이영재, 「신화의 창출, 무법의 창출」, 『사이』, 8집(2010), p. 254.

가나 전시 유행가들에는 용맹, 죽음을 예감한 애절함,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이 배어있다.⁹⁾ 〈남양향로〉(일명 라바올의 노래)(1940)는 뒷날 한국 군인들이 애창하는 〈해병말뚝가〉, 〈영자의 노래〉의 전신이다. 제국일본 해군의 남양 본부였던 라바올의 경치와 여인을 읊었던 것이 해방후 한국군인들이 휴가지에서 만난 익명의 여인 영자에 대한 외설적인 노래로 전환되었다. 영자는 소설, 『영자의 전성시대』(1973)에서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시대의 상경 농촌 여성의 인생유전의 주인공이다. 경계를 초월하여 변형하는 문화적 특성이 여기에 담겨있다.

1930년대 일본은 빅터 등 구미 레코드사의 진출과 현지 법인화, 라디오, 잡지 등 매체와 재즈, 댄스 홀, 찻집의 번성에 힘입어 유행가의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일본의 레코드사들이 조선에 진출, 박시춘 등 조선의 선구적 트로트 작곡자, 가수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았다.¹⁰⁾ 전전 유명 군가와 전후 최고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노래들을 작곡한 일본 엔카의 제왕 코가 마사오(古賀政男)는 해방 전후를 통 털어 가장 중요한 참고 대상이었다.¹¹⁾ 만주를 배경으로 한 조선의 여러 노래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¹²⁾ 해방 후에도 코가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¹³⁾ 미소라 히바리(1937-89)의 히트곡들은 일본 TV나 방송의 청취가 가능한 부산, 동해안 일부지역의 중년들 사이에 유행했다. 1990년대까지도 그녀의 노래가 은밀히 참고되었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만연했다. 1962년까지도 한국영화의 30%에서 60%까지가 일본영화의 표절, 변안 작품이었다.¹⁴⁾ 금방 들통이 나서 왜색, 표절로 금지되든 간에 일단 먼저 발표해서 돈을 벌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했다. 신성일의 출세작, 영화, 〈맨발의 청춘〉(1964)도 그렇게 탄생했다. 발표 직후 금지된 일본의 명곡도 있었다.¹⁵⁾

8)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책세상, 2005), pp. 388-411.

9) 〈숲속의 오솔길〉(1940), 〈비파호琵琶湖 애가〉(1940), 〈고원의 달〉(1942), 〈부계도婦系圖의 노래〉(호반의 아가씨)(1943), 〈남쪽의 신부〉(1943), 〈남쪽에서, 남쪽에서〉(1943), 〈젊은 독수리의 노래〉(해군가, 1943) 등이 그런 보기이다. 하이다 가쓰히코(灰田勝彦)가 가너린 목소리로 불렀던, 〈자바의 망고 장사〉(1942), 〈바타비아의 밤은 깊어가고〉(1943)의 제목과 반주, 분위기는 한국의 국민가요, 〈신라의 달밤〉, 그리고 월남전 시대에 제작된 〈월남의 달밤〉(1966)과 유사하다.

10) 貴志俊彦, 『東アジア流行歌アワ-: 越境する音, 交錯する音楽人』(東京: 岩波, 2013), pp. 15-21; 코가의 노래, 기타 반주와 여성적 비음 가수 키리시마 노보루(霧島 昇)(1914-1984)의 조선 판 콤비가 해방 전 거물 작곡자요, 기타리스트인 박시춘과 최고가수 남인수였다. 둘은 히트곡 〈애수의 소야곡〉(1938), 〈감격시대〉(1939) 등에서 호흡을 맞추었다.

11) 코가 마사오풍의 분위기, 전주, 특정 소절들은 조선 음악인들에게 일대 유행이 되었다. 이준희에 의하면, 해방 전 그의 작품을 변안한 조선의 노래가 44곡(확인되는 것만)에 이른다. 이준희, 『일제시대 인천 지역의 대중음악적 위상』, 『인천학연구』 9집(2008), p. 16.

12) 출처, 『만주 모던: 1960년대 한국개발체제의 기원』, pp. 124-29; 貴志俊彦, 『東アジア流行歌アワ-』, p. 54;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본대중문화 수용의 사회사: 일제 강점기 창가와 유행가를 중심으로』, 『계간낭만음악』, 2000(겨울호), pp. 64-65; 〈永遠の古賀メロデー〉(Nippon Columbia, 2012) 참조.

13) 예컨대 박춘석의 〈삼팔선의 봄〉(1959) 마지막 소절은 코가 마사오의 〈피레네 산의 남자〉(1955)의 것을 그대로 본따다.

14) Jinsoo An, "Figuring Masculinity at Historical Juncture: Manchurian Action Films" (Chapter 3), of his PhD dissertation, "Popular Reasoning of South Korean Melodrama Films (1953-1972)" (UCLA, 2005), pp. 162-65.

15) 일본의 히트송, 〈위를 보고 겐자上を向いて歩こう〉(사카모토 큐坂本九 노래, 1961)(일본 가요 중 최초의 빌보드차트 상위곡)는 최희준이 불러 최단 기간 유행한 뒤 금지되었다.

해방 후 국외로 시선을 넓힌 거의 최초의 영화는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일 것이다. 이것은 극작가 한운사가 자신의 학도병 징집 경험을 살려 만든 공전의 히트작 방송극(1960년 8월에서 1961년 2월까지 K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원작으로 한다. 신징음악단 출신 김성태가 주제가를 맡았던 이 작품은 일본 패망 직전 일본군의 총알받이가 되어 한일해협을 건너 나고야의 한 부대로 배속된 조선인 청년 아로운(김운하 분)의 삶을 그린다. 형극의 병영생활, 조선의 처지를 연상시키는 아로운의 소년 이미지(작은 체구와 앳된 얼굴, 슬픈 눈망울의), 구타를 일삼는 일본 고참 군인들, 일본 영화, <인간의 조건>(1959)에 등장하는 '일본군 50년 전통'인 그들의 가학성(예컨대, 고참의 군화에 묻은 똥을 신참이 핏하게 만드는), 아로운과 일본 여인 히데코의 사랑, 조센징을 도둑놈으로 보는 히데코의 편견, 둘의 결합을 반대하는 그녀의 어머니, 미군 공습 중의 밀애, 미군 포로의 즉결 참수, 남양행 출발 전야의 탈주, 소이탄으로 불바다가 된 시가지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장면들을 선보였다. 특히 시작 부분 수송선을 뒤흔드는 한일해협의 넘실거리는 파도는 이산과 유랑 등 해방 전 조선인들을 삼킨 운명의 이미지였다. 아로운을 태운 시모노세키행 수송선에서 막바지 사지(死地)의 남양행 수송선까지 영화는 연속으로 원거리를 이동했다. 영화의 일부 분위기는 태평양전쟁시 필리핀 도서에서 벌어진 극한 상황을 그린 일본의 전쟁 서사극, <들불> (野火) (1959)을 닮았다.

트랜스내셔널 만주웨스턴

만주웨스턴은 이런 이국을 본격적으로 선사했다. 그 효시인 <두만강아 잘 있거라>(1962)의 추상적인 만주는 후속작품들에서 요동땅, 신징, 하얼빈, 자무쓰, 소만국경, 북만주 광산촌, 하바롭스크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국제성이 강화된다. <여마적>은 러허의 중국 마적단 여두목과 조선인 베이징대학생 형제의 삼각관계를 통해 사랑과 항일이 얽힌 한중 간 협력을 다루며, <광야의 호랑이>는 북지(北支, 중일전쟁 직후 일본의 점령지 중국북부) 별판으로, 즉 일본제국의 팽창 무대로 시선을 넓힌다.

대동아공영권과 동연의 시선은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1965)에서 극대화된다. 이것은 태평양전쟁시 일본군이 진격했던 남양을 무대로 한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와 <대지여 말해다오>에서 선보였던 영내의 조선인 출병에 대한 일본 고참의 학대가 반복된다. 조선인들 중에는 제국의 2등국민으로 행세하려는 조선인 장교와 기타의 두 부류로 분화되며, 조선인 장교와 일본 고참 병사 간의 애매한 관계도 설정된다. 주인공은 민족적 각성 뒤 버마 항일 게릴라들을 돕다가 그 일원(뒷날 처형되는 버마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그는 중국에 오해를 받아 게릴라들에 의해 피살된다. 일부 조선인들의 2등 국민적 사고, 남양전선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운명, 즉 남양 포로 수용소의 경비를 맡았다가 전후 전범으로 몰려 처형된 조선인들에 대한 암시, 정글과 남태평양, 버마 원주민들의 복장, 배경 음악, 즉 당시의 히트 팝송인 <진주 조개잡이>, 버마 여인과의 사랑 등을 통해 지역적, 인종적 국제성은 정점에 이른다.

이 국제성은 70년대에 상하이, 홍콩, 부산 부두를 배경으로 하는 해양성 액션물로 이어진다. <떠나는 왼손잡이>(1970)는 해방후 부산항의 암흑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해방 전 만주의 주먹 상하이 박에 의해 만주가 회상으로 연결되는 만주웨스턴의 변형이다. 부산은 해방 전 만주행 이민, 해방 후 귀국의 물결, 한국전쟁의 피란민 등 한국 현대사를 물씬 풍기는 장소성, 즉 국제시장, 남포동, 영도다리, 40계단, 부산항, 용두산 등을 뿜어내는 곳이다. 부산항에서 마도로스와 부산 아가씨들과의 이별을 노래한 해양성 가요들도 다수 제작되었다. 해방 이래 60년대까지 부산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확인되는 것만) 33곡이다.¹⁶⁾ 70년대 한국영화의 국제성은 홍콩, 부산을 배경으로 한 해양성으로 변화할 채비를 하는데 그 기원은 만주였다. 1960년대 해양성 가요들의 기원도 1930, 40년대 만주를 소재로 한 노래였다. 상하이 박의 이미지는 하얼빈, 신징의 암흑가를 주름잡던 만주웨스턴의 협객으로부터, 1960년대 일본 야쿠자 영화, 더욱 거슬러 올라가 1940년 무렵 만영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의인(義人)에서 비롯된다.

전후 일본 대륙물의 영향

만주웨스턴은 60년대 초 영화수요에 비해 영화 스토리의 공급이 달리는 현실과 일본의 문화침투에 대처하여 관리된 장르라 할 수 있다.¹⁷⁾ 그런데 그 제작에는 전후, 전전 일본 대륙물의 참고, 즉 공, 통시적 변안의 역사가 있다. 1920, 1930년대에 서구 영화가 일본 영화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 영화는 한국 영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해방전 일본 영화인들은 촬영, 편집, 녹음 등 조선영화 제작을 도와주었고 조선인 감독들은 조선의 토착미로 제국의 시장을 두드렸다. 해방 후에는 일본과의 교류가 10여 년 단절되었지만 일본어 교육을 받은 한국 지식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본의 대중문화 경향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컨대, 극작가 한운사는 1960년 일본에서 소설, 영화, <인간의 조건>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춘몽>(1965)을 만든 유현목은 일본 영화, <백일몽>(1964)의 시나리오를 구해서 읽어보았다.¹⁸⁾ 한일수교(1965) 이전인 1960년대 전반에 이미 해적판 번역들이 마구 쏟아지는 등 일본의 전후문학과 대중소설의 번역 붐이 일어났다.¹⁹⁾ 이것은 폐쇄적인 시대를 초월하는 한일 간 문화교류의 상징이다.

16) 1940, 50년대 13곡, 60년대 20곡이다. 다수가 <잘 있거라 부산항>, <안개끼 부산항>, <부산 마도로스>, <아메리칸 마도로스> 등 부산항의 이별을 노래한 것이다. 차철욱·공윤경·손영삼, 「1950-60년대 대중가요 속의 부산 장소성」, 『문화역사지리』 21권 2호(2009), pp. 3-4.

17) 안진수, 「만주액션영화의 모호한 민족주의」, 『만주연구』, 8집(2008), p. 213.

18) 한운사, 『구름의 역사』(민음사, 2006), p. 126; Alexander Zahlten, "Daydreams," in M. Downing Roberts, ed., *Place and Space in Japanese Cinema: From Inside to Outside the Frame* (Tokyo: UTCP, 2012), p. 43.

19)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천년의 상상, 2012), p. 517. 예컨대, 고미가와 슌페이(五味川純平) 작 『인간의 조건』은 삼중당(김광주 역, 1960), 일우사(이용구 역, 1961) 등 여러 곳에서 줄속 번역, 출판되었다. 『빙점』(1965)은 출판 직후 한국에서 번역되어 1960, 70년대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녀의 소설은 역사상 최다인 백수십 편으로 번역되었다.

박기정의 인기 만화, 『도전자』(1964-65)도 일본의 청춘 폭력 영화를 참고했다.²⁰⁾ 일본 영화의 도전자의 이미지들, 즉 흠어머니, 반항적인 얼굴, 윗단추를 푼 검정색 학생 복장, 복싱시합 중 맞아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투지 등이 박기정의 주인공 백훈이에게 연결되었다. 그는 훗카이도 탄광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의 아들로 나고야에서 성장하는데, 일본인 의붓어머니를 둔 것이 원작과의 큰 차이점이다. 한일수교 이전에 만들어진 박기정의 만화는 재일동포 복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일본사회의 인종차별에 저항한다. 동시에 자애로운 일본인 의붓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해방전 만주에서 태어나 자란²¹⁾ 저자의 삶, 아비투스, 즉 해방후 전개된 공식적 내셔널리즘과 별개로 자신이 직접 겪을 수 있었던 재만 일본인들과의 친숙함 혹은 우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미래의 한일 화해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윤재민이 말한 대로 작가는 내셔널리즘의 주제를 표방하면서도 당시 규제 대상이었던 왜색 문화를 공공연하게 상연했다.²²⁾

만주웨스턴은 일본을 방문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일본소설, 영화잡지 류의 밀수입, 해적판, 상상, 풍문, 귀동냥, 먼 기억 등의 산물이었다. 김소영은 70년대의 활극이 검술영화, 할리우드, 홍콩 액션 영화와 접치는 “콘택트 존”이라 했는데,²³⁾ 60년대 만주웨스턴이 이미 그 물꼬를 텄다. 만주웨스턴은 1950년대 후반부터 약 십년간 번성했던 일본의 니카츠(日活), 도에이(東映), 다이에이(大映)가 제작한 활극의 영향을 받았다. 니카츠가 무국적성의 방황하는 젊은이 혹은 이들의 자아 찾기를 주로 그렸다면, 도에이나 다이에이 영화들은 야쿠자 필름이나, 맹인 검객 자토이치 등 시대극에 치중했다. 극장 숫자가 1945년 845개에서 1957년 6천개 이상으로 늘 정도로 1950년대 일본영화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환경에서 몇 감독들은 전후 휴머니즘이나 전투장면의 묘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다.²⁴⁾ 어떤 활극들은 급속한 근대화와 보수정치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철로, 공항, 온천 건설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한 탐욕적, 부패한 야쿠자에 대항하는 정통 야쿠자도 등장한다.²⁵⁾

20) 〈나는 기다릴 것이다〉(おれは まってるぜ)(1957), 〈 챔피언〉(勝利者)(1957), 〈나는 도전한다〉(おれは 挑戦する)(1959) 등이 그 보기들이다. 이 영화들은 일본 당대의 청춘 스타인 이시하라 유지로나 고바야시 타케시가 현역, 전직 복서, 혹은 학생 복서 역을 맡으며 청춘의 방황을 그렸다.

21) 그는 1934년 용정에서 출생, 해방후 월남했다.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두보CMC, 2012), p. 248.

22) 윤재민은 이것을 민족국가를 초월한 동아시아 지역 문화(subculture)의 연결로 본다. 윤재민, 『한국 서브컬처 연구의 동아시아적 지평을 위한 예비적 노트』, 『비교한국학』, vol. 31, no. 1(2023), p. 51.

23) 김소영, 「콘택트 존들로서의 활극: 홍콩 액션과 한국활극」, 『한국영화의 미학과 역사적 상상력』(소도, 2006), p. 62.

24) 이 중 〈산다는 것〉(1952), 〈도쿄 이야기〉(1953), 〈일본의 비극〉(1953)은 휴머니즘, 리얼리즘 계열이며 〈7인의 사무라이〉(1954)는 사무라이 필름의 걸작이다. 〈검은 강〉(1957)과 〈백합의 탐〉(1968)은 반전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오시마 나기사의 걸작, 〈태양의 묘비〉(1960)는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슬럼을 연상시키는 전후 오사카의 막장 인생을 생생하게 그렸다. 〈관동 무숙자〉(1963) 같은 것은 미학적인 이미지(예컨대, 결투 중 벽에 반사되는 석양 등)로 폭력의 색깔을 실험하였다. Joseph L. Anderson and Donald Richie, *The Japanese Film: Art and Indust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p. 181-211.

25) 그런 정통 야쿠자의 역할들을 맡은 배우 타카쿠라 켄은 1959, 60년 ‘안보투쟁’(미일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중 학생 운동가 사이에서 저항가의 이미지를 지녔다. 斯波司·青山栄, 『やくざ映画とその時代』(東京: 佐久間新書, 1998), pp. 14-16.

이런 현실 정치의 메시지가 삭제된 채 일본 활극영화 요소들이 만주웨스턴에 흘러들어왔다. 예컨대, 만주웨스턴의 초기 작품인〈대지여 말해다오〉(1962)는 일본의 전후 문제작, 〈인간의 조건〉 3부작 (1959-1961)을 압축, 변안했다.²⁶⁾ 이 작품은 좌파 지식인을 암시하는 만주철도회사 조사과 직원의 부부애, 탄광에 배속, ‘지나인’(중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종차별, 강제 노동, 이에 저항한 주인공에 대한 보복성 입영, 비인간적인 관동군 영내 체험, 만주국 패망시 소련군과의 전투, 관동군의 궤멸, 주인공의 참호 위를 지나가는 소련군 탱크, 그의 탈출, 유랑, 사망을 그린 초장편 반전영화이다.

한국의 〈대지여 말해다오〉는 인간적인 고뇌, 반전 의식 등 심각한 주제보다 액션 위주로 진행된다. 조선인 임규삼의 부부애(김석훈, 엄앵란 분), 신희시절 만주 철강공장(안산(鞍山)으로의 징용, 그의 관동군 입영, 일본 고참병사들의 악독한 대우, 그에 맞선 영내의 항거 등의 내용으로 변안했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중국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중간자적 조선인 등이²⁷⁾ 배제된 채, 일본 영화로부터 주인공의 부부애, 고참 병사들의 가학적인 행동들, 예컨대, 내무반 식수 물통에 고참(황해 분)이 던진 담배꽂초, 누명을 쓴 약질 줄병, 무서운 상관(허장강 분)의 학대, 계속된 폭력을 못이긴 줄병의 자살, 고압전선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탈주시의 사이렌 소리, 만주국 패망 시 침공 소련군과의 전투, 참호 속에 엎드린 규삼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련군 탱크의 캐터필러 등이 〈대지여 말해다오〉에 신통하게 그대로 사용되었다.²⁸⁾ 이 영화는 개봉 직후 언론의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²⁹⁾

전전 일본 대륙물의 영향

만주웨스턴의 또 다른 변안 대상은 만주국 시대의 영화들이다. 만주웨스턴의 원형은 해방전 명감독 최인규가 일본의 이마이 타다시와 함께 만들었던 〈망루의 결사대〉(1943)일 것이다. 한만 국경의 만포진에서 찍은 이 영화는 할리우드 웨스턴인 〈보 제스트〉(Beau Geste)를 흉내 낸 것으로서 문명(만주국)과 야만(비적)의 대립, 민족협화(만주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협력) 등을 그린 것이다.³⁰⁾ 구출, 혹은 승리의 대단원과 정형화된 비적, 광활한 대륙은 만주웨스턴에 연결된다.

만영의 영화들도 만주웨스턴에 영향을 주었다. 〈소만국경〉, 〈불붙는 대륙〉에서 신징, 하얼빈 등의 술집에서 노래하는 김혜정은 한국판 리코란(李香蘭)이다. 리코란은 만영(滿映)이 단독으로, 혹은 일본

26) 감독 고바야시 마사키는 전전 쇼치쿠(松竹) 스튜디오에서 일하다 만주 징병, 포로 생활 등을 직접 경험했다. 그의 작품들이 1963, 1965년 칸느영화제 비평가상을 받고, 아카데미상 최우수 외국영화 후보작에 오르는 등 그는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감독 중 하나가 되었다.

27) 이동진, 「노동자에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으로?—재현과 사실 사이」, 『만주연구』, 31집(2021), p. 131.

28) 〈대지여 말해다오〉의 프린트가 남아 있지 않다. 스토리는 초등학교 시절 이것을 여러 번 감상한 필자의 기억에 의존한다.

29) 예컨대, “아쉬운 항거정신” 『경향신문』, 10/30/1962, “인간을 외친 무난한 구성” 『서울신문』, 10/22/1962, “통속 취향의 수난 기록” 『한국일보』, 10/21/1962, “흥취있는 줄거리 진행” 『동아일보』, 10/22/1962.

30) 후지타니 다카시, 안진수 역, 「식민지 시대 말기 ‘조선’영화의 휴머니즘, 보편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이마이 타다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세대 미디어아트센터 편, 『한국영화의 미학과 역사적 상상력』(소도, 2006), pp. 201-202.

의 도호(東寶), 쇼치쿠(松竹)와 합작한 영화들에서³¹⁾ 일본인 남성을 사랑하는 중국 여성을 맡았다.³²⁾ 이들은 중국(여성)을 일본(남성)의 사랑, 도움, 교육을 받는 존재로 처리한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의 영화들이다. 일본인 주인공들은 <영춘화>에서 드러나듯 사랑보다는 중국에 미래를 향해 홀로 정진하는³³⁾ 헌신과 남성적 규범의 화신이다. 이 영화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철도 건설, 제국에 대한 충성(총명탑 참배, 비적이나 항일 중국인들의 격퇴) 등 드러난 주제 이외에도 야릇한 밤의 분위기, 이국적 정서, 성적 위계(일본 남자가 아닌 일본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의 사랑), 전자에 의한 후자의 세정(洗淨), 교육, 구제, 치료 등으로 일본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소주야곡>의 주제곡으로 사용된 <지나의 밤>(支那の夜)은 중국여성의 점유를 뜻하는 성적인 시어 등 오리엔탈리즘의 요소를 짙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적 족보를 갖고 있다. 프랑스 상송, <중국의 밤>에서 자극을 받아 제작되었는데, 영화보다 먼저 나와 히트했다. 브로드웨이-할리우드 풍으로 만들어져, 태평양전쟁 시 미군들에 사이에서도 영어로 불렸다.³⁴⁾ 이 영화들은 음악으로 시작하고 끝날 만큼 청각적 요소가 강하다. 그것은 미모와 가창력을 갖춘, 중국인과 일본인 정체성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리코란을 중심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영화의 백미는 만주, 중국, 타이완 등을 배경으로 리코란이 직접 노래하는 장면들이다. 리코란은 <영춘화> 등 모든 작품에서 뛰어난 노래솜씨를 자랑한다. 만주웨스턴의 주연 김혜정도 허벅지가 깊게 패인 중국 의상 치파오(旗袍)를 입고 <영춘화>의 리코란처럼 노래한다. <소만국경>의 술집, 신하르빈에서 그녀는 “차이나 아가씨의 사랑노래...”라고 노래하는데, 기실 이것은 <지나의 밤>의 가사를 개작한 것이다. 두 노래가 중국여성을 점유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김혜정의 노래 솜씨는 리코란에 뒤처진다.

만주웨스턴의 간판 배우 장동휘의 이미지도 만영 작품에서 유래된 면이 다분하다. 그는 석양을 끼고 유랑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도시 암흑가를 주름잡는 정좌형 인물이다. <소만국경>에서 그는 얼굴의 긴 흉터에, 중절모, 화려한 양복, 양복 윗주머니에 꽂은 손수건, 가죽장갑 차림으로 지하 술집에서 짐빔 위스키를 마시는 암흑가 보스로 나타난다. 그는 다수 작품들에서, 만주웨스턴의 끝물에 해당하는 <쇠사슬을 끊어라>에까지 알콜 중독자, 과거를 알 수 없는 신비한 폭력배, 청부업자, 독립군 자금까지를 넘보는 무뢰한이었다가, 중국에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며 옛 여인과 독립투사를 구하고 장렬하게 정의한으로 죽는, 안티 히어로이다. 그가 출몰하는 만주 대도시들의 술집은 복마전으로서 대형 거울 뒤가 지하통로로 통한다. 그런데 이 암흑가의 의인과 술집 장면들은 만영 작품인 <소주야곡>에 등장한

31) <백란白蘭의 노래>(1939), <소주야곡>(蘇州夜曲)(1940), <소주의 밤>(1942), <영춘화>(迎春花)(1942), <사운의 종>(サヨンの鐘)(1943) 등이 그것이다.

32) 본명이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1920-2014)인 그녀는 전후 중국에서 일본 스파이, 혹은 문화 부역자(文化漢奸)로 몰려 처형을 맞았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귀국한 뒤 70년대부터 18년 간 참의원을 지냈다. 山口淑子, 「李香蘭りゅうぼと私」, 山室信一 外, 『満洲の記録: 満映フィルムに映された満洲』(東京: 集英社, 1995), p. 206.

33) 강태웅, 「표상으로서의 滿映: 만주 10주년 기념영화 迎春化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4집(2006), p. 48.

34) Hiromu Nagahara, *Tokyo Boogie-Woogie: Japan's Pop Era and its Disconten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p. 175. 마침내 그 편곡을 60년대 남미의 세계적인 증창단인 트리오 로스 판초스(Trio Los Panchos)가 도쿄 공연에서 불렀다.

다.³⁵⁾

초월의 만주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만주웨스턴의 공식인 항일운동이 흔들리게 된다. 한일양국이 국교를 맺고 냉전의 동반자 관계를 맺은 새 환경이 펼쳐진다. 만주웨스턴의 유망성은 해방 전 조선인들의 비극적인 이산을 가리키지만, 어떤 경계든 뛰어넘을 씨앗을 안고 있었다. 1930, 40년대 만주는 다수 조선인들에게 기회의 공간, 옐도라도, 헤테로토피아였다. 만주는 이미 영화,〈상록수〉에서 주인공 동혁의 동생이 사고를 내고 “튀 장소”요, 60년대의 인기 극작가 한운사가 1943년 학도병 징집을 피해 “튀고 싶었던 곳,”³⁶⁾ 강원용 목사가 어린 나이에 소 판 돈을 지니고 “뛰어나간 곳”³⁷⁾ 이었다.

대표적인 실험은 〈무숙자〉(1968)이다. 제목부터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주인공의 차림이 할리우드 혹은 미소시루 웨스턴 스타일이다. 놀라운 것은 만주웨스턴의 형식 속에서 항일 코드를 삭제한 점이다. 허약한 생물학적 부친보다 악당을 해치우고 떠나는 고독한 건뎌를 따르는 소년이 등장하는 웨스턴의 고전〈세인〉(1953), 지저분한 육탄전과 빼어난 음악의 스파게티 웨스턴 등 몇 요소를 차용한 이 작품에서 시공간의 표지가 상실되고, 적과 동지의 구분도 불명확하다. 오히려 기존의 선악 개념이 역전되어, 만주웨스턴에서 통상 항일부대를 일컫는 ‘유격대’가 숫제 악한들로, 마적이 의로운 인물로 처리된다. 신상옥 감독은 아마 항일의 주제가 한일협력의 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을지 모른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일부 작품은 항일 내셔널리즘에서 이탈, 그 형식만을 달랑 지키는 불순함을 보인다. 이 흐름의 대미는 〈쇠사슬을 끊어라〉(1971)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만주웨스턴에 거리를 두던 이만희 감독이 거의 끝물의 이 장르를 떠나보낸 명작으로, 근래 만주물 복귀의 신호탄인〈놈놈놈〉(2008)의 원작이다. 후자가 67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데 비해, 전자는 고행의 저예산에다 불과 1만 2천 명이 감상, 조용히 만주웨스턴의 종언을 목격했다. 도둑, 청부업자, 일본 밀정 등 세 조선인 악당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적과 동지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악당들이 보물을 두고 다투다가 독립군의 출현으로 단결하는 후반의 한 장면에서 영화는 내셔널리즘과 타협하지만, 이 최저 의무사항을 이행한 뒤 자유롭게 비상, “신용보다 멋있는 배신이 낫다”, “최후의 배신을 위해 건배” 등 도발적인 대사를 읊조리면서 내셔널리즘의 경계를 넘어간다. 일본군에 의해 포위되어 대결하던 중 서로 격투를 벌이는 부분은 재물과 여성에 대한 점유욕이 내셔널리즘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35) 즐고, 「만주웨스턴과 내셔널리즘의 공간」, 『사회와 역사』, 84집(2009), pp. 18-22 참조.

36) 한운사, 『구름의 역사』, p. 30.

37) 강원용, 『역사의 언덕에서』, 1권(한길사, 2003), p. 283.

창조적 거리

알렉산더 잘텐이 지적하듯, 한국 영화인들은 일본 작품에 거리를 유지했다. 이 거리에서 일본의 문화적 지배나 일본작품의 표절이라는 우려를 차단하며, 의미와 스타일의 변형을 시도했다. 그가 보기로 든 작품은 일본의 <백일몽>(1964)과 <춘몽>(1965)이다. 후자의 감독 유현목은 전작의 시나리오만 읽은 채로 전작이 내포하는 폭력과 근대의 기술(biopower)을 뛰어넘어 “고통과 리비도의 상호작용”이라는 창의성을 발휘했다.³⁸⁾ 한국감독들은 일본 영화의 제목을 살짝 바꿔 색다른 작품들을 만들기도 했다. <만춘>(晩春)(1949)(일본의 구원久遠의 여신인 하라 세쓰코를 앞세워 홀아비와 그를 떠나지 못하는 노처녀의 잔잔한 삶을 그린)의 제목은 한국영화의 절편인 <만추>(晩秋)(1967)(열차 안에서 만난 뜨내기 청년과 모범 사형수로 일시 휴가를 맞은 중년 여성의 찰나적 사랑을 묘사한)에 참고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야쿠자 영화인 <관동 무숙자>(1963)는 만주웨스턴, <무숙자>(1968)에 힌트가 되었다.

만주웨스턴은 일본영화의 과잉 폭력, 여성 야쿠자 (이른바 핑크 폭력물), 하드보일드 스타일에 거리를 두었다. 한국영화의 폭력의 색채와 여성 폭력물에 도달하는 데에는 긴 세월이 걸렸다.³⁹⁾ 할리우드 웨스턴과 007 시리즈를 마구 베끼는 일부 일본영화의 무모함도 여과 대상이었다. 일본의 미소시루 웨스턴의 경박성도 억제되었다. 만주웨스턴의 강점으로는 확고한 주제, 넓은 번안 범위, 일본 작품들을 따라잡는 시차, 당대 외국 작품들과의 경쟁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전전, 전후 일본의 대륙물에 그치지 않고, 60년대의 맹인 검객 자토이치 시리즈, 홍콩의 외팔이 검객 시리즈,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한창 맹위를 떨친 스파게티 웨스턴, B급 웨스턴까지 폭넓게 번안하여 시야를 확장했다. 60년대 영화업자들은 수입 억제정책의 환경에서 외국합작 등의 편법으로 흥행이 보증되는 외국영화들을 수입해서 상영했다. 영화가에서 외화는 전통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1968년의 경우, 외국영화의 관람객은 4만 명으로 전체(약 14만 명)의 약 3할에 이르렀다.⁴⁰⁾ 만주웨스턴은 이런 인기 외화들과 경쟁하며 버텼다. 그 결과, 한국판 르누아르, 70년대의 국산 액션물, 홍콩, 할리우드의 액션물 등 ‘남성성의 재할성화’와 관련된 여러 장르로 발전해나갔다. 이영재가 지적하듯 강철같이 단련된 맨몸으로 다수를 상대하는 70년대 홍콩, 한국(혹은 한중합작)의 브루스 리 류의 권격영화의 아시아적 열망은 백인 남성에게 대한 동양 남성의 좌절, 그리고 이 좌절에 대한 상상적 극복이었다.⁴¹⁾

홍콩의 <외팔이 검객>과 일본의 맹인검객 자토이치(座頭市) 시리즈는 장기 상영작이다. 전자는 피를 부르는 고독한 복수의 화신이나, 후자는 침술, 안마술뿐 아니라 빼어난 검술을 지닌 고독한 맹인 검객, 혹은 사교(邪教) 단체의 지도자처럼 혈령한 비단옷을 입고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

38) Alexander Zahlten, “Daydreams,” pp. 44-46.

39) 한국영화계에는 <조폭 마누라>(조진규, 2001)와, 탁월한 색채를 구사한 할리우드 공포영화 <스토커 Stoker>(박찬욱, 2013) 등이 그런 보기일 것이다.

40) Ae-Gyung Shim and Brian Aecies, “Power of the Korean Film Producer: Dictator Park Chung Hee’s Forgotten Film Cartel of the 1960s Golden Decade and its Legacy,”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0, no. 3 (2012), p. 11.

41) 이영재, 「중공업 하이모던 시대의 아시아적 신체」, 『여성문학연구』 30호(2013), p. 174.

등 여러 얼굴을 갖고 있다. 양자는 홍콩·일본의 합작영화,〈자토이치와 외팔이검객〉(1971)에서 결합하나, 한국에서는 일본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었다. 대신 한국의 〈영(影)〉(1968),〈황야의 외팔이〉(1970) 등에 그 분위기가 전달된다. 후자의 주인공은 마적단에 생포되어 고문을 받아 신체가 훼손된 후 각고의 노력끝에 외팔이 건맨이 된다. 전자의 잔혹한 마적단 두목은 일본 사무라이 머리에 비단옷을 걸친 교주 이미지인데 이것은 자토이치의 변형이다. 일부 만주웨스턴은 할리우드 영화의 명장면들을 차용한다.

어두운 도회적 분위기, 암흑가의 폭력을 그린 만주웨스턴의 실험은 이후 〈검은 머리〉(이만희, 1964) 등 한국형 필름 누아르의 전초가 된다. 이 작품은 항일 내셔널리즘을 제외하면 장동휘 등 출연 배우진, 음산한 암흑가의 분위기, 배신 플롯 등 만주웨스턴과 흡사하다.⁴²⁾ 만주웨스턴은 또한 할리우드의 권력 영화 장르의 시발점이 된다. 만주웨스턴의 개척자 정창화 감독이 홍콩으로 건너가 만든 〈죽음의 다섯 손가락〉(1972)은 미국에 수출되었는데, 이것은 홍콩 무술영화와 현대 액션영화를 연결한 할리우드 권력영화의 신호탄이었다. 〈킬 빌〉(Kill Bill)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명감독 쿠엔틴 타란티노가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시한 작품이다. 그는 이 영화를 〈킬 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애호 목록 10편 중 하나로 들었다.

결론

만주웨스턴의 원조인 나운규의 〈사랑을 차저서〉(1928)는 후일 민족주의적 해석과는 달리 만주를 활극의 무대로, ‘모험’을 공동체의 정의가 아니라 개인적 동기의 산물로 그렸다. 공교롭게 만주웨스턴의 시작과 마지막은 공통적으로 내셔널리즘과 같은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만주를 ‘오락’, ‘낭만’, ‘매혹’의 세계로 보았다. 〈쇠사슬을 끊어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 “태양을 따라 떠나자”고 하며 뿔뿔이 광야로 해산할 때에 어떤 목표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념(민족 혹은 계급)의 호명에 흡수되지 않는, 혹은 지젝이 말하는 “동일시되지 않는 호명”의 대상이다.⁴³⁾ 이것은 일본과 유착한 체제의 이중성에 대한 조롱, 혹은 내셔널리즘의 초월일지 모른다. 제목 “쇠사슬”은 당시 영화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강박인 내셔널리즘이었을 것이다.

만주웨스턴은 여러 역설을 지닌 장르이다. 우선, 독립군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일본군의 판타지를 통해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한일회담의 환경과 만주웨스턴의 내재적 유량성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 일부 작품들은 공식인 항일 내셔널리즘에 대해 이탈을 감행했다. 만주웨스턴은 냉전의 스트레스를 이국적 장면들을 통해 처리하기도 했다. 30년대 민족 이산의 행선지답게 만주는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국이었다. 한번 펼쳐진 이국의 시선은 만주에 그치지 않고, 북지, 남양 등 일본제국의 팽창영역인 대동아공영권을 따라갔다. 만주웨스턴의 역설은 전후 한국 내셔널리즘의

42) 이 작품을 소개한 안진수교수(버클리대)에게 감사드린다.

43)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p. 44.

확산이 제국 팽창을 다룬 일본의 영화장르인 대륙물의 번안과 창조적 거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의미는 김규현이 말한 대로 내셔널리즘의 상처란 완전히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모던에서 식민지적 융합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금의 급속한 지구화의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⁴⁴⁾〈쇠사슬을 끊어라〉의 리메이크 작품인 〈놈놈〉의 대성공은 그 시사점을 던진다. 이 작품에는 강박적 내셔널리즘을 뺏겨나가려는 원심성이 있다.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60년대 만주웨스턴을 기억하는 노년층의 노스탤지어와 청년층, 그리고 스파게티 웨스턴의 제목과 음악, 여러 장면을 차용, 국제적 언어를 통해 국외시장을 겨냥했다. 이것은 한국 영화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44) Kyu Hyun Kim, "Fistcuffs, High Kicks, and Colonial Histories: The Ambivalence of Modern Korean Identity," in Kyung Hyun Kim and Youngmin Choe ed., *The Korean Popular Culture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4), p. 52.

1 중국 소수민족문화의 관심

필자가 중국소수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된 것은 북경 중앙민족대학과의 학술교류로 기인한 것이다. 2015년에 필자의 연구팀은 이 대학의 민족문화연구소 소장이었던 양성민 교수가 대표저자로 집필한 중국민족지를 번역하였다, 모두 세 권으로 분권하여 번역서를 내었는데 제목은 <중국민족지 1, 2, 3>이었고, 부제로 <56개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덧붙였다. 이후 중국의 서남부지역인 운남, 쓰촨 등을 현지조사하였고, 중국 동북지역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대를 답사하였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문화는 우리 민족과의 문화유사성이 깊고 문화적 맥락성이 깊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이 증폭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동북지역을 3회 답사 후 문화기술지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 문화의 이해>(북코리아, 2021)를 출간하였다, 이 원고는 김영순·황해영·장연연(2021),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 문화 이해』, 북코리아, 15-30쪽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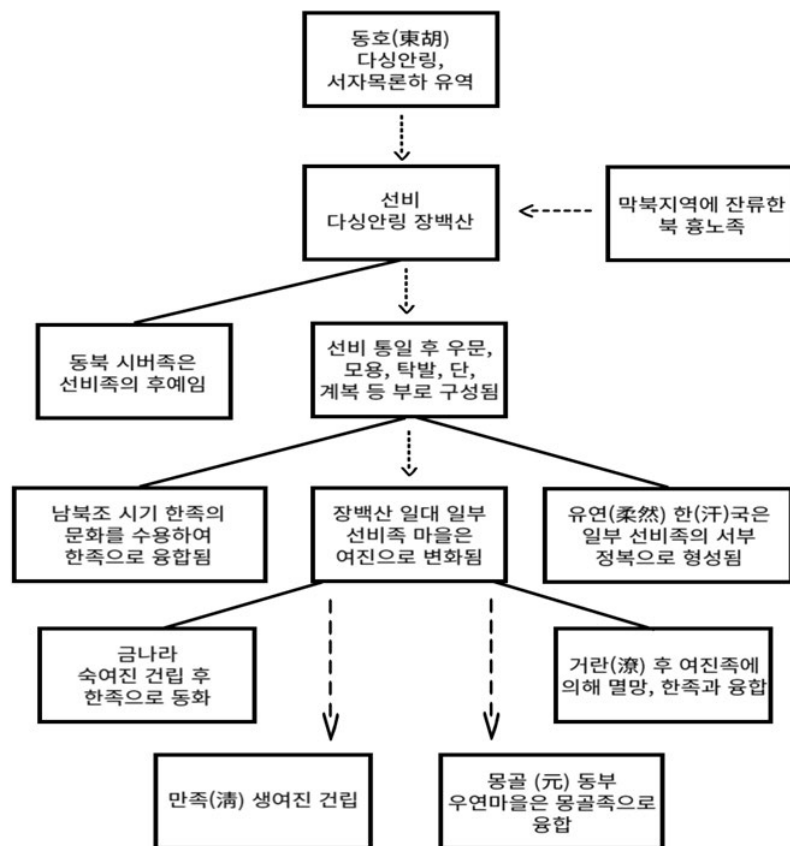
문화는 민족의 영혼을 담고 있으며 민족의 역사적 근원, 생산과 생활방식 등이 그들의 생활문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민족문화의 생성과 발전 역시 각 민족이 처한 생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는 다양한 지리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생존을 위해 자연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 양상들은 그들의 초기 문화를 형성하며 채집, 수렵, 농경, 유목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지역은 증원지역의 한족문화와 다르게 자연생태계를 생활의 기반으로 하여 물질적·정신적·제도적 문화를 탄생시켰다. 이는 각 민족 고유의 문화적 품격과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민족학을 토대로 분류하면 이는 자연 숭배와 물질기반 생태형 문화다. 이러한 문화는 생산방식에서 생활방식, 관념적 영역에서부터 실천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 생태계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므로써 혼연일체가 되었다.

2 동북 소수민족의 변천사

중국 동북지역은 옛적부터 ‘영주’, ‘요동’, ‘관동’, ‘관외’, ‘만주’ 등으로 불렸다. 지금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및 네이멍구 동북지역인 츠핑시, 썩안맹, 퉁랴오시, 시린귀러맹, 후룬베이얼시 5개의

도시가 포함된다. 중국 역사에서 동북지역은 신비로운 지역으로 천 년간 다양한 소수민족 정권을 탄생시켰다. 선비, 거란, 여진 등의 민족은 그들이 직접 세운 정권들이 모두 역사 기록에 남아 있고, 지구의 반을 정복한 몽골족 정권도 이 지역에서 탄생했다가 서쪽으로 이주했다. 그들이 세운 정권의 수와 중국 북방지역을 지배한 세월은 어떠한 지역도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로 자신들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냈으나 중원의 왕조들에게 전란의 어려움은 물론 한족에게 위협을 안겨주었다. 전란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불’과 ‘피’로 얼룩진 전쟁의 흔적들은 지난 수천 년간 끊임없이 한족 중심 지역이던 중원지역을 괴롭혀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성장한 민족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전쟁을 잘하는 ‘전쟁민족’으로 불린다. 이미 중국의 역사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원나라는 몽골족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중국 대륙을 통치한 왕조임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역사에는 한족이 세운 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동북지역 민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에는 그들을 ‘동호’라고 불렀다. 진나라 시기 『일주서(逸周書)』에는 동호에 대한 기록이 있다. 상나라 초기부터 서한까지 1,300년 동안 동호민족은 유목민족으로 생활해왔다. 진나라가 한나라에 패할 때 동호는 쇠락했고, 기원전 206년 흉노의 공격으로 정권이 와해되었다. 그 이후 두 지파로 나뉘어 오환산(烏桓山)과 선비산(鮮卑山)에 주거하게 되면서 우흥족과 선비족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동호’라는 민족명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림 1-1] 동북지역 소수민족 융합

영원 3년(91) 한화제 유조(劉肇)는 경기(耿夔) 장군을 오늘날의 몽골지역에 파견하여 북방지역의 흉노 정권을 공격한 바 있다. 이로써 흉노의 일부 지파는 서쪽으로 도망가 유럽지역에 흩어졌다. 흉노의 패배는 중원 왕조의 오랜 걱정거리를 없애고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정권이 숨 돌릴 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족의 집거지역이던 중원지역에 흉노의 억압은 없어졌지만 이 지역은 다시 위, 촉, 오 3국의 전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한족의 세력은 큰 손실을 입고 동진 말기에 이르러 선비족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다. [그림 1-1]은 동북지역 소수민족 융합의 연대기를 나타낸다.

그 후 200년간 중국 북방지역은 간헐적으로 정권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선비족 정권의 통치하에 있었다. 세력이 커진 선비족은 중원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고, 이로써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참혹한 '오호난화(五胡亂華)' 시기를 맞이한다. 이 난으로 한족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인구의 70%만 생존했다. 이 난은 중국의 '민족 대융합'의 계기가 되었다. 이 난 이후 소수민족의 혈통과 한족의 형통이 섞이게 되었다. 특히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한족은 소수민족과의 혼혈이 많았다.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도 한족과 선비족의 후손이다. 선비족 주류가 중원으로 이주한 다음 동북지역에 남아 있던 선비족 마을들은 서쪽으로 이동했고 흉노가 물러간 지역에 유연(柔然) 왕국을 세운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북위의 토벌대에 패배하고 일부는 오늘날의 네이멍구 동북지역과 동서북지역으로 도망을 간다. 그들은 '실위(室韋)'로 불리다가 오늘날의 몽골족이 된다. 그중 일부는 랴오닝성 중부로 도망을 가서 거란족이 되었고 요(遼)나라를 세운다.

중원 정권이 내란으로 전쟁을 겪고 있을 때, 동북지역 소수민족 정권은 비로소 숨을 돌리고 체제를 정비하여 차분하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따라서 당나라 이후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5대 10국 시기에 동북지역의 기타 소수민족 세력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중원지역의 송나라 정권이 전국을 통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요나라, 금나라가 남북에서 서로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된다. 요나라와 금나라는 모두 중원지역의 송나라를 차지하고 싶었기에 수도를 남쪽에 세운다. 이로 인해 두 나라의 북쪽 변방 경계가 허술해졌다. 이는 추후 칭기즈칸이 몽골부족의 세력을 키우고 남하하여 금나라와 송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인 된다. 요나라와 금나라의 후예들은 나라가 멸망한 후 생존을 위해 자신들을 한인이라고 속여 생존을 도모했다. 이후 역사상 한때 위세를 떨쳤던 거란족은 사라지게 되고 한족과 융합을 이루게 된다.

금나라 멸망 후 일부 동북지역에 잔류하고 있던 여진족은 다행히 살아남아 거란 선조의 문화를 지켰다. 그들은 한족과 동화되지 않고 '생여진(生女眞)'으로 불리다가 만주족의 시초가 된다. 동한 말 3국 시대가 열리면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1천 년의 역사 속에서 동북 지역 소수민족 정권이 중국 북방지역을 통치한 시간은 700년이나 된다. 여진족의 잔류 세력은 중원지역과 대항하는 정권을 세워 중원을 위협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무려 다섯 차례나 남하하여 중원을 침범했고, 일부 지역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한때 전국을 제패하기도 했다.

중국 전체를 통치한 소수민족 정권으로는 원나라와 청나라가 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276년 전국을 통일하여 1368년 중원에서 물러나기까지 92년을 통치했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1644년

부터 1911년 신해혁명까지 267년 동안 전국을 통치했다. 이 두 소수민족 왕조의 전국 통치기간은 359년에 달한다.

진나라, 한나라 시기에 중국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기원 316년 서금이 멸망하면서 589년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중국은 또다시 273년간 남북 정권의 대치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 동진 그리고 남북조와 대치상태에 있던 16국 정권 중에서 극소수만 한족이 세운 정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었다. 이 정권은 수나라 시기 다시 통일된다. 907년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 5대 6국 시기가 열리고 송나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다시 남북 대치상태에 들어선다. 송나라는 요나라, 금나라, 몽골 등의 위협 속에서 지탱해왔다. 5대 6국 각 왕조 중에서 후당, 후금, 후한은 모두 소수민족 정권였고, 3개 왕조가 통치한 시기는 5대 시기 53년 중 절반을 차지한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원나라가 전국을 통일(1276)할 때까지 중국은 359년간 남북 분열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남북이 대치한 시기에 북방 소수민족 정권이 북쪽의 영토를 다스린 시간은 642년이나 된다(马晓军, 2002).

1차: 기원 4세기 선비족

선비족이 북방지역에 세운 왕국은 연(燕)나라다. 중국 무협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인 김용의 소설 『천룡팔부(天龍八部)』에 등장하는 모용복은 선비족의 후예다. 모용 가문은 그 세력이 대단하여 북쪽 지방 뿐만 아니라 중원 지역까지 힘을 뻗었다. 기원 365년 연나라는 낙양을 함락시키고 동진왕조를 대체하여 중원지역의 통치권을 획득한다. 하지만 몇 년 뒤 연나라는 진나라의 부견(苻堅) 장군에게 패한다.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혼란 시기에 선비족은 서진, 후연, 남량, 남연 등의 나라들을 통치하기도 했다.

2차: 기원 10세기 거란족

거란은 선비족의 지파로, 당나라 때부터 그 세가 커진다. 916년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황제가 되면서 요나라를 세운다. 5대 10국 분열 시기 요나라는 연운 16주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나라가 멸망하자 야율아보기는 북방의 실질적 통치자가 된다. 그 이후 양국은 북송과 오랜 기간 대치상태에 있었다. 요나라가 번성할 때 그 영토가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알타이산, 북쪽으로는 아르군강, 남쪽으로는 허베이성 백구하에까지 이르렀다. 요나라는 1125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 멸망한다.

3차: 기원 12세기 여진족

여진족은 ‘여정’, ‘여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나라 이전에는 이름이 어려워서 발음이 잘 안 되어 알려지지 않았다. 수나라 때부터 ‘흑수말갈’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여진족 형성 시기로 본다. 여진족은 처음에 거란의 지배를 받으며 수모를 겪었다. 거란에게 많은 수탈을 당하고 공물을 진상해야 했다. 완안아골타(完顏阿骨打)가 금나라를 세운 다음 1114년 여진 각 부족을 통일하여 1125년 요나라

를 멸망시키고 1127년 북송까지 멸한다. 그러나 완안아골타의 세력도 얼마 못 가 1234년 금나라는 몽골군에 의해 멸망한다.

4차: 기원 13세기 몽골군 남침

몽골족의 고향은 오늘날의 몽골 국가가 아니다. 그들의 기원은 동북지역으로 12세기 몽골족은 대부분 오늘날의 후룬베이얼지역에서 살았다. 당시 몽골족은 세가 약했고 금나라의 수탈을 많이 겪었다. 1206년 테무진이 몽골의 왕이 되면서 '칭기즈칸'으로 호를 정했다. 그 이후 몽골국은 전례 없이 강대한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북방을 통일한다. 당시 칭기즈칸은 세하, 서요, 금나라, 남송 모두 제패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국했다. 1234년 금나라가 멸망하자 몽골은 중국 북방지역만 통치하다가 1368년 주원장 왕에 의해 중원지역에서 쫓겨나면서 135년간의 북방지역 통치를 끝내게 된다.

5차: 기원 17세기 여진족

여진족의 역사도 굴곡이 많다. 여진족은 중원지역에 최초의 정권을 수립한다. 1234년 금나라가 몽골에 의해 멸망한 후 원나라 통치 시기에 여진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냥을 금지했다. 그 후 여진족은 명나라와 동맹을 맺고 원나라를 멸망시킨다. 이후 그들은 남하하여 오늘날의 랴오닝성으로 이주한다. 토목보사변(土木堡事變) 이후 명나라는 점점 세가 강해지는 여진족을 통제하기 위해 분할 관리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여진족의 세력을 꺾지 못했고, 1583년 누르하치가 전쟁을 일으킨다. 1616년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몽골과 조선을 침범하여 중원지역을 점령하면서 중국의 마지막 봉건왕조인 청나라를 건국한다.

3 동북지역 소수민족 거주지의 지리·문화적 환경

동북지역 동쪽의 변경지역은 외국과 맞닿아 있고, 지리적으로도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한반도의 북쪽인 북한과 맞닿아 있고,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또한 소흥안령 동쪽의 장백산맥 서쪽지역 그리고 아루강, 떼우만강, 송화강, 헤이룽강/아무르강 등의 광활한 지역을 끼고 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3성과 이들 성의 43개 현을 포함하고 있다. 랴오닝의 단둥, 번시, 지린의 통화, 바이산, 옌벤조선족자치주, 헤이룽장의 무단장, 지시, 치타이허, 샹야산, 자무쓰, 허강을 포함한다. 면적은 동북 3성 전체 면적의 28.3%를 차지하고, 인구도 동북 3성 인구의 18%를 차지한다. 동북지역의 동쪽 변방지역은 지리적 환경과 인구 분포에서 역사적 영향, 문화침투 현상으로 동북아 지역문화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동북지역은 산과 물이 맞닿은 자연환경, 기후조건, 생활방식, 혈연관계, 세시풍속 등의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립적인 문화권을 형성한다. 중국의 동북지역에는 모두 53개의 민족이 있어서 다민족 및 다문화지역으로 불린다. 동북 동부지역의 11개 도시 중 독립적으로 세워진 소수민족 향진은 43개가 있다. 그중 만주족 자치현은 5개, 만주족 향은 4개, 조선족 향은 16개, 조선족 진은 5개, 조선족-만주족 향은 7개, 허저족 향은 3개, 어원커족 향은 1개, 몽골족 진은 1개, 만주족-서파족 진은 1개가 있다. 그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소규모 민족 그룹별로 집거하여 생활하고 있다.

동북지역은 만주족이 토착 민족으로, 그들의 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만주족은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의 만주족 인구는 만주족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지금은 랴오닝성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그 수가 550만 명가량 된다. 이는 만주족 전체 인구의 51%에 달하는 숫자다.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 거주하는 만주족은 2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토착문화에는 지역문화적 특징들이 많이 녹아 있다. 그들은 자연생태 환경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생활문화를 구축하므로 이러한 지역문화적 특징들은 그들의 생활방식 곳곳에서 나타난다. 동북지역은 산과 강 그리고 평원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사냥, 낚시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평원지대는 농사를 할 수 있다. 동북지역 주민들은 한파를 이겨내야 하므로 강인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토착민족들의 독특한 세시풍속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인간이 거주한 지 오래된 문명지역으로 만주족의 토착문화는 동북지역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다른 소수민족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어 이 지역의 민족문화는 융합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이 또한 동북지역문화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허저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 중 하나로 자무쓰와 송야산에 살고 있으며, 만주족과 조상이 근접하다. 어원커족 주민의 80%는 네이멍구에 살고 있고, 그 외에는 동북 동부지역 치타이허에 살고 있다.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동북지역 여러 민족의 각개 지파로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중국 전체의 조선족 인구 중 96%가 동북지역에 살고 있다. 이 중 지린성에 61%, 헤이룽장성에 23%, 랴오닝성에 12% 정도가 거주한다. 동쪽에 위치한 옌벤은 중국의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역으로 유일한 소수민족 자치주다. 바이산지역에는 중국에서 유일한 조선족 자치현인 창바이현이 있다. 무단장시는 조선족 집거지역으로 단둥시의 조선족 상주인구는 200만 명가량 된다. 중국의 조선족은 100여 년 전 한반도에서 동북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민족이다. 이 때문에 조선족 문화는 한반도의 문화와 깊은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국 조선족 가운데 5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족은 17세기 초 청나라가 관내로 들어오기 전 조선을 침범했을 때 포로가 되어 잡혀와 귀족농장에서 농노였던 사람들의 후예다. 그들의 대부분은 허베이성과 랴오닝성의 '박가골'에 거주하고 있으며, 1950년대 자발적으로 정부에 자신들을 만주족에서 조선족으로 고쳐줄 것을 신청했다. 19세기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 사이에 네 차례의 이민 붐이 있었다.

제 1차 이민 붐은 1895년 청나라가 평티엔성의 봉금령을 철폐하고, 1991년 지린성의 봉금령을

철폐한 뒤 이 두 성에 부민국과 황무국을 설치하여 농민들을 모집하여 황무지를 개척하고 농사를 지을 때다. 이 시기 한반도 북부는 여러 차례 연이은 재해가 일어나 기아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대거 떼우만강과 야루강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했다. 1897년에는 청나라와 러시아가 중동 철도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한 후 1903년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구축공정에 한반도 북부와 연해주에 이주해온 많은 조선인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철도가 부설된 후 적지 않은 노동력이 청도선 부근에서 농사를 짓거나 기타 노역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2차 이민 붐이다.

제3차 이민 붐은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점한 후 토지조사에 의해 파산한 조선 농민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중국 동북으로 이주한 것이다.

제4차 이민 붐은 1936년 위만주국과 조선총독부가 이민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조선의 농민들을 만주국에 1만 호씩 이주시켰을 때다. 1941년 일본 정부는 '개척단'이라는 명목하에 기만적인 수법으로 한반도 남부의 농민들을 동북지역으로 이주시켰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선언을 했을 당시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이 이미 170만 명을 넘어섰다.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다.

4 동북지역 각 소수민족의 분포

만주족은 동북지역에서 가장 오래 생활한 민족으로 숙진 및 여진족에서 기원했다. 현재 인구는 1천만 명가량이며,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좡족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만주족의 80%는 동북지역에 거주하며 주요 분포지는 랴오닝성, 허베이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이다. 이 중 랴오닝성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슈옌, 평청, 관톈, 환런, 번시, 신빈, 칭위안, 베이전현 등에 많이 거주한다.

헤이룽장성 이란은 만주족의 발상지로, 그들에게는 '민족의 성지'로 불린다. 청나라 시기에는 샹청, 아칭, 쑤이화, 왕쿠이, 헤이허 지역에 팔기를 세우고 관리했다. 현재 약 120만 명의 만주족이 살고 있다. 네이멍구, 간쑤, 신장, 윈난 그리고 광시 등 변방지역에도 만주족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네이멍구 동부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만주족의 전통의상인 남성의 두루마기(창파오)와 여성의 치파오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다.

몽골족의 조상은 몽골실위(蒙兀室韋)로, 다싱안링 서북지역 아르군강 동쪽의 유목민족이다. 몽골족 인구는 490만 명가량 되는데, 그중 60%가 네이멍구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다. 동북 3성 지역에도 많은 편인데 랴오닝성의 푸신(阜新), 객 라비좌익(客喇泌左翼), 지린성의 첸귀얼뤄쓰(前郭尔罗斯)와 헤이룽장성의 누어버터 모두 몽골족 자치현을 설립했다. 서북지역의 신장은 몽골족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이다. 거기에도 2개의 몽골족 자치주인 부얼다라와 바인귀령이 있고, 이에 속하는 자치현이 있다. 간수성과 칭하이성에도 몽골족이 살고 있다. 몽골족은 목축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며 가무에 능하고, 씨름, 말경주, 활쏘기 등 운동을 좋아한다.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네이멍구 동부지역으로 이주한 소수민족이다. 인구는 대략 200만 명이다. 동북지역 동부, 중부 하천가에 거주하고 있다. 랴오닝성에서는 단둥, 관덴 등 야루강변에 살고 있다. 지린성 옌벤지역과 창바이현은 조선족 자치주와 자치현이 설립되어 있다. 헤이룽장성의 닝안, 하이린, 둥닝, 미산, 지둥 등의 시·현에도 조선족 향이 있다. 네이멍구 자치주 동부 하천변에도 일부 살고 있다. 조선족은 벼농사 경험이 풍부하여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흰옷을 즐겨 입으며 가무와 운동을 좋아한다.

다우르족은 과거 ‘거란’으로 불리기도 했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 중 하나다. 주로 네이멍구 자치구, 헤이룽장성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신장, 랴오닝에 살고 있다. 명나라 초기 헤이룽강 북쪽으로 이주했다. 17세기 이전 다우르족은 헤이룽강 북쪽 기슭에 모여서 생활했는데, 그 당시 다우르족은 경제문화가 가장 발달한 민족이었다. 17세기 중반 러시아가 헤이룽강 지역을 침략하면서 강북에 거주하던 다우르족은 남하하게 되고, 년강 지역에서 살게 된다. 청나라 정부 때 청장년을 징용하여 동북과 신장 국경도시들을 지키게 되면서 널리 퍼져 현재의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다우르족 인구는 12만 명이다. 그들은 네이멍구 자치주 동부지역과 헤이룽장성 서부지역에 살고 있다. 네이멍구에는 모리다와 다우르족 자치현이 있다.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푸위현, 헤이허시에도 다우르족 민족향이 있다. 신장, 지린, 랴오닝에도 일부 다우르족이 살고 있다. 신장 타청에도 민족향이 있다. 다우르족은 자신들의 민족언어가 있지만 문자는 없다. 그들은 라틴자모를 기초로 한 문자를 만들었다. 다우르족은 모두 중국어를 구사하고, 한자를 쓸 수 있다. 몽골족과 함께 거주하는 다우르족은 몽골어가 능숙하다. 다우르족은 타고난 싸움꾼으로 금나라 때 징병으로 사람들이 세 차례나 썩룬(索倫) 정복에 나섰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썩룬의 기마병은 천하제일이다”라고 했다.

청나라 때는 북방 국경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에 다우르족 장병들이 참전했다. 그들은 항일전쟁 시기에도 참전하여 동북지역의 독립에 공을 세운다. 다우르족은 흥이 많은 민족으로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 민간 음악으로는 산가, 대결가, 무가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다우르족은 필드하키의 명장들을 많이 배출하는 고장으로 유명해졌고, 그중에서 특히 모리다와다우르 자치현은 1989년 국가체육진흥위원회에서 ‘필드하키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얻게 된다.

어원커족(옛적에는 ‘통구스’ 또는 ‘썩룬’으로 불림)은 인구가 2만 6천명 정도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중국 네이멍구와 헤이룽장성, 몽골에도 일부 분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다싱안링 동서 양쪽의 후룬베이얼 초원과 강가에 거주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하이러얼시 남쪽의 어원커족 자치기, 그리고 천바얼후기와 야커스시다. 다음으로는 다싱안링 동쪽의 년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헤이룽장성 서쪽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목축업에 종사하고 순록을 주요 가축으로 키운다. 어원커는 그들 스스로 부르는 민족 명칭으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원커족의 민족언어는 크게 통구스 알타이어 북방지파에 속한다. 어원커족은 일상 생활 속에서 민족언어를 사용하고, 민족의 문자는 없다. 일부 어원커족은 유목민으로 몽골어를 사용하고 농민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어원커족은 유목민에서 정주하는 민족으로 변화했지만, 목축

업은 여전히 그들의 생활경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전통문화는 다양한데, 이는 그들의 복장과 음식 등 문화에서 표현된다.

어룬춘족의 인구는 약 7천 명으로 중국 동부지역 소수민족 중에서도 수가 적다. 그들은 주로 헤이룽장성 북부지역과 네이멍구 동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쉰커, 헤이허, 후마, 타허 등 지역에 5개의 자치기를 설립했다. 다싱안링 숲 지대에 거주하는 어룬춘족은 알타이어계 퉁구스지파인 어룬춘어를 사용하고, 문자는 없다. 원시시절에는 나무와 가죽에 문자를 새겼고, 매듭을 꼬아 사건을 기록했다. 긴 세월 동안 수렵활동과 채집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했다. 음악, 무용, 조형예술 등에서 수렵민족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허저족은 중국 동북지역의 오랜 민족으로 기원은 동해 여진 허저부족이다. 허저족은 중국 봉방지역에서 유일하게 어업을 생계로 하는 민족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양식업 그리고 농업에도 종사하게 되었다. 허저족은 고대에 멸족될 위기에 이르렀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보존된 민족이다. 주로 헤이룽장성, 통장시, 라오허현, 푸위안현에 살고 있다. 허저족의 일부는 화촨, 이란, 푸진 3개 현과 자무쓰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민족명이 다르게 나타난다. 푸진현 대둔연 송화강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허저족은 '나베'라고 부른다. 가얼당둔과 진고촌에 사는 허저족은 자신들을 '나나'라고 부르며, 러터리 마을에서 헤이룽강 하류 그리고 오소리강변에 살고 있는 허저족은 '나니오'라고 부른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허저족의 인구는 5,354명이다. 알타이어, 퉁구스어, 만어 지파인 허저언어를 사용하며 문자는 없다. 한족과 오랜 기간 교류하고 함께 거주했기에 중국어도 그들의 통용 언어가 되었다.

어떤 민족이든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환경에 따라 그 성향과 기질 가운데 더 자주 표현되거나 중요시되는 것이 다를 뿐이며,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람도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동원하는 전략적 반응을 보인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각 지리문화권에 해당하는 기호, 풍토, 종교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또한 그들의 민속에는 각 지리문화권에 해당하는 기호, 풍토, 종교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으며 각 민족 고유의 정기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북지역은 산과 강, 평원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사냥, 물고기잡이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평원지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동북지역 주민은 한파를 이겨내야 하므로 강인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토착민족들 고유의 독특한 세시풍속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인간이 거주한 지 오래된 문명지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민족의 기원신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이루어낸 토착문화는 동북지역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다른 소수민족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 양성민, 덩훙 외(2012), <중국민족지>, 김영순 외 역(2015), 중국민족지 1: 56개의 민족, 하나의 나라, 북코리아.
- 양성민, 덩훙 외(2012), <중국민족지>, 김영순 외 역(2015), 중국민족지 2: 56개의 민족, 하나의 나라, 북코리아.
- 양성민, 덩훙 외(2012), <중국민족지>, 김영순 외 역(2015), 중국민족지 3: 56개의 민족, 하나의 나라, 북코리아.
- 양성민, 덩훙 외(2012), <중국민족지>, 김영순 외 역(2015), 중국민족지 1: 56개의 민족, 하나의 나라, 북코리아.
- 김영순·황해영·장연연(2021),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 문화 이해>, 북코리아.
- 김영순 외(2009), <문화의 맛과 멋을 만나다>, 한울출판사.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xchange
in Manchuria and East Asia

Manchuria and East Asian Cultural Practices and Glocal Diversity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컬 다양성



Session 1

1 Can the Multiculturalism Approach Guarantee "Animal Rights"?:
: Military Animal Memorials and the Japanese Army
Toshihiko Kishi (Kyoto Univ., Japan)

다문화주의 접근법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 군용동물(軍用動物) 위령비와 일본 육군
貴志俊彦 (교토대, 일본)

2 The Problematic Representation of Imperial and Colonial Customs
- The Case of Korean-Japanese-Manchurian 'Local' Representations
in Postcards
Hyun Sik Choi (Inha Univ., Korea)

제국과 식민지 풍속 표상의 문제성 - 한·일·만 '향토' 재현 사진엽서의 경우
최현식 (인하대, 한국)

3 The Colonial Ideal of Harmony of the Five Tribes and Educational
Ideology Based on Lineage of Koreans in Manchukuo
Yun Jeong Jo (Kookmin Univ., Korea)

오족협화라는 식민지적 이상과 재만 조선인의 교육 혈통주의
조윤정 (국민대, 한국)

貴志俊彦（京都大学東南アジア地域研究研究所・教授）

はじめに~多文化主義アプローチと「動物の権利」論の関係

多文化主義は、人種や民族、移民、性についての多様性の尊重、社会的包摂、そして平等についての議論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しかも、この理念は机上の議論にとどまらず、1970年代以降カナダやオーストラリアなどにおいて、教育、政策、立法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実践されている。その一方で、近年イギリス、ドイツ、オランダなどでは、多文化主義政策からの離脱が唱えられている。

多文化主義政策の登場とほぼ同時期に唱えられ始めた「動物の権利」「種の差別」の議論は、どこまで深化し、実践されてきたのだろうか。現代の動物保護管理法のほとんどは、ルース・ハリソンが主張する「動物の福祉 (Animal Welfare)」論に基づき、動物の屠畜を容認しつつも、動物の養育環境の保全を求め、苦痛や恐怖を軽減するほか、工場生産的畜産や動物実験、愛玩動物に対する道徳的な配慮を求める議論が主流である¹⁾。その一方で1970年代以降、オーストラリアの哲学者ピーター・シンガーが主張する「動物の解放」²⁾や、アメリカの哲学者トム・リーガンが唱える「動物の権利 (Animal Rights)」³⁾にまつわる議論は賛否両論がつづいている。

しかし、近年、ノン・ヒューマンパーソンズ (non-human persons) に対して法的な「人格権」を付与する考え方は、すでにEUや台湾、南米の一部地域を含めて、限定ながらも広がりつつあることも看過できなくなっている。私たちにとって衝撃的であったのは、2014年にインド最高裁の判決であった。そこでは、動物は人間の所有物であるとしながら、すべての動物が憲法のもとで人間と同じく固有の生きる権利を有しているとの判断が下されたのである。こうしたなかで、カナダの政治哲学者のウィル・キムリッカの主張には注目しておきたい。詳しく説明する余地はないが、キムリッカは、「動物の権利」について従来のように道義論、福祉主義、生態系中心主義の議論ではなく、多文化主義について展開したときと同様に、正義や人権という政治的枠組みのなかで捉えようとする現実路線を提示し、議論を前に進めた点に特色がある⁴⁾。

1) Ruth Harrison, *Animal Machines*, Stuart (Vincent) & J.M.Watkins Ltd, 1964.

2)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s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HarperCollins, 1975.

3)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4) スー・ドナルドソン、ウィル・キムリッカ『人と動物の政治共同体 - 「動物の権利」の政治理論』(尚文社、2016年)。原著は、Sue Donaldson and Will Kymlicka,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である。なお、キムリッカの多元主義に対する考え方は、ウィル・キムリッカ『多文化

ただし、本稿の目的は、「動物の権利」を理論的に掘り下げたり、それを擁護したりすることではない。むしろ、「動物の権利」が擬似的に尊重された時代、すなわち戦時下における動物と人間社会との関係性についての諸事実を洗い出すことを課題としている。なぜなら、戦争は動員する人や動物の権利を抑圧する一方で、あたかもこうした権利を容認したかのようなプロパガンダを浸透させよう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ここでは、戦時下の帝国日本および満洲国において、民族の「独立」や「五族協和」など擬似的な多文化主義が標榜されるなかで、戦争に動員された軍用動物をめぐる環境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それは保証されたのか、あるいは疎外されたのか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これまでの歴史学で看過されてきた「動物の権利」論に対して、まずは諸事実を掘り起こすことで、この問題への学問的門戸を開放することを試みるものである。

1 戦時期における軍用動物の制度的処遇

日本軍における主要な軍用動物は、馬、鳩、犬である。当時の陸軍では、輸送順位などにおいて「軍人、軍馬、軍犬、軍鳩、軍属」という俗謡があり⁵⁾、軍属のような民間人の徴用者よりも軍用動物が優先されたともいわれる。軍用動物の活躍の場は、斥候（監視・偵察）・巡察、伝令（通信・連絡）、歩哨（警戒・見張り）、格闘、救護、運搬だけではない。除役した功勞軍馬の中には使役や食用、皮革利用などに使われる事例も多かったために、1933年に発足した財団法人軍馬愛護協会のように民間の篤志家に預託し愛護する動きもあらわれたのである⁶⁾。

軍用動物のうち最も早くに利用されたのが軍馬であった。日清、日露両戦争における朝鮮半島や満洲南部で活用されたのである。一方、軍犬、軍鳩は、第一次世界大戦時期のヨーロッパ戦線での戦況を分析したうえで、1920年代以降にその活用が試みられ、30年代の満洲事変の際に実戦に動員された。実際、1935年度の陸軍における満洲事変費のうち、馬匹費^{ばひつ}の0.1%相当が軍鳩費、0.2%強が軍犬費として計上されていた⁷⁾。その後、日中戦争、そして太平洋戦争へと突入するなかで、動員される動物の数量は、著しく増加していく。そのことは、明治時代以降の日本の戦争で斃れた軍馬の頭数からも把握できる。日露戦争は3万467頭、第一次世界大戦期の日独戦争では1,638頭、シベリア事変は2,437頭、済南事変^{さいなん}は97頭、満洲事変は2,434頭、日中戦争勃発5か月間だけでも1万1,045頭の軍馬が戦場で亡くなったとの統計が残されており⁸⁾、また別の記録では約11万6000頭が戦死したとあ

主義のゆくえ：国際化をめぐる苦闘』（法政大学出版局、2018年、原著は2017年）をあわせて参照されたい。

5) 秦郁彦編『日本陸海軍総合事典』（第2版）、東京大学出版会、2005年、725頁。

6)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日本文化中央聯盟、1943年、45-46頁。

7) 齋藤直幹『財政中心国防論』言海書房、1935年、181頁。

8) 『讀賣新聞』第二夕刊、1937年12月26日。

る⁹⁾。また、軍鳩については、1939年初旬までに3万5千羽が亡くなったとの記録がある¹⁰⁾。翻って日中戦争から太平洋戦争終結までの約8年間に、(推定数値であるが)約11万6000頭の軍馬(うち日本から連れていかれたのは約6万5000頭、中国で現地調達されたのが約5万9000あまた)、5万~10万頭の軍犬¹¹⁾、6万羽ほどの軍鳩が戦地に赴いたとするならば、日本の敗戦とともに戦地に放置された動物が少なくなかったことがわかっていよう。これは、いまだに日本敗戦後の将兵や民間人の帰還問題をめぐる議論から抜け落ちた問題でありつづけている¹²⁾。

(1) 軍用動物の「人格」化

戦争や地域紛争が起こり、軍用動物の犠牲が増えるにつれて、慰霊碑の設置や慰霊祭の開催も増えていく。同時に、一般兵士と同様に、軍用動物にも「人格」に相似する資格や条件が付与されたことにも留意する必要がある。具体的には、徴兵検査に相当する「徴発検査」の実施、出征祝い、軍事訓練、軍功賞の付与などである。以下、それらの制度化の過程について言及する。

「徴発検査」 日露戦争終了後、1906年から産馬改良増殖30年計画が着手されて(第一次馬政計画)、満洲の優良馬1万頭を輸入された。たとえば、北海道十勝^{とから}では道内だけでなく本州や満洲からも集めて約20か所に馬市がたち、陸軍による買い上げがおこなわれた。その計画が終了し、1936年4月から第二次馬政計画が着手されるが、2年後には陸軍の要望により、この計画に変更が加えられる。陸軍としては、馬の生産よりもその活用を重視しており、とくに戦場で必要となる乗馬・挽馬・戦列駄馬の育成を促進することを狙っていたのである。この計画変更後、1939年には、陸軍省の主導のもとで馬政関係三法といわれる「競馬法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種馬統制法」「軍馬資源保護法」が成立して、毎年民間の馬を検定して軍用保護馬に指定し、なおかつ「強制徴用」も視野に入れた、いわば馬の「国家総動員法」とも言われる法体制が整えられたのである。

このうち「軍馬資源保護法」により、1939年8月1日から全国一斉に施行されることになった。馬の検査は、まず身長、脅威、足の周りの大きさなどを計測し、次に馬の系統種別、発達状態、眼などを調べ、最後に広場での駆け足ぶりの検査を通して、検査官が合否を判定するのである。政府は毎年1回2歳馬にこうした検査をおこない、これに合格したものを3歳になってから「軍用馬」として指定し、同時に市町村の馬籍に記載し、飼養者に毎年50円の飼養補助金を与えた。こうして在郷軍馬=軍用馬として待機して、必要に応じて陸軍軍馬補充部が購入することで「軍馬」として認定されたので

9) 東海林次男『日本の戦争と動物たち』1、汐文社、2017年、39頁。

10) 『東京朝日新聞』朝刊、1939年3月6日。

11) 東海林次男、前掲書、38-39頁。

12) 敗戦時に日本に引き揚げた軍人軍属、民間人が計約660万人にのぼったことを想定すると(『毎日新聞』2015年9月23日)、軍用動物の引き揚げが1匹も確認できないことは問題視すべきかと思われる。

ある¹³⁾。

軍用犬の場合、1932年設立した社団法人帝国軍用犬協会が、陸軍の後援のもと、民間における軍用犬の増殖、育成につとめるための指導機関として検査にあたった。第64回帝国議会で通過した1933年度の予算により、軍犬の整備充実をめぐる環境が改善されることになり、翌年2月の「軍犬管理規則」の公布をみる。その結果、1934年6月、帝国軍用犬協会では、訓練試験仮規程、種犬選定仮規程が可決される。前者の試験科目は、臭覚作業、服従性、熟練性、馴致、鋭敏性・勇敢性、水中作業などに亘る¹⁴⁾。これに合格すると、在郷軍犬または軍用保護犬に認定され、いつでも応召される資格をもつことになる。その一方で東京、大阪、神奈川などでは畜犬税を支払う必要がなくなるという「特権」をもつことにもなった¹⁵⁾。その後、陸軍による軍犬購買会の審査を経て、はじめて「軍犬」として認定されたのである。

軍鳩も、検査がおこなわれた。ただ馬や犬と違って、検査は軍の専門検査官がおこなった。たとえば、1937年6月16日、関東一帯の海軍志願の伝書鳩の検査が、朝日新聞本社屋上でおこなわれている。これは横須賀防備隊が民間から買い上げる軍用伝書鳩で、東京、埼玉、群馬の愛鳩家が出品した生後3、4か月の雛鳩300羽が検査対象となった。防備隊の専門試験官が厳格な検査をおこない、うち80羽が合格して、1羽4円で買い上げて横須賀に向かったと報道されている¹⁶⁾。

出征祝い

人間が出征するときにおこなわれていた出征祝賀式あるいはパレードが、軍用動物が出征するときにも実施されていたこと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たとえば満洲事変の翌年1月、伝書鳩補充隊約400羽が奉天の独立守備隊に送られる時、東京駅のプラットフォームには「祝出征伝書鳩 東京鳩倶楽部」の垂れ幕が飾られ、見送りの鳩が放たれるなどの例が見られた¹⁷⁾。こうしたイベントは、日中戦争勃発以降、各地でおこなわれたようである。たとえば、1938年10月、北海道十勝では馬の出征に際して、赤飯を炊いてお祝いをし、鎮守様に家族総出でお参りして武運長久を祈願し、近隣の人たちとともに駐車場で万歳三唱をして送り出したという例もあった¹⁸⁾。また、1939年5月、ノモンハン事件直前のころに、朝日新聞社が北海道の小樽で、子ども向けニュース映画アサヒコドモグラフィ「軍用犬の出征」のシーンが撮影されていた事例も確認されている¹⁹⁾。

13) 常磐学人「馬政革新の二大法案—興亜議会展—酪農統制法とは何か」『文化農報』3月号、1939年、6頁。『讀賣新聞』夕刊、1939年4月7日。『東京朝日新聞』朝刊、1939年7月3日、同年8月6日。

14) 『公報』『軍用犬』第3巻第8号、1934年、5、10-11頁。

15) 『東京朝日新聞』朝刊、1940年12月29日。

16) 『東京朝日新聞』朝刊、1937年6月17日。

17) 『東京朝日新聞』夕刊、1932年1月26日。

18) 『東京朝日新聞』朝刊、1938年7月31日。

19) 朝日メディアプロダクションが作成されている「1940アーカイブス～あのころ日本は～」には、1939年5月に「アサヒコドモグラフィ」として撮影された軍用犬の出征式の様子がアップされている。

<https://www.asahi.com/articles/ASMC55VHQM5IPE01N.html>

軍功章 満洲事変で軍用犬、伝書鳩を使用し、予想外の好成績を得たことから、陸軍省軍政課や恩賞課などは、軍馬、軍犬、軍鳩に軍功章の授与を決定した。こうして、1933年6月1日から「軍用動物表彰内規」が施行され、軍馬、軍犬、軍鳩とも、功績の度合いによって甲功章（金鷄勲章に相当）、乙功章（旭日章に相当）、丙功章（瑞宝章に相当）が刻印された首輪（軍馬、軍犬）、金環（鳩）が軍功賞として付与されたのである²⁰⁾。

1933年7月、最初に軍功賞を受けた軍犬は、満洲事変勃発直後に北大營突撃で亡くなった金剛と那智であった。この両犬は、奉天の独立守備隊第二大隊で歩兵大尉板倉至が育成していたもので、その死にざまは教科書に載るなど英雄譚として広められていく²¹⁾。また軍鳩への最初の軍功章は、上海戦において斃れた第九師団附の軍鳩である第一六七号（甲功章）、第十六号（乙功章）に同年11月に授与されている²²⁾。軍馬の表彰は、1942年4月までの統計では、甲功章384、乙功章832、丙功章300、計1516頭に達しており、軍用動物のなかでは突出した数であった²³⁾。

軍事訓練 軍犬については、満洲事変を契機に価値が認められ、1933年千葉県に陸軍歩兵学校軍犬育成所、同年12月には満洲南部の遼陽に関東軍軍犬育成所が設置されて訓練がおこなわれた。また、満鉄も1931年に大連周水子に満鉄警戒犬訓練所、34年に奉天に鉄路総局警備犬育成所を設置した²⁴⁾。さらに軍犬以外の在郷犬に対しては、1933年9月に社団法人帝国軍用犬協会が東京市郊外の赤羽に第一軍用犬養成所を開設して訓練を施した。

軍用保護馬として認定された馬に対しては、普通鍛錬のほか、畜産組合联合会、県区域畜産組合、指定法人が、1府県1か所で年2回、毎回4日以内の鍛錬馬競技（従来の地方競馬がおこなわれた²⁵⁾）。

鳩の訓練所としては、1928年に陸軍軍用鳩調査委員会事務所を改組して軍用鳩育成所が設置されたほか、満洲国成立後は首都新京に軍用鳩養成所、公主嶺に関東軍軍用鳩育成所が設置され、満鉄も遼東伝書鳩聯盟や満鉄社員鳩友会などの民間団体を組織し、日満それぞれで軍鳩の育成の普及、愛鳩家の増加に努めようとしていた²⁶⁾。

慰霊碑の建立、慰霊祭の開催 戦後に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がおこなった調査により、戦前・

20) 長谷川正道『国民参考兵器大観 附其の戦法』宝文館、1934年、口絵写真。

21) 『東京朝日新聞』夕刊、1933年7月6日。

22) 『東京朝日新聞』朝刊、1933年11月15日。

23) 『続日本馬政史』1、社団法人農山漁村文化協会、1963年、742頁。

24) 『満洲に於ける軍犬事情』『軍用犬』第7巻第1号、1938年、68頁。

25) 常磐学人、前掲、6-7頁。『讀賣新聞』夕刊、1939年4月7日。

26) 永代静雄「満・蒙・華の鳩人に言ふ」、『普鳩』第87号、1942年、1頁。

戦中に建立された動物慰霊碑の大半が満洲事変以降のもので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る。そのうち、祭祀されず放棄されたり、戦後直後のGHQによる撤廃令を逃れたり、あるいは自然災害を掻い潜って残存した57点の慰霊碑の建立者は、師団5（旭川第七師団、仙台第二師団2基、名古屋第三師団、善通寺第十一師団）、学校7（士官学校3、騎兵学校1、野戦砲兵学校1、獣医学校1、熊本の予備士官学校1）、聯隊など部隊16基、軍馬補充部各支部10基、民間人19基であることも確認されている²⁷⁾。

軍用動物の慰霊碑建立とともに、慰霊祭もおこなわれている。満洲事変2周年を記念して、1933年に騎兵の森岡守成大将^{もりおかもりしげ}を会長として軍用動物慰霊会が発足し²⁸⁾、9月に同会主催による「軍用動物慰霊の夕」が日比谷音楽堂で開催された²⁹⁾。また、日中戦争勃発年の1938年10月、帝国馬匹協会、日本競馬協会、日本乗馬協会による共催、陸軍省、農林省の後援により、毎年全国各地に支那事変軍馬祭が日比谷公園で開催された³⁰⁾。この軍馬祭は翌年以降にもつづけられたが、太平洋戦争勃発後には「大東亜戦争軍馬祭」と改称されている。

また、1937年11月21日には、上野公園動物園内の慰霊碑前にて、日中戦争で亡くなった軍馬、軍用犬、伝書鳩など慰霊祭が開かれた³¹⁾。これ以降、毎年、上野動物園では戦歿軍用動物慰霊祭を含めた軍用動物感謝会が開かれている³²⁾。1942年10月の軍馬祭では、太平洋戦争勃発二周年を記念して、日本馬事会主催、陸軍省、農林省、内務省、文部省、厚生省、情報局、東京府、東京市、大政翼賛会後援のもと、上野動物園正門前の広場で大規模に開催されたようである³³⁾。

さらに、1938年12月26日、代々木練兵場北西隅に、貴族院議員丸山鶴吉^{まるやまづるきち}を委員長とした軍用動物慰霊会により、軍馬、軍鳩、軍犬4万5000余を祀る慰霊祭が開催され、軍用動物慰霊碑が建立された。それ以降、代々木練兵場においても、陸軍省馬政課や軍用動物慰霊会による慰霊祭が開催されていく³⁴⁾。

このように関東地方では、軍用動物も慰霊祭については、日比谷公園、上野動物園、代々木練兵場が拠点となっていた。満洲では、誠忠碑も設置されている新京の西公園が満洲事変で死歿した将兵および軍用動物の慰霊の拠点となっていた³⁵⁾。

27) 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戦没軍馬鎮魂録余話 愛馬袋③」『偕行』平成4年6月号、1992年、50-51頁。

28) 木原清「軍用動物慰霊碑に就いて」『軍用犬』第7巻第2号、1938年、68頁

29) 『東京朝日新聞』朝刊、1933年9月17日。

30) 『東京朝日新聞』朝刊、1938年8月21日。

31) 『東京朝日新聞』夕刊、1937年11月22日。

32) 『東京朝日新聞』夕刊、1940年3月10日。

33) 『東京朝日新聞』朝刊、1942年10月23日。

34) 『讀賣新聞』第二夕刊、1937年12月26日。『東京朝日新聞』夕刊、1937年12月27日。代々木練兵場にあった慰霊碑は、1951年頃警察官話所の敷地などの関係から、撤去される（『日本本馬政史』続・第三、財団法人神翁顕彰会、1963年、17頁）。

35) 『満洲事変の真相』新版、大将写真芸所、1931年、49頁。「雑報」『陸軍獣医団報』第287号、1933年、460頁。

(2) 軍用動物の統制化

1938年5月に施行された国家総動員法の第18条により、戦時下の政府は勅令によって同種もしくは異種の事業の事業主・団体に対して、当該事業の統制などを目的とする団体や会社の設立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た。むろん、動物愛護団体、畜産業なども例外ではなく、従来の団体が解体されて新たな統制団体が再組織化される。ただし、留意すべきは、総動員体制下であったとはいえ、軍や政府による統制団体が、従来の民間団体と必ずしも円滑な関係を保っていたわけではなく、ましてやすべての民間団体を解体させたわけではなかったという点である。

日本馬事会 日露戦争終了後、1906年5月から内閣総理大臣管理下に設置された馬政局^{ばせいきく}によって産馬改良増殖30年計画が着手されたことは、すでに述べた。この間、馬事にまつわる「国防の充実と、産業の発達と、農村の振興等」の増進を図るため、全国馬事の統一が企画されて、1926年7月に馬匹の生産、育成、利用に関する各団体を統合、統制するために、「馬の改良発達並其利用増進を図り併せて之等事業を統一するを目的とする」社団法人帝国馬匹協会が発足した。これにともない従来の大日本産馬会、帝国競馬協会、日本乗馬協会などが解散される³⁶⁾。つづく1936年からの馬政第二次計画では、開拓や軍事侵攻のためにいかに軍馬を中国大陸に送りこむかという逆転した内容に変更された。この計画実施のためもあって、1923年にいったん廃止となっていた馬政局も1936年7月に農林省の外局として復活する。さらに、国家総動員法第18条にもとづき、馬事に関する事業の統制を促進するため、1941年12月22日に社団法人帝国馬匹協会、軍用保護馬鍛錬中央会、財団法人大日本騎道会などが解散し、新たに一元的統制組織として日本馬事会が発足し、この時点で馬政団体の統制は完了したとみられる³⁷⁾。

帝国軍用犬協会 軍犬の活用は、第一次世界大戦以降、日本国内にジャーマン・シェパードの移入が行われて以降といわれる。陸軍歩兵学校内に軍犬育成所が置かれ、シェパードを中心にドーベルマンやエアデル・テリアの3種だけで軍用犬の育成が行われた。秋田犬、土佐犬のような日本犬ではなく、洋犬だけが軍犬になれたのである。1928年に民間団体として発足した日本シェパード犬倶楽部が、軍や警察にシェパードを供給し始める。こうした民間からの供給経路を経て育成された陸軍の軍用犬は、満州事変以降も伝令犬や警備犬として前線で顕著な活躍を見せたため、新たに1932年9月に社団法人帝国軍用犬協会が発足することになる。その定款第二条には、軍用犬、警察犬、家庭犬の資源を充実させ、有事の日に備えるべく、「本協会は軍用犬及勤務犬の利用増進を図りて其の改良発達を促進し、蕃殖訓練の研究、指導をなし、軍用犬及勤務犬の増殖を助成し、畜犬思想の普及向上を図るを以て目的とす」とある³⁸⁾。この協会は、日本国内はもちろん、朝鮮半島には朝鮮（京城）

36) 社団法人帝国馬匹協会『帝国馬匹協会創立総会報告』、1927年、12、22、42頁。

37) 山田仁市編『社団法人帝国馬匹協会業績概要』日本馬事会、1943年、152-154頁。

支部のほか、仁川、太田、光州、慶北、湖南、群山、平壤、西鮮、北鮮、咸南、咸興、元山各分会、台湾には台北、台南、南台湾、北台湾各支部、中国には青島、広東、石門市各支部を設置した³⁹⁾。

さらに、その翌1933年8月に、帝国軍用犬協会と姉妹団体として、大連で満洲軍用犬協会の創立総会発が開催された。外地の軍用犬協会はこちらだけと思われる。会長には陸軍中将高柳保太郎^{たかなぎやす たらう}が着任した。すでに満鉄などにおいても勤務犬としての功績が評価されており、奉天の独立守備隊および関東軍においても軍犬を整備することになり、有事の日に備えるべく、「本協会は軍用犬及勤務犬の利用増進を図りて其の改良発達を促進し、蕃殖訓練の研究、指導をなし、軍用犬及勤務犬の増殖を助成し、畜犬思想の普及向上を図るを以て目的とす」と明記された⁴⁰⁾。さらに、同年12月24日には、関東軍軍犬育成所も開所している。

しかしながら、陸軍の意向を受けた帝国軍用犬協会が圧倒的な権力を持ちながらも、民間主導の日本シェパード犬倶楽部（のち日本シェパード犬研究会、日本シェパード犬協会）は解散することなく、官民の関係は終戦まで対立がつづいたのである⁴¹⁾。

大日本軍用鳩協会 1930年12月7日、中野の軍用鳩調査事務所で日本伝書鳩協会が設立され、1938年陸軍大臣認可により社団法人に改組される⁴²⁾。1939年3月以降毎年、日本伝書鳩協会は東京市主催の「軍馬並に軍用動物感謝週間」にちなんで上野動物園で伝書鳩慰霊祭を挙行することになる。さらにその年、日本伝書鳩協会は大日本軍用鳩協会に再び改組され、鳩界の統制機関となった。同協会は3000名ほどの会員を抱えるに至った。同協会の目的や事業は、「軍用並に通信に供する鳩を養成し其普及発達を図り之が資源の充実を期し報国の実を挙ぐる」ために、「大日本国防鳩隊を組織し全国に鳩通信網を構成軍と緊密に連繫し国防通信を実施す」「日本全国に於ける軍用鳩の鳩籍の統一をなし之がため協会所定の脚環を製作頒布し会員の飼育鳩に装着せしむ」とある⁴³⁾。

ただし、鳩界における大日本軍用鳩協会の統制事業は、戦域の拡大とともに、さまざまな対立を顕在化させることになる。たとえば、1935年1月民間で成立した中央普鳩会^{ふきゅうかい}は、「大東亜の要地に鳩通信網を建設する」ために1942年に大東亜伝書鳩総聯盟を立ち上げたが、翌年には大日本軍用鳩協会との紛争が裁判沙汰に発展したのである⁴⁴⁾。

また、1943年11月に満洲国の首都新京に発足した社団法人大陸軍鳩協会は、「満洲における軍用敵種鳩の増殖、素質の向上竝に之が実用化を図り、軍鳩思想の普及発達を助成し軍警用の需要に応ずる

38) 「雑報」『陸軍獣医団報』第281号、1932年、74頁。

39) 「十周年日誌」『軍用犬』第10巻第9号、1941年、30-81頁。

40) 「満洲軍用犬協会の創立」『軍用犬』第2巻第10号、1933年、66-67頁。

41) 今川勲『犬の現代史』現代書館、1996年、44～54頁。

42)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日本文化中央聯盟、1943年、44頁。

43) 日本文化中央聯盟編刊『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版』、1943年、44頁。

44) 「鈴木孝民對協會除名取消請求訴訟を繞る原被兩告の論争點」『普鳩』第97号、1943年、9-12頁。

を以て目的とし、大日本軍用鳩協会との連携を標榜するものの、そのじつは干渉を排除し、独自の活動を進めようとしていたことが見てとれる⁴⁵⁾。

2 戦後の動物慰霊の二つの潮流

(1) 靖国神社の慰霊碑奉納を契機として

現代の日本で、戦争と動物との象徴的な関係は、靖国神社に奉納されている戦歿馬慰霊像、鳩魂塔、軍犬慰霊像という3つの動物慰霊碑に見ることができる(下図)。

戦歿馬慰霊像 この像は、1958年4月に戦歿馬慰霊像奉納協賛会(1957年創立)が建立したものである。この協賛会は、1957年4月に陸軍士官学校卒の元騎兵将校城戸俊三きど しゅんぞうが発起人となり、元貴族院子爵議員で軍用保護馬鍛錬中央会副会長であった西尾忠方にしおなだみちが理事長に着任した。城戸は、陸軍士官学校卒の騎兵将校で、ロサンゼルス・オリンピックでは馬術



チーム主将として活躍し、戦中は陸軍騎兵学校において教鞭をとり、戦後は皇居内の乗馬クラブで教官を務めていた。彼らが立ち上げた協賛会の目的は、戦争によって死去した数十万頭の軍馬を慰霊することはもとより、その象徴として靖国神社に馬像を奉納することにあつた。馬の彫像作家として知られていた伊藤國男いとう くにおの奉納希望に手をかすることで、翌年にこの像が奉納されたことになる。

一方、慰霊祭のほうは、ずっと遅れて1978年に始まる。こちらは元騎兵連隊に所属した人たちの集まりである萌黄会もえぎ かい(騎兵の襟章が萌黄色)が運営したが⁴⁶⁾、わずか5年目でいったん立ち消えとなる。そこで、1985年に平山一郎ひらやまいちろう(陸軍大学校卒、関東興業取締役社長、東京乗馬倶楽部会員)が、城戸俊三、偕行社会長の武田恒徳たけだつねよし、旧騎兵隊将校の印南清いんなんきよし、萌黄会代表世話人白井正辰しらいまさたつらの意向を受けて、慰

45) 『戦時体制下に於ける事業及人物』東京電報通信社、1944年、963頁。

46) 『東京朝日新聞』夕刊、1988年12月7日。

霊祭を復活させることになる⁴⁷⁾。しかしながら、旧軍人の高齢化により、いまは靖国神社が代わって慰霊祭を続けている。

鳩魂塔 次に建立された鳩魂塔は、1982年に奉賛会と日本鳩レース協会の手によって復元され、靖国神社に奉納された。その源流は、1929年3月に宮内省御用係の徳川義恕^{とくがわよしきみ}が主唱者となって民間の寄付金を集め、陸軍中野電信隊の軍用鳩調査会前庭に建立したブロンズ製の鳩魂碑であった⁴⁸⁾。その10年後、陸軍電信学校が神奈川県座間市へ移動するにもなって、東京市が管轄がとなって、碑は上野動物園内に移転された⁴⁹⁾。戦後も毎年5月に日本伝書バト協会、讀賣鳩の会、上野動物園の共催で伝書バト慰霊祭が開催され、戦争だけでなく、報道、医療、レースなどで死んでいった伝書鳩の冥福を祈っていたが⁵⁰⁾、1970年代以降には放置されて老朽化してしまう。そこで、1981年4月鳩レース協会の小林小左衛門^{こばやし こざえもん}が再建奉賛会の発起人、上野動物園園長古賀忠道^{こが ただみち}が初代会長として再建運動が進められ、鳩魂塔の復元に至ったわけである⁵¹⁾。

軍犬慰霊像 この像は、新潟出身の鋳金工芸作家である市橋敏雄^{いちはしとしお}が制作にあたり、1992年3月20日に設置された。この像の建設の源流には、後述する動物への軍功賞付与にもなった2つの動きがあった。ひとつは、1933年7月7日に神奈川県^{ずし}逗子市にある延命寺境内に設置された奉天の独立守備歩兵第二大隊板倉至大尉の愛犬ジュリーの慰霊碑⁵²⁾、いまひとつは1939年5月に満洲国南部の遼陽郊外に建立された軍犬慰霊碑である。後者については関東軍軍犬育成（のちお満洲第五〇一部隊、第一三九九〇部隊）の高浪金治所長らが、旧ロシア軍旅団司令部跡地に開設した慰霊碑である⁵³⁾。同育成所は、1941年10月にと改称され、敗戦直前にはとなるが、同隊所属の多くの将兵がシベリアに抑留されてしまう。そして彼らが1948年に帰国を果たした後に最初に目を向けたのが、1943年金属類回収令により撤去されたジュリーの慰霊碑の再建であった。また、遼陽郊外の軍犬慰霊碑に代わるモニュメントの設置運動を始めたのである。こうして、元関東軍軍犬育成所の関係者が中心となって、1963年に逗子市に動物愛護碑が再建され、その30年ほど後の1992年3月20日の動物愛護の日に靖国神社に⁵⁴⁾、そして2020年4月新潟県護国神社に戦歿犬慰霊碑が建立されるに至ったのである。

47) 『讀賣新聞』朝刊、1985年4月4日。

48) 『東京朝日新聞』朝刊、1929年3月23日。

49) 『東京朝日新聞』朝刊、1939年3月4日。

50) 『讀賣新聞』中央版、1968年5月12日。

51) 『レース鳩』1981年10月号。

52) 『東京朝日新聞』夕刊、1933年7月06日；同、夕刊、1933年7月8日。

53) 『満洲日日新聞』1939年5月13日。

54) 「委員会報告」『偕行』497、1992年5月号、2頁。

こうした靖国神社における戦歿馬慰霊像の設置運動を機に、戦後日本各地では軍用動物の慰霊碑が建立または再建されている⁵⁵⁾。戦歿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が編纂した『戦歿軍馬鎮魂祭』（偕行社、1992年）からは、戦後に建立された軍馬慰霊碑51点の建立者は、師団・旅団4基、歩・騎・砲・工・輜重部隊35基、野戦病院1、獣医学校1、慰霊碑建立会1、顕彰会1、馬事振興会1、馬術連盟1、神社奉賛会2、個人4が建立され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そのうち、軍用動物名が複数刻まれているのは、奉天の独立守備隊歩兵第二大隊会の「軍馬犬鳩供養塔」（仙台）をはじめ、檜第六八師団（大阪）、歩兵第三四聯隊（静岡）、歩兵第一〇八聯隊（三河、大阪）、歩兵第一二〇聯隊（福知山／馬嶋のみ）、歩兵第二一六聯隊（大阪）、歩兵第二一七聯隊（大阪）、第三四師団通信隊（大阪／馬嶋のみ）の慰霊碑である⁵⁶⁾。なお、筆者による調査では、いまのところ、2015年に福井県特攻顕彰会が建立した軍馬・軍犬・軍鳩之碑が最も新しい慰霊碑と思われる。

（2）平和運動の一環として

こうした戦友会による運動とは別に、戦後初の動物慰霊祭が1960年に上野公園で開催されている。戦時下に上野動物園で菜殺された動物たちを弔うもので、今日ではこのイベントのほうがよく知られている⁵⁷⁾。また、1988年に北海道十勝本別町では、仙美里駅せんびりの元駅長であった森弘建立の「鎮魂・軍馬之碑」のように、明確に平和（反戦）を願う碑もある⁵⁸⁾。

近年、戦争と動物との関係にも注目されるようになり、写真展も開催されている。たとえば、昭和館の特別企画展「船中・戦後をともした動物たち」（2008年7～8月）、静岡平和資料センター展示「電送と動物」（2012年11月～2013年2月）、ナガサキピースミュージアムの企画展「戦争に使われた馬たち」（2014年12月～2015年1月）⁵⁹⁾、北海道本別町歴史民俗資料館の企画展「戦争にいった馬たち」（2017年7～8月）⁶⁰⁾、ピースあいちの企画展「戦争と動物たち」展（2019年10月～11月）、愛知県庁大津橋分室1階で開催された企画展「軍馬の歴史を探る」（2022年11月～2023年3月）などがある。これら特徴ある企画展は、戦中・戦後の軍用動物の慰霊というよりも、戦争で犠牲になった動物の実態を明らかにし、動物愛護の精神を鼓舞するものであり、写真を通じて戦後世代に戦争と平和、軍用動物の理解を促している。

55) 『讀賣新聞』朝刊、1985年4月4日。軍馬の慰霊像については、1962年8月に新潟県護国神社（1979年12月再建）、1982年7月に新潟県上越市、1986年に彦根の護国神社にそれぞれ建立されている（戦歿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戦歿軍馬鎮魂録余話 愛馬袋⑤」、『偕行』平成4年8月号、1992年、39～41頁）。

56) 戦歿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戦歿軍馬鎮魂録』偕行社、1992年、24～35頁。

57) 『東京朝日新聞』朝刊、1960年4月6日。

58) 『東京朝日新聞』夕刊、1988年11月18日。

59) 『毎日新聞』地方版／長崎、2015年1月8日。

60) 『毎日新聞』地方版／北海道、2017年6月26日。

おわりに

戦時下の日本や満洲において、戦争動員のために軍用動物に擬似的な「人格化」が示され、「動物の権利」が尊重されたかに見えた時代においても、結局動物は人間社会にとって都合のいい道具として扱われたにすぎなかった。むしろ戦況に応じて動物の虐待ともいえる状況も発生しており、その状況を精査すると軍の将兵、軍属の処遇に連鎖するものであった。すなわち、人間の処遇と動物の取扱いは、時代とともに連鎖しており、ここに多文化主義的な考え方と「動物の権利」論との接点が見いだせるのである。

번역

다문화주의 접근법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 군용동물(軍用動物) 위령비와 일본 육군

기사 도시히코(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연구소 교수)

시작하며: 다문화주의 접근과 '동물의 권리'론의 관계

다문화주의는 인종, 민족, 이민(移民), 성(性)에 대한 다양성 존중, 사회적 포용, 그리고 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이념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교육, 정책,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다. 반면 최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등장과 거의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한 '동물의 권리', '종의 차별'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심화되고 실천되어 왔을까? 현대의 동물보호관리법의 대부분은 루스 해리슨이 주장한 '동물의 복지(Animal Welfare)'론에 근거하여 동물의 도축을 용인하면서도 동물 양육 환경의 보전을 요구하고, 고통과 공포를 경감시키는 한편, 공장생산적 축산과 동물실험, 애완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요구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한편 1970년대 이후,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동물의 해방'²⁾이나 미국 철학자 톰 리건이 제창하는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³⁾에 대한 논의는 찬반 양론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s)에 대해 법적 '인격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이미 유럽연합(EU)과 대만, 남미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제한적이거나 확산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4년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거기서는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동물이 헌법에 따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윌 김리카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설명할 여지는 없지만, 김리카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기존처럼 도덕론, 복지주의, 생태중심주의 등의 논의가 아니라, 다문화주의에 대해 전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인권이라는 정치적 틀 안에서 파악하려는 현실적 노선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⁴⁾

1) Ruth Harrison, *Animal Machines*, Stuart (Vincent) & J.M.Watkins Ltd, 1964.

2)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s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HarperCollins, 1975.

3)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4) 스ー・ドナルドソン, 윌·킴리ッカ 『人と動物の政治共同体 - 「動物の権利」의 정치理論』 (尚文社, 2016) . 원저(原著)는, Sue Donaldson and Will Kymlicka,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이다. 또, 김리카의 다원주의에 대한 사유 방식은, 윌·킴리ッカ, 『多文化主義のゆ

그렇지만 이 글의 목적은 '동물의 권리'를 이론적으로 파헤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물의 권리'가 유사하게 존중되었던 시대, 즉 전쟁 하에서 동물과 인간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제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왜냐하면 전쟁은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권리를 억압하는 한편, 마치 이러한 권리가 용인되었다는 듯한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전시하 제국 일본과 만주국에서 민족의 '독립'과 '오족협화' 등 의사(擬似)-다문화주의가 표방되는 가운데, 전쟁에 동원된 군용동물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보장되었는지, 아니면 소외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학에서 간과되어 온 '동물의 권리'론에 대하여 우선 제반 사실을 발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전쟁 시기 군용동물의 제도적 처우

일본군의 주요한 군용동물은 말, 비둘기, 개이다. 당시 육군에서는 수송 순위 등에서 '군인, 군마, 군견, 군비둘기, 군속'이라는 속요(俗謠)가 있을 정도로⁵⁾ 군속과 같은 민간인 징용자보다 군용동물이 우선시되었다고 한다. 군용동물의 활약 무대는 척후(감시-정찰)-순찰, 전령(통신-연락), 보초(경계-보초), 격투(格鬪), 구호(救護), 운반 뿐만은 아니었다. 제대한 공로 군마(軍馬) 중에는 사역(事役)이나 식용, 피혁 이용 등에 쓰이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1933년 발족한 재단법인 군마애호협회처럼 민간 독지가에게 맡겨서 애호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⁶⁾

군용동물 가운데 가장 먼저 활용된 것은 군마였는데, 청일·러일전쟁에서 한반도와 만주 남부에서 활용되었다. 반면 군견, 군용 비둘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의 전황을 분석한 뒤에 1920년대 이후 활용이 시도되었으며, 30년대 만주사변 당시 실전에 동원되었다. 실제로 1935년도 육군의 만주사변 비용 가운데 말 한 마리 비용의 0.1% 상당이 군용 비둘기 비용으로, 0.2% 낫짓이 군견 비용으로 계상(計上)되어 있었다.⁷⁾ 이후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접어들면서 동원되는 동물의 숫자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는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의 전쟁에서 소모된 군마의 수치를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러일전쟁은 30,467마리, 1차 세계대전기 일독(日獨)전쟁은 1,638마리, 시베리아 사변은 2,437마리, 제남(濟南)사변은 97마리, 만주사변은 2,434마리, 중일전쟁 발발 5개월 동안만도 11,045마리의 군마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통계가 남아있는데,⁸⁾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약 11,6000마리가 전사했다고 한다.⁹⁾ 또한 군용 비둘기에 대해서는 1939년 초까지 3만 5천 마리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⁰⁾ 그렇다면 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약 8년간 (추정치지만) 약 11만 6천 마리의

くえ: 国際化をめぐる苦闘』(法政大学出版局, 2018, 원저는 2017) 을 아울러 참조 바란다.

5) 秦郁彦編『日本陸海軍総合事典』(第2版)、東京大学出版会、2005、725頁.

6)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日本文化中央聯盟、1943、45-46頁.

7) 齋藤直幹『財政中心国防論』言海書房、1935、181頁.

8) 『讀賣新聞』 第二夕刊、1937. 12. 26.

9) 東海林次男, 『日本の戦争と動物たち』1, 汐文社, 2017, 39頁.

10) 『東京朝日新聞』 朝刊、1939. 3. 6.

군마(이 중 일본에서 가져간 것은 약 6만 5천 마리, 중국에서 현지 조달한 것은 약 5만 9천 마리), 5만~10만 마리의 군견,¹¹⁾ 6만 마리 정도의 군용 비둘기들이 전장에 나갔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의 패전과 함께 전장에 버려진 동물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아직도 일본 패전 후의 장병과 민간인의 귀환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다.¹²⁾

(1) 군용동물의 '인격(人格)'화

전쟁이나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군용동물의 희생이 늘어남에 따라, 위령비 설치나 위령제 개최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병사와 마찬가지로 군용동물에게도 '인격'에 준하는 자격과 조건이 부여되었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징병검사에 해당하는 '징발검사'의 실시, 출정 축하, 군사훈련, 군공훈장(軍功賞) 수여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것들의 제도화 과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징발검사] 러일전쟁이 끝난 후 1906년부터 산마(産馬) 개량 증식 30년 계획(1차 마정[馬政]계획)이 시작되어 만주의 우량마 1만 마리가 수입되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토카치(十勝)에서는 도내(道内) 뿐만 아니라 혼슈(本州)와 만주에서도 말을 모아 약 20곳에 달하는 말시장이 열렸고, 육군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 이 계획이 끝나고, 1936년 4월부터 제2차 마정계획이 착수되지만, 2년 후에는 육군의 요청에 따라 이 계획에 변경이 가해졌다. 육군으로서는 말의 생산보다 그 활용을 중시하고, 특히 전장에 필요한 승마, 만마(輓馬, 수레용 말), 전열태마(戰列駄馬, 짐 나르는 말)의 육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계획의 변경 후 1939년에는 육군성 주도아래 마정관계 3법이라 불리는 '경마법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종마(種馬)통제법', '군마자원보호법'이 제정되어, 매년 민간의 말을 검정(檢定)하여 군용 보호마로 지정하고, 나아가 '강제징용'까지 염두에 둔. 이른바 말의 '국가총동원법'이라 할 수 있는 법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이 가운데 '군마자원보호법'에 따라 1939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기 시작했다. 말의 검사는 먼저 키, 가슴(겨드랑이), 다리 둘레 등의 크기를 측정하고, 다음으로 말의 계통과 종별, 발육 상태, 눈 등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달리기 검사를 통해서 검사관이 합격 여부를 판정했다. 정부는 매년 1회 2세(歲) 말을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실시하여 여기에 합격한 말을 3세가 되면 '군용마'로 지정하고, 동시에 각 지방의 마적부에 기재하는 동시에, 사육자에게 매년 50엔의 사육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재향(在郷)군마=군용마로 대기하고, 필요에 따라 육군 군마 보충부가 구입함으로써 '군마'로 인정받게 되었다.¹³⁾

11) 東海林次男, 前掲書, 38-39頁.

12) 패전 당시 일본에 송환된 군인, 군속, 민간인이 합계 약 660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상정해보면(『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2015. 9. 23), 군용동물에 대한 송환이 단 1마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3) 常磐学人, 「馬政革新の二大法案—興亞議會展—酪農統制法とは何か」, 『文化農報』3月号, 1939, 6頁.; 『讀賣新聞』夕刊, 1939. 4. 7.; 『東京朝日新聞』朝刊, 1939. 7. 3 및 같은 해 8. 6.

군견의 경우, 1932년 설립된 사단법인 제국군용견협회가 육군의 후원 아래 민간에서 군용견의 증식, 육성에 종사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서 검사에 임했다. 제64회 제국의회에서 통과된 1933년도 예산에 따라 군견의 정비 충실과 강화를 둘러싼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이듬해 2월 '군견관리규칙'의 공포를 보게 된다. 그 결과, 1934년 6월, 제국 군용견협회에서는 훈련시험 기구정과 종견(種犬) 선정 기구정이 가결되었다. 전자의 시험 과목은 취각(臭覺)작업, 복종성, 숙련성, 순응성(馴致), 예민성-용감성, 수중(水中)작업 등에 걸쳐 있다.¹⁴⁾ 이것에 합격하면 재향(在郷) 군견 또는 군용 보호견으로 인정받아,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 등지에서는 축견세(畜犬稅)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¹⁵⁾ 이후 육군 군견구매회의 심사를 거쳐 비로소 '군견'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군용 비둘기도 검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말이나 개와 달리, 검사는 군의 전문검사관이 실시했다. 예를 들어, 1937년 6월 16일, 관동 일대의 해군 지원용 전서구(傳書鳩) 검사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사 옥상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요코스카(橫須賀)방위대가 민간에서 매입한 군용 전서구로, 도쿄, 사이타마(埼玉), 군마(群馬) 지역의 애구가(愛鳩家)가 출품한 생후 3, 4개월 된 새끼비둘기(雛鳩) 300마리가 검사의 대상이 되었다. 방위대의 전문시험관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가운데 80마리가 합격, 1마리당 4엔으로 사들여 요코스카로 향했다고 보도되었다.¹⁶⁾

[출정축하] 인간이 출정할 때 행해지던 출정 축하식이나 퍼레이드가 군용동물이 출정할 때에도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만주사변 이듬해 1월, 전서구 보충대 약 400마리가 평텐(奉天)의 독립수비대로 보내질 때 도쿄역 플랫폼에서는 “축(祝) 출정 전서구(傳書鳩) 도쿄비둘기구락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배용용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¹⁷⁾ 이러한 행사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각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38년 10월 홋카이도 토카치에서는 말이 출정할 때 붉은 밥(赤飯)을 지어 축하하고, 서낭신(鎮守様)께 가족이 총출동하여 참배하면서 무운장구를 기원하며, 인근 주민들과 함께 정거장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며 배용한 사례도 있었다.¹⁸⁾ 또한 1939년 5월, ‘노몬한사건’ 직전 즈음 아사히신문사가 홋카이도 오타루(小樽)에서 어린이용 뉴스영화(아사히고도모그래프[Kodomograph]) '군용견의 출정' 장면이 촬영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¹⁹⁾

[군공장(軍功章)] 만주사변에서 군용견, 전서구를 사용해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육군성 규정과 은상과(恩賞課) 등은 군마, 군견, 군용비둘기에게 군공장(軍功章, 이하 군공로메달)을 수여하기로

14) 『公報』, 『軍用犬』 第3卷 第8号, 1934. 5, 10-11頁.

15) 『東京朝日新聞』 朝刊, 1940. 12. 29.

16)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7. 6. 17.

17) 『東京朝日新聞』 夕刊, 1932. 1. 26.

18)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8. 7. 31.

19) 아사히(朝日)미디어프로덕션이 작성하고 있는 「1940아카이브: 그때 일본은~」에서는, 1939년 5월에 「아사히아동클럽」으로 촬영된 군견의 출정식 모습이 도드라져 보인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MC55VHQM5IIEPE01N.html>)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1933년 6월 1일부터 '군용동물 표창 내규'가 시행되어 군마, 군견, 군용비둘기 모두 공훈(功績)의 정도에 따라 갑공로메달(금치[金鷄]훈장 상당), 을공로메달(육일[旭日]장 상당), 병공로메달(서보[瑞寶]장 상당)이 새겨진 목걸이(군마, 군견), 금환([金環], 비둘기)이 군공로메달로 수여되었다.²⁰⁾

1933년 7월, 최초로 군공로상을 받은 군견은 만주사변 발발 직후 북대영(北大營) 돌격에서 전사한 곤고(金剛)와 나치(那智)였다. 이 군견들은 펑텐의 독립수비대 제2대대에서 보병 대위 이타쿠라 이타루(板倉至)가 양육하던 개로, 그 죽음의 모습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영웅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²¹⁾ 또한 군용비둘기에 대한 최초의 군공로메달은 상하이 전투에서 전사한 제9사단 소속 군용 비둘기인 제167호(갑공로메달), 제16호(을공로메달)에게 같은 해 11월에 수여되었다.²²⁾ 군마 표창은 1942년 4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갑공로메달 384마리, 을공로메달 832마리, 병공로메달 300마리를 합하여 총 1516마리에게 수여되었는바, 군용동물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숫자였다.²³⁾

[군사훈련] 군견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33년 치바(千葉)현에 육군 보병학교 군견양성소, 같은 해 12월에는 만주 남부 랴오양(遼陽)에 관동군 군견양성소가 설치되어 훈련이 이루어졌다. 또한 만철(滿鐵)도 1931년 다롄(大連) 슈수이시(周水子)에 만철 경계견(警戒犬)훈련소, 34년 평텐(奉天)에 철로총국 경비견 훈련소를 설치했다.²⁴⁾ 또한 군견 이외의 재향견(在郷犬)에 대해서는 1933년 9월 사단법인 제국군용견협회가 도쿄시 교외 아카바네(赤羽)에 제1군용견양성소를 개설하여 훈련을 실시했다.

군용 보호마로 인정받은 말들에 대해서는 일반 훈련 외에도 축산조합연합회, 현(縣)구역 축산조합, 지정법인이 1부현(府縣) 1개소에서 연 2회, 매회 4일 이내의 훈련마 경기(기존의 지방 경마)가 이루어졌다.²⁵⁾

비둘기 훈련소로는 1928년 육군 군용비둘기조사위원회 사무소를 개조하여 군용비둘기 육성소가 설치되었다. 만주국 성립 후에는 수도 신경에 군용 비둘기 양성소, 공주령에 관동군 군용비둘기 육성소가 설치된 것 외에도, 만철도 랴오둥(遼東)전서구연맹, 만철사원구우회(鳩友會) 등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일만(日滿) 각지에서 군용비둘기 육성 방법의 보급, 비둘기 애호가 증가에 힘쓰고 있었다.²⁶⁾

[위령비 건립, 위령제 개최] 전후 전몰군마위령제 연락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세워진 동물 위령비 대부분이 만주사변(1931) 이후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제사를

20) 長谷川正道, 『国民参考兵器大観 附其の戦法』, 宝文館, 1934, 권두 사진.

21) 『東京朝日新聞』 夕刊, 1933. 7. 6.

22)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3. 11. 15.

23) 『続日本馬政史』 1, 社団法人農山漁村文化協会, 1963, 742頁.

24) 「滿洲に於ける軍犬事情」, 『軍用犬』 第7卷 第1号, 1938, 68頁.

25) 常磐学人, 前掲書, 6~7頁. 『讀賣新聞』 夕刊, 1939. 4. 7.

26) 永代静雄, 「滿・蒙・華の鳩人に言ふ」, 『普鳩』 第87号, 1942, 1頁.

지내지 않고 버려지거나, 전쟁이 끝난 직후 GHQ의 철거령을 피하거나, 또는 자연재해를 피해 살아남은 57기의 위령비 건립자는, 사단 5개(아사히카와[旭川] 제7사단, 센다이[仙台] 제2사단 2기, 나고야[名古屋] 제3사단, 쯔쓰지[善通寺] 제11사단), 학교 7개(사관학교 3, 기병학교 1, 야전포병학교 1, 수의학교 1, 구마모토[熊本] 예비사관학교 1), 연대 등 부대 16기, 군마보충부 각 지부 10기, 민간인 19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⁷⁾

군용동물 위령비 건립과 함께 위령제도 거행되고 있다. 만주사변 2주년을 기념하여 1933년 기병 모리오카 모리시게(森岡守成) 대장을 회장으로 하는 군용동물위령회가 발족하여,²⁸⁾ 9월에 동회(同會) 주최로 '군용동물 위령의 밤'이 히비야음악당에서 개최되었다.²⁹⁾ 또한 일중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10월에는 제국마필협회, 일본경마협회, 일본승마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육군성, 농림성의 후원으로 매년 전국 각 부현(府県)에서 일제히 지나사변 군마제가 히비야공원에서 개최되었다.³⁰⁾ 이 군마제는 이듬해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는 '대동아전쟁 군마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37년 11월 21일에는 우에노공원 동물원 내 위령비 앞에서 중일전쟁에서 사망한 군마, 군견, 전서구 등의 위령제가 열렸다.³¹⁾ 이후 매년 우에노동물원에서는 전몰군용동물위령제를 포함한 군용동물 감사회가 개최되고 있다.³²⁾ 1942년 10월 군마제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 2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마사회 주최, 육군성, 농림성, 내무성, 문부성, 후생성, 정보국, 도쿄부, 도쿄시, 다이세이익찬회(大政翼賛會)의 후원아래 우에노동물원 정문 앞 광장에서 대규모로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또한, 1938년 12월 26일 요요기연병장 북서쪽 모퉁이에서 귀족의원 마루야마 츠루키치(丸山鶴吉)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용동물위령회에 의해 군마, 군비둘기, 군견 45,000여 마리를 모신 위령제가 개최됨과 동시에 군용동물위령비가 세워졌다. 이후 요요기연병장에서도 육군성 마정과(馬政課)와 군용동물위령회에 의한 위령제가 개최되기에 이른다.³⁴⁾

이처럼 관동지방에서는 군용동물 위령제에 대해 히비야공원, 우에노동물원, 요요기연병장이 거점이 되었다. 만주에서는 성충비(誠忠碑)가 설치된 신징(新京) 서(西)공원이 만주사변에서 전사한 장병 및 군용동물에 대한 위령의 거점이 되었다.³⁵⁾

27) 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 「戦没軍馬鎮魂録余話 愛馬袋③」, 『偕行』平成4年 6月号, 1992, 50~51頁.

28) 木原清, 「軍用動物慰霊碑に就いて」, 『軍用犬』第7巻 第2号, 1938, 68頁.

29) 『東京朝日新聞』朝刊, 1933. 9. 17.

30) 『東京朝日新聞』朝刊, 1938. 8. 21.

31) 『東京朝日新聞』夕刊, 1937. 11. 22.

32) 『東京朝日新聞』夕刊, 1940. 3. 10.

33) 『東京朝日新聞』朝刊, 1942. 10. 20.

34) 『讀賣新聞』第二夕刊, 1937. 12. 26. 『東京朝日新聞』夕刊, 1937. 12. 27. 요요기(代々木)훈련장에 있던 위령비는, 1951년경 경찰관 초소 부지 등의 문제에 따라 철거되었다. (『日本本馬政史』続・第三, 財団法人神翁顕彰会, 1963, 17頁).

35) 『滿洲事變の真相』新版, 大正写真工藝所, 1931, 49頁. 「雜報」, 『陸軍獸医団報』第287号, 1933, 460頁.

(2) 군용동물의 통제화

1938년 5월에 시행된 국가총동원법 제18조에 따라 전시하의 정부는 칙령으로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 사업의 사업주-단체에 대해 해당 사업의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회사의 설립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 축산업 등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존 단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통제단체가 재조직화되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총동원 체제 하였다고는 해도 군이나 정부에 의한 통제단체가 기존의 민간단체와 반드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모든 민간단체를 해체시켰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일본마사회] 러일전쟁이 끝난 후 1906년 5월부터 내각총리대신 관리하에 설치된 마정국(馬政局)에 의해 산마(産馬)개량증식 30년 계획이 착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시기 말(馬)과 관련된 '국방의 충실과, 산업의 발전과, 농촌의 진흥 등'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마사(馬事)의 통일이 기획되어 1926년 7월 말의 생산, 육성, 이용에 관련된 각 단체를 통합, 통제하기 위해 '말의 개량 발달 및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그 이용 등의 사업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제국마필협회가 발족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일본산마회, 제국경마협회, 일본승마협회 등이 해산된다.³⁶⁾ 이어 1936년부터의 마정(馬政) 제2차 계획에서는 개척과 군사적 침략을 위해 군마를 중국대륙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반전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1923년 한 차례 폐지되었던 마정국도 1936년 7월 농림부 외무국으로 부활한다. 또한 국가총동원법 제18조에 따라 마사(馬事)에 관한 사업의 통제를 촉진하기 위해, 1941년 12월 22일에 사단법인 제국마필협회, 군용보호마훈련중앙회, 재단법인 대일본기도회(騎道會) 등이 해산되고, 새로운 일원적 통제 조직으로 '일본마사회'가 발족하여, 이 시점에서 마정(馬政)단체의 통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³⁷⁾

[제국군용견협회] 군견의 활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국내에 독일산 셰퍼드가 도입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육군 보병학교 내에 군견양성소가 설치되었고, 셰퍼드를 중심으로 도베르만, 에어데일 테리어 등 3종만 군용견으로 육성되기 시작했다. 아키타견(秋田犬), 도사견(土佐犬)과 같은 일본견이 아닌 서양견만이 군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928년 민간단체로 발족한 일본 셰퍼드견구락부가 군과 경찰에 셰퍼드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민간으로부터의 공급 경로를 통해 육성된 육군의 군용견은 만주사변 이후에도 전령견과 경비견으로 전선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1932년 9월 사단법인 제국군용견협회가 새롭게 발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정관 제2조에는 군용견, 경찰견, 가정견의 자원을 충실하게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본 협회는 군용견 및 근무견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여 그 개량과 발달을 촉진하고, 번식 훈련의 연구와 지도를 수행하며, 군견 및 근무견의 증식을 조성(助成)하고, 축견(畜犬)사상의 보급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³⁸⁾ 이 협회

36) 社団法人帝國馬匹協會, 『帝國馬匹協會創立總會報告』, 1927, 12, 22, 42頁.

37) 山田仁市 編, 『社団法人帝國馬匹協會業績概要』, 日本馬事會, 1943, 152~154頁.

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한반도에는 조선(경성)지부 외에 인천, 대전, 광주, 경북, 호남, 군산, 평양, 서선(西鮮), 북선(北鮮), 함남, 함흥, 원산 각 분회, 타이완(臺灣)에는 타이베이(臺北), 타이난(臺南), 남대만, 북대만, 북대만 각 지부, 중국에는 칭다오(靑島), 광둥(廣東), 시먼(石門)시 각 지부를 설치했다.³⁹⁾

또한 이듬해인 1933년 8월에는 제국군견협회와 자매단체인 만주군용견협회 창립총회가 다롄에서 개최되었다. 외지의 군용견협회는 이곳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회장에는 육군 중장 다카야나기 야스다로(高柳保太郎)가 취임했다. 이미 만철 등에서도 근무견으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평텐의 독립수비대 및 관동군에서도 군견을 정비하게 되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본 협회는 군용견 및 근무견의 이용증진을 도모하여 그 개량 발달을 촉진하고, 번식훈련의 연구와 지도를 수행하며, 군견 및 근무견의 증식을 군견 및 근무견의 증식을 조성하고, 축견사상의 보급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었다.⁴⁰⁾ 또한 같은 해 12월 24일에는 관동군 군견양성소도 개소했다.

그러나 육군의 의향을 접수한 제국군견협회가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민간 주도의 일본 셰퍼드견구락부(훗날 일본셰퍼드견연구회, 일본셰퍼드견협회)는 해산되지 않았으며, 민관(民官)의 관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대립하게 된다.⁴¹⁾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 1930년 12월 7일 나카노의 군용비둘기조사사무소에서 일본전서구협회가 설립되어, 1938년 육군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었다.⁴²⁾ 1939년 3월부터 매년 일본전서구협회는 도쿄시가 주최하는 '군마와 함께 군용동물 감사주간'을 기념하여 우에노동물원에서 전서구위령제를 거행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일본전서구협회는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로 재편성되어 비둘기계의 통제기관이 되었다. 이 협회는 3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협회의 목적과 사업은 '군용에 준하는 통신용 비둘기를 양성하고 그 보급과 발달을 도모하여 자원의 충실을 기하고 보국(報國)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일본국방비둘기대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둘기 통신망을 구성군(構成軍))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방통신을 실시한다', '일본 전국에서 군용비둘기의 '비둘기 호적(鳩籍)'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위해 협회 소정(所定)의 다리반지(脚環)를 제작 배포하여 회원의 사육 비둘기에 장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⁴³⁾

그러나 비둘기계에서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의 통제 사업은 전장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갈등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테면, 1935년 1월 민간에서 결성된 중앙보구회(中央普鳩會)는 '대동아 요지에서 비둘기통신망을 건설'하기 위해 1942년 대동아전서구총연맹을 발족시켰으나, 이듬해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와의 분쟁이 법정 소송(재판 사태)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⁴⁴⁾

38) 「雜報」, 『陸軍獸医団報』 第281号, 1932, 74頁.

39) 「十周年日誌」, 『軍用犬』 第10卷第9号, 1941年, 30~81頁.

40) 「滿洲軍用犬協會の創立」, 『軍用犬』 第2卷 第10号, 1933, 66-67頁.

41) 今川勲, 『犬の現代史』, 現代書館, 1996, 44-54頁.

42) 日本文化中央聯盟 編刊,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版』, 1943, 44頁.

43) 日本文化中央聯盟 編刊, 『日本文化団体年鑑 昭和18年版』, 1943, 44頁.

44) 「鈴木孝民對協會除名取消請求訴訟を繞る原被兩告の論争點」, 『普鳩』 第97号, 1943, 9-12頁.

또한 1943년 11월 만주국 수도 신징(新京)에서 발족한 사단법인 대륙군용비둘기협회는 '만주에서 군용 적종(敵種) 비둘기의 증식, 소질의 향상과 더불어 그 실용화를 도모하고 '군용비둘기사상(軍鳩思想)'의 보급과 발달을 조성(助成)하여 군대와 경찰용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일본군용비둘기협회와의 연대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그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⁵⁾

2 전후 동물 위령의 두 가지 조류

(1) 야스쿠니신사의 위령비 봉납(奉納)을 계기로

현대 일본에서 전쟁과 동물의 상징적인 관계는 야스쿠니 신사에 봉납된 전몰마 위령상, 비둘기 영혼탑, 군견 위령상이라는 동물 위령비에서 볼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전몰마(戰歿馬)위령상] 이 동상은 1958년 전몰마위령상봉납협찬회(1957년 창립)가 건립한 것이다. 이 협찬회는 1957년 4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전(前) 기병장교 기도 순조(城戸俊三)가 발기인이 되었으며, 전(前) 귀족원 자작의원으로 군용보호마 훈련중앙회 부회장이었던 니시오 다다미치(西尾忠方)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기도(城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기병장교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마술(馬術)팀 주장으로 활약했으며, 전쟁 중에는 육군 기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전쟁 후에는 황궁 내 승마구락부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 그들이 설립한 협찬회의 목적은 전쟁으로 사망한 수십만 마리의 군마를 위령하는 것은 물론, 그 상징으로 야스쿠니신사에 말 조각상을 봉납하는 것에 있었다. 말 조각 작가로 알려진 이토 쿠니오(伊藤國男)의 봉납 희망에 손을 들어주어 이듬해에 이 동상이 봉납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위령제는 훨씬 늦은 1978년에 시작된다. 이곳은 전 기병연대 소속이었던 사람들의 모임인 모에기회(萌黃會)[기병의 깃발이 맹황색(萌黃色)]가 운영했지만,⁴⁶⁾ 불과 5년 만에 일단 중단된다. 그래서 1985년 히라야마 이치로(平山一郎)(육군대학 졸업, 관동홍업이사장, 도쿄승마구락부 회원)가 기도 순조(城戸俊三), 가이코샤(偕行社) 회장인 다케다 츠네토시(武田恒徳), 구(旧) 기병대 장교 인난 키요시

45) 『戰時体制下に於ける事業及人物』, 東京電報通信社, 1944年, 963頁.

46) 『東京朝日新聞』夕刊, 1988. 12. 7.

(印南清), 모에기회 후견인 시라이 마사타츠(白井正辰) 등의 뜻을 받아들여 위령제를 부활시키게 되었다.⁴⁷⁾ 그러나 구(旧) 군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지금은 야스쿠니신사가 대신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비둘기영혼탑(鳩魂塔)] 다음으로 건립된 비둘기영혼탑은 1982년 봉찬회와 일본비둘기경주협회에 의해 복원되어 야스쿠니신사에 봉납되었다. 그 원류는 1929년 3월 궁내성 어용계(御用係)인 도쿠가와 요시쿠미(徳川義恕)가 주창자가 되어 민간의 기부금을 모아 육군 나카노(中野)전신대의 군용 비둘기 조사회 앞마당에 건립한 청동제 비둘기 영혼비였다.⁴⁸⁾ 10년 후 육군전신(電信)학교가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도쿄시 관할이 되었으며, 비석은 우에노동물원 내로 옮겨졌다.⁴⁹⁾ 전후에도 매년 5월에 일본전서구협회, 요미우리(讀賣)비둘기회, 우에노동물원 공동주최로 전서구(伝書バト) 위령제가 개최되어, 전쟁 뿐만 아니라 보도, 의료, 경주(競走) 등으로 죽어간 전서구의 명복을 빌었다.⁵⁰⁾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방치되어 노후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1981년 4월 비둘기경주협회의 고바야시 고자에몬(小林小左衛門)이 재건봉찬회 발기인으로, 우에노동물원 원장 고가 다다미치(古賀忠道)가 초대 회장으로 참여하여 재건운동이 진행됨으로써 비둘기영혼탑의 복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⁵¹⁾

[군견위령상] 이 동상은 니가타(新潟) 출신의 주금(鑄金)공예작가 이치하시 토시오(市橋敏雄)가 제작하여 1992년 3월 20일에 설치되었다. 이 동상 건립의 원류에는 후술할 동물에 대한 군공상(軍功賞) 수여에 따른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1933년 7월 7일 가나가와현 즈시(逗子)시에 있는 연명사(延命寺) 경내에 설치된 평텐(奉天) 독립수비보병 제2대대 이타쿠라 지(板倉至) 대위의 애견 줄리(ジュリー)의 위령비,⁵²⁾ 다른 하나는 1939년 5월 만주국 남부 랴오양(遼陽) 교외에 세워진 군견 위령비이다. 후자는 관동군 군견양성소(훗날 만주 제501부대, 제13990부대)의 다카나미 긴지(高浪金治) 소장 등이 옛 러시아군 여단 사령부 터에 세운 위령비이다.⁵³⁾ 이 육성소는 1941년 10월에 개칭되어 패전 직전까지 운영되었으나, 이 부대 소속의 많은 장병들이 시베리아에 억류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이 1948년 귀국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1943년 금속류 회수령에 의해 철거된 ‘줄리’의 위령비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또한 랴오양 교외의 군견위령비를 대신할 기념비 설치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 관동군군견양성소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1963년 즈시시에 동물애호비가 재건되었고, 그로부터 30여 년 후인 1992년 3월 20일 동물애호의 날에 야스쿠니신사에,⁵⁴⁾ 그리고 2020년 4월 니가타현 호국(護國)신사에 전몰전 위령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47) 『讀賣新聞』 朝刊, 1985. 4. 4.

48) 『東京朝日新聞』 朝刊, 1929. 3. 23.

49) 『東京朝日新聞』 朝刊, 1939. 3. 4.

50) 『讀賣新聞』 中央版, 1968. 5. 12.

51) 『レース鳩』 1981年10月号.

52) 『東京朝日新聞』 夕刊, 1933. 7. 6.; 同, 夕刊, 1933. 7. 8.

53) 『滿洲日日新聞』, 1939. 5. 13.

54) 「委員会報告」, 『偕行』 497, 1992年5月号, 2頁.

이러한 야스쿠니신사의 전몰마위령상 설치운동을 계기로, 전후 일본 각지에서 군용동물의 위령비가 건립되거나 재건되고 있다.⁵⁵⁾ 전몰군마위령제 연락협의회가 편찬한 『전몰군마 진혼제』(가이코샤[偕行社], 1992년)를 보면, 전후에 건립된 군마위령비 51기의 건립자는 사단·여단 4기, 보병-기병-포병-공병-치중(輜重-병참)부대 35기, 야전병원 1기, 수의학고 1기, 위령 비건립회 1기, 현창회(顯彰會) 1기, 마사(馬事)진흥회 1기, 마술(馬術)연맹 1기, 신사(神社)봉찬회 1기, 개인 4기가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군용동물의 이름이 여러 개 새겨져 있는 것은 평텐의 독립수비대 보병 제2대대회(大隊會)의 '군마견구(軍馬犬鳩)공양탑'(센다이)을 비롯하여, 히노키(檜) 제68사단(오사카), 보병 제34연대(시즈오카), 보병 제108연대(미카와[三河], 오사카), 보병 제120연대(후쿠치야마[福知山]/말과 비둘기만), 보병 제216연대(오사카), 보병 제217연대(오사카), 제34사단 통신대(오사카/말과 비둘기만)의 위령비이다.⁵⁶⁾ 또한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으로서는 2015년 후쿠이(福井)현 특공현창회가 건립한 군마·군견·군비둘기의 비석이 가장 최신의 위령비라고 생각된다.

(2) 평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전우회에 의한 운동과는 별개로, 1960년 우에노공원에서 전후 최초의 동물위령제가 개최되었다. 전시하에 우에노동물원에서 약물로 죽임을 당한 동물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오늘날에는 이 행사가 훨씬 잘 알려져 있다.⁵⁷⁾ 또한, 1988년 홋카이도 토카치 혼베츠초(本別町)에서는 센비리(仙美里)역의 전(前) 역장이었던 모리 히로시(森弘)가 세운 '진혼·군마지비(鎮魂·軍馬之碑)'처럼 명백히 평화(反戰)를 염원하는 비석도 있다.⁵⁸⁾

최근에는 전쟁과 동물의 관계에도 관심이 높아져 사진전도 개최되고 있다. 예컨대 쇼와관(昭和館)의 특별기획전 '전중·전후를 함께 한 동물들'(2008년 7~8월),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전시 '전송(電送)과 동물'(2012년 11월~2013년 2월), 나가사키평화박물관 기획전 '전쟁에 사용된 말들'(2014년 12월~2015년 1월),⁵⁹⁾ 홋카이도 혼베츠초 역사민속자료관 기획전 '전쟁에 나간 말들'(2017년 7~8월),⁶⁰⁾ 평화아이치(愛知) 기획전 '전쟁과 동물들'전(2019년 10~11월), 아이치(愛知)현청 오즈바시(大津橋) 분실(分室) 1층에서 개최된 기획전 '군마의 역사를 찾아서'(2022년 11월~2023년 3월) 등이 있다. 이러한 특색 있는 기획전은 전중전후의 군용동물에 대한 위령이라기보다는, 전쟁에서 희생된 동물의 실태를 밝히고, 동물애호 정신을 고취하는 작업에 가깝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진을 통해 전후세대에게 전쟁과 평화, 군용동물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55) 『讀賣新聞』朝刊, 1985. 4. 4. 군마 위령상은, 1962년 8월 니가타현(新潟県) 호국신사(護国神社, 1979년 12월 재건), 1982년 7월 니가타현 조에츠시(上越市), 1986년 히코네(彦根)의 호국산사(護国神社) 등에 제각각 건립되었다. (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 『戦没軍馬鎮魂録余話 愛馬袋⑤』, 『偕行』平成4年8月号, 1992, 39~41頁).

56) 戦没軍馬慰霊祭連絡協議会, 『戦没軍馬鎮魂録』, 偕行社, 1992, 24~35頁.

57) 『東京朝日新聞』朝刊, 1960. 4. 6.

58) 『東京朝日新聞』夕刊, 1988. 11. 18.

59) 『毎日新聞』地方版/長崎, 2015. 1. 8.

60) 『毎日新聞』地方版/北海道, 2017. 6. 26.

맺으며

전시하의 일본과 만주에서 전쟁동원을 위해 군용동물에 대해 가상(=擬似)의 '인격화'가 이루어지고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에도, 결국 동물은 인간사회에 편리한 (적합한) 도구로 취급되었을 따름이었다. 오히려 전황을 고려한 '동물의 학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군 장병, 군속들에 대한 처우로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즉, 인간의 처우와 동물의 취급은 시대와 함께 연쇄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여기서 다문화주의적 사고와 '동물의 권리'론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최현식(인하대, 한국)

1 제국의 시선과 식민지/향토 재현의 문제성

여기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가을 풍경을 노래한 두 문장이 있다. 한쪽은 풍요로운 가을걷이의 기쁨을, 다른 한쪽은 가을 소출을 핑계로 몰려들 빗쟁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그려내고 있다. 타작의 기쁨은 넓은 좁든 경작지를 소유한 소농이나 지주의 마음이라면, 빗잔치의 우울은 한 뼉의 땅빼기도 없는 소작농이나 머슴의 심정이겠다. 문장의 주인은 그 기쁨과 아픔을 “경쾌한 도리깨 소리”와 “캐다 먹든 말든” 할 “깨깨 배틀”린 ‘벼’에 비유함으로써 가을을 맞은 조선인의 대조적 풍경과 희비극을 입체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1) 잘 익은 벼 이삭을 타작하는 경쾌한 도리깨 소리!

한 가운데를 겨냥하는 그 즐거움, 도리깨를 끝없이 내리치고, 이삭을 계속 털며, 여성은 올해의 풍요로운 소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고생을 아름답게 씻어내고 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조선의 부인은 정말로 일을 잘하는데, 어떤 때는 오히려 남자보다 더욱 뛰어날지도 모르겠다.¹⁾

2) 가뜩한데 옆치고 뒤통치더라고 올해는 그나마 흥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가릴 모양. 예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걷었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²⁾

“문장의 주인”이라고 썼지만, 사실을 고백하면, 예문 1)은 일제 문화자본이 발행한 사진엽서 「오후 4시: 부지런히 일하다」(그림 1)에서, 예문 2)는 소설가 김유정의 「만무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실 예문 2)는 조선의 농촌을 바라보는 주체가 주인-일제든 노예-조선이든 예외적일 것 없는 보편적 시선의 산물에 가까웠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산하와 농촌을 “망국의 망령”이 정처 없이 떠돌고 “상중에 있는 농민”이 하릴없이 배회하는 “죽음의 나라, 장례식의 나라”³⁾에 비유하는 경우

1) 편집부, 「오후 4시: 부지런히 일하다」, 사진엽서세트 『조선의 부인생활의 한 페이지』, 다이쇼(大正)사진공예소, 발행 시기 미상. 이 우편매체는 조선부인의 다양한 일상생활(오전 7시~오후 10시)을 총 16편의 사진과 산문으로 담았다.

2) 김유정, 「만무방」, 『조선일보』 1935년 7월 20일자. 현대어로의 교정은 필자.

3) 도쿠토미 겐지로(徳富健次郎), 『죽음의 그림자에(死の蔭に)』, 오에쇼보(大江書房), 1917, 453頁. 여기서는 나카네

가 적잖았다. 이 부정적 이미지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지배와 계몽, 그리고 개척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음산한 궁핍과 사령(邪靈)으로 햇빛은 식민지 조선의 ‘붉은 땅’은 춘원 이광수식 ‘민족개조론’의 까닭과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춘원이 지은 장편소설 『흙』의 유치원 교사 ‘선희’는 조선 아동의 결점을 6가지로 정리하며, ‘살여울’, 아니 조선이 문명사회로 거듭 내려면 무엇보다 그것의 교정이 앞서야 함을 힘주어 말한다. “(1)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 (2) 시간관념, 기타 질서의 관념이 없는 것, (3)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관념이 부족한 것, 즉 권위를 두려워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 (4) 단체생활의 훈련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심히 개인적, 이기적인 것, (5) 대개로 보아서 재주가 없고, (6) 몸의 발육이 좋지 못한 것”⁴⁾이 그것이다. 아동의 교육과 성장을 책임진 교사 ‘선희’의 목소리를 빌린 춘원의 주장은 일제의 지배(보호) 아래 놓인 미숙한 아동과 같은 조선의 진정한 개화와 문명의 달성을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과 목표에 값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미 체제 협력의 태도를 물씬 풍기던 춘원의 발언은 자기 민족이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포함하는 이념적 형성” 및 “지배와 연관되는 지식의 형태에 의해 추진된 것”⁵⁾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오묘한 승인과 내면화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며 퇴폐적이다. 춘원과 같은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자 문사의 주장과 태도가 있어, 식민지 조선은 일제의 지배와 통치가 아니고서는 황량한 ‘붉은 땅’에 가득한 전근대적이며 열악한 사회적 환경과 일상적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식민주의적 (무)의식과 식민지적 (무)의식이 동시에 강력한 파리를 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오후 4시: 부지런히 일하다

이제야 밝히지만 예문 1)은 사진엽서 「오후 4시: 부지런히 일하다」에서 가져온 것이다. 가사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농업노동까지 도맡은 조선부인의 행색은 당대 조선인(농민과 노동자)의 열악한 삶의 지위와 환경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예문 2)의 궁핍한 현실이 오히려 걸맞은 것처럼 느껴진다. 1920~30년대 조선에서 농민 자작지의 감소와 소작지의 급격한 증가, 그에 따른 도시 노동자와 빈민의 숫자

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실에 해당된다. 어쩌면 이와 같은 비극적 암면(暗面) 때문에 사진엽서상의 조선부인의 현실과 매우 어긋나는 예문 1)이 더욱 소망스러워지는

타카유키(中根隆行), 김경리 외 역, 『조선' 표상의 문화지—근대 일본과 타자를 둘러싼 지(知)의 식민지화』, 소명출판, 2011, 212쪽.

4) 이광수, 『흙』, 『동아일보』 1933년 4월 27일자.

5)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화 역,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2002, 56쪽.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성’ 강렬한 사진과 ‘낭만성’ 두드러진 산문의 부조화야말로 사진엽서의 문자와 이미지가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입장에 선 ‘관광(객)’과 ‘정치’의 시선에 의해 발견 또는 창안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관광(객)’의 시선은 여행자의 일상적 체험과는 분리된 어떤 풍경이나 경관을 포착하는 데 집중하며, 이때의 ‘시선’은 여행자들 사이에 변화하는 계급, 성별, 취향, 세대 등의 차이가 빚어내는 상호 작용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⁶⁾ 아마도 관광객으로서 일제의 신민이 마주친 조선의 농촌 현실은 예문 2)의 상황이 예문 1)보다 훨씬 실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행(관광)의 성격이 공공적 계몽에서 개인적 취향의 길을 점차 넓어갔을지라도 제국의 시대 일본인의 조선과 만주 탐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특성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미개한 세계, 이질적인 세계를 보는 문명국의 시선” 아래 민족적 우월감과 팽창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인종차별의식”과 “대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의 내면화가 그것이다.⁷⁾ 이 말은 사진엽서 「오후 4시: 부지런히 일하다」의 산문이 단순히 여행(관광)객 특유의 ‘낭만성’ 또는 ‘이국취향’의 발산을 넘어선 문장이라는 것을 뜻한다. 어쩌면 일본 관광객이 묘사한 무언가 충만한 조선부인은 ‘주어진 사실’이기 전에, 타향·타자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아를 자기만족적으로 바라보거나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허구적 소산물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제 문화자본은 일본여성을 그림엽서, 잡지 등에 묘사할 때 자신들의 잠재적 욕망이 반영된 이상적 얼굴의 드러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자세히 말한다면, “일본인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어딘가 서구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관능적 여성상”, 그러니까 “성화(聖化)된 일본적 어머니”와 “관능적인 구미(歐美)풍의 여성”⁸⁾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이상적 얼굴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문 1)의 풍요로운 소출에 감사하며 즐겁게 도리깨질하는 조선부인은 이와 같은 일본여성 묘사의 원칙이 반영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성스러움과 관능을 오가는 이상적인 일본여성의 모습으로 게로(下呂)온천을 방문한 명랑한 표정과 우아한 자세의 ‘그녀들’([그림 3]과 [그림 4] 참조)을 우선 지목해 두기로 한다. 만약 지독하게 불우한 삶을 한줌에 불과한 소출의 기쁨으로 대체하는 조선부인의 내면과 정서가 이상화된 일본여성의 것을 모본으로 한 것이라면, 이것만큼 식민주의적 이념을 밑바닥에 깔 ‘정치적 시선’ 및 권력의 장(場)에서 형성된 ‘타자적 시선’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된⁹⁾ ‘조선여성’상이 따로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글은 일본과 만주, 그리고 조선의 사진(그림)엽서 속의 ‘풍속’이 표상하고 내포하는 제국 일본의 권력적 시선과 식민주의적 태도, 또 그와 반대되는 만주와 조선의 극단적 식민화 및 타자화의 어두운 면면을 함께 읽어보는 작업에 집중한다. 그럼으로써 해당 사진(그림)엽서들이 친밀성을 밑받 삼아 일본 제국의 우월함과 영속성을 선전·선동하는 일시적 ‘이페머럴 미디어(ephemeral media)’¹⁰⁾에 그치지

6) 존 어리·요나스 라슨, 도재학·이정훈 역, 『관광의 시선』, 소명출판, 2021, 20~21쪽.

7) 아리아마 테루오(有山輝雄), 조성운 외 역, 『시선의 확장—일본 근대 해외관광여행의 탄생』, 선인, 2014, 88~89쪽.

8) 柏木博, 『肖像のフェティシズム—『週刊朝日』の表紙』, 『肖像のなかの權力』, 平凡社, 1987, 20頁.

9)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10쪽.

10) 貴志俊彦, 『滿洲國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ポスター・絵はがき・切手』, 吉川弘文館, 2010, 9~11頁.

않고, 그 자체로 영원하며 신성한 ‘일본적인 것’으로 올라서고자 했음을 엿보고자 한다. 물론 그럴수록 식민지 조선과 만주의 낮은 지대 사람들은 근대전황제가 몰아오는 거세고 거센 “쌩바람과 비에” “깨깨 베틀”러 갔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미리 밝혀둘 것은 필자의 경우 식민지 조선 관련 사진엽서에 대한 연구¹¹⁾를 적잖이 수행한 상태이므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특징 정도를 서술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2 일본, 향토의 재현 또는 ‘국민정신’의 도야

식민지 조선과 만주에서 생산·유통·소비된 사진엽서의 기원과 모델은 당연히도 일본 내지의 여행(관광) 관련 그림엽서에서 찾아진다. 한 일본 연구자는 자신들의 그림엽서를 일러 “서양 문화와 문명이라면 무엇이든 탐욕스럽게 집어삼켜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송두리째 바꿔버”¹²⁾린 “서양화의 시대”를 생생히 담은 미디어로 규정한 바 있다. 근대전환기 일본도 조선과 중국이 그랬듯이 전근대적 생활과 풍습, 인종과 문화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전면 포획되는 굴욕을 면치 못했다. 또한 그것들이 사진과 엽서, 잡지에 전시되는 노예적 상황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지만 메이지(明治)시대 화혼양재(和魂洋才)의 근대화 및 제국주의 진출에 성공한 일본은 “일본인의 감성에서 서양의 문화를 흡수소화하고 독자적인 새로운 문화를 만”¹³⁾드는 작업에 몰두한다. 이를 표상하는 ‘화양문화(和洋文化)’는 개인적 취향과 욕망에 부합하는 소비문화를 넘어, 이를테면 여행과 관광의 경우, “국민의 체력 향상, 국민정신의 미적 도야라는 목적을 관철하는”¹⁴⁾ ‘일본정신’에 대한 내면화의 핵심 기제였다.

조선과 만주에서도 그랬듯이, 여행안내서와 팸플릿, 사진첩과 그림엽서는 낯선 타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향토애와 민족의식의 함양에 매우 유익한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의 미디어는 지방문화의 타자성을 일본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으로 치환하는 동일화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질성과 차별성이 강조되는 식민지 대상의 그것과 구별된다. 이것은 일제 사진엽서가 식민지에 대한 앎과 그곳에서의 일본인의 위상을 확증하는 한편 일본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지속시키는 국가주의적 문화기획의 일종이었음을 새삼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신중하게 유의할 문제가 있다. 일본문화의 동일화 과정에서도 전통의 ‘향토’와 새로 편입된 ‘신개지’에 대한 방법과 면면이 얼마간 구별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 술한 내지의 그림엽서 가운데 ‘향토’는 관광과 온천 명소를, ‘신개지’는 홋카이도(北海道)를 다룬 텍스트를 대상으로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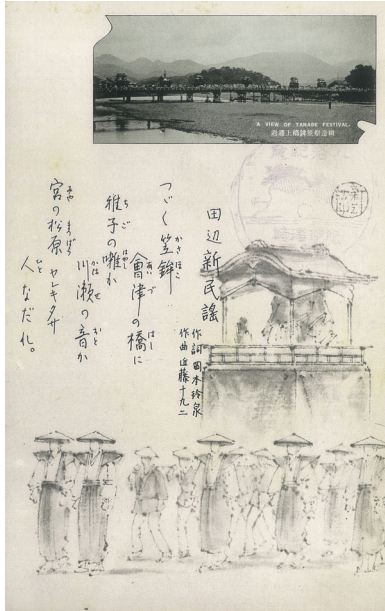
11) 줄저, 『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2 및 『일제 사진엽서, 식민지 조선을 노래하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참조.

12) 도미타 쇼지(富田昭次), 유재연 역, 『그림엽서로 본 일본 근대』, 논형, 2008, 264쪽.

13) 진노 유키(神野由紀), 문경연 역, 『취미의 탄생—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44쪽.

14) 세키도 아키코(關戸明子), 허석 역, 『근대 투어리즘과 온천』, 논형, 2009, 84쪽.

동일화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일본 내부의 차이성은 물론 식민지에 대한 차별성 문제도 풍부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그림 2] 다나베 신민요

‘소패(小唄, 고우타)’와 ‘신민요’, ‘음두(音頭, 온도)’라는 표찰을 붙인 일본 그림엽서도 구성에서는 조선의 일상적 생활과 정서를 담아낸 사진엽서세트 『조선정시(朝鮮情詩)』나 조선 신의주와 만주 안동의 생활과 정서를 그린 사진엽서세트 『국경정서(國境情緒)』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명소와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 신성한 신사와 사원 등을 담은 사진에, 지역인의 습속과 생활, 이별과 유희의 모습을 그린 세밀화, 이 이미지들에 걸맞은 민요풍 가락과 향토정서를 담은 가사가 그렇다. 지방 여행과 향토에 대한 심취는 일상이 반복되는 도회에서의 피로감과 소외감을 잠시 잊어가며 지친 심신에 휴식과 위로와 여유를 제공하는 건전하고 ‘좋은 취미’ 활동의 일환이었다.

지방 곳곳으로의 여행은 온천과 유명 산악 등에 대한 산천경계의 탐방이 허락하는 심신 단련에 유의했다. 하지만 천황에 봉공하는 국민통합과 충량한 신민의 육성을 위해서는 일본정신이 깊이 배인 신성한 장소와 건축물 참배나 은퇴와 풍요에 대한 제의를 대표하는 ‘마츠리(祭) 참여로 얻어지는 ‘국민정신의 미적 도야가 더더욱 바람직했다.

가령 와카야마(和歌山)현 다나베(田辺) 지방의 자연과 풍속, 생활을 노래한 『시로하마소패(白濱小唄)』(다이쇼[大正]사진공예소)의 한 장면([그림 2])을 보라. 일본 전통의 축제 ‘마츠리(祭り)’에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습속이 자연스레 담긴다. 하지만 신을 향한 풍작의 기원과 감사,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성, 질병과 재해로부터의 보호와 치유를 기원하는 마츠리의 역할과 기능만큼은 일본 전역이 동일하다.

마침내 카사호코(傘鉾) 아이즈(會津) 다리에
 어린 아이의 북소리인가 여울물 소리인가
 궁(宮)의 솔밭 야레키다사 사람들 가득하네

—「시로하마소패—다나베 신민요」 전문

지역민과 자연사물의 조화로운 참여를 통해 마츠리의 신성함과 즐거움을 더욱 드높이는 장면이다. 평상시 마츠리는 지역민 공동의 종교적 제의와 놀이에 그친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비상시국에는 “총력전 체제로의 이행, 민중생활의 조직화와 통제의 강화”¹⁵⁾, 다시 말해 국민들의 ‘전선총후’를 향한 (비)자발적 이행에 동원될 가능성이 꽤나 높았다.

15) 세키도 아키코, 『근대 투어리즘과 온천』, 173쪽.

이와 같은 여행의 국가주의화, 곧 총력전에의 접속은 중일전쟁(1937) 개시 직후 현실화되었다. 당시의 일본 철도성은 전시하 투어리즘의 목표를 “국민정신충동원과 국민 체위(體位) 향상이라고 하는 국책에 부합하는 여행”에 두었다. 그 전제 조건은 긍정적 부면의 장려와 부정적 부면의 일소 양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긍정적 측면으로 장려된 것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사와 사원, 건국 관련 유적지, 영웅과 위인의 사적지, 건강 증진에 적당한 온천지와 심신 단련에 도움이 되는 대자연의 탐방이었다. 이와 달리 일소의 대상이 된 부정적 사례를 꼽는다면, 온천이 건강 증진과 미풍양속 확장의 ‘온천보국(溫泉報國)’에 반하는 유희와 향락 지대로 타락하는 사태였다.¹⁶⁾



[그림 3] 폭포



[그림 4] 계로공원의 벚꽃

일본 온천의 타락과 그에 맞선 보국 지대로의 변화 가능성은 일본 3대 온천의 하나인 기후(岐阜)현 계로(下呂)온천을 노래한 『계로소패(下呂小唄)』의 부정적 면면에 뚜렷하다. 이 엽서세트도 고즈넉한 신사와 사원, 아름다운 자연의 풍미를 사진 찍고 그림으로 묘사하며 그윽한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시(情詩)류의 문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속화하는 번영을 지속하여, 이른바 에로틱한 기분에 의해 유지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¹⁷⁾는 퇴폐적 상업주의도 빼놓지

않아 온천지 개량의 필요성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기도 하다.

1) 남자여

남자 마음이어 편히 못 있을 온천 계로는
열여덟 처녀가 요이사야 눈빛으로 부르네

—「계로소패—폭포」 전문

2) 벚꽃이여

벚꽃 피어 눈 내리는 계로온천사(寺)
꽃을 질까 요이사야 입을 붙잡을까

—「계로소패—벚꽃」 전문

온천지에서 일본 여성, 특히 게이샤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생산·유통·소비되는가를 유감없이 보여

16) 세키도 아키코, 『근대 투어리즘과 온천』, 169-173쪽.

17) 藤浪剛一, 「市國と温泉の開発浄化」, 『醫者衛生』, 1938. 여기서는 세키도 아키코, 『근대 투어리즘과 온천』, 172쪽.

주는 엽서 2편이다. 남성을 유혹하는 게이샤의 애욕과 금전욕이 중심인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적 이분법을 강화하는 데 특특히 기여하는 극대화된 남성성이 오히려 울울하다. 슬픔과 가난이 은폐된 게이샤의 아름다움과 명랑은 일본 남성의 전통적 시선과 욕망이 지속적으로 발현된 결과물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근대전환기에 특히 집중되었던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 은밀하게 내면화되어 있다. 요컨대 게이샤의 모습에는 잘 만들어진 ‘성애(性愛)의 아름다움’을 부조하여 그녀들을 낭만화함과 동시에 영구히 점유코자 하는 발기한 팔루스들의 거친 욕망이 겹쳐져 있는 것이다.¹⁸⁾

온천 여행의 노골적인 세속화와 거기서 발생할지도 모를 ‘일본정신’의 균열은, 한만 국경지대에서 총칼을 휘두르는 ‘비적에 맞서 함께 총을 쏘는 아내’(『국경정서』)가 그러했듯이, 본토의 그림엽서에서도 총력전에 참여하거나 거기 근접하는 여인상의 또 다른 발명을 필요로 했다. 물론 이러한 요청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미디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내부 식민지로서 홋카이도의 개척과 그에 따른 심상지리를 노래하는 엽서세트 『홋카이음두(北海音頭)』의 존재는 그런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적잖다.

- 1) 나날이 발전하는 아사히가와(旭川)시
 그 이름 다함없는 7사단
 거리 조망은 카구라오카(神樂岡)
 온야사노사— 안사노에—
 황금 꽃 피어나는 홋카이도

—「홋카이음두—아사이가와 시가」 전문

- 2) 나란히 선 포플러나무의 방울 소리
 샷포로는 월야의 바둑판 줄무늬
 사랑은 어두운 밤의 눈먼 줄무늬
 온야사노사— 안사노에—
 황금 꽃 피어나는 홋카이도

—「홋카이음두—샷포로 시가」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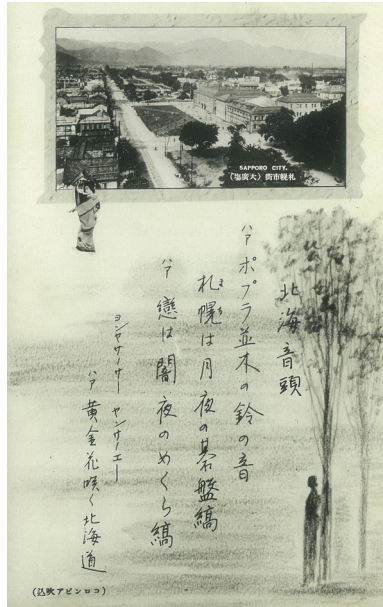
홋카이도(北海道)는 토착민 아이누족의 터전이었으나, 일본은 에도(江戸)시대부터 차별의 뜻으로 ‘에초치(蝦夷地)’라 불렀다. 메이지시대 일본인의 본격적 이주와 더불어 제국을 위한 영토의 개척과 근대화가 개시되었다. 아이누족은 인종과 언어, 생활 관습과 문화 등에서 일본의 그것과 현저히 구분된 탓에 민족 말살 정책에 근거한 동일화, 다시 말해 내부 식민화의 비극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방식의 아이누족에 대한 삭제와 은폐는 『홋카이음두』에서도 뚜렷하다. 아이누족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진 일본의 홋카이도 개척사와 거기 종사한 본토인의

18) Eleanor M. Hight, “The Many Lives of Beato’s “beauties””, Eleanor M. Hight & Gray D. Sampson ed., *Colonialist Photography Imag(in)ing Race and Place*,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2004, pp. 138-139.



[그림 5] 아사히가와(旭川) 시가



[그림 6] 삿포르(札幌) 시가

자랑 및 명예만이 엽서의 문자와 노래와 이미지에 배곡히 담겨 있다. 홋카이도가 정복자의 노획물 이자 전리품에 가까웠으며, 매혹적인 다양성으로 일제의 기호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관찰과 개척의 땅으로 새로 발견된 ‘텅 빈 공간’이었음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황금 꽃 피어나는 홋카이도”라는 반복구는 일본인의 집단적 애국심과 개인적 연정, 오늘의 실력과 미래의 능력을 지시하고 재현하는 기호로 모자람 없다. 다른

편에 보이는 “그대는 많은 뜻을 지닌 백합꽃”이라는 연인에 대한 호칭에서 보듯이, 홋카이도 개척과 발전은 ‘일본정신’에 기초한 ‘국민정신의 총동원’에 더할 나위 없이 기여할 집단적 경험이자 국가주의의 강력한 내면화에 소용되는 효율적 기제였다.

일본 중서부 와카야마현 소재의 ‘다이쇼사진공예소’ 발행이 암시하듯이, 엽서세트 『홋카이음두』는 일제 전역을 향해 전달되고 유통됨으로써 지방과 식민지 개척에 유능한 제국의 문명과 권력을 친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심미화하기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천황 제일의 식민주의가 발명과 효과로서의 문화정치학과 어떻게 결합하며, 결국에는 동아시아 지배원리로 어떻게 입법되는지가 『홋카이음두』에서 엿보인다는 말이 가능해진다.

3 만주, 전근대-중국의 열매, 근대-일본의 우승

정시, 가요, 소패, 절, 음두, 소야곡. 일제 문화자본이 만주에 대한 시와 노래에 붙인 제목들이다. 다양한 명칭에 걸맞게 사진엽서의 형식과 구성, 사진과 그림의 종류, 대상 인물과 지역도 매우 다채롭다. 만주 개척의 핵심지대로 불리도 좋을 근대 도회 다롄(大連), 평톈(奉天, 현 선양), 신징(新京, 현 창춘), 하얼빈(哈爾濱)에 더해 탄광지대 푸순(撫順)까지 포함하여 그 일대의 자연풍경과 만주인의 삶, 그리고 근대적 개척의 면모를 노래와 이미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¹⁹⁾ 특히 사진과 그림의 경우, 조선

19) 만주 일반을 다룬 『滿洲情詩』 『滿洲小夜曲』 『大滿洲節』, 다롄 대상의 『大連音頭』, 신징 대상의 『滿洲歌謠』 『新京小唄』, 평톈 대상의 『大奉天小唄·奉天音頭』, 하얼빈 대상의 『哈爾濱小唄』, 푸순 탄광 대상의 『撫順小唄·撫順音頭』가 확인된다.

과 일본 대상의 ‘정시’나 ‘소패’ 엽서와 달리, 전근대 만주와 모던 만주를 향한 이분법적 시선과 표상이 지나칠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여기 보이는 양가적 태도는 만주를 향한 두 가지의 시선과 깊이 관련된다. 하나는 유목, 수렵, 밭농사, 산림개척(벌목과 뗏목)에 기초한 만주의 전통적 삶과 생활문화를 근대성이 통제하는 계몽과 개척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식민주의적 이념이다. 다른 하나는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²⁰⁾에 입각하여 전근대의 만주를 신문명의 ‘왕도낙토’로 뒤바꾸겠다는 ‘신체제’ 건설의 욕망이다. ‘하이 모더니즘’은 “자연의 변형, 미래 지향, 희생의 정당화, 과학기술에 대한 숭배, 발전을 향한 지도자들의 역사적 사명” 등을 핵심적 자질로 삼는다. 이것의 숭배자들은 원시의 자연과 저발전의 사회를 개발과 진화의 ‘멋진 신세계’로 갱신하겠다는 열렬한 의욕 아래 과학 기술 진보의 잠재력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낸다. 뒤돌아볼 줄 모르는 개발 지상주의자들의 저돌성은 ‘개발에서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라’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반생활적·반환경적 폭력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반자연적·반인간적인 성격을 피해가기 어렵다.

잘 아는 대로 만주는 청(淸)의 기원지인 까닭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봉금(封禁) 지대로 머물렀다. 하지만 근대의 도래, 다시 말해 청의 멸망과 더불어 후발 제국주의 일본과 러시아에게는 반드시 점유해야 할 무주공산의 개척지대로 떠올랐다. 일제는 러일전쟁을 시발로 만주국 수립,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이르기까지 천황의 ‘팔굉일우’론을 내세우며 이상적인 만주(국)의 건설과 경영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²¹⁾ 그렇지만 만주를 원시의 만지(蠻地)로 간주하여 오로지 문명의 개척과 지배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태도는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생산의 찬미, 자연의 단순화를 기하는 강박, 신념”의 무절제한 적용과 실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문명의 신개지로서 ‘모던 만주’는, “농업 만주, 공업 일본”이라는 모토에서 보듯이, 혈족과 직종을 명확히 분할하는 경향이 짙었다. 만주가 “건설과 동원, 경쟁 등 압축성장”을 기하기에 적절한 “경직성 근대” 세계로 귀결될 것임이 자명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²²⁾

이렇듯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균건하게 결합된 만주에서의 ‘하이 모던’의 지속적 팽창은 전통적 만주의 후진성과 개척된 만주의 발전성 사이의 대립과 격차를 더욱 넓혀갔다. 이것은 일제-만주국의 ‘민족협화 달성’, ‘대륙문화 건설’, ‘신체제 완성’이라는 이상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사진엽서를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에서 생활과 문화, 습속과 취향 전반에 걸쳐 일본과 여타 민족의 ‘구별 짓기’가 해소될 길 없이 심화되어간 결정적 까닭의 하나다.

후진적 면모의 각인과 계몽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만주인(만주족+한족)의 형상을 담은 사진엽서는 어떤 모습일까. 만주인의 야만성은 인종적·문화적·계급적·성적 차별주의가 교차, 중첩되는 가운데 입체화되고 있어 식민지 조선의 그것에 방불하다. 다만 후진적 관습과 일상의 하위주체로서는 조선의 경우

20) 한석정, 『만주 모던—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40~41쪽.

21) 근대 이후 ‘동아시아 변동의 시발점’으로 작동하게 되는 만주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윤휘탁,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북함민족국가』, 혜안, 2013, 19~45쪽 참조.

22) 이 단락의 직접 인용은 한석정, 『만주 모던—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41쪽 및 69쪽.

기생과 주부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반면, 만주의 경우 쿨리(苦力)와 비적으로 대변되는 무지하고 거친 남성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렇지만 쿨리는 계몽과 순화의 대상인 데 반해 비적은 토벌과 감금의 대상이었기에 대중용 사진엽서의 피사체는 대체로 쿨리들로 채워졌다.

만주의 '열등한 남성성'은 근대문명과 일본정신으로 단련된 일본 남성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만주인의 타자성, 곧 후진성과 식민성은 그것이 드러날수록 제국주의의 이상적 남성성에 부합하는 일본 남성의 강인함과 지도력, 냉철한 판단력과 자기 절제²³⁾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한다. 이 장면은 일제 소유의 '카메라-아이(camera-eye)'가 자기의 드러냄 없이 쿨리 중심의 만주인의 생활 습속을 훑쳐보고 그것을 실사(實寫)로 재현함으로써 식민지의 타자성과 후진성을 돌이킬 수 없는 만주의 현실로 입증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확인되는 2종 15매의 사진엽서세트 『만주정시(滿洲情詩)』(다이쇼사진공예소)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 세트는 사진을 위에, 정시를 아래에 배치했다면, 다른 세트는 사진을 오른쪽에, 정시를 왼쪽에 배치했다. 엽서 바탕은, 전자의 경우 수수밭 사진으로 장식했다. 후자의 경우, 자연과 사물을 기하학적으로 디자인한 각종 문양에 더해 사진 속 인물을 전근대의 이미지로 묘사한 소묘화로 장식했다. 같은 대상을 다룰 경우 두 엽서세트에 실린 「만주정시」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시가의 창작 주체를 '고량시사(高粱詩社)'로 밝히고 있는데, 만주 특산물 '수수'를 강조하는 작명으로 이해된다. 이들 창작집단은 『조선정시』의 '고려시사'와 마찬가지로 그 실체가 채 확인되지 않는다. 시가의 실제성과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임의로 붙인 동인(同人)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엽서세트에 등장하는 인물, 풍속, 생활의 면면을 짚어보자. 흥미롭게도 낭랑제(娘娘際) 및 학교에 출석하는 소녀들, 화려한 간판의 전통 거리를 제외하고는, 짐짓기, 의복과 과일 장사, 짐 나르기, 차 판매, 마차 운전, 결혼 행진, 유랑민 관련 대상자 거의가 남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만주의 남성, 즉 쿨리들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을 다시 빌린다면,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과 “지배와 연관되는 지식의 형태”를 창안하고 널리 확산시킨 제국주의자들에



[그림 7] 일륜차(一輪車)



[그림 8] 온수(湯) 팔기

23)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이상적 남성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박형지·설혜심, 『제국주의와 남성성—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아카넷, 2016, 108-113쪽 참조.

의해 선택된 자들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세기 이래 서양 제국주의가 특정한 동양인의 전근대성과 비문명성에 대체로 일치하는 형상들이기 때문이다.

물질문명을 선취한 서양인이 보기에 한·중·일을 포함한 동양(인) 전반은 거칠거나 정지해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인간생활의 아름다움과 성숙함을 관찰하고 조율할만한 사회적 관습과 제도를 새롭게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만의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계이자 존재들이었다.²⁴⁾ 러일전쟁을 계기로 동양의 맹주로 급부상한 일제는 ‘동양의 야만’을 서둘러 벗기 위해서라도 식민의 땅 ‘만주’를 근대문명의 세례지로 역전시킬 묘안이 필요했다. ‘만주 경영’으로 주제화된 대륙진출과 ‘왕도낙토’의 만주국 건설이 그 대상으로 취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주 사진엽서가 계몽과 개혁의 식민지 만주와 일제 발(發) 발전과 문명의 신개지 만주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짝패로 항상 대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일제 식민주의와 만주 식민지를 날카롭게 대립시키기 위한 문화정치학적 전략이었음이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면서, 먼저 야만과 후진의 만주가 사진엽서상에서 어떻게 원시화되고 낭만화되는가, 또 그런 특질을 시가는 어떻게 담아내는가를 주의 깊게 관전하기로 한다.

- 현자죽림(賢子竹林)
매화는 오륜(五輪)
쿨리의 수레는
다만 바퀴 하나
-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허리를 차지한 일륜거
끼이 끼이 울며 거리를 간다

—「만주정시—일륜차」 전문

- 차가운 햇볕 내려찍는
차마 아래에
봄이 왔구나
뜨거운 물 장수에게도
- 온수(湯)를 나눠 파는 것도 진기하다
만주의 거리를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삐— 삐— 삐— 가락 붙여 노래한다

—「만주정시—온수 팔기」 전문

온수 파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일륜차를 끄는 ‘쿨리’류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소년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상황 때문인데, 이것은 조선 아동의 현실이기도 했다. 교육받기에 충분한 재화

24) Anne Maxwell, *colonial photography & Exhibitions*, London and New York:Leicester University Press, 2000, p. 59.

와 시간의 부족이 하나라면, 강요된 민족협화에 의한 집단적 정체성의 약화가 둘이다. 물론 궁핍한 생활을 뚫고 교육을 받아 문명인의 면모를 갖추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 교육은 '황국사상'의 보급에 집중함으로써 만주인 스스로의 발전과 진화에 제약을 가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실제로 일제는 만주인 교육의 핵심 목표를 “기초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충량한 국민의 성격을 함양”하는 일에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도덕’을 드높이고 ‘국민정신’을 수련하는 한편 ‘신체’를 단련하고 실업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²⁵⁾ 이러한 뜻에서 ‘오륜(五輪) 매화’와 ‘일륜(一輪) 수레’의 동시적 배치는 의미심장하다. 두 소재는 서로 동글다는 유사성 때문에 하나의 동족으로 묶일 수 있다.

이 가족관계는 그러나 ‘현자’와 ‘쿨리’라는 주체의 상이함, 거기 동반된 ‘매화’의 고매한 사상과 정신 대 ‘수레’의 노동과 땀이라는 대조적 위상과 가치에 의해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곳은 어쩌면 ‘내선일체’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일만일여(日滿一如)’의 실질과 모순이 시적 비유를 통해 숨겨지는 동시에 드러나는 양가적인 식민의 장소일지도 모른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충량한 신민’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만주인은 정시(情詩)가 드러내는 바의 무심한 관조와 노골적인 멸시의 대상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쿨리의 수레를 현자의 매화에 비기거나 소년 물장수에게도 봄이 왔음을 기뻐하는 태도는 엄밀히 말해 가련한 만주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매화와 봄, 그것을 노래한 정시(情詩)는 만주를 ‘신일본’으로 내면화하는 일본인의 심상지리 확장에 관여하는 심미적 매개체들이다. 그런 점에서 만주에 대한 “제국의 실천을 지지해주고 설명해주고 통합해 주는” 어떤 “느낌의 구조”²⁶⁾를 생산하고 조직하기 위한 기호에 훨씬 가깝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려면, 사진의 상황을 사실에 가깝게 설명하는 인쇄체 시편(●)에 유의해야 한다. 그곳에서 만주는 이질적인 이국문화 지대로, 또 문명의 새로운 단계와는 여전히 동떨어진 야만과 후진의 공간으로 적시됨과 동시에 고착화되고 있다. 요컨대 만주(인)를 향한 서정적 감각은 적시된 객관적 사실 때문에 이국취향의 낭만성과 여행객을 달래는 객수(客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만주(인)가 사실로는 일본인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서정에서는 ‘텅 빈 공백’으로 남겨지는 소외의 사물이라는 판단마저 가능해진다.

이러한 까닭에 수레바퀴 소리 “끼이 끼이”와 커다란 물 주전자의 “삐—삐—” 소리는 타국의 청량한 ‘생활의 소리’가 아니라 문화적 황폐함과 진화의 불가능성을 스스로 알리는 ‘혼곤한 비명’으로 들린다. 물론 일제는 그 소리를 만주 곳곳을 휩쓰는 ‘선진문명의 경고음’으로 바꿔 전파할 줄 아는 사악하며 폭력적인 지혜를 잊지 않았다. 이 작업은 과학적 예시와 설득이 아니라 마법과 주술의 상황을 폭로하는 수법에 기대고 있어 뜻밖이며 그래서 더욱 효과적으로 느껴진다.

25) 孫繼英, 「東北淪陷期の長春で植民地奴隸化教育」, 植民地文化學會 編, 『近代日本と「滿洲國」』, 不二出版, 2014, 100 頁.

26)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62쪽.



[그림 9] 큰 길에서 점을 치다

조선의 전근대성 혹은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습속과 직업의 하나가 점을 쳐 길흉화복에 대처하는 일이었다. 『조선만화(朝鮮漫畫)』에서는 안마사복장의 장님을 일러 ‘매복선생(賣卜先生)’이라 칭하며, 그야말로 이치에 닿지 않는 맹목의 점괘와 그것을 맹신하는 조선인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²⁷⁾ 또 엽서세트 『조선풍속』에서는 ‘점쟁이(占師)’라는 표

제 아래 손님의 운명을 점치는 사주쟁이가 가는 곳마다 보인다는 말과 함께, 둘의 표정으로 보아하니 ‘운명의 총아’ 같은 게 보이지 않아 난처해하는 모습이라는 힐난을 붙여두고 있다.²⁸⁾ 만주의 점쟁이도 이러한 비난에 시달렸을까.

- 타인의 운명을
점치는 나의 몸
내일의 세상살이가
마음에 걸린다
- 노상에
역술 도구를 펼쳐놓고
자신도 점치고 타인도 점치는
점쟁이

—「만주정시—큰 길에서 점을 치다」 전문

타인을 점쳐 자신의 고픈 배를 간신히 채우는 ‘점쟁이’는 고상한 종교와 과학적 이성애 반하는 야만적 존재라는 게 근대문명이 가르쳐온 핵심적 교훈이다. 객관적인 관찰과 과학적인 원인의 규명도 없이 점괘가 지시하는 “내일의 세상살이”에 애태우는 자들은 문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에 대해 진실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슬기로운 용기도 부족한 야만인에 지나지 않는다. 눈먼 신체와 영혼들이 횡행하는 식민의 땅이라면, 일제가 욕망하는 총량한 국민의 육성은 그야말로 요원한 과제에 지나지

27) 한일비교문화세미나 편역, 「매복(賣卜) 선생」, 『조선만화 -100년 전 조선, 만화가 되다』, 어문학사, 2012, 147-1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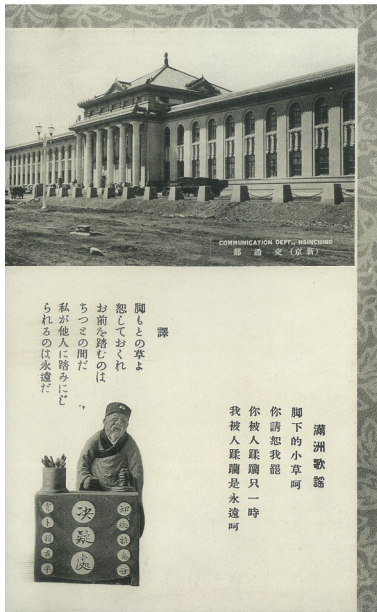
28) 만화 및 사진엽서의 대상이 된 식민지 조선의 점술과 점쟁이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비판에 대해서는 줄저, 『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 610-614쪽 참조.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은 중국(만주)의 과거와 전통과 미래를 파고드는 비적과 공산도당의 대담한 출몰과 공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억제되고 해소되어야 할 위험 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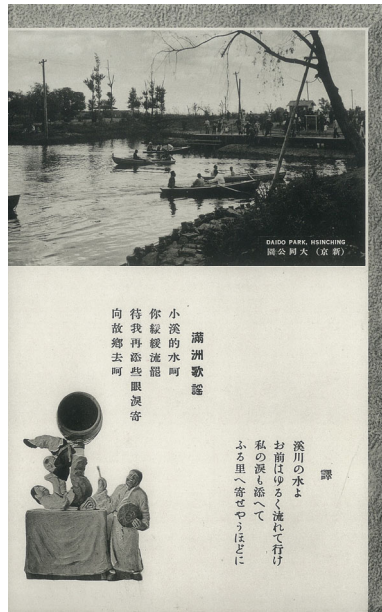
그렇다면 일제 사진엽서는 매화의 향기도 봄별도 모른 채 점쟁이에 제 운명을 맡기는 콜리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고 말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일제는 근대천황제가 지시하는 계몽과 개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만주의 문명성과 이상성을 계도하는 ‘생산의 찬미’에 사진엽서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테면 만주국 수도 신경의 근대적 발전상을 첩첩이 담은 『만주가요(滿洲歌謠)』(다이쇼사진공예소)가 적실한 사례이다. 『만주정시』에서는 야만과 후진으로 번역되는 만주인의 생활과 습속, 직업과 유희가 주된 촬영 대상이었다. 이와 달리 『만주가요』에서는 만주국 수도 신경에 건설된 각종 관청, 관동군청사, 경찰서, 유원지, 공원, 일본식 변화가 등이 빼놓을 수 없는 피사체였다.

식민도시에서 제국의 지배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공공건물과 그곳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책임지는 오락 공간은 ‘식민권력의 이념적·문화적 지배가 관철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²⁹⁾의 하나이다. 만주국 수도 신경도 이러한 원리와 목적에 민감했다. 첫째, 신경, 봉천, 하얼빈의 3대 도시가 도쿄와

오사카 등을 모델로 하여 행정도시, 교통도시, 상공업도시로 정교하게 구획되어 개발되었다는 것, 둘째, 특히 신경은 ‘왕도낙토’와 ‘오족협화’ 이념에 의거해서 주요 거리와 공간을 ‘대동(大同)’, ‘안민(安民)’, ‘순천(順天)’, ‘화순(和順)’, ‘흥안(興安)’, ‘해방(解放)’ 등으로 명명했다는 것,³⁰⁾ 셋째, 이를 통해 “건국정신을 준수하고 왕도를 주의로 하며 민족협화를 이념으로 하여, 국가의 기초를 강고히 하고, 왕도정치를 선포(宣化)한다”³¹⁾라는 통치 이념을 다잡았다는 것이 그 증례이다. 이



[그림 10] 교통부(신징)



[그림 11] 대동공원(신징)

러한 점에서 엽서 속 교통부 청사(그림 10)와 대동공원(그림 11)은 실용적 사물을 뛰어넘는 만주국 체현 및 선전의 생동하는 상징이자 기념비라 할 만하다.

아무려나 만주의 ‘하이 모던’을 재현하는 엽서들은 그곳의 이상성과 발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천황 지배의 당위성과 우월성을 자랑하는 작업에 능수능란했다. 또한 자신들의 땅에 이민족-제국의 역사와

29)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56쪽.
 30) 취샤오관(曲晓范), 박우 역,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근대화과 식민지 경험』, 진인진, 2016, 355-388쪽.
 31) 만주국협화회 창립선언문. 여기서는 아마무로 신이치(山室 信一), 윤대석 역,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198쪽 재인용.

미래를 피땀 흘려 건설하는 불우한 쿨리들을 화면과 시가 뒤편에 철저히 감추거나 지우는 일에도 능숙했다. 그런데 전자의 특징은 사진에서 확인된다지만, 후자의 특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정답은 식민지 조선의 하위주체들이 그랬듯이, 만주의 그들도 전근대적·비근대적 형상의 인형들로 남조되어 제국인의 완구로 제시되거나 유통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과연 사진엽서의 상부: 근대-신경과 하부: 전근대-만주인 배치의 화면 분할과 구성은 ‘하이 모던’과 ‘완강한 봉건’에 대한 시각적·인지적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예컨대 첫째, 일제의 신문명이 옛 중화의 질서를 압도함은 물론 지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둘째, 인형은 부수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곧바로 버려진다는 것, 셋째, 따라서 중국(만주)은 일제에 협력하여 ‘흥아(興亞)’의 전선에 나설 때만이 죽음의 유곡(幽谷)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효과의 면면일 터이다.

다리 아래의 풀이여
노여워하라
너를 짓밟는 것은
잠깐 사이다
내가 타인에게 짓밟히는
것은 영원이다

—「만주가요—교통부」 전문

시내의 물이여
너는 천천히 흘러서 가라
나의 눈물도 더하여
고향에 가닿을 정도로

—「만주가요—대동공원」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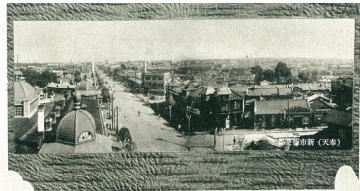
만주인이 ‘하이 모던’의 ‘신징’에서 배제되는 방식은 전시와 오락의 인형으로 이곳저곳을 떠도는 데만 있지 않다. 엽서의 가요들은 만주인이 끼어들 여지없는 일본인들만의 정서 표출이자 노래 부르기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두 가요는 교통부 건물과 유원지의 행락객을 화자로 취하고 있다. 이 목소리는 가요의 내용상 일본인에 더해 몇몇 체제협력의 만주인과 기타 족속에서 찾아질 성질의 것이다. 고국과 향토를 떠난 객수와 그리움은 그렇다 쳐도, ‘약한 자는 짓밟힌다’는 신념과 주장은 매우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사뭇 비장감 넘치는 이 각성의 구호는 사회진화론에 대한 지극히 세속적인 번안과 수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만주국’이니 ‘대동아공영’이니 하는 일제의 이상국 프로젝트는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동아시아를 해방하고 구제한다는 군국주의적 야욕의 산물이다. 이를 감안하면, 일제에게 “타인에 짓밟히는”이란 말은 언제나 “너를 짓밟는 것”이란 말로 다시 해석되어야만 하는 총력전의 기호에 가깝다. 여기에 『만주가요』 가사를 일제 식민주의의 잘 만들어진 프로파간다로 간주할 수 있는 까닭이 숨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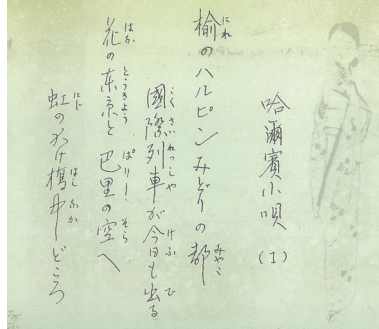
만주국 수도 ‘신징’의 건설에서 뚜렷이 엿보이는 바이지만, 식민도시의 건설은 “기술적으로 낙후되고

물질적으로 열악한 토착민들의 취락과 주거문화와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식민권력의 압도적인 힘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문명’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고안된 의도적인 정치적 기획의 산물”³²⁾이었다. 이에 대한 제일의 증거물은 만주의 근대화 현장과 현란한 신문물을 포착한 사진과 영상 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중들의 입과 눈과 귀를 장악했던 각종 신민요나 유행가도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했음은 ‘평텐’과 ‘하얼빈’에 대한 찬양의 노래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두 도시는 작은 소도시에서 일제의 전격적 발탁에 의해 식민 수부로 개척된 ‘신경’과 상당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공간이었다. ‘평텐’은 ‘청’의 전신 ‘후금(後金)’의 수도였던 까닭에 전통성과 역사성이 깊이 배인 구도(舊都)로 이름 높았다. 이와 달리 ‘하얼빈’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따라 건설된 신개지로, ‘동양의 작은 파리’ ‘동양의 모스크바’ 같은 별칭³³⁾에서 보듯이 물질문명과 사회주의 이념의 유행지자 별천지였다.



[그림 12] 대봉천소패



[그림 13] 하얼빈소패 (1)

두 도시의 이러한 특색은 비교적 순탄하게 ‘황국사상’과 ‘민족협화’ 논리를 구축해갔던 ‘신경’의 경험을 참조하되 그것과 다른 방식의 지배 논리와 통치 이념을 널리 알리는 프로파간다가 요청되었다. 예컨대 예시한 사진엽서 두 편은 근대화된 봉천시가와 봉천역(그림 12), 특이한 건축의 하얼빈역(그림 13) 사진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엽서에 함께 실린 ‘소패’는 그것들의 문명적 외관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차역 자체보다는 그것의 기능과 역할을 최

대한 활용하여 제국의 세계적 팽창을 선전하는 한편 영구한 번영을 기원하느라 바쁘다. 이것은 심미적 프레임에 입각한 프로파간다의 전형적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일까. 두 사진엽서에는 이미지로는 현상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목소리는 부재한 사진의 특성을 활용하여 군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고 만주국의 이상주의를 밀어가는 일제의 식민주의적 욕망이 가득 실려 있다. 사진의 그런 빈 틈, 아니 열린 공간을 치고 들어가 새로운 정보의 맥락과 의미를 조성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만주 건설과 경영의 노래이다.

현재 제국의 식민지라고 하여, 빼앗긴 땅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걸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역사와

32)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126-127쪽.

33) 야마무로 신이치,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332쪽.

서사와 노래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펑텐’과 ‘하얼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더 이상 이국적 풍경과 낯선 정조와 이질적 삶의 양식이 아니다. 만주에의 관심은, 다섯 민족(일본, 조선, 만주족, 한족, 몽골)이 함께 추구하는 “황금의 오색의 꿈” “희망 천리” “무지개 둥근 다리” 같은 이상적 대상에서 보듯이, 천황의 깊고 너른 은퇴로 우뚝 솟아오르는 ‘홍아의 유토피아’였다.

선양 펑텐 밤도 달도 깊어가네
 늘리고 넓혀 혼하(渾河)의 끝도
 끊임없는 황금의 오색의 꿈
 희망 천리의 대만주

—「대봉천소패」 전문(다이쇼사진공예소)

느릅나무의 하얼빈 초록의 도시
 국제열차가 오늘도 떠나네
 꽃의 도쿄 파리의 하늘로
 무지개 둥근 다리 한 가운데인 곳

—「하얼빈소패 (1)」 전문(만주국 우정명신편[郵政明信片])

이렇게 잘 만들어진 만주의 낭만성과 이상성에다 만지(蠻地)에 대한 삽질과 야만의 비적에 대한 충질로 피폐해진 심신을 가탁하다 보면 ‘왕도낙토’와 ‘복지만리’가 눈앞의 현실인 듯한 심리적 승전에 도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제국의 우월성을 구조화하는 한편 만주를 식민의 땅으로 영구화 하기 위해 소년의 온수통과 쿨리의 일륜차는 쉽 없이 뽁—뽁—, 끼이—끼이— 하는 고통과 간난의 비명을 울려대야 했던 것이 실제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거친 바다나 식민의 땅을 넘어 만주로 건너온 가난한 자들 중심의 내지 개척단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만주를 “희망의 대지, ‘북의 에텐’”으로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회의 차별 구조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정적 상황에 던져지기 일쑤였다. 이러한 계급모순은 “대륙의 팽이 전사”로 불렸던 개척단의 병사화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그들의 병사화는 민족모순을 조장하는 형식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반만항일의 비적, 조선과 중국의 민족주의·사회주의 무장세력, 심지어 남하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소련군에 맞서 ‘만주국 방패’로 서둘러 조직되고 동원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³⁴⁾ 요컨대 만주 개척단은 ‘복지만리’를 꿈꾸기 전에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자경단’의 총칼로 먼저 거둬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왕도낙토’를 건설하기 위한 ‘일하면서 싸운다’는 구호의 곤혹스럽고 비극적인 성격이 이로써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이것이 “오색의 꿈”과 “꽃의 도쿄”가 감추고 초래하는 총량한 신민의 현실이었다면 ‘펑텐’과 ‘하얼빈’ 찬양의 노래는 새로 해석되어 마땅하다. 짧고 단호하게 정의한다면, 희망찬 건전가요를 훨씬 초과하는 모르핀 도취의 주술이거나 천국을 불러 죽음의 비탄을 잠시 일탈하는 명량한 레퀴엠으로 간주되어야

34) 만주국 일본 농업개척단의 현실에 대한 이상의 설명과 인용은 아마무로 신이치,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328-332면.

한다. 이를 두고 제국의 희망가를 총소리로 속량한다는 뜻에서 ‘유행가의 군사주의화’로 불러도 괜찮을 법하다. 문제는 이 작업이 만주뿐 아니라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일제 전역의 과업으로 던져졌다는 데 있다. 이것이 초래한 가장 참혹한 결과는 일본인은 한·만의 적대자와 맞서면 그만이었지만, 조선인과 만주인은 자민족 내부에서 저항자와 체제협력자로 나뉘어 서로 다른 노래와 총소리로 동족을 마구 겨뤄야 했다는 폭력과 분열의 비극적 사태에 존재한다.

4 아동의 얼굴에 새겨진 ‘조선’이라는 타자성

조선 ‘향토’ 대상의 사진엽서는 일본과 만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제향토(나라)에 고유한 자연환경을 제외한다면, 일본·만주와 마찬가지로 서민 중심의 일상적 생활과 전통적 관습에 최첨단의 근대문물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사진엽서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진행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할 때 조선의 사진엽서에는 성스러움과 관능미를 동시에 갖춘 조선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의 여성이 거친 노동과 고된 육아에 시달리는 불우한 변두리 인생으로 그려지며, 화사한 치장의 기생들도 오랜 슬픈 상념에 잠깐의 웃음을 더하는 ‘말을 알아듣는 꽃’(解語花) 정도로 묘사된다.

이들이 사진엽서의 주인공이다 보니, 황량한 만주의 ‘향토’처럼 ‘하이 모더니즘’의 신세계로 줄달음치는 ‘식민 도회’에 대한 개척의 열망도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래는 봉건 세계에서 전달된 조선과 일본의 전통 민요나 근대 신민요를 취하되, 사진은 전차와 도로, 근대식 건물과 대중공원 등을 붙이는 사진엽서만이 조선의 가게와 거리를 흘러 다니게 된다. 전통을 가장한 봉건적 일상과 인물은 가득하되, 근대적 업종에 종사하는 ‘모던’한 조선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괴이쩍은 사진엽서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적인 것’인 동시에 ‘조선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 모순적인 대(對) 조선 사진엽서를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기 전에 제국 일본의 시선과 코드가 문화정치학적으로 잘 기획되고 투사된 ‘허구적 기호’로 부를 수 있는 까닭이 숨어 있다. 이런 뜻에서라면, 이후 함께 읽어볼 두 장의 사진엽서는 ‘긍정’의 에스닉과 ‘발전’의 향토를 박탈 또는 삭제당한 ‘조선적인 것’이라는 은폐된 속성과 진실을 짚어보기에 매우 적절한 기호적 구성물이 아닐 수 없다.

‘고려시사(高麗詩社)’를 지은이(또는 편자)로 내세운 『조선정시(朝鮮情詩)』는 고량시사(高粱詩社)의 『만주정시(滿洲情詩)』와 그 형식과 내용, 이미지와 정서에서 거의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주로 조선(인)의 전통적 생활과 관습, 활동과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탓에 조선의 전근대성과 미발전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페머럴 미디어’로 제 역할을 다하게 된다. 물론 일본인 화자를 빌린 아이들의 목소리와 정서는 ‘스위트 홈’을 연상시키는 가족애를 충분히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함께 긍정적 의미의 동양적 가부장제를 공유하는 조선의 모습을 연상하게도 한다.



[그림 14] 조선정사-시골집 소녀

- 해질녘 대숲에
 까치가 우네
 들판의 아버지도
 이제 돌아오시겠지
- 아버지도 읍내에 어머니도 읍내에
 선물은 무엇일까 날이 저문다
 벌써 귀가를 기다린 지 오래

고된 농사일 마친 후 소를 타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따스한 효심, 그런 아이들을 위해 가난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선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자애심은 그 자체로 조선의 반듯한 윤리와 더불어 단단한 가족, 향토, 국가 공동체 의식을 표상한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우리는 저 사진과 문장들을 향해 제국의 식민주의, 곧 타향·타자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아를 자기 만족적으로 바라보거나 이상화하는 권력적 시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진과 그림이다. 저 장면을 찍은 원화에 의한다면 아버지는 밭을 가느라 실 틈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 모습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데, 갑자기 또는 사진사의 요청에 의해 피사체로 던져진 경우인지라 어딘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시선과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사진과 그림은 일본인 화자가 흥내 낸 조선(인) 특유의 정서와 생활을 ‘사실화’하기 위해 동원한 허구적 이미지임이 분명해진다. 지나친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과 공유되는 효심과 자애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정신’을 모토로 근대천황제에 충성하는 ‘충량한 신민’의 자지로 얼마든지 변성, 아니 퇴폐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요컨대 모든 ‘조선적인 것’들은,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빌린 호미 바바의 견해를 인용하면, “우리 것인 동시에 타자의 것인 활동의 형식들”³⁵⁾을 요구하는 일제의 식민주의적 (무)의식 아래 단단하게 포획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미개와 야만, 저발전의 ‘조선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규율화하기 위한 장치로도 저 아이들, 특히 ‘조선의 누이’들이 징발되기도 한다. 사진엽서세트 『조선의 부인생활의 한 페이지』에는 ‘조선의 누이’가 성장하여 여전히 봉건적인 조선 현실에서 겪게 되는 성인 여성의 이미지가 두엇 등장한다. 시장통에서 훤히 가슴을 드러낸 채 젖을 물리는 젊은 엄마-서구와 일본의 카메라가 그렇게도 열광하며 셔터를 눌러댄 이미지였던-와 본고의 첫 머리에서 마주했던 도리깨질하는 중년의 촌부(그림 11 참조)가 그녀들이었다. 일제의 식민주의적 시선이 주목했던 궁핍한 삶과 존재로의 성장이라는 조선여성의 서사는 남성적이며 관음증적인 시선에 의해 피격당한 식민지 여성의 성적 대상화³⁶⁾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로든 상징적으로든 가난하고 발가벗겨진 여성으로 비유되거나

35)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318쪽.

36)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208~209쪽.

재현되던 조선의 ‘미래 없음’을 선언하고 널리 알리는 정치적 식민 행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불우한 자아와 민족의 서사는 남자 아이의 삶과 이미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시한 사진엽서는 사진엽서세트 『가요의 조선(歌謠の朝鮮)』의 한 구성품이다. 본 엽서세트는 인물과 사물 모두를 봉건적 지평에서 취한 것, 인물은 전통적 모습을 취하되 사물만은 전차와 교량, 철교 등 근대적 영역에서 취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시가만큼은 모든 엽서가 전래의 ‘조선민요’와 새로 창작된 ‘일본 와카(和歌)’를 동시에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유의 하면서 예시한 엽서에서는 ‘조선민요’②와 ‘와카’①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조선의 전근대와 근대를 통합한다기보다는 분열시키는지를 엿보기로 한다.



[그림 15] 조선민요-경성·남대문

- ① 단단한 줄에 매달린 연이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선명함
전차의 창에서 맛보는 산뜻함
- ② 철컹 철컹 옛 사시오.
하나 늘어보면 어디까지 가닿을까.
별의 궁전에 착 가닿겠지.
거기서 엄마 그리워 올면
더 늘어나고 늘어나겠지
옛 착 늘려서 엄마 업고 날아오네.

전차에 탑승한 일본 화자는 차창 밖에서 하늘을 나는 연의 움직임에 산뜻한 기분을 맛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카메라의 시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조감(鳥瞰)’의 시선, 곧 ‘하이-앵글’을 취하고 있다. 그 덕분에 성벽이 좌우로 잘려 사용가치를 잃은 채 관광용으로 상품화된 남대문과 그 좌우를 달리는 전차의 움직임이 대조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관광지로서 남대문 일대의 풍경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관광(객)의 시선’이 어떻게 구상되고 발명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 수반된 식민지 내 특정 공간의 관광지화나 박물관화는 제국의 여행자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³⁷⁾하는 기쁨과 우월감을 선사하거나 허락한다. 이것이야말로 힘센 제국 신민들의 여행은 단순한 이국취향이나 이질적 문화에 대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자신들의 우월함과 세계 정복의 가능성을 자신하는 팽창주의적 욕망의 심화 및 확산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라는 세간의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핵심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조선민요’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작된 다음의 노래는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조실부모’하여 제 나이에 맞는 보살핌이나 배움 활동은 고사하고 옛 팔기에 나선 조선 아동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사실 ‘옛 팔기’ 민요는 조선 전래민요 어떤 것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37) 존 어리·요나스 라슨, 『관광의 시선』, 271쪽.

다만 노래의 분위기나 화자의 처량한 신세가 조선 곳곳의 옛 민요 「화초송가」와 매우 닮아 있음을, 따라서 이 노래를 참조하여 새로 지은 것임을 짐작케 한다. 「화초송가」는 아버지는 ‘제비’요, 어머니는 ‘거미’이며, 누나는 ‘나비’이고, 어린 누이는 ‘철새’인 가족, 그런 까닭에 모두 화자(나)를 버리고 떠난, 아니면 어떤 무서운 사건으로 인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추모’의 노래로 알려진다.

조선의 시인이자 조선민요의 번역가였던 김소운은 이 노래를 조선어로 된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과 일역본 『조선동요선』(1933)에 실어 일본 도쿄에 소개했다. 조선민요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대중독자라면 저 옛 파는 조선아동의 슬픈 심정이 「화초송가」에서 빌려온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생성된 또 다른 ‘제국의 시선’은 즐거운 전차 탑승객인 내지 여행객(재조선 일본인 포함)의 우월함과 한 가락의 옛이라도 팔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조선아동의 처참함을 그 무엇으로도 뒤바꿀 수 없는 현실로 입증하느라 바쁘게 된다.

아무려나 제국 일본에 ‘옛 팔이’ 노래가 소개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제국 공통의 ‘국민의 소리’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옛 팔기’ 노래가 조선인을 일제에 대한 “동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첫 시책”의 소산임을 알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제국의 여행객들이 여행상품이자 우편매체로 소비하는 사진엽서 속의 조선민요들이 사실은 ‘조선’이라는 일개 지방에서 불리는 편협한 민요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사실을 증빙하는 ‘피식민의 소리’로 차별화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³⁸⁾

이러한 사실은 저 불행한 조선아동의 노래가 실린 『가요의 조선(歌謠の朝鮮)』에서 발견되는 두 남성에게 의해 재차 입증된다. 한 사람은 십자로 개폐되는 최첨단의 일제산(産) ‘압록강철교’ 옆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구식(전통)의 생활 잡화를 파는 상투 튼 중년의 조선남성이다. 다른 한 사람은 우뚝 선 한강철교 사진 아래 배치된 것도 모자라 하루치 곡식을 위해 꼭 팔아야하는 짙은 수습 켈레를 들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조선노인이다. 둘 모두 ‘옛 팔이’ 소년처럼 전통적이거나 새로 해석된 ‘조선민요’와 일본산 ‘와카’에 가탁되어 ‘내선융화’의 대상인 동시에 차별되어 마땅한 식민지 조선의 이등신민으로 사진엽서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일제의 문화정치학적 시선과 태도의 횡포 아래 철저히 사물화·타자화되고 있는 조선인의 이미지를 대표하게 되고야 마는 것이다.

5. 제국의 시선과 향토의 창안(날조)이 말하는 것

레비 스트로스의 말을 다시 빌린다면, “우리 것인 동시에 타자의 것인 활동의 형식들”이라는 명제는 제국 일본의 식민주의적 시선과 태도에 어김없이 들어맞는 보편적 명제라 할 만하다. 이 말을 자국의

38) ‘일본민요’에 대한 ‘조선민요’의 식민화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임경화, 「민족의 소리로서의 민요-식민지하 조선의 ‘민요’ 개념 도입과 전개」, 임경화 편저,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 창출』, 소명출판, 2005 참조.

‘향토’와 타자, 곧 식민지의 ‘향토’와 관련시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방과 재현의 지평으로 귀속될 것이다. 신문명과 권력의 정점인 제국을 중심으로 자국과 식민지의 ‘향토’를 ‘제국화’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지방화’하는 변두리화의 역설이 그것이다. 일본과 중국, 조선의 ‘향토’에 대한 사진엽서의 시선과 태도는 얼핏 보면 균질적인 듯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차별적 서열화와 종속적 체계화의 전략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향토’에 대해서는 전근대의 속성과 식민성의 이미지를 최대한 지워가며 그곳을 ‘국민정신’의 도야와 통합의 장으로 다시 구성하고 위치 짓는다. 만주의 ‘향토’에 대해서는 하이-모더니즘 전략에 기반하여 무지와 몽매의 원(原) 만주와 ‘일본정신’으로 충만한 ‘복지만리’의 최첨단 기지로 양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의 ‘향토’는 전근대의 조선(인)과 생활상을 단독으로 취하거나 이들을 제국의 자본(기술)이 건설한 근대적 문물과 함께 전시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이를 간단한 이미지와 명제로 정리한다면, 긍정적 개발과 전면적 통합의 일본, 고도의 개척과 전통(생활) 멸시의 만주, 선택적 개발과 전근대 전시의 조선 정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 나라 ‘향토’에 대한 차별적인 이미지 생산은 권력의 입장에서 발휘되는 시선의 간교함과 폭력성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무려나 제국이 시선을 보낸다는 것은 향토나 식민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 식민권력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끔 정복한 그곳들을 다시 배열하고 형상화하고 분류하는³⁹⁾ 잘 기획된 사업일 따름인 것이다. 이때 특히 만주와 조선에 발휘되는 식민 지배의 효과는 ‘쿨리’와 ‘요보’로 비하되던 식민지 ‘인간동물’들의 ‘고향’에 대한 따스한 체험과 아름다운 기억을 오히려 ‘탈향의 불길함’으로 만드는 소외적 동조화 현상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민족과 자아의 ‘향토’는 언제나 공백 지대로 남겨지고 또 반복됨으로써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삶-속의-죽음(death-in-life)’의 공간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⁴⁰⁾

그렇다고 일제 식민주의가 한만(韓滿)의 하위주체 및 그들의 향토에 함부로 새겨넣은 야만과 미개, 멸시와 천대, 동화와 배제의 차별과 폭력에만 눈살을 찌푸리고 비판의 강도만을 높일 일은 아니다. 이 끔찍한 식민 담론이 부과하는 전형적인 식민지적 (무)의식이나 이미 결정된 정형성을 조금이라도 벗겨낼 수 있는 예리한 시선과 방법을 찾아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정신’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미끄러지거나 분열되는 ‘죽음-속의-삶’(life-in-death)의 흔적이나 지표를 정성껏 찾아 나가는 몸짓과 행동이 더욱 절실해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말로 불리거나 일본어 번역으로 기록된 ‘조선민요’에서 ‘제국의 소리’와 ‘지방의 노래’로 분열되는 식민주의적 포획의 그물과 밧줄을 지혜롭게 제거하여 본래의 ‘조선적인 것’을 다시 발견하고 구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제국의 렌즈에 갑작스레 간혀 불안과 공포로 떠는 듯하지만 그 안에 적의와 저항의 의지를 몰래 숨겨 키우는 어린 조선 아이들의 따갑고도 뜨거운 눈빛을 끊임없이 떠올리는 기억의 작용도 잊지 말 일이다. 이것들과 연관된 또 다른 작업은 이 지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질의 것이므로 추후의 과제로 잠시 미뤄두기로 한다.

39) 존 어리·요나스 라슨, 『관광의 시선』, 15쪽.

40)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321쪽.

1. 이식과 교육
2. 1937년 이후 만주국 교육을 둘러싼 이념적 모순
3. 지역 유지(有志)의 학교 후원에 대한 동상이몽
4. 북향정신의 조건, 협화복을 입은 조선인 교사와 익명의 독지가
5. 결론

1 이식과 교육

1913년 후쿠시마에서 태어나 1920년 소학교 1학년 때 형과 함께 만주로 건너간 아키하라 가쓰지(秋原勝二)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사원이자 『작문(作文)』 동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소설 「밤 이야기(夜の話)」(1937)¹⁾에서 어린 시절 만주로 건너와 살게 된 일본인을 통해 ‘만주와 일본으로 나뉜 마음’, ‘고향이 없는 마음’에 대해 형상화했다. 그의 소설에는 만주의 척박한 땅을 애착하는 중국인, 괴상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조선인, 만주의 귀족임을 자부하며 중국인과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이 등장한다. 아키하라의 소설은 일본 제국이 강조했던 오족협화의 정신을 일본인 스스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그는 소설을 통해 이주민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이식(移植)의 고통과 극복에 비유한다는 점에서 이채를 띤다.

소설에서 주인공 ‘나’는 친구를 만나러 길림(吉林)에 가는 길에 우연히 읽게 된 책에서 “교육”과 관련한 글을 보고 그것을 자기 삶에 비춰 재해석한다. ‘나’의 의식 안에서 ‘인간의 뿌리를 뽑는다’는 의미를 지닌 교육의 어원은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환경으로부터의 탈각’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그것은 재만 일본인의 의식 내에서 ‘이식(移植)’의 문제로 사유된다. 그의 독백은 재만 일본인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1) 이 소설은 1937년 7월 『작문』에 발표되었다. 작품은 대련에 사는 ‘나’가 길림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열차의 도착 시간이 늦어져 친구와 어긋난 ‘나’는 길림역의 대합소에서 이마키(今木)라는 일본인 노인을 만난다. 이마키가 ‘나’에게 건네준 요코야마 지로(横山二郎)라는 청년의 수기가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어린 시절 도만(渡滿)한 요코야마에게 ‘내지’는 상상 이상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첫 ‘내지’ 여행에서 요코야마가 본 것은 ‘어두운 것, 병든 것, 늙은 것’뿐이었다고 수기에 적혀 있다. 요코야마는 수기에 향수를 끊어내고 만주 땅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자각을 반복해서 쓴다. 아키하라 가쓰지는 1937년 7월 29~31일에 걸쳐 『만주일일신문』 석간에 에세이 「고향상실」을 발표해 만주의 현실과 밀착되지 않는 일본어의 문제, 고향상실의 영혼에 사무친 표박자라는 자기인식으로서 만주의 일본인이 겪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보여준다. 小泉京美, 「『滿州』における故郷喪失: 秋原勝二「夜の話」, 『日本文学文化』10, 東洋大学日本文学文化学会事務局, 2010, 81-86쪽.

재만 조선인의 입장에서 만주국의 교육 문제를 살피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이란 인간이 뻗어 내리고 있는 모든 뿌리를 뽑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 교육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라고 한다. 보다 자세히 인용하자면,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환경에서 탈각시키는 데에 있다' (중략) 나도 이에 따라서 내 식으로 말하자면, 나무를 이식하는 문제가 그 성장력에 따른 준비 및 정확한 손질 또는 반복에 따라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식, 즉 고통은 애초에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 여기에 바로 현저한 곤란함이 있다. 식물이라면 만약 그 땅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고사(枯死)할 뿐이고 적절한 조건에 있으면 성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평도 한다. 그러나 책의 저자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그 곤란함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숙명적인 과제이다. 고통보다 타향에-나무라면 이식을 많이 한 것일수록 그 자체로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다면 나도…….2)

'나'는 교육을 식물의 이식에 비유하며 식물 자체의 성장력, 땅, 이식자, 손질과 반복 등의 여러 조건이 이식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이를 학생, 환경, 교육 권력, 훈육에 따른 교육의 가치로 바꿔 쓸 수 있다. '나'의 독백은 그 자체로 교육의 가치를 결정 짓는 다층적 요소를 환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가 이식 행위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고통'과 '불평'의 곤란함 그리고 그것의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의 복잡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이식 과정에서 이식되는 사람도 이식하는 사람도 어떤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적시한다. 그리고 '나'는 이식의 문제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이식을 많이 한 나무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자신도 그러할 것인가 하고 자문하지만, 극복의 당위성만 강조할 뿐, 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

아키하라 가쓰지의 소설에 투영된 작가 의식은 재만 일본인의 고향 상실과 정체성 재구성, 그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재만 일본인이었던 작가가 이식 과정을 통해 환기한 고통, 불평, 극복의 메커니즘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권력자와 교육의 수용자를 함께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것은 재만 조선인의 현실과도 이어진다. 특히, 오족협화와 내선 일체라는 두 가지 정신을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재만 조선인의 상황은 교육 권력과 교육 대상 모두가 처했던 곤경의 복잡성을 암시한다.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라는 식민지적 공공성은 재만 조선인들의 향학열 이면에 문화적 열등감과 우월감, 소속감과 소외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또한, 그들이 제도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내었던 파열음, 만주국의 교육제도를 전유하는 방식에서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은 만주국의 교육문제를 친일과 반일, 수탈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일별할 수 없음을 일깨운다.

아키하라 가쓰지의 소설이 발표되었던 1937년, 만주국에서는 재만 조선인의 치외법권 철폐와 신학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일전쟁 이전부터 일본과 중국은 재만 조선인을 자기 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관리하고자 했으며, 전시체제로 들어선 일본은 재만 조선인의 교육을 전쟁 인력 양성을 위한

2) 秋原勝二, 유수정 역, 『밤 이야기(夜の話)』, 김재용·김창호·유수정 편, 『만주국 속의 동아시아 문학』, 소명출판, 2019, 387쪽.

방향으로 하향평준화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재만 조선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논문에서는 신학제 이후 재만 조선인의 교육 현실을 바탕으로 그 대응의 방향과 태도를 구체화하려 한다.

지금까지 재만 조선인의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는 만주사변 이전에 집중된 경향이 강하다.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교육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교육행정권 이양에서 일본이 내세운 오족협화와 내선일체 정신이 상치되는 양상을 지적한 연구³⁾, 만주사변 후 일제의 재만조선인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규명한 연구⁴⁾, 특정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국 내부의 교육 환경을 실증적으로 정리한 논의⁵⁾들이 그것이다. 역사학 쪽에서 이루어진 앞선 연구들은 만주국 시기 교육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교육제도의 수용 및 대응 양상을 살피려는 본 연구에 중요한 전제이자 단서로 작용한다.

교육 행위는 그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행사하는 조건으로서 반드시 교육적 권위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의 상대적 자율성을 전제한다.⁶⁾ 또한, 교육작업이 지닌 독특한 생산성이란, 재생산이 위임된 문화적 자의성을 정당한 수용자에게 얼마나 주입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⁷⁾ 이 같은 교육의 메커니즘에는 교육의 위계화와 모방의 문제가 개입한다. 일제가 만주국에서 내세운 내선일체와 오족협화와 같은 동일화의 논리는 모방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모방의 위협성은 식민지 담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은, 즉 양가성을 전개하면서 그 권위 역시 분열시키는 이중적 전망에 있다.⁸⁾ 재만 조선인 학교 안팎의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유지들은 부분적인 모방자로서 식민지적 주체이다. 이들은 교육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지만 지배담론의 양식과 규범을 이질화시킴으로써 지배담론 속에서 '부적합한' 식민지적 주체들로 거듭난다.

만주국 내 조선인 학교는 설립 및 운영구조 면에서 학교와 외부의 기부자,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행정당국과의 복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구조 안에는 일제 치하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들의 실존, 수탈과 개발 혹은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으로 파악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 만주국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어 신문 『만선일보』의 교육 관련 기사와 안수길의 소설은 만주

3) 田中隆一, 「일제의 '만주국' 통치와 '재만한인' 문제: '오족협화'와 '내선일체'의 상극」, 『만주연구』1, 만주학회, 2004, 89-108쪽.

4) 박금혜, 「만주사변(滿洲事變) 후 일제의 재만조선인교육정책(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 『동방학지』13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239-277쪽; 정안기, 「1930년대 在滿朝鮮人の 教育政治史 연구」, 『만주연구』17, 만주학회, 2014, 121-157쪽; 정안기, 「1930년대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비판적 성찰: 교육정치사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48, 동북아역사재단, 2015, 255-296쪽; 윤휘탁, 「滿洲國의 教育 理念과 朝鮮人 教育」, 『중국사연구』104, 중국사학회, 2016, 177-209쪽; 리우신, 「1930년대 재만 조선인 초등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육행정권의 이양」,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정안기와 리우신은 치외법권 철폐와 신학제 체제하에서 재만 조선인의 교육적 상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일본과 조선 측의 입장을 대별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연구자의 논문에서는 만주 내 조선인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滿鮮日報』 자료가 누락되어 있기에 본고에서는 당대 미디어에 수록된 조선인의 교육정책 비판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 한다.

5) 정미량, 「일제 강점기 재만 조선인의 교육과 그 체험: 장춘(신경)보통학교(1922-1945)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32, 2010, 127-156쪽.

6) Pierre Bourdieu, 이상호 역, 『재생산』, 동문선, 2000, 29쪽.

7) 위의 책, 58쪽.

8) Homi K.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3, 184쪽.

국 교육정책에 대한 일본인과 재만 조선인의 미세한 움직임들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조선 내에서 발행되었던 잡지 및 신문을 참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복합민족국가 만주국의 교육정책에서 강조되었던 오족협화의 정치적 이상이 식민지적 모방 욕망과 만나 교육적 혈통주의로 어긋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2 1937년 이후 만주국 교육을 둘러싼 이념적 모순

1935년 관동군과 만주국 정부가 조직했던 만주국 치외법권철폐 현지위원회는, 일본인 교육에 관한 '교육행정 처리요강'과는 별도로 '재만조선인 교육행정 처리요강'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조선총독부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어 보류되었다. 재만 조선인의 교육행정권 이양 문제는 재만 조선인을 내선일체 원칙하에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통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족협화'의 원칙하에 '만주국민'으로 둘 것인가라는 민족 정책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였다.⁹⁾ 제국 일본의 재만 조선인 통합 방침은 재만 조선인을 '민족협화'를 담당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면서도, '일본 신민'으로 규정하는 애매한 이중성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초래했다.¹⁰⁾

일제는 치외법권 철폐를 통해 만주국을 '독립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오족협화라는 건국 정신을 강조하고자 했다.¹¹⁾ 치외법권 철폐에 따라 1937년 12월 1일부터 사법권과 경찰권이 만주국에 이양된다고 결정되었으나, 재만 조선인 교육행정권 이양 문제는 1937년 말까지도 논의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의 협의하에 남만주철도 부속지 14개 소학교를 제외한 재만 조선인 교육행정권이 만주국에 넘겨졌다. 치외법권 철폐 이후 재만 일본인의 교육행정권을 일본 측에서 관리하고 재만 조선인의 교육행정권을 만주국으로 이양함에 따라 일제는 조선의 식민화 과정에서 강조했던 '내선일체'의 이념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이 같은 양상은 일본이 만주국의 국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193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신학제(新學制)에서도 나타난다. 신학제에서 강조된 학교 교육의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정신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인격의 도야, 덕성의 함양, 국민정신의 양양 발현에 힘쓴다. ② 노작교육을 중시하여 노동 애호의 정신을 기른다. ③ 예비교육의 사조를 배격하고 학교 체계의 각 단계에 걸쳐 교육하는 완성교육이다. ④ 실업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중시한다. ⑤ 체육과 관련해서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노력한다. ⑥ 유소년의 국민교육에 중점을 둔다. ⑦ 중등 정도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의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학문유민(學問遊民)의 배출을 막는다. ⑧ 여자 교육에서는 부덕의 함양에 노력하여 양치현모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실무적 훈련을 실시한다. ⑨ 교사의 소질 개선과 실력향상에

9) 田中隆一, 앞의 책, 104-105쪽.

10) 심규섭, 「만주국의 치외법권철폐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 『대동문화연구』 4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3, 69쪽.

11) 山本有造, 『滿洲國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131쪽.

힘쓴다.¹²⁾

신학제는 만주국 건국 정신에 따라 일만일덕일심(日滿一德一心)과 오족협화 정신을 바탕으로 신체 단련 및 실업교육에 힘써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위의 ③과 ⑦에서 알 수 있듯 만주국 내 교육은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중등교육은 실시하되 농상공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재편되었다. 서당은 국민학사로, 보통학교는 국민학교(4년)와 국민 우급학교(6년)로, 중학교는 국민고등학교(4년)로 바뀌었다. 교육 내용은 실업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어 교육을 강조했다.¹³⁾ 재만 조선인 국민학교의 국어 수업은 전체 과목의 약 40%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조선어는 외국어 과목으로서 수업 시수가 적어지고 국민우급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다.¹⁴⁾ 신학제에 따른 체육교육 및 실업교육의 중시, 교육연한의 단축, 일본어의 국어화는 재만 조선인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어렵게 만들었다.

만주국이 건국 통치 이념으로 다섯 민족의 평등과 공존공영을 내세웠지만, 교육정책상으로도 만주국은 각 민족 고유의 문화를 탈각하고 일본인을 가장 상위에 둔 차별적 구조를 띠었다. 특히, 재만 일본인 학교에서는 수업연한을 종전대로 유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므로 신학제의 실시는 오족협화만이 아니라 내선일체의 이념과도 괴리되었다.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라는 두 개의 식민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시행된 재만 조선인 교육은 여러모로 조선인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1940년 7월에 개최된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에서는 조선계 대표가 주도하여 재만 조선인 교육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그 내용 중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년의 시작과 끝이 만주국과 조선의 학교가 서로 다른 점, 교과서의 부족과 불량 및 배급 지연 문제, 취학 아동의 학년 연령이 서로 다른 점, 중등학교 입학시험 문제가 일만양문(日滿兩文)으로 출제되고 일만양문으로 답안 작성을 해야 하는 점, 교사의 수와 자질의 부족 문제, 학교 수와 재정 부족 문제가 그것이다.¹⁵⁾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재만 조선인 학생의 급격한 학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협화회 전국연합협의회는 만주국 교육 당국에 재만 조선인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선의 교육령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가 조직되고 활동이 적극적으로 개진된 것은 바로 그 이후의 일이다. 1940년 8월 16일 대사관 조선과(朝鮮科)의 삼(森) 과장은 만주 내의 초등 및 중등교육이 교육 내용이나 경영기구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조선총독부 외무부 윤(尹) 사무관, 근등(近藤) 시학관, 청원(淸原) 참의, 이원(伊原) 참사관, 진학(秦學), 김응두(金應斗), 황의명(黃義明)과 만선일보사 대표취체역 이성재(李性在) 등 재경조선인 유지 수십 명과 16일 오후 2시부터 기념공회당에서 회합했다. 이들은

12) 滿洲帝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國勢パンフレット 第二輯 新學制の大要』, 1937, 4-5쪽.

13) 위의 책, 8-17쪽.

14) 리우신, 앞의 책, 43쪽.

15) 崔昌國, 「在滿朝鮮人教育問題」, 『春秋』 제2권 제4호, 1941, 春秋社, 58쪽. 이 글을 쓴 최창국은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결성 당시 간사로 위촉되었던 인물이다.

선계 초등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 및 교육비 보조, 경영기구 정비에 대해 협의하였다.¹⁶⁾ 이 회합은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조직의 단초가 된다.

협화회 수도 계림분회에서는 16일의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추진시키고자 17일 오후 2시부터 기념공회당에서 관계자와 회합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학교의 보조금 및 경영기구에 대해 논의한다. 그 결과 교육후원회를 설치하여 항구적으로 학교 시설을 완비하기로 하여 전만 각지의 유지 24명을 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20일 오후 2시부터 기념공회당에서 후원회의 제1회 회합을 열기로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중등학교 설치 운동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각지 상호 간의 횡적 연계와 항구적 운동 기구의 마련으로 전만 일치의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만주의 조선 아동 교육에 대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조선 내에서도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자는 『만선일보』와 『매일신보』 기사를 바탕으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정리했다.

【표 1】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활동 내용 정리

일시	장소	단체의 활동 내용	참가자	출처
1940.8.17. 오후 2시	기념 공회당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결성, 후원회 위원 위촉	협화회 수도 계림분회 관계자	만선일보 1940.8.19.
1940.8.20. 오후 4시	신경 기념 공회당	교육후원회 제1회 회합 초등교육 경비, 초등학교 경영기구, 교육 후원회 운영 문제 협의 고문: 청원범익, 최남선, 진학, 윤원상필, 박석윤 위원장: 김응두 부위원장: 송전의명 간사장: 김태호 추가위원: 길림 대산기행, 용정 방태섭, 신경 김흥주, 목산창현(牧山昌玄), 김도근(金道根), 이종원(李鍾元) 선만 양국 교섭위원: 김응두, 송전의명, 이용조, 서범석, 방태섭이 선정됨	좌장: 진학 출석자: 용정 방태섭(方泰燮), 길림 이용조(李龍祚), 이동석(李東奭), 대산기행(大山基行), 합이빈 송전의명(松田義明), 봉천 서범석(徐範錫), 김병갑(金秉甲), 신경 이원상필(伊原相彌), 김동만(金東晩), 윤명선(尹明善), 김응두(金應斗), 임한룡(林漢龍), 박준병(朴準秉), 이성재(李性在)(이상 위원) 김태호(金泰昊), 신기석(申基碩), 최창국(崔昌國), 한창운(韓昌雲), 홍양명(洪陽明)(이상 간사) 안동, 목단강, 연길, 통화 위원은 결석	만선일보 1940.8.22
1940.8.20. 오후 7시	길림 산업대 강당	전만교육위원회 위원인 이용조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신경 의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전만 대표로 5명이 일만 양국에 진정의 길을 떠나게 되어 밤 12시까지 간담한 후 폐회함	이용조를 비롯한 교육후원회 전만 대표들	만선일보 1940.8.27.
1940.8.26. 오후 1시	총독부 외사부	총독부 당국과 회견함. 진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이양된 교육을 반환하든지 조선 내지와 동일한 제도로 할 것	김응두 외 교육후원회 진정 위원 5명, 추방(諏訪) 외사부장, 전중(田中) 외무과장, 심(辻) 척무과장, 윤(尹) 사무관	만선일보 1940.8.28.

16) 「鮮係 教育 經營 機構와 其他 問題 打開次 教育後援會를 組織」, 『滿鮮日報』, 1940. 8. 19.

일시	장소	단체의 활동 내용	참가자	출처
		-일본정신을 잊지 않도록 할 것 -조선 내지의 교육 정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 -재만 조선인이 자제 교육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할 것		
1940.8.27. 오후 1시	조선 총독부	학무국 방문하여 만주국 교육 실정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난관 타개책에 대해 간담	김응두 외 교육후원회 진정 위원 5명, 엄원(嚴原) 학무국장, 팔목(八木) 학무과장	만선일보 1940.8.29.
1940.8.28.	지원병 훈련소	엄원 학무국장의 안내로 지원병 훈련소 견학	김응두 외 교육후원회 진정 위원 5명, 엄원(嚴原) 학무국장	만선일보 1940.8.28.
1940.8. 31. 오전 9시	헌병대 사령부	가등(加藤) 헌병사령관 방문하여 만주 내 조선인 자제의 교육문제에 대해 설명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진정위원	만선일보 1940.9.2
1940.8. 31. 오전 11시 30분	조선총 독부	추방(譴訪) 외사부장과 만나 최후 의회 건선처 요망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진정위원	만선일보 1940.9.2
1940.8. 31. 오후 1시	조선군 사령부	보도부장을 만나 진정 내용 설명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진정위원	만선일보 1940.9.2
1940.8. 31. 오후 3시	경성 반도 호텔	교육문제진정위원 결성하고 환영 좌담회 참석, 조선 내 교육후원회 결성 김연수: 진정위원의 활약 치하, 선내 유지의 협력 희망하는 인사 강천룡조: 초등교육에 대하여 설명 공진항: 중등교육에 대해 설명 송전익명: 재만조선인의 교육방침 및 후원회 활동 경과 설명 방태섭: 재만조선인의 개략 서범석: 근본 문제 시정의 필요 설명 김응두: 원내 유지의 후원 요망	김연수(金季洙) 만주국 명예총영사, 추방(譴訪) 외사부장, 전중(田中) 외무과장, 십계오(辻桂五) 척무과장, 팔목(八木) 학무과장, 윤(尹) 사무관, 이동치호(伊東致昊), 고원훈(高元勳), 최린(崔麟) 매신 사장, 손정규(孫貞圭) 여사, 한구복(韓圭復), 김원방광(金原邦光), 김시권(김시권(金時權), 오금선(吳兢善), 한상룡(韓相龍), 김사인(金思演), 김활란(金活蘭), 강천룡조(江川龍祚), 공진항(孔鎮恒), 송전익명(松田義明), 방태섭(方泰涉), 서범석(徐範錫), 김응두(金應斗) 위원장 등 관민 유지 20여 명	매일신보 1940.8.31; 1940.9.1 만선일보 1940.9.2
1940.9.13. 오후 1시	신경 기념 공회당	제2회 위원회 위원장 김응두의 인사, 후원회 간사장 김태호 씨의 후원회 조직 후 경과 보고, 상부 진정위원 서범석의 경성 진정 경과 보고 금후 활동 방침과 운동에 대한 협의 진행	내빈: 청원(淸原) 참의, 김자(金子) 수도본부부장, 윤원(伊原) 흥능부 참서관, 삼(森) 조선과장, 강전(岡田) 선척이사, 일고병자랑(日高丙子郎) 위원 및 간사: 함이빈 송전익명, 탁춘봉(卓春峰), 길림 이동석, 안동 신도범(申道範), 무순 김창집(金昌集), 봉천 서범석(徐範錫), 묵단강 김승기(金昇起), 영안 이시곤(李時坤), 목촌좌윤(木村佐潤), 용정 정사빈(鄭士斌), 방태섭, 전성호(全盛鎬), 훈춘 이용득(李龍得), 통화 변해진웅(邊海鎮雄), 김경태(金京泰), 신경	만선일보 1940.9.14.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벌 다양성

일시	장소	단체의 활동 내용	참가자	출처
			박준병, 김동만, 임한룡, 이성재, 주평로, 장수백(張遼白)	
1940.9.27. 오후 1시	연길 공회당	연길에서 내선교육 일체화 촉진운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형위원 7명을 선정.	최을주(崔允周), 손정룡(孫定龍), 김수학(金水學), 김희수(金熙洙), 주백록(朱白鹿), 주형윤(朱炯允), 강병철(姜秉喆), 윤룡길(尹龍吉), 황창일(黃昌一), 이명순(李明淳), 박장하(朴藏廈), 전성호(全盛鎬), 윤동철(尹東喆), 차은식(車殷植), 최무(崔武) 등 21명	만선일보 1940.10.1
1940.9.28. 오후 1시	최윤주 의 집	연길가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회원은 임시 사무실인 최윤주 씨 방에 모여서 주만 대사관과 조선총독부, 일본문부성에 타전함. 앞으로 신경을 비롯한 전만 각 도시와 연락하여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로 함.	위원장: 김수학, 위원: 주형윤, 윤동철, 강병철, 윤룡길, 박장하, 김희수, 손정룡, 전성호, 서금찬(서금찬), 장인수(張寅秀), 최윤주 등 16명	만선일보 1940.10.1
1940.10.2. 오후 7시	길림 동영 학교 강당	길림성 단위 보고회 개최 대산기행(大山基行)과 이동석이 보고함. 25명의 연락원 결정	전만 대표 이용조, 후원회 위원 대산기행, 이동석 외 길림 유지 다수	만선일보 1940.10.6
1941.7.21.	조선 총독부	대표 김응두가 조선총독부를 방문하여 만주 조선인 교육 문제 개선에 관한 진정을 함. 조선인 초등·중등교육에 경상비와 임시비 보조, 만주 내에 사범학교 설립, 조선에 위탁생 파견 요청	김응두, 조선총독부 관계자	매일신보 1941.7.22.
1941.7.23.	조선총 독부	재만조선교육문제 개선에 관한 간담	김응두, 목전(木田) 만주국 민생부 교육사장, 구보전(久保田) 사무관, 총독부 관계국 부장	매일신보 1941.7.22
1942.5.6. 오전 10시-5.7. 오후	신경 기념 공회당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제3회 전만위원회 6일: 궁성 요배, 건국신묘 요배, 2년간 활동 경과 보고, 재만선계교육에 대한 조선총독부 측의 방침 설명, 후원회 금후의 운영 방침, 임원 개선, 중등 사범교육 기타에 관한 간담 7일: 만주국 측 교육사(教育司)와 간담	고문, 위원, 간사: 청원범익, 윤원상필, 김응두, 대본정랑(大本正郎), 박준병, 목산창현(牧山昌玄), 임한룡, 신기석, 황종률(黃鍾律), 한창운 등 대사관 조선과 등 관계 당국자와 전만 각지의 인사: 전성호, 김자창삼랑(金子昌三郎), 원전미마(原田美馬), 김광만(金光滿), 강천용조(江川龍祚), 송산호(松山浩), 천천무송, 산야호민(山野浩敏), 김광휘무(金光輝武), 장본덕현(張本德賢), 서범석, 도원영일(桃原榮一), 석도준리(石島俊理), 송산재원(松山宰源), 전촌창근(全村昌根) 등	만선일보 1942.5.7. - 5.9.
1942.5.6. 오전 10시	신경 기념 공회당	제3회 전만위원회 각종 의제에 관한 논의, 남(南) 총독에게 감사 전보 발송	김응두 위원장, 전만 각처 40여 위원	매일신보 1942.5.9
1942.5.7. 오후 4시	민생부	정부 기타 만주 측 관계 기관 방문하여 감사 인사.	김응두 및 교육후원회 관계자들, 목전 교육사장	매일신보 1942.5.9

일시	장소	단체의 활동 내용	참가자	출처
		목전(木田) 교육사장과 의 간담회 참석		
1942.5.18.	합이빈	여자중등학교 설립 기성회 조직하여 각지에 지방위원을 선임하고 활동 시작(성당국의 원조와 만철의 교사 무상 대여 내약을 주고받음), 기금 모집 착수 예정	송전(松田) 등 후원회 위원들	매일신보 1942.6.8
1942.5.21.	매일 신보사	재만 조선인 교육문제 간담을 위해 입경(入京)하여 재만 조선인 교육비 보조에 대한 인사로 매일신보사 방문	교육후원회 동만, 북만, 남만 대표 김응두, 송전황영(松田晃榮), 천촌무송(天村茂松), 안종정광(安宗政光),	매일신보 1942.5.22
1942.5.22. 오후 1시	조선 총독부	남 총독 방문하여 감사 인사. 황국 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만주국 신민으로서 총량한 소질을 기르기로 맹세함.	김응두 씨 외 교육후원회 위원 3인(사진 있음)	매일신보 1942.5.23
1942.9.30.	신경	교육후원회에서 전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선인 학교 경영 주체의 일원화를 비롯한 교육 개선에 대한 여러 의안을 토의함	교육후원회 전만 위원	매일신보 1942.9.30
1942.10.2 2	매일 신보사	만주국립중앙사도훈련소 조선인반 특설에 따른 조선인 초등교사 모집 촉구	김응두	매일신보 1942.10.22
1942.9.30.	-	전만이사총회(全滿理事總會)에서 청원(淸原) 참의 긴급동의를 통해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육영사업을 실시하기로 가결. 전만의 재산가, 유지, 독지가를 총동원하여 약 2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그 이윤으로 빈한한 영재에게 학자를 주기로 함.	교육후원회 이사(理事)	매일신보 1942.11.13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1940년 8월 17일에 조직되었다. 당시 위촉된 전만 각지 위원은 안동 김동호(金東昊), 봉천 서범석(徐範錫), 김병갑(金秉甲), 길림 이동석(李東奭), 이용조(李龍祚), 합이빈 황의명(黃義明), 공진항(孔鎭恒), 목단강 강예환(姜禮桓), 연길 최윤주(崔允周), 손정룡(孫定龍), 용정 허록(許鹿), 전성호(全盛鎬), 통화 김원태(金原泰), 신경 이원상필(伊原相弼), 진학(秦學), 박석윤(朴錫胤), 김응두(金應斗), 윤명선(尹明善), 박준병(朴準秉), 임한룡(林漢龍), 김동만(金東晩), 이성재(李性在), 주평로(朱坪魯), 이홍주(李鴻周), 간사 김태호(金泰昊), 신기석(申基碩), 최창국(崔昌國), 한창운(韓昌雲)이다. 이들은 각 지방의 유지로 기업가, 농장 경영자, 광산업자와 같은 실업가, 신문과 잡지를 편집한 언론인,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육가 등 만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중 위원장인 김응두는 북만산업합자회사와 동아사업주식회사 사장이었다. 부위원장인 황의명은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던 인물로 만주국 협화회 하얼빈 금강분회장이었다. 앞선 두 사람과 함께 선만양국 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은 어떠한가. 이용조는 대륙농기주식회사 사장이었으며, 1942년 길림 제일협화구락부 문화부에서 발간한 『만주시인집』¹⁷⁾의 편찬자이기도 했다. 서범석은 『재만조선인

17) 최현식, 「만주의 서정, 해방의 감각: 유치환의 “만주시편” 선택과 배치의 문화정치학」, 『민족문학사연구』5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279쪽.

통신』의 편집장이자 만주국 협화회 봉천시본부 선계공작간사회 실천부장이었다. 이처럼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위원들은 만주 각 지역 협화회에 소속된 인물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1]의 제2회, 제3회 전만위원회의 참석자 수 증가에서 알 수 있듯,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전만 각지의 유지들이 교육과 관련한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자리 잡아갔다. 다만, 현재 1943년과 1944년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시기 『만선일보』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1945년 신경에 방문한 정무총감이 전만교육후원회의 회장을 만났다는 기사¹⁸⁾를 통해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가 전만교육후원회로 포섭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만조선인 교육후원회가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것은 초등교육 경비 문제와 초등교육 경영 기구 일원화에 관한 것이었다. 1940년 선계 아동 1인당 교육비는 보류(保留)학교 26원, 조합학교 29원, 공·시립학교 15원, 간도성 내 학교 29원, 사립학교 26원으로, 평균 1인당 교육비는 26원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학부형 회비, 기부 등의 형식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하여 평균 40-50원의 경비를 요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보조금 66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등교육 시설에 85만 원의 보조를 요청했다. 교육 경비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교육행정권 이양이 결국 재만 조선인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했으며, 그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형이나 경성 및 만주 내 독지가에게 돌아가게 되었음을 알린다.

또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1940년 당시 초등교육 기관의 경영기구가 5, 6종으로 다원화되어 있기에 국민교육상 경영 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논의했다. 신학제에 따라 선계 아동은 ‘일본 제국신민인 동시에 만주국의 구성분자로서 훈육받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즉, 선계 아동은 교육 과정에서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라는 두 가지 이념을 내면화해야 했다. 교육후원회는 신학제 실시 이후 선계 학생에게 강요된 이 두 개의 국가 정체성을 협상의 기본 내용으로 삼는다. 1940년 8월 26일, 교육후원회는 진정(陳情) 과정에서 “재만 조선인에 대한 지도 정신이 통일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곤란한 입장”¹⁹⁾임을 말하여 재만 조선인의 지도원리를 확립해 달라고 요청한다.

표면상 이들의 진정은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에서 강조하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통합하거나 공존할 방향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은 그것의 불가능성을 교육권력에게 되묻는 방법에 가깝다. 실제로 추방(諷訪) 외사부장은 “일만 양국 사이에 다소간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 답변한다. ‘경영 기구 일원화’와 ‘지도 정신의 통일’에 대한 교육후원회의 요청은, 엄밀히 말해 지금의 교육체제로는 국민교육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우며, 재만 조선인 교육이 오족협화가 아닌 내선일체하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만주국 민생부에서는 “일본신민으로서의 본질하에 만주국 구성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한다”²⁰⁾는 근본 방침을 반복한다. 이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한다. 조선총독부나

18) 「半島人 學童 激勵」, 『每日申報』, 1945. 5. 5. 이 기사에는 1945년 5월 3일 신경 영빈관에서 전만 교육후원회 회장 가네코(金子安邦)가 신경을 방문한 엔도(遠藤) 정무총감, 시라이시(白石) 농상국장 이하 관리와 간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 「教育後援會 陳情委員, 總督府 訪問코 懇談」, 『滿鮮日報』, 1940. 8. 28.

만주국 민생부는 교육비 보조 증액이나 학교 경영 기구의 일원화, 초등교육 8년제 실시와 같은 조선인들의 주장에는 오족협화나 선만일여(鮮滿一如)처럼 만주국 내 민족의 평등과 공존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선어 수업 폐지 반대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선에서 조선어 수업이 폐지된 상황에서 만주국 내 조선어 수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식의 내선일체 논리를 내세웠다.

교육후원회의 3년에 걸친 운동은 1942년 3월에 이르러서야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측의 교육비 보조 증액 발표로 하나의 결실을 맺는다.²¹⁾ 그 외에도 교과서 배급 문제, 조선으로의 중등 전문학교 입·전학의 연락 등 세 가지 중대 문제를 해결했다.²²⁾ 조선총독부의 교육비 증액 소식을 접한 김응두는 3년의 노력이 교육비 보조로 나타났으니, 앞으로 중등학교와 사범학교 설립 문제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이 의지를 바로 실천에 옮겨 북만(北滿)에 중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모집에 착수했다. 또한, 국립중앙사도훈련소에 조선인반을 특설하고 조선인 청년을 모집하는 데에도 힘썼다.

특히, 교육후원회가 교육문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며 강조했던 것은 ‘징병제’ 실시에 앞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 조선의 상황에 빗대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점이었다.²³⁾ 중앙사도훈련소에 조선 청년들을 모집할 때에도 교육후원회 회장 김응두는 ‘징병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강조한다. 징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만조선인에게 일본과 조선에서처럼 교육받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군인과 학생으로 국민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식민지 조선인의 처지를 일깨운다. 징병제를 앞세워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민간단체의 호소는 분명 친체제적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인의 상급학교 진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절실함 역시 안고 있다. 재만 조선인 교육을 전쟁물자 마련과 군인 양성을 위한 노동교육과 실업교육에 한정하려 했던 일본 제국의 교육적 의도는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와 같은 조선인 민간단체의 운동을 통해 굴절된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3년에 걸친 운동이 교육보조금 인상이나 교원양성훈련소와 같은 일련의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단체의 성격, 영향력, 활동의 전략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이 민간단체에 소속된 위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교육당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진정 활동이 재만 조선인들의 교육열과 공명하고 있었기에 조선인 사회의 반감과 저항 역시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차례에 걸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진정(陳情)이 제국 일본의 교육권력

20) 「今後 初等校 教科書는 滿洲國 自體가 編纂」, 『滿鮮日報』, 1942. 4. 14.

21) 「總督府서 教育費로 九十八萬圓 今年度分 補助」, 『滿鮮日報』, 1942. 3. 20; 「將來 補助의 增額 豫想」, 『滿鮮日報』, 1942. 3. 20; 「中等과 師範教育도 今後로 解決에 全力」, 『每日申報』, 1942. 3. 22; 「남 총독에 감사 인사」, 『每日申報』, 1942. 5. 23. 초등교육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은 치외법권철폐 이후 44만 7천5백 원이었다. 조선인의 지속적인 보조금 증액 요청이 있었던 바, 조선총독부는 1942년 예산에 만주 교육비 보조비 98만 원을 계상하였다.

22) 「社說: 教育後援會에 望함」, 『滿鮮日報』, 1942. 5. 8. 이에 따라 만주국 내 조선인 사회에서는 교육후원회의 활동을 통해 중등학교 설립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 단체에 대한 재만 조선인 사회의 교육적 기대는 『滿鮮日報』 사설에 잘 드러난다.

23) 「在滿鮮係教育後援會 延吉 有志들이 結成」, 『滿鮮日報』, 1940. 10. 1; 「多數應募切望 金應斗氏 談」, 『每日申報』, 1942. 10. 22.

자들에게 조선인을 향해 부르짖었던 내선일체의 진정(眞情) 여부를 추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3회 전만위원회를 개최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와의 간담회를 가진 민생부 목전(木田) 교육사장이 『만선일보』를 통해 “개인의 자격”²⁴⁾으로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 대목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만주국 교육문제가 여러 민족이 걸려 있는 만큼 복잡하고 곤란한 사안’임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조선인 교육문제는 재만 교무부, 만주국 측 관할로 나뉘어 있는데 그 제도에서도 일본과 조선총독부, 만주국이 각각 달라 일정한 교육방침을 꾸리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공학제의 중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만계와의 공학은 민족협화상으로도 좋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그의 발언은 만주국의 민족협화가 기실 교육제도상의 차원에서 성취되기 어려움을 드러낸 셈이다. 민생부 교육관리의 사적 발언을 기사로 공론화한 만선일보사의 이 같은 편집 의도는 조선인 지역 유지의 교육 운동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지역 유지(有志)의 학교 후원을 둘러싼 동상이몽

식민지 공론장에서 ‘학교 설립’이나 ‘학교 증축’을 위한 기부금 모집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특히, 조선에서 만주로 떠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조선 동포의 자제를 위한 학교 설립 운동은 교육을 향한 만주 및 조선 내 조선인들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²⁵⁾ 고향을 떠나 자식을 키우는 조선 학부형들의 교육열과 그에 대한 미담은 『만선일보』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리고 만주의 학교를 위한 기부금 모집 상황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조선의 일간신문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

재만 조선인 학교에 투사된 사회적 기대와 민족적 가치는 학교 설립과 경영에서 ‘기부의 경제’를 가능하게 했다.²⁶⁾ 학교 설립이나 증축·개축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사, 학부형, 지역 유지(有志)의 기부는 관·공립 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민족 동포의 공유물로서 공공성을 지닐 것을 요청하게 만들었다. 학교를 향한 재만 조선인 사회의 집단적 시선은 조선 민족 내부에서 분출한 향학열이기도 하지만, 소국민의 훈육과 통제를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일본 제국의 교육정책을 학습한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선인의 교육열과 교육운동은 혼종적인 차원에 놓여 있다.

만주국 내 조선인 학교 설립이나 교육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의

24) 「中等校 新設 計劃 教育後援會 懇談會 席上 木田 教育司長 談」, 『滿鮮日報』, 1942. 5. 9.

25) 「渡滿八十年의 結晶 奉天에女子中學 設立」, 『동아일보』, 1938. 10. 9; 「교육에 반영된 이 열성!」, 『滿鮮日報』, 1939. 12. 6; 「延吉高等女學校 設立運動漸活潑」, 『滿鮮日報』, 1940. 1. 9; 「學校建築費로 四十萬圓寄附」, 『滿鮮日報』, 1940. 4. 24; 「有志여없는가 奉天東光學校 七十萬圓財團完城에 鷄林學院理事會組織코大活動」, 『每日申報』, 1941. 8. 24.

26) 식민지 조선에서 학교의 민족적 가치와 학교에서 가능했던 ‘기부의 경제’에 대해서는 보성전문학교의 운영과 공공성 문제를 분석한 김일환의 연구를 참고. 김일환, 「1920~30년대 보성전문학교의 운영과 공공성 문제」, 『역사문제연구』45, 역사문제연구소, 2021, 268쪽.

동정에 기반한 공동 노력이었다. 그러므로 독지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학교 재단의 설립 문제는 학교를 둘러싼 공공성(公共性)과 사사성(私事性)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재만 조선인교육후원회의 위원들은 만주 각 지역의 대표자, 특히 협화회 임원이었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처음에 위원회 설치를 안동, 봉천, 길림, 합이빈, 목단강, 연길, 용정, 통화, 신경 9군데에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무순, 훈춘 등의 지역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비용은 개최지에서 부담하고, 각 위원의 운동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했다. 이 단체가 만주 전역으로 확산된 양상과 운동 비용, 운영 방식은 그들이 행한 교육운동의 성격을 다층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당시 미디어가 이 단체를 조명하는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빈한한 조선인 영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육영사업을 계획하기도 했다. 전만의 재산가, 유지, 독지가들에게 20만 원의 기금을 모으려는 이 계획에 대해 『매일신보』는 만주국 대사관 조선과에서 결성한 장학회의 기금이 2만 원이었던 것과 대조했다.²⁷⁾ 이것은 만주국 대사관과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곱씹어 보게 한다. 교육당국과 민간단체의 장학 기금이 무려 10배나 차이 나는 상황을 부각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 만주국 지역 유지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고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것은 만주국 대사관이나 조선총독부가 만주국 내외 지역 유지의 협조 없이는 재만 조선인의 교육을 원활히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 범위와 조건, 사회적 지위 등은 식민지 공공영역이야말로 헤게모니적 투쟁이 작동하는 공간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사적 영역이 없는 공공영역은 성립할 수 없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는 부정의 대상으로 간주되곤 했다.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라는 공공영역을 둘러싼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은 조선인 대부분의 '사적 이해를 반영하는 공통의 보편적 토대를 세우려는 의도'²⁸⁾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이 단체의 교육운동은 강제와 동의의 양면성을 띤 식민지 통치체제의 성격과 관련된다. 특히, 이들이 택한 진정(陳情)이라는 방식은 어떠한가. 그것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존재하는 '영속적인 비화해성'을 환기하며, '양자 모두에게 위협과 이익 사이의 수치 계산'²⁹⁾을 발생시킨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는 1940년부터 여러 차례 조선총독부를 방문하여 재만 조선인 교육문제에 대한 진정을 시도했다. 1941년 7월 21일 교육후원회 대표 김응두는 조선총독부 관계자와 만난 후에 매일신보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진정 내용과 교육후원회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조선에 있는 여러분의 후원과 협력"³⁰⁾을 희망한다는 점이다.

조선인에게 호소하는 김응두의 절실함은 그의 교육운동을 기사화하는 『매일신보』의 논조와 겹쳐볼

27) 「貧寒한 英才에 福音」, 『每日申報』, 1942. 11. 13.

28)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사이』8, 국제한국문화문화학회, 2010, 173쪽.

29) 김백영, 「식민지 근대 연구의 새로운 발견적 도구로서 '식민지 공공성」, 『경제와 사회』91, 비판사회학회, 2011, 368쪽.

30) 「朝鮮人 教育費 補助와 師範校 設置 時急」, 『每日申報』, 1941. 7. 22.

때 의미심장하다. 『매일신보』는 재만 조선인 교육문제를 전하는 기사에서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정신을 앞세운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재만 조선인의 진정을 받아들일 경우, ‘선만일여’는 만주국 내의 다른 민족과의 차별 문제를 내세워 방어 논리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한편, 조선의 입장에서 ‘선만일여’는 조선 내 조선인이 만주 내 조선인의 교육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복잡성 속에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대표는 조선총독부 관계자를 만난 후 조선 사회의 민족 감정에 호소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회장인 김응두가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민생부, 조선 민족을 향해 보여준 진정이나 호소는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발화되고 있는 것일까. 만주 내 조선인 교육의 발전을 앞세운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논리는 일본의 국가주의나 조선의 민족주의 어느 쪽으로도 포섭될 수 없다. 새로운 삶의 터전인 만주에서 점증했던 교육열은 앞선 정치사상보다는 입신출세주의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신학제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이 전개되는 중에도 만주국 내 중심부와 주변부의 교육적 편차는 도외시되었다. 또한, 지방 곳곳에서 이루어진 기부금 모집이 『만선일보』를 통해 유통·확산되는 중에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신경의 중학교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선인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이 전개될수록 이 단체의 임원들은 만주국 내 조선 동포들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및 만주국의 교육 당국 측에도 신뢰를 쌓아갔다. 학교라는 제도는 분명 국가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욕망이 다양한 층위에서 충돌·교차하는 지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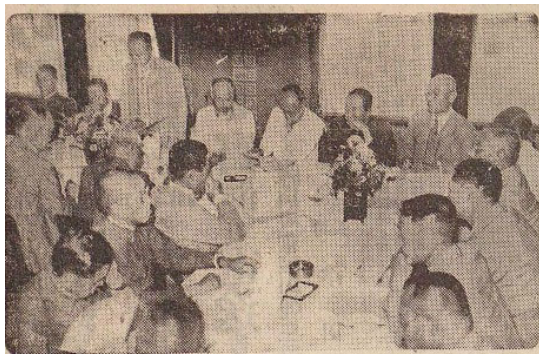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 과정을 상세히 보고했던 『만선일보』는 만주국 내 교육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의식과 감정들을 잘 보여준다. 가령, 『만선일보』는 1940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 단체가 경성에 방문했던 일을 상세히 담은 이용조의 「교육문제 상부 진정 수행기」를 5회에 걸쳐 연재했다.³¹⁾ 그의 글에는 경성에 도착하여 “조선신궁”에 가서 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기도를 올린 일, ‘수송소학교를 견학’하며 조선과 만주 교육시설의 차이를 확인하고 놀란 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돈이나 받으러 왔겠지’라는 말로 박대와 모욕을 당한 일 등 당시 후원회 대표들이 경험하고 느낀 일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이용조는 한 달간에 걸친 진정 과정과 그것이 현실적인 소득 없이 끝난 데 대한 아쉬움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길림 지역 대표인 이용조의 글이 만주국 내 교육문제를 살피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창립 당시부터 함께했던 그가 공적 발언과 사적 발언을 오가며 진정 과정을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는 강천용조(江川龍祚)라는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고 진정 수행이라는 공식적 일정을 신궁 참배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일만일덕일심과 선만일여를 부르짖는 만주에서만 내선일체가 못 되고 “내선분립적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만다. 그는 내선일체를 일상화하고 내면화한 지식인의 포즈를 취하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만주 지역 유지로서 제국 일본을 선포하는 모방 욕망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31) 江川龍祚, 「教育問題 上部 陳情 隨行記」, 『滿鮮日報』, 1940. 10. 10-15.

재만 조선인의 교육을 둘러싼 공공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만주국명예총영사 김연수의 교육사업의 사례로 좀더 쟁점화할 수 있다. 1940년 8월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가 조직된 후 진정 위원들의 경성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그림1])에서 참석자들은 경성 내에도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선내(鮮內)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에서는 김연수, 고원훈, 최린, 오공선 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윤치호를 회장으로 추대했다.³²⁾ 이 인물들 중 김연수는 만주국명예총영사로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이 조선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회 위원과 조선 내 유력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는 정치가이면서 경성과 만주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실업가였다. 또한, 폐교 위기에 있던 동광중학교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거액의 기부금을 보냈으며, 학교 측의 요청으로 동광중학교 경영자가 되었다.³³⁾

실제 만주에 설립된 사립학교들은 지역 유지나 독지가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그림 1] 만주국 명예총영사 김연수의 주선으로 반도호텔에서 열린 재만조선인 교육문제 좌담회.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 진정위원과 조선의 관민유지가 참석(『매일신보』, 1940. 9. 1)

가운데 많은 학교가 치외법권 폐지 이후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위기로 문을 닫았다.³⁴⁾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유명한 재력가인 김연수의 교육 후원사업은 조선과 만주 양측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만 조선인들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진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 설립 운동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김연수의 교육사업은 미디어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가령, 잡지 『삼천리』에 실린 박계주와 김연수의 인터뷰 기사는, 공공성과 사사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그의 교육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준다.³⁵⁾

‘金季洙’ 씨라 하면 우리는 얼른 그를 실업가의 한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는 실업가인 동시에, 폐쇄의 비운에까지 빠졌던 奉天東光中學校에 50만원의 거금을 던져 재흥케한 교육계의 은인으로서 在滿朝鮮人の 교육을 위한 교육가일 뿐만 아니라, 滿洲國 京城 주재 명예 총영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이기도 하다.(중략)

朴-전번 선생께서 奉天에 있는 東光中學校가 재력이 없어 폐문하게 될 것을 50만원이라는 거금을(73) 義捐하셔서 부활시켜 주신 일에 대해서는 在滿 동포는 無論, 재내 동포까지도 감격과 함께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32) 「在滿朝鮮人教育 朝鮮서도 後援會」, 『每日申報』, 1940. 9. 1.

33) 「磐石 우에 선 奉天東光中學 金季洙 氏 引繼 經營」, 『東亞日報』, 1940. 2. 28.

34) 재만 조선인 학교는 대부분 보조금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보조금을 주는 주체는 조선총독부뿐만 아니라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일본 외무성도 있었다. 즉, 제국 일본은 경제력으로써 조선인 사립학교를 일제의 관할 아래에 편입하고자 했다. 이 3대 주체 중에서 보조경비는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많이 지급했다. 리우신, 앞의 책, 18쪽.

35) 기사의 제목에는 “씨는 만주국경성주재총영사(滿洲國京城駐在總領事)·경성방직주식회사장(京城紡織株式會社社長)·봉천동광중학교교주(奉天東光中學校校主)”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金-아이, 원!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중략) 남을 위해서 자선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좋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일했다는 관념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내가 내 일을 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는 괴상한 동물이어서 일 자체보다도 사회의 칭찬을 목적으로 자선사업 같은 것을 하는 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세상이니깐요.

朴-東滿에 있는 間島 龍井에는 순 朝鮮 동포의 자녀 교육을 위한 男女中等學校가 5~6교나 되지만 南滿洲에는 奉天東光中學校 외에는 전혀 없고, 東光中學 역시 그 역사가 오라지 못한 학교였었는데, 앞으로 선생께서 南滿洲 방면에 산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朝鮮 동포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중등학교를 더 창설하실 의도는 없으신지요?

金-아직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朴-이상은 가지셨습니까.

金-글쎄요. 그것은 보류합니다. 실현이 없는 이상만 발표한다는 것도 일종의 허영심이니깐요.³⁶⁾

조선 동포를 위해 남만주 지역에 중등학교를 세울 계획이 있는지 묻자 김연수는 ‘실현이 없는 이상만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허영심’이라 일축한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 명망을 염두에 둔 겸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봉천에 남만방직공장을 건설 중이던 그가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갖게 된 현실 인식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해방이 될 때까지 남만에는 조선인을 위한 중등학교는 더 설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화 바로 뒤에 박계주는 ‘동광중학의 출신을 위해서 조선 사람을 주로 하는 조선색이 흐르는 독특한 대학’을 창설할 포부를 묻지만, 김연수는 자신은 “교육가가 아니고 실업가”라고 말하며 부정한다.

김연수를 향한 박계주의 질문이나 칭찬들은 김연수를 ‘재만조선인 교육계의 은인’으로 만들어준다. 박계주가 학교 설립에 대해 질문하며 학교 앞에 덧붙이는 ‘순 조선 동포의 자녀 교육을 위한’, ‘조선색이 흐르는 독특한’과 같은 수식어들은 교육 혈통주의, 즉 민족 감정에 의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수식어는 김연수의 내면으로부터 민족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단어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김연수는 박계주의 칭찬에 ‘내 일’을 했을 뿐이며, ‘사회적 칭찬을 목적으로 자선사업 같은 것을 하는 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세상’이라 말한다. 그의 대답은 공익과 사익의 절충 지점에서 생겨나는 공명심을 떠올리게 한다. 그가 행한 교육사업은 남만주로의 본격적인 사업 진출에 앞서 그의 여러 행보를 공공성의 차원, 즉 조선 동포를 위한 자선가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위기에 처한 동광학교를 살리기 위해 만주와 조선에서는 여러 조선인이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봉천보통학교 강당 신축비 모금 관련 기사에서 ‘동광중학 하나를 만들어 놓는 데 있는 재력들을 다 털어 넣은 터라 어떤 특지가가 나서기 전에는 실연키 어려운 일’³⁷⁾이라는 한탄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백만 원 재단 완성을 끝낸 후 법인 수속까지 마치고 동광학교 경영자가 된 것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김연수였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박계주가 “南滿洲 방면에 산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조선 동포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중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묻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36) 박계주, 「金季洙 氏의 事業觀·人生觀·黃金觀」, 『三千里』제12권 제5호, 삼천리사, 1940, 72-74쪽.

37) 「奉天普校講堂費로 廿萬圓自進負擔」, 『朝鮮日報』, 1940. 3. 21.

박계주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정치가이자 실업가인 김연수에게 사회적 환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수에게 붙어 있는 교육가, 실업가, 정치가라는 여러 개의 레테르에서 알 수 있듯 만주국 내 학교를 둘러싼 교육운동은 기부, 후원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욕망들이 뒤얽히는 가운데 일어났다. 다섯 민족의 협화를 내세운 복합민족 국가에서 조선 동포를 위한 교육열은 기부 경제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교육 운동의 공공성과 사사성을 심문하게 만들었다.

4 북향정신의 조건: 협화복을 입은 조선인 교사와 익명의 독지가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조선인의 교육행정권 이양 이후 만주국의 교육운동과 관련한 현실사회의 분위기를 문학에 투영하여 서사화한 작가로 안수길을 들 수 있다. 특히, 소설 『북향보』(1944)는 당시 교육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던 학교, 교사, 학생의 내면을 통해 신학제 이후 학교의 변화와 운명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교사였던 지역 유지의 뜻을 모아 목장을 경영하며 그 자금을 바탕으로 폐교 위기의 국민우승학교를 운영한 점, 목장과 학교의 존폐 위기 속에서 만주국 내 조선인 독지가들에게 기부금을 모집하는 과정 등이 그러하다. 소설에 투영된 작가의식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재만 조선인의 교육운동과 연결해서 볼 때, 의미와 한계를 지닌다.

그간 『북향보』는 ‘농민작가’ 안수길이 쓴 대표작으로 언급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³⁸⁾ 『북향보』는 만주에서 조선인의 경제적 자립, 교육문제,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이상적인 민족공동체 건설의 열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³⁹⁾ 그 과정에서 ‘북향정신’은 외적으로는 만주국 정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만주국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양가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⁴⁰⁾ 만주국의 건국정신인 민족협화와의 관계에서 안수길이 협화의 대상을 일본인이 아니라 만주의 원주민과 한족을 포함한 만계인으로 보았다는 분석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⁴¹⁾ 교육문제와 관련한 안수길의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확도가 성(省)의 지지가 없는 편벽한 산골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민족 교육을 진행한다’는 설정은 당시 만주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면서 안수길이 당시 성의 교육 개편에 대해 무언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⁴²⁾이라는 선행연구의 지적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실어 준다.

38) 이 점은 『북향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경향이다. 오양호, 「북향보연구」, 『어문학』46, 한국어문화회, 1985, 79-82쪽.

39) 박은숙, 「북향정신, 그 허와 실: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 연구」, 『한국어문학연구』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50쪽; 이해영, 「만주국의 국가 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안수길의 재만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60, 국어국문학회, 2012, 531쪽; 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7쪽.

40) 정현숙,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54, 한국언어문화회, 2005, 407쪽; 서재길, 「안수길 장편소설 『북향보』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389쪽.

41) 이해영, 「『偽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172, 국어국문학회, 2015, 409쪽.

42) 박은숙, 앞의 책, 253쪽.

이 소설의 배경은 용정으로부터 한 시간 거리 떨어진 마가둔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북향목장'이다. 북향목장과 앞으로 건설할 도장 운영에 대한 '학도'의 열망은 이 작품이 '만주국의 자작농창정정책과 축산진흥정책, 그리고 오족협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⁴³⁾는 지적을 받는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 북향목장을 시작할 무렵 학도가 '국민우승학교'를 인수하여 경영한 점을 함께 조명하면, 당시 일본 제국이 이끌었던 농촌정책과 민족협화 정책은 안수길의 문학작품 내에서 보다 복잡한 의미망을 형성하게 된다.

전에 마가국민학교가 경영난으로 문이 깨어지고 벽이 퇴락하고 주위에는 나무도 없이 마치 흉가나 다름없을 때에는 애들은 물론 어른들도 학교 옆에는 가기도 싫더니 이제 와서 교사가 깨끗해지고 그 주위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되고 보니 마음이 자연히 학교에 끌리는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도 아름답고 깨끗해지면 마음이 붙고 정이 붙어 살맛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학교는 공원이 되는 것뿐이 아니라 집회장도 되었다. 마가둔의 큰 일 작은 일로 학교는 공회당으로 쓰이기도 하였다.⁴⁴⁾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교는 학도가 '만주에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내세웠던 '북향정신'이 이루어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고향을 떠난 조선인들에게 2세 교육 문제는 만주에 정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학도의 이러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북향목장을 시작한 것은 '학도'와 '기철'을 포함한 "교원 출신인 주주들"⁴⁵⁾ 10명이었다. 만주에서 "목장 경영의 유리함을 익히 아는" 그들은 학도에게 "후의"를 보냈고, 학도와 주주들은 5만 원의 자금을 모으자 조합제로 목장을 경영하게 된다. 학교 인수 역시 그들의 찬성 속에서 결정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흥수로 목장 경영이 손해를 보게 되자 주주들은 학도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건국 전에 들어와 농민들이 호미와 방망이로 하는 일을 분필과 입으로 하겠노라"고 자처하던 교사들이었지만, "실업계로 나온 지 몇 해 되지 않아 이해타산에 밝은 장사치로"⁴⁶⁾ 변한 것이다. 교원 출신 주주들의 이 같은 태도는 일제의 축산정책에 따른 투자열과 거기에 달려든 지식인들의 욕망을 드러낸다.⁴⁷⁾ 한때 조선의 아동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은 만주국에서 일종의 공동체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목장이나 학교에 투자하며, 자신의 경제활동을 '후의'나 '성의'로 미화했다. 그러므로 목장과 학교라는 공공영역을 둘러싼 그들의 지지는 만주국 내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익 추구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학도가 목장 경영을 조합제로 실시하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일시적 감격으로 내어놓은 독지가의 정재만으로 영구적인 사업을 해나갈"⁴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안수길은 학도의 의식을 빌려, 조선 사람들의 사업이 열성에 비하여 끝을 맺지 못하는 원인은 확고한 경제 기초를 세우

43) 김재용,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134쪽.

44) 안수길, 『북향보』, 글누림, 2011, 158쪽.

45) 위의 책, 40쪽.

46) 위의 책, 60쪽.

47) 안수길이 소설에서 목장에 투자하는 '교원 출신' 주주들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향보』가 처음이 아니다. 그는 「목축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여 목장이나 농장에 투자하여 한몫을 보려는 교원 출신 인물들의 사익 추구 욕망을 드러낸다.

48) 위의 책, 37쪽.

지 않고 출발한 데 있다고 말한다. 작가의 이 같은 비판은 당시 만주국의 조선인이 처한 두 가지 현실을 되비춘다. 첫째는 열악한 환경에서 후의에 기대 사업을 경영해 나가야 했던 사회적 기반의 미비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삶의 조건 속에서 목장과 학교뿐 아니라 교사, 지역 유지나 독지가는 본인의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공적 위상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목장을 파산 위기로 몰아간 ‘병익’이란 인물이다.

실업계에서는 무슨 회사를 조직하겠으니 투자를 해주십사, 하였고 교육계에서는 과거의 인연도 있고 하니 장학회에도 기부를 해주소서 하였고 신문사에서는 소개판(紹介版)이요, 연하광고요, 심지어는 운동 선수들도 어디로 원정 가겠으니 경비를 보조해 줘시오 하고 대어들었다. 그럴 때마다 응, 응, 허허, 그래야지 하고 응기처변으로 대답을 하였으니⁴⁹⁾

금광왕으로 졸부가 된 ‘병익’이 만주에서 6, 7개의 명예직을 얻고 급기야 재만 조선인을 대표할 진정 위원으로 선출되기를 고대하는 장면은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조직과 선만교섭 위원 5명을 선정한 정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⁵⁰⁾ 특히, 당시 조선의 여러 교사들이 만주로 건너와 농장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농장이 확대되자 농장 주변의 조선인 마을에서 학교 운영을 기획했던 일화들은 일간신문의 지방 소식 및 인물 소개란에 커다랗게 실리곤 했다.⁵¹⁾ 그 점에서 이 소설은 만주에서 안수길이 보고 들은 재만 조선인의 교육운동과 관련한 사실들을 북향목장이라는 허구의 공간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수길은 교원 출신 주주들의 모습을 통해 마가둔을 북향촌으로 만들고 북향정신을 심으려는 학도와 친구의 계획을 저해하는 요소가 조선인을 폄훼하고 시혜의식을 갖는 ‘사도미’ 같은 일본인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제국 일본이 재만 조선인들의 자치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축산정책과 교육정책으로 공공영역을 확대했다면, 그것들은 역으로 재만 조선인들의 기회주의가 싹트는 온상이 되기도 했다. 안수길의 소설은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싼 공공성과 사사성의 긴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대 신문들의 교육 논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와 같은 특정 단체와 관련한 보고성 기사들이 은폐했던 만주국 내 조선인 실업가들의 사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안수길의 문제의식은 만주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협력과 저항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1940년, 만주국 내 동광중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해

49) 위의 책, 139쪽.

50) “신경서 재만 조선인 어떤 문제로 전만에서 모인 대표들이 고려분회에선가 어디선가의 회의를 하던 때의 일이었다. (중략) 이번 전만 조선인 대표자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였던 병익이는 (중략) 병익이는 만주에서도 일등 가는 유지요, 모략가요, 일꾼이요, 수완가라는 자만심이 그 회의석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회의는 거의 끝맺게 되어 만주를 대표하여 조선 당국에 진정할 대표 다섯 사람을 뽑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잔뜩 내가 제일이노라 코를 높이고 앉았던 병익이는 응당 대표의 한 사람이 그중에서도 선참으로 뽑힐 것이라 생각할 밖에 없었다.” 위의 책, 140쪽. (밑줄은 인용자)

51) 「各界人士의 面貌」, 『朝鮮日報』, 1938. 6. 16; 「各界(각계)의 重鎮(중진)들」, 『朝鮮日報』, 1938. 6. 26. 이 밖에도 『滿鮮日報』에서는 지역판을 만들어 만주 각 지역의 유지들의 소식을 정리하여 그들의 사업을 홍보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낸 김연수와 같은 실업가가 존재했듯 『북향보』에도 익명의 독지가가 북향목장과 국민우승학교를 존폐 위기에서 구할 4천 원을 보내온다. 여기에서 안수길은 다시 기부나 후원에 깃든 인간의 공명심과 그에 대한 사회적 기대심리를 들춰낸다.

- ① 익명의 독지گران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희사(喜捨)의 진의가 반드시 익명이 안 된다는 것은 괜한 주문이겠지만 1전을 내고도 신문면에 제 이름을 찾느라 들이대는 세상인심에 4천원 대금을 이름을 감추고 선뜻 내던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 선생 사업을 이룩하는데 으뜸가는 미담(美談) 가화(佳話)요, 선생의 유덕(有德)이 큼을 말하는 것일세.⁵²⁾
- ② 무대에 어제 저녁 같은 말을 하고 올라서서 부박한 사람들의 하루 저녁의 파적거리가 되어주고 축음기 회사의 선전물이 되어 준다는 것은 그 부모 정학도와 윤 씨를 위하여 문하생인 준영으로서는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한대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⁵³⁾

①에 담긴 내용에서처럼 독자는 소설을 읽으며 이 ‘익명의 독지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일종의 선망의식과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익명의 독지가가 바로 학도의 외동딸 ‘애라’임이 밝혀지면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그녀의 기부는 마가둔 사람들의 모금 운동에 감복한 자발적 선택이다. 그러나 애라의 선택을 선불리 민족주의나 공동체 의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우선, 애라의 기부를 어린 딸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녀의 기부는 매우 협소한 가족주의로 전락할 위험을 안게 된다. 또한, 학도에게 목장과 학교가 마가둔에서 북향정신을 실현하는 장소임을 감안하면, 마가둔을 비롯한 만주 전역에서 모여든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애라의 기부금은 북향정신의 본질을 흐린다. 더욱이 애라의 선택은 부모뿐 아니라 애라 자신도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 안수길은 애라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조선의 종달새”라는 대중적 찬사를 받는 “전속예술가”⁵⁴⁾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설정했다. 이것은 애라가 오랫동안 꿈꿔온 성악가의 꿈을 포기하고 학교에서조차 언급하기 꺼리는 상태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②에서처럼 애라의 기부는 최초의 동기는 의미 있는 것이라 해도 그 결과상 수긍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비난받는다. 전속예술가로 변모한 애라를 바라보는 신문기자 ‘준영’의 부정적 시선은 마가둔의 모금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자 학도의 제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지닌다. 애라는 『북향보』에 등장하는 ‘찬이’, ‘순임’이와 달리 만주의 학교를 거부하고 경성 유학을 택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 ‘촌에 틀어박혀 일생을 지내기는 죽어라 싫은’ 도시 지향형의 인물이다. 그녀의 태도는 찬이와 순임이가 자신의 몇 개월치 월급을 털어 목장의 회생을 위해 기부하고, 만주 내 조선인 학교의 교사로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애라의 희생을 타락으로 보고 그녀의 기부를 온전히 수긍하지 못하는 정신적 순수주의와 근면주의가 작동한다.

마가둔의 목장과 학교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안수길은 만주 외부, 즉 경성으로 떠난 애라의 타락/희생을 선택했다. 이 같은 작품의 내용에는 재만 조선인 교육제도에 대한 안수길의 비판의식이

52) 안수길, 앞의 책, 238쪽.

53) 위의 책, 273-274쪽.

54) 위의 책, 266쪽.

담겨 있다. “12월로써 학년도를 잡는 만주 교육제는 좋기는 하지만 역시 봄날 꽃이 필 때 교문을 나서 는 것이 더 정서적”⁵⁵⁾이라는 애라의 말에 “그것도 상급학교 갈 수 있는 사람 소원이구 무슨 희망이구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찬이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재만 조선인 학생들은 조선 내 학생들과 달리, 상급학교 진학 가능성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정확도가 경영하던 편벽한 산촌의 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실제 교육행정권 이양 이후 만주국 내 외곽 지역의 학교들은 보조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았다. 교육정책의 폐해를 가난한 시골 마을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도의 북향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은, 일본인 관리의 보조를 받아들이고 모금운동을 통해 독지가의 힘을 빌리는 방법뿐이다.

국민우승학교를 살리기 위한 마가둔 사람들의 노력은 학교라는 장소의 공공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공공성은 하나의 공동체 혹은 사회를 위해 절박한 문제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이며, 이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일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공성은 절박한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를 구분하고, 사회에 부딪친 위험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 공속성(共屬性)을 의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⁵⁶⁾ 안수길이 『북향보』에서 제시한 위험 극복의 서사는 만주국 내에서 그 공속성의 범위와 성질을 가시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우승학교가 회생하는 일련의 과정은 문제적이다. 우선, 안수길은 공립학교가 처한 현실 속에서 조선인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반목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병익의 사례는 학교를 둘러싼 기부 경제의 위험성을 환기한다. 또한, 거액의 기부에도 불구하고 마가둔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애라의 사례는 협소한 혈통주의의 일면을 드러낸다. 여기에 만주국 내 다른 민족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처럼 안수길은 1937년 이후 만주국 내 조선인 학교, 특히 도시로부터 떨어져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교의 교육적 현실을 통해 오족협화, 내선일체 교육의 허상을 드러냈다.

안수길이 소설로써 성취하고자 했던 북향정신은 1940년대 재만 조선인 교육문제를 쟁점화하고, 교육운동에 잠재된 공공성과 사사성을 심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그의 소설이 애라라는 여성을 타락한 존재로 타자화하며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지향한 교육 혈통주의와 순수 지향성은 일정 부분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제국 일본의 정치적 이상을 비판적으로 서사화하며, “억압과 차별의 의미에 대한 교조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입장을 의문시”⁵⁷⁾하기보다 재만 조선인의 현실을 더 비극적으로 그려내려고 했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리고 애라의 타락은 전시체제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성을 지향했던 제국 일본의 교육적 지향성과도 거리가 멀다. 이처럼 기자, 작가, 교사로서 조선인을 계몽하는 교육적 권한을 지녔던 안수길은, ‘교육’과 ‘후원’을 둘러싼 지배담론을 이질화시키며 지배담론 내에서 ‘부적합한’ 식민지적 주체로 거듭났다.

55) 위의 책, 85쪽.

56) Volker Gerhardt, 김종기 역,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백산서당, 2007, 281-315쪽.

57) Homi K. Bhabha, 앞의 책, 146쪽.

5 결론

지금까지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 이후 『만선일보』, 『매일신보』 등의 교육 관련 신문기사와 안수길의 소설 『북향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만주국이 표방했던 오족협화라는 정치적 이상과 재만 조선인의 교육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폈다. 만주국은 식민지적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 민족국가였으며 일본, 조선, 만주, 몽고, 러시아계 민족의 협화를 교육 모토로 삼았다. 그러나 1937년 신학제가 공포된 이후 만주국 내 학교는 일본 주도의 전쟁 인력 양성기관으로 변모했다.

만주국의 교육적 상황하에서 재만 조선인은 ‘교육은 우리 손으로’라는 정신으로 학부형과 지역 유지들의 기부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증축했다. 또한, 후원회를 비롯한 단체를 만들어 만주국 교육정책의 변화를 도모했다. 그들은 내선일체의 정신을 내세워 재만 일본인과 조선인뿐 아니라, 조선과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사이의 차별도 없앨 것을 주장하며 재만 조선인의 교육을 조선총독부에서 관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치외법권 지역 철폐 이후 교육비 이중 징수에 대해 항의하고 상급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재만 조선인의 교육운동은 오족협화 정신보다 민족적 위기의식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했다.

재만 조선인의 교육 문제는 일제가 조선에서 주장했던 민족 말살 정책인 내선일체와 다민족주의를 표방한 만주국의 오족협화의 모순 사이에서 난제로 남겨졌다. 우선, 독지가와 학부형의 기부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했던 재만 조선인의 현실은 일제가 표방했던 내선일체와 거리가 멀었다. 특히, 2세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한 재만 조선인의 교육열은 혈통주의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오족협화의 이상을 균열했다. 또한, 일제가 홍보했던 오족협화는 재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교육 차별, 일본어 수업 강요, 만주국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등 여러 면에서 이미 그 내부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조선이나 일본으로 떠나는 학생, 취업이나 자격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주를 찾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이주민의 정착을 지향하는 만주국의 이상과는 달리 입신출세주의의 일단을 드러냈다. 또한,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는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와 같은 단체의 교육운동 역시 피식민자의 민족주의와 제국의 국가주의 어느 쪽으로도 포섭되기 어려운 양상을 띠었다. 만주 내 실업가, 언론인, 교육가 등으로 구성된 재만조선인교육후원회의 활동을 통해 만주국 내 조선인 학교는 조선총독부의 학교 보조금 증액이나 교과서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역 유지의 기부와 진정 활동은 학교라는 공공영역을 둘러싼 헤게모니 확장으로써 공공성과 사사성의 긴장을 내포했다.

안수길의 소설 『북향보』에 나타난 학교와 목장의 준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조선인만의 기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들의 갈등과 애라의 퇴학, 일본인 관리의 시혜 의식 등은, 화합과 평등을 강조했던 만주국의 오족협화 이념과는 상치된다. 신학제 시행 이후 만주국의 교육운동은 기부와 후원의 경제 논리 속에서 민족 협화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진다. 정치권력의 권위는 항시 지속의 문제에 시달린다. 그것은 정치권력이 그들의 권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창출한 교육제도가 역으로 그들의 권위를 위협할 만큼의 모방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春秋』, 『東亞日報』, 『滿鮮日報』, 『每日申報』, 『三千里』, 『朝鮮日報』
 滿洲帝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國勢パンフレット 第二輯 新學制の大要』, 1937.
 안수길, 『북향보』, 글누림, 2011.

2. 국내외 논저

김백영, 「식민지 근대 연구의 새로운 발견적 도구로서 ‘식민지 공공성」, 『경제와 사회』 91, 비판사회학회, 2011, 365-373쪽.

김일환, 「1920~30년대 보성전문학교의 운영과 공공성 문제」, 『역사문제연구』 45, 역사문제연구소, 2021, 237-279쪽.

김재용,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리우신, 「1930년대 재만 조선인 초등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육행정권의 이양」,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박근혜, 「만주사변(滿洲事變) 후 일제의 재만조선인교육정책(在滿朝鮮人教育政策) 연구」, 『동방학지』 13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239-277쪽.

박은숙, 「북향정신, 그 허와 실: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41-265쪽.

서재길, 「안수길 장편소설 『북향보』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387-417쪽.

심규섭, 「‘만주국’의 치외법권철폐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 『대동문화연구』 4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3, 67-85쪽.

오양호, 「북향보연구」, 『어문학』 46, 한국어문학회, 1985, 79-82쪽.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공공성: 변용하는 공공성의 지평」, 『사이』 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0, 163-195쪽.

윤휘탁, 「滿洲國의 教育 理念과 朝鮮人 教育」, 『중국사연구』 104, 중국사학회, 2016, 177-209쪽.

이해영, 「만주국의 국가 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안수길의 재만 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0, 국어국문학회, 2012, 519-541쪽.

이해영, 「僞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회, 2015, 393-420쪽.

정미량, 「일제 강점기 재만 조선인의 교육과 그 체험: 장춘(신경)보통학교(1922-1945)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 2010, 127-156쪽.

정안기, 「1930년대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비판적 성찰: 교육정치사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 동북아역사재단, 2015, 255-296쪽.

정안기, 「1930년대 在滿朝鮮人の 教育政治史 연구」, 『만주연구』 17, 만주학회, 2014, 121-157쪽.

정현숙,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391-409쪽.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최현식, 「만주의 서정, 해방의 감각: 유치환의 “만주시편” 선택과 배치의 문화정치학」, 『민족문화사연구』 57,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267-300쪽.

山本有造, 『滿洲國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小泉京美, 「『滿州』における故郷喪失: 秋原勝二「夜の話」」, 『日本文学文化』 10, 東洋大学日本文学文化学会事務局, 2010, 79-90쪽.

田中隆一, 「일제의 ‘만주국’ 통치와 ‘재만한인’ 문제: ‘오족협화’와 ‘내선일체’의 상극」, 『만주연구』 1, 만주학회, 2004, 89-108쪽.

秋原勝二, 김재용·김창호·유수정 편역, 『만주국 속의 동아시아 문학』, 소명출판, 2019.

Bhabha, Homi K.,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3.

Bourdieu, Pierre, 이상호 역, 『재생산』, 동문선, 2000.

Gerhardt, Volker, 김종기 역,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백산서당, 2007.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xchange
in Manchuria and East Asia

Manchuria and East Asian Cultural Practices and Glocal Diversity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벌 다양성



Session 2

1 The Concept, Path and Prospect of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Jin Yu Qi (Minzu University of China, China)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의 개념과 방향, 전망
祁進玉 (중앙민족대, 중국)

2 Manchuria and Korean Ethnic History :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ae Ho Kim (Konan Univ., Japan)

만주 지역과 한민족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김태호 (코난대, 일본)

3 Discussion o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Manchu Hunting: As well as the Effect of Manchu Hunting on Sports

Juan Juan Zang (Shandong Women's Univ., China)

만주족 수렵활동의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臧涓涓 (산동여자대, 중국)

Jin Yu Qi (Minzu University of China,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nthropology, the countries within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NEACEC) share intricate historical connections, close human populations relationships, and a history of ethnic interaction, cultural contact, and effective communication. These historical factors naturally fostered frequent exchanges of culture, economy, and peopl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examining the broader impact of globalization on nation-states, particularly the influence of economic and cultural globalization on the identity of certain related groups. It also attempts to outline, from an interdisciplinary viewpoint, the possible approaches and developmental trends for constructing the NEACEC. Us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this paper defines the connotation and denotation of this community and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cultural commonalities and economic complementarities that underpin the construction of this community. Furthermore, it provides an initial exploration of the principles and potential pathways involved in building the NEACEC.

I Research Origin

The advent of globalization has led to the resurgence and revival of some previously declining or fading consciousness of local or geopolitical identities, to some extent, presenting certain old ideological concepts in new forms. Issues related to ethnic or national identity are not new but are now facing more complex situations and challenges than before. As William Wallace pointed out, we live in a challenging paradox — the management of increasingly multilayered, intricate, institutionalized, and spatially dispersed activities, while expressions, loyalties, and identities remain rooted in traditional racial, regional, and ethnic communities.¹⁾

* This paper is sponsored by the Jikdong Research Institute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1) Wallace, William. "The Sharing of Sovereignty: The European Paradox." originally published in *Political Studies*, vol. 47, no. 3, Aug. 1999, pp. 503-21. Now published in: Chen, Zhigang, translat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situat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Eurasian strategic axis, is characterized by the coexistence and conflict of major world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y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ituation have often had reverberations throughout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touching upon the sensitive interests of these major powers and, consequently, impacting the global landscape. Consequently, despite the maturation and relative success of regional integration mechanisms such as the OSCE and ARF in Europe and Southeast Asia,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struggled to completely emerge from the shadow of the Cold War era. Instead, it continues to exhibit a complex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s well as the simultaneous presence of moderation and confrontation. Therefore, the study of the current state of inter-state relations, analysis of developmental dynamics, forecasting of strategic trends, the reconstruction of regional order,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mechanisms beneficial to sustainable development are not only crucial for the countries within the region but also hold profound impact for the exploration of a new global order.

The Six-Party Talks mechanism, initially fragil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urther exacerbated due to geopolitical game among several major powers (the U.S., Russia, China, Japan) driven by their respective national interests. Additionally, excessive political and military intervention by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has, to some extent intensified, the region's instability. Given the current trajectory of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andoff and antagonis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e Cheonan incident are likely to trigger a new arms ra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Moreover, active U.S. participation in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has further heightened security risks and tensions in the region. Some researchers have delved into the security dilemmas in Northeast Asia and have put forward a fundamental concept for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They have analyzed the security landscape formed by major powers in the region, particularly the impact of the U.S. geostrategic policies on the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ing a new security perspective and reconstructing the national identit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important cultural foundations. Creating a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serves as institutional assurance for maintaining security in the region. It is also proposed to promote trilateral security dialogues and consultations among China-Russia-North Korea, China-Japan-South Korea, and China-U.S.-Japan within the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By David Held, Anthony McGrew, Social Science Academic Press (China), 2004, pp. 127.

framework of the Beijing Six-P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construct a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²⁾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trends of multilateral or bilateral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e roles of regional alliances and local organizations have also gained prominence. However, while cooperation in multilateral or bilateral forms is on the rise, some countries persist in or promote unilateralism in their domestic or foreign policies, often employing double standards. Taking the United States as an example, its foreign policy vigorously promotes pluralism as a universal principle while maintaining a conservative stance domestically, resisting pluralism. With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elites who adhere to the Puritan Anglo-Saxon cultural tradition, opposing and rejecting multiculturalism and its valu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identity for a country. While emphasizing national identity is not inherently problematic, a glaring fact is the inconsistency and contradiction between U.S.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which can easily invite scrutiny from other nations. Representing conservatism, American scholar Samuel Huntington staunchly opposed multiculturalism and criticized the cultural pluralism policy implement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advocating for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among American citizens. Simultaneously, he opposed and rejected the reality of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asserting that diverse ethnic cultural identities would diminish or weaken the strong national ident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he proposed clashes and conflict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denying communication and intermixing between different cultural forms.³⁾ However, in today's era of globalization, even a powerful nation like the United States cannot adhere to unilateralism effective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temming from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that swept across the United States in the latter half of 2008 and its global ramifications demonstrated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y. This crisis left the U.S. government, traditionally self-reliant, with no choice but to seek assistance from other countries. Hence, it is evident that in today's era of globalization, steadfastly holding onto unilateralism is not a viable approach. Regional and interregional collaboration and close coordination among countries are essential.

In today's era of globalization, the principle of "regional mutual assistance and global cooperation" has become widely recognized among politicians and academics. From this perspective, leveraging the rich cultural resources and historical traditions of Northeast

2)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3) Chen, Kexiong, translator.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By Samuel Huntington, Xinhua Publishing House, 2005.

Asia plays a crucial role in promoting contact and exchange among ethnic groups/nations within the region and enhancing the appeal of transnational cultural identity. Building the NEACEC holds signific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Otherwise, the question of how to effectively guide the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of the numerous transnational ethnic groups in the region and establish a transnational cultural identity that transcends nation-states becomes an important and urgent research topic. Only when these issues are addressed can we discuss the specific steps and implementation stages of building the NEACEC.

II Cultural Identity and the Game of Geopolitics: The Imagined Northeast Asian Community

Currently, global regional cooperation models can be broadly categorized as the following: The European Union Differentiated Integration Model involves participation from developed industrialized countries (prior to the EU's eastern enlargement). Member states in this model tend to have relatively small economic disparities, similar political systems, and shared cultural and social values. These commonalities facilitate the ease of sovereignty transfer among member countries, leading to rapid progress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North American Vertical Specialization Model, established in 1994, brings together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with significant disparities to jointly establish and form the new model of regional economic collaboration organization. The Asia-Pacific Functional Regional Cooperation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vertical specialization, by spontaneous, market-driven, function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actices. The APEC, established in 1989, is the result of such practice.⁴⁾

The concept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represents a novel model founded on multiple perspectives and dimensions, including geography, culture, economics, politics, and security. However, among the political, business, and academic elite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here exists a diversity of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and not all are optimistic about its prospects. Generally, two representative viewpoints stand out: the developmental approaches of the economic community and the cultural community. This article analyzes and critiques the deficiencies and impracticality of both of these community development approaches. The ultimate aim is to propose a fresh perspective

4) Li, Jing. "Some Thoughts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handong Peninsula and South Korea." *Shandong Economics*, no. 3, 2004.

— the NEACEC. This new concept is not only promising but also exhibits a strong level of feasibility in practical terms.

1. The concept and Practice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NEAEC), our initial focus should be on fostering the positive interactions within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researcher Lu Jianren from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NEAEC can be defined as "an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 wher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cooperate and merge with each other and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It differs from the current function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se two concepts coexist rather than being mutually exclusive. Establishing the conditions for an economic community involving all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a complex task that is challenging to mature, and as suc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must take the lead. Therefore, in the short term, the NEAEC can be considered synonymous with the China-Japan-South Korea Economic Community. Simultaneously, progress can be made on both the NEAEC and the East Asian Community.⁵⁾

Japan is not only one of the few developed countries in Asia but also a close neighbor and a crucial economic partner of both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construction of the NEAEC, Japan should play a significant role.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encompasses various aspect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culture, and more.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the Sino-South Korean cooperation relationship should transcend the existing framework of bilateral relations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mmunity for economic cooperation. Currently,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lag significantly behind other regions worldwide. Relationships such as those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China and Japan, are still unstable. On one hand,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hinde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y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the Sino-Korean relationship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not solely the responsibility and strategy of China and South Korea; it also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for Japan in terms of its economic position in the region.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s evident. To achieve mutual prosperity and

5) Lu, Jianren.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 no. 6, 2005, pp. 44-55.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t is essential not to overlook the significant role that Japan can play but, on the contrary, to fully harness Japan's enthusiasm and participation.

Case: Strengthening geo-advantages,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constructing NEAEC

Xinhua News, Harbin, September 7, 2004: The fifth meeting of the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ssociation opened on September 7th, with 112 representatives from 27 local governments of six countries, namely China, North Korea, Japan, South Korea, Mongolia, and Russia, gathering in Harbin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This meeting will address and decide on significant issues related to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of regional governments. It will conduct in-depth discussions 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ssues among member local governments, listen to reports on the work of various specialized committees over the past two years, discuss and vote on matte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s emblem, the structure and location of the permanent secretariat, the term of office, and amendments to the charter.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6, the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ssociation has successfully held four meetings, playing a positive role in enhancing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region and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among the people in the region. It is reported that in the first half of 2004, China's trade with Japan, South Korea, and Russia reached approximately 78.28 billion, 41.32 billion, and 9.45 billion US dollars, respectively, with year-on-year growth rates of 28.6%, 50.5%, and 39.1%.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and Mongolia also maintained growth momentum.⁶⁾

ii. In the construction of the NEAEC, the emphasis lies in considering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rest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economic community represents a more practical aspect of the larger community. Moreover, industrial cooperation within the economic community holds distinct advantages, primarily because it doesn't require government negotiations, and the primary actors in cooperation are specific industries and enterprises. Governments need only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and stimulate the enthusiasm of industries and businesses. Therefore, industrial cooperation should serve as the testing ground and vanguard for building the economic community.

⁶⁾ Gao, Zengshuang. "Representatives from over a hundred delegates from six countries gathered in Harbin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Xinhua News*, 7 Sep. 2004, <https://news.sohu.com/20040907/n221927361.shtml>.

Relevant statistics also underscore the prospects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joining a regional community, which are crucial indicators for sustaining the long-term development and stable operation of the community. For exampl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1992, South Korean investments in China have shown trend of rapid growth.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creased from 5 billion US dollars in 1992 to over one hundred billion in 2005, reaching 134.31 billion US dollars in 2006. China became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South Korea became China's second-largest source of imports. In 2004, China's total trade volume with Japan reached 168 billion US dollars, surpassing the total trade volum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making China Japan's largest trading partner. In 2006, the total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207.36 billion US dollars.⁷⁾ Some analysts suggest that China's geo-economic strategy should focus on the core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establish a Northeast Asian economic zone. This would be achieved through steps like a free trade area and a common market, involv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Mongolia, and North Korea. China's overall geo-strategic goal is to strengthen neighborly and friendly relations with countries in Northeast Asia, promote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cooperation,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foster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reby creating a favorable geopolitical environment for China's strategy of peaceful development.⁸⁾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with the prevalence of two major trends,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s well as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people began to view Northeast Asia as a distinct region. This perspective is based on several factors: Firstl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rel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have improved and eased, resulting in a significant reduction in political and security pressures. Economic, cultural, and population exchanges among these countries have gradually increased, objectively stimulating cultural and economic interactions among these nations. Secondly, the needs of practical policies related to politics, economics, security, and cultural exchange in the region have been dominant factors in promoting communication and trade among countries. Notabl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s required their collaborative efforts, contributing to the emergence of various regional cooperation concepts and models, such as the Tumen River Joint Development Program, the Bohai Sea-Yellow Sea

7) *Enquiry on the Mechanism of Northeast Asian's Safety Cooperation*, edited by Jian He,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 Economics Press, 2008, pp. 14, 24-26.

8)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Economic Zone, and the concept of NEAEC. Additionally, the sensitive political issues and strategic positioning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have acted as catalysts for enhanc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Sensitive international topics, like the Korean Peninsula issue, nuclear crises, and petroleum strategies, in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have undoubtedly increased the frequency of reg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ii. Based on the historical and practical geopolitical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d the impacts they have had, some researchers argue that a ret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Russia (formerly the Soviet Union) during the 20th century offers valuable insights. These insigh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e historical evidence of two stronger powers prevailing over a weaker one eloquently demonstrated the inevitability of “lagging behind leads to suffering”; self-reliance and -strengthening is the only way for the weak to prosper amidst stronger neighbors; main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nations cannot solely rely on “friendship”; compromise is essential in handl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istorical lesson of “mutual benefit in peace, mutual harm in war” should be strictly remembered, the principle of “being good neighbors and companions” should be strictly adhered.⁹⁾ Conversely, some analysts point out that, since its independence, Russi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has undergone two major phases: “favoring the South while distancing from the North” and “place emphasis on both North and South.” These policy shifts align closely with Russia's broader foreign diplomatic strategy. Initially, Russia pursued a “pro-West” foreign policy strategy, favoring Western engagement. However, since the mid-1990s, it has adjusted its strategy to adopt a “dual-headed eagle” approach, favoring both East and West. Russi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serves multiple objectives. It seeks to actively engage i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thereb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Russia's Far East and Siberia; simultaneousl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demonstrate its status as a major political power, reflecting Russia's aspiration to restore its former glory.¹⁰⁾

Some analysts have expressed pessimism regarding the prospects of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security cooperation. Factors such a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ack of political trust,

9) Chen, Jingyan. “On the Problem of Periodization of the History of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 Russia (Soviet Union) during the 20th Century.” *Collected Papers of History Studies*, no. 1, 2005.

10) Xu, Wenji. “Russian Korean Peninsula Policy Readjustment and Goal Structure.” *Russian Central Asian & East European Studies*, no. 3, 2005.

Japan's political transformation hurdles, and the complexities of U.S. cooperation and containment have had a certain impact on the current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¹¹⁾ Among these factor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has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the societal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Events like the 2010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v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East Sea and Yellow Sea in July and August of 2010 have substantially disrupted the regional stability. The ongoing escalation of the Cheonan incident and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essure exerted by the United States on relevant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driven by global strategic considerations, have raised concerns that the achievements of the Six-Party Talks, which were reached after six rounds of arduous negotiations from August 2003 to the present, may be in jeopard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perceived China as a potential threat, adversary, and competitor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sequently, the U.S. has made concerted efforts to contain China's rise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o encircle China strategically, the United States has employed a multifaceted approach, characterized by incremental steps, surrounding maneuvers, and efforts to divide and weaken China's neighboring allies. To the east of China, the United States has strengthened it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and South Korea, focusing on missile defense systems (such as TMD) as a core component, thereby constructing a robust "Asian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To the north of China, the United States has intensified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nfluence in Mongolia. In the northwestern border regions of China, the United States has strategically constructed a northwest defense line by controlling Afghanistan and Pakistan and engaging with Central Asia. Furthermore,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increasingly involved in disputes in the South Pacific region, drawing countries like Vietnam and the Philippines into conflicts with China.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has formed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India, aiming to leverage India's power to contain China.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also a focal point for future power gam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mpounded by Russia's considerable ambition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in Northeast Asia. Consequently, the futur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a cause for concern, and the concept of constructing a NEAEC takes on a somewhat imagined utopian hue.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primary challenge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to

11) *Enquiry on the Mechanism of Northeast Asian's Safety Cooperation*, edited by Jian He,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 Economics Press, 2008, pp. 14, 24-26.

"increase mutual trust and establish the consciousness of regional identity." When it comes to achieving increased mutual trust in Northeast Asia, the key issue is for all participating countries to fully recognize that building regional identit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s the most crucial focal point. This happens to be the most promising entry point for effectively addressing the historical and current conflicts and challenges in the region.

The concept of NEAEC is, in practice, not operationally feasible and theoretically flawed. On the one hand, this is due to the geopolitical game and influence in Northeast Asia based on its historical and current realities. On the other hand, the power game among major nations and their mutual balancing act make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the NEAEC very slim. Furthermore, a regionally based community purely driven by economic interests is not a sustainable solution in the long run. Therefore, some scholars propose attempting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NEACC), transcending national boundaries through shared regional cultural identity to form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the region. However, practical experience has shown that construct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solely based on regional cultural identity, without close economic trade links and shared economic interests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is neither realistic nor operationally feasible.

2. The concept and Practice of the NEACC

i. The imagination of a supranational cultural community is guided by culture and based on transnational cultural identity.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has started to explore the significance, path and prospect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from a cultural perspective. South Korean scholar Zheng Zhengshuk has proposed a vision of the Northeast Asian era through the lens of a cultural community. He delves into the concept of the NEACC, comparing aspects such as geographical boundar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cultural concepts and their applications, and theories of cultural communities. His analysis is both convincing and representative.¹²⁾ Some researchers argue that in the 21st century, Northeast Asian culture faces unique opportunities, issues, and challenges. They suggest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hould move beyond a nation-centric understanding and actively construct an Eastern-style regional conceptual framework that resonates with universal values. The commonality of culture in Northeast Asia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cultural integration in the region. The internal motivation of cultural integration is the

12) Zheng Zhengshuk, *South Korea's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Framework*, Oruem Press, 2006, pp. 125-154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and security cooperation. Its external motivation is the cultural reconstruction of global politics and new trends in cultural fusion.¹³⁾

South Korean scholar Kim Hong-myeong pointed out, "Northeast Asia has the opportunity to form an independent novel cultural sphere. Therefore, this is not a Hua-Yi cultural sphere that emerged to meet past needs, but a Northeast Asian cultural sphere built to meet today's needs. Moreover, it is not an independent cultural domain that corresponds to the world's dominant culture but rather a cultural sphere that earns its value as its foundation."¹⁴⁾ Some scholars also recognize that constructing a NEACC is very necessary but also very challenging. Although China, North and South Korea, and Japan historically belong to the Confucian cultural sphere, each country still possesses distinct cultural characteristics.¹⁵⁾ In addition, in the possible developmental prospects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the roles played b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the core of the community will also be a key topic of discussion.¹⁶⁾

ii. Historical and present challenges influence the NEACC. From a historical and present perspective, efforts to construct a cultur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may encounter the following conflicts and challenges: (1) historical grievances and legacy issues, (2) territorial disputes among countries, (3) security crises, (4) differences in ideology and opposition among various countries, (5) competition in resources and economic interests. These five issues, if not addressed effectively in advance, can make the exploration of construct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extremely challenging.

Professor Fang Haofan of Yanbian University believes that the NEACC is currently only a theoretical issue, but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t will become an important discourse that this region must face. The construction of a NEACC will face three main dilemmas: historical attitudes and realities, leadership within the community, and emerging nationalist consciousness. Whether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will impact the smooth construction of the NEACC. Without the adhesive of Northeast Asian regionalism and the substantiality of culture, it would be impossible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n community.¹⁷⁾

13) Xie, Guijuan. "Analysis of the Driving Force of Culture Mixing in Northeast Asia in 21st Century - Taking cultures in China, Japan and Korea as the angle of view." *Journal of Yanbian University (Social Sciences)*, no. 5, 2007, pp. 16-21.

14) Kim Hong-myeong. "The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al Circl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Contemporary Korea*, no. 4, 1997.

15) Li, Changshan.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y." *Dongjiang Journal*, no. 1, 2007, pp. 11-13.

16) Ruan Zongze, "China's Role in Northeast Asian Community," *Asian Perspective*, vol. 30, no. 3, 2006, pp. 149-157.

17) Fang, Haofan. "Reflections on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 The Possibility of a China-Korea-Japan Cultural Community." *Collected Papers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was a relaxa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ut North and South Korea still had not officially ended their hostile statu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deeply influenced and constrained by the geopolitics of Northeast Asia and the relations among major powers.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complicate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n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introduced the "Sunshine Policy" and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respectively, which actively promoted a more conciliatory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and maintain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used Korean ethnic emotions ties as a common bond to develop comprehensive North-South relations and attempted to divide the U.S.-South Korea alliance to secure the largest space of survival. The Korean War had ended over half a century ago. Signing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state of war is an important condition for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ffecting peace and stability. The Beijing Six-Party Talks reached a broad consensus on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mphasized peaceful negotiations as a mean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United States' shift away from a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efforts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s well as Japan and North Korea,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a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¹⁸⁾

Case: The advancement in triangular balanced develop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On January 14, 2007,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n Jiabao,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jointly attended the Seventh China-Japan-South Korea Trilateral Summit held in Cebu, Philippines and unanimously acknowledged that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countries in Asia and bear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for maintaining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Asia. Strengthening trilateral cooperation for the future not only aligns with the fundamental and long-term interests of the people of the three countries but also holds great significance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Asia.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s a critical component of East Asian

on Confucianism and East Asian Culture, Aug. 2006.

18)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cooperation. Trilateral cooperation enriches the content of East Asian cooperation, enhances its mechanisms, and plays a positive role in the resp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ASEAN ("10 + 1"), ASEAN and China, Japan, South Korea ("10 + 3"), East Asia Summit, and the construc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¹⁹⁾

Currently, East Asia has established effec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ASEAN, "10 + 1," "10 + 3," ASEAN Regional Forum, East Asia Summit, etc. These are all the results of the convergence of common interests and institutionalization (or the ongoing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s East Asia enters an era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seeking common ground, mutual suspicions and distrust among nations will decrease. Common interests will become the basis and starting point for addressing regional issues.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nds itself in an exceptionally uniqu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Aside from its distinctive geographical distribution, there are also notable peculiarities in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ecurity spaces. The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Russia, and Mongolia, share numerous commonalities and historical memories in both vertical historical connections and horizontal exchanges between nations. However, in today's Northeast Asian region, the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cannot be ignored. The United States consistently asserts its unquestionable presence in Northeast Asia. Seven influential powers in the region are engaged in competition and contention concerning the political space, resource allocation, economic interests, diplomatic channels, and national security, among other demands. This complexity adds to the intricacy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From another perspective, it also amplifies the challenges in construct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delays the timetable for its establishment, and introduces various possibilities and uncertainties.

III A Novel Approach in Constructing the NEACEC of the 21 Century

Based on the studies of scholars mentioned earlier, it is evident that the most advantageous region within the NEAEC, in terms of both the total volume of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investment structure, is China's Northeastern, Northern, and Inner Mongolian regions. This is due to the cultural and geographical advantages of this region. Countries such as North and South Korea, Japan, Mongolia, and Russia have varying degrees of geographical, cultural, or historical connections with the aforementioned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nthropology, these Northeast

19) "Joint News Statement of the Seventh China-Japan-South Korea Trilateral Summit." 6 Jul. 2007, https://www.mfa.gov.cn/web/ziliao_674904/1179_674909/200701/t20070114_9867628.shtml.

Asian countries have intricate historical connections with China, close relations among human populations, and a history of ethnic interaction, cultural exchang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Many ethnic minorities in China's Northeastern and Inner Mongolian regions historically had close connections and interac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peoples. Numerous ethnic groups such as the Evenki, Oroquen, Daur, Hezhen, Korean, and Mongolian in China's northeast are cross-border ethnicities. They have had frequent exchanges and interactions with people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share many common cultural aspects in terms of cultural identity. In general, common ethnic identity and cultural identity, to some extent, serves as a catalyst and driving forc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This social cohesion of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further promotes the development and comple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However, Arif Dirlik argues that global convergence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s Marx commented in his time, is an early sign of maturity in Marx's era, which will eventually reveal itself to be on the right track.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parallel process of rupture. Globally, this occurs in the absence of the center of capitalism, while locally, it happens when the fragment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transcends or falls below the level of ethnic regions and localities. As supra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s display such ruptures on a global scale, localities within the same ethnicity compete to occupy the path of capital, which is essentially localized, revealing this situation at the regional level.²⁰⁾

The author believes that, given the current complex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tens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resolving the political disputes in the region requires abandoning the previous single-mode idea of building an economic community. Instead, it is necessary, based on thorough deliberation, to develop a new approach for constructing a NEACEC. This is because economic connections alone are like threads maintaining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Under potential circumstanc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network of close interactions between nations and peoples, built on the foundation of mutual benefit in various aspects such as bi- or multi-lateral politics, economics, culture, religion, education, and technology. Considering the realistic situation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factors like ethnic and cultural history, inter-ethnic contacts and interactions, it is crucial to leverage the close historical and cultural ties among various cross-border ethnic groups in the region. These ties, combined with a sense of cultural identity, can serve as a platform for regional

20) Wang, Ning, translator. *Post-revolution Aural*. By Arif Dirlik, Chinese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2009, pp. 16.

multilateral relationships, interactions and exchanges, actively constructing a NEACEC. This is a possible path to smoothly address the region's complex political disputes.

1. The Relevant Definition of the NEACEC

i. Geographic defini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traditional Northeast Asian community includes six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ir territories: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Mongolia, and Russia. Many scholars also support this classification, as it ensures the establishment of a consciousness of geographical identity based on geographical proximity.

ii. Defin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community: from an economic community perspective, it largely encompasses the traditional geographical distribution, but with variations such as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like "China-South Korea, China-Japan, South Korea-Japan, Japan-Russia, Russia-South Korea, China-North Korea, China-Mongolia, Russia-Mongolia, Japan-Mongolia, South Korea-Mongolia," among others. These bi- or multilateral economic trade agreements help establish an economic interest community based on mutual benefits and identification with the community. Currently, the core of the NEAEC lies in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providing a potential found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AEC.

South Korean scholars believe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hare similarities in history, culture, and ethnic cultural backgrounds, making it easier to engage in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economic trade,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AEC.²¹⁾ Additionally, considering theoretical observations,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trends, some South Korean scholars have proposed the potential for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here, after South Korea and Japan established a bilateral FTA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 the possibility of regional integration would be minimal without China'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²²⁾

iii. Defin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ommunity: when considering cultural consistency or homogeneity,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should encompass the

21) Jung Dong Park, "Northeast Asia and the Trends of the 21st Century: An Essay o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vol. 4, 2002, pp. 71-85.

22) Choi Young Jong,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Theoretical Perspectives,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rospect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7, no. 5, 2007, pp. 113-129.

following regions: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Mongol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cultural or ethnic similarities within this region are substantial enough to sustain a sense of identity among the populations of these countries and ensure the formation of a cultural identity that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Among them, "China-Japan-South Korea" constitutes the core of the cultural community and serves as the primary body of cultural exchange and interaction.

iv. Defin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ity, security factors are of utmost importance in the envisaged Northeast Asian community, given the confront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various security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U.S.-North Korea, Japan-North Korea, Russia-Japan, South Korea-Japan, China-Japan. Therefore, from the viewpoint of a security community, which includes seven countries, namely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Mongoli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ultiple concentric and overlapping circles due to differing interests. Some involve mutual balancing, while others entail strategic competition. Examples of these include the South Korea-U.S.-Japan military alliance, as well as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Russia and Mongolia, and the United States and Mongolia. The United States plays an indispensable role beyond geographical categorization in Northeast Asia and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v. Defin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conomic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dual criteria involving culture and economics, culture serves as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ty, while economics acts as its motivation and power source. The establishment of a consciousness of transcendent regional identity and a sense of cultural identity is a necessary condition and basis for constructing the community. From this viewpoint, the composition of the community includes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Mongolia, and the Russian Far East region. The core of this community is formed b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long with multiple concentric circles and intersecting frameworks based on bilateral or trilateral economic trade agreements (FTAs). In this classification model, the traditional East Asian trio,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s both the core of the cultural community and the economic community. The author believes that, to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within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reducing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ultural economic community. Additionally, the author advocates for adding another balancing dimension, ASEAN, and fully leveraging the multi-dimensional exchanges, mutual trust, and interactions in economics, culture, and politics between

ASEAN and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2. The Principles Followed in Constructing the NEACEC

The first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cultural commonality. Th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hare a greater degree of cultural similarity,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religion, cultural ethics, and universal values. In terms of religion, apart from Eastern Orthodoxy in Russia, several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uch as China,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Mongolia, have been influenced to varying degrees by Buddhism/Tibetan Buddhism and Taoism. Shamanism was once widely practiced in the folk beliefs of the region, and remnants of folk shamanism still exist today. The spread of Confucianism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even permeating various aspects of society. Looking at the map composed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Mongolia all undeniably belong to the Eastern cultural sphere, deeply influenced by Han culture, forming the mainstream of regional culture. Russia, on the other hand, has a dual characteristic of the Eurasian bridge culture, which reinforces the diversity and differences in culture with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ile not being irreconcilable "clashes of civilizations." Collectivist Asian values serve as a solid foundation for the core value systems of the various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are the central idea for building the NEACEC and cohesive for constructing regional identity.

Based on this, some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at it is precisely the organic combination of "sameness," which refers to a common origin and foundation, at the macro mainstream integrative level, and "diversity", which refers to the developing ethnic cultural individuality, at the micro level of separate ethnic cultural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at has brought immense creativity to the region. Different ethnic groups in the region have learned and borrowed from each other, and integrated over the course of history, forming a common cultural core while preserving the individuality of their cultures. ²³⁾Overall, the cultural foundation of coexistence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stable, with Confucian tradition and ethical values deeply ingrained in the hearts of the people. In countries like China,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Mongolia in Northeast Asia, the traditional Chinese Confucian ideology and ethical values have a strong popular base. These nations share a common cultural heritage and value system rooted in concepts like "benevolence,

23) Enquiry on the Mechanism of Northeast Asian's Safety Cooperation, edited by Jian He,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 Economics Press, 2008, pp. 14, 24-26.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and trustworthiness," as well as the collective values of "self-cultivation, family harmony, governing the country, and bringing peace to the world" under the overarching idea of "family as nation," pursue ultimate values such as "harmony," "moderation," and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ity." These shared value systems and cultural judgments can provide the basis for constructing a community built on shared cultural and moral values, where participants from various backgrounds can engage i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Secondly, the construction of the NEACEC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complementarity and mutual benefit, which arises from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simple terms, building the community is advantageous for regional integration by harnessing the dispersed strengths within the region to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and competition posed by other regional groups resulting from globalization. However, this process, internally, is also characterized by resistance, conflicts,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Analysis of some scholars believes that revitalizing the old industrial base in Northeast Asia is a significant regional developmental strategy. To achieve this strategic goal, it is necessary to build on the existing foundation, leverage existing advantages, increase openness, and employ a variety of methods, including structural adjustments, technological upgrade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Vigorously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with Japan and South Korea, is of great signific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o revitalize the old industrial base in Northeast Asia creates new opportunities for fully utilizing the complementary and geographical advantag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while strengthening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Japanese and South Korean companies, establishing a new platform for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ion of Japanese and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old industrial base in Northeast Asia has several benefits. On the one hand, it contribute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of Northeast China. On the other hand, it aid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ly lagging regions, narrowing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regions within these two countries, enhancing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and expanding their access to the Chinese market.²⁴⁾

The third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symbiosis. Symbiosis refers to the mutual and beneficial coexistence of people from different ethnic groups and countries, where each

24) Li, Yutan, Zhiheng Chen. "Revitalizing the Hold Industrial Base of the Northeast of China and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China, Japan and Korea." *Jilin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Edition*, no. 1, 2005.

relies on the other for survival, and the absence of one would lead to the demise of the other. The concept of mutually beneficial symbiosis, as proposed by South Korean scholar Lee Seung-rok,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construction of NEACEC requires the creation of a three-dimensional cooperative space, a symbiotic world, where the cooperation of countr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manufacturing, fina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ulture can overlap and integrate. This allows countries to overcome and transcend differences in language, culture, religion, and systems,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²⁵⁾ Some researchers reflect on the history of relations among China, Japan, and Russia (formerly the Soviet Union) in the 20th century and draw lessons from it. In general: the historical evidence of two stronger powers prevailing over a weaker one eloquently demonstrated the inevitability of “lagging behind leads to suffering”; self-reliance and -strengthening is the only way for the weak to prosper amidst stronger neighbors; maintaining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nations cannot solely rely on “friendship”; compromise is essential in handl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istorical lesson of “mutual benefit in peace, mutual harm in war” should be strictly remembered, the principle of “being good neighbors and companions” should be strictly adhered.²⁶⁾ Additionally, some researchers have delved into the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and proposed the basic concept of establishing a mechanism of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They have analyzed the security landscape formed by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mpact of U.S. geopolitical strategies on the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To establish a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they believ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new security perspective and reconstructing the cultural foundations of identity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Building a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for the region is seen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maintaining security. They propose promoting security dialogues and consultations between "China-Russia-North Korea," "China-Japan-South Korea," and "China-U.S.-Japan," and constructing the mechanis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eijing Six-P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²⁷⁾

3. Analysis of the Path in Constructing the NEACEC

Based on the three aforementioned principles,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considering

25) Lee Seung-rok. *Symbiotic Era: A New Roadmap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World Knowledge Publishing House, 2005.

26) Chen, Jingyan. “On the Problem of Periodization of the History of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 Russia (Soviet Union) during the 20th Century.” *Collected Papers of History Studies*, no. 1, 2005.

27)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their respective situations and histories, have recognized the paramount importance of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mutual symbiosis in terms of regional ethnic relations, interactions between nations,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significant disparities between discussions of the theoretical level about cultural similarities or commonalities and real-world situations. The practical differences may go beyond the analysis of cultural sameness or convergence. In fact, the disconnect between theoretical cultural commonality and actual cultural practices often underscores a fundamental purpose, which is the role of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e discussion in Northeast Asia based on shared cultural roots is, in itself, an attempt to construct social identity. However, the intention of our research is to explore the potential and trends of a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emerging from this constructed cultural identity. This discussion aims to understand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geo-consciousnes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 The potential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the NEACEC. The developmental trend of world politics and history demonstrated the gradually strengthening regional interactions and attempt to construct regional community, with this trend becoming more pronounced. From the example of the European Union, we can see the power of culture. European countries, due to their cultural traditions being similar or closely related, have formed a large regional economic community alliance.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European Union, the thread of shared historical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has become a crucial lifeline in sustaining the union. The emergence of the ASEAN is based on similar considerations, while NATO is merely a temporary political and military alliance. Participants in NATO lack emotional identification with the community due to their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Such a military-political alliance can only be mutually beneficial, and its utility is limited.

The formation of the NEACEC necessitates the following conditions to facilitate the smooth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need and policy determination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collaborative mechanism and organization structure; consciousness of transnational cultural identity; consciousness of geographical identity; interaction and sharing of social capital; interaction and sharing of folk economics and culture. South Korean scholars believe that policy determination, collaborative mechanism, cultural understanding and identity, effective utilization of social capital and etc. are factors for the potential conditions of formation of a cultural community.²⁸⁾

28) Zheng Zhengshuk, *South Korea's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Framework*, Oruem Press, 2006, pp. 125-154

Despite differences in how Chinese and South Korean scholars perceive and articulate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they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cultural understanding and ident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on mechanisms.

ii. The choice of model for constructing the NEACEC and its prospects. Jin Xide, researcher at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has noted that East Asian cooperation constantly faces several key choices in its macro-level approach. One of these choices revolves around whether to gradually promote functional cooperation first or to prioritize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s. Regarding specific approaches, the East Asian cooperation faces four different approaches: economic cooperation first, followed by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and finally, cultural cooperation; prioritize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followed by cooperation in other areas; simultaneous development of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begin with a cultural community, followed by cooperation in other domains.²⁹⁾ Jin believes that, in reality, the construc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is at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integration, with political, security, and cultural integration appearing distant. Some scholars in countries like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hare similar viewpoints, believing that regional politics, security, and economics are the most critical influencing factors and that only by establishing a concrete economic community can the cultural community be effectively realized. South Korean scholars also tend to support the theory of cultural community, and while various perspectives and theories like those of cultural connectivity, supraethnic community, and future-oriented community exist, they fundamental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political trust,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ransnational cross-cultural identity.^①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unique history and current realities of Northeast Asia would encounter significant resistance to any notion of constructing a regional community in the area. Any changes in the region would also have repercussions on its balance and stability. However, doubts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a community should not be fueled solely by the complexity of the region's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situations. Instea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common cultural foundation and its appeal as the greatest common divisor in the history and present of the region. Conversely, in the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the first step should be to enhance cultural exchanges and interactions between nations, foster

29) Jin, Xide. "The Progress, Challenge and Prospect of the East Asian Cooperation."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no. 1, 2009, pp. 49-55.

people-to-people friendly exchanges and mutual understanding and rebuild the consciousness of geographical identity based on a shared culture among transethnic nations. This will help establish regional and cultural identity in Northeast Asia and further strengthen economic trade, political mutual trust and security mechanisms among countries. In other words,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should not be limited to selecting one of the four models mentioned by some scholars. Rather, it should involve a multi-pronged and concerted effort. First, establishing a cultural commonality foundation for regional identity in Northeast Asia should create a harmonious cultural atmosphere of "unity yet diverse" and respect for plurality and diversity, while fully leveraging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omogeneity to construct a consciousness of comprehensive identity based on geographical and cultural identity.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mechanisms and political confidence-building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an ongoing process. Simultaneously, enhancing economic trade 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is a necessary step in constructing a economic cooperative community, with the economic community serving as a link, cultural community as a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and security mechanism as a reliance. The focus should be on constructing a political community and regional security alliance.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NEACEC, it is crucial for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core powers in the region, to set aside historical grievances and create an atmosphere of harmonious cultural identity for exchanges, including strengthening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and enhancing political mutual trust among these countries.

Conclusion

The attempt to build a NEACEC, as a response to the pressures of globalization, represents an awakening of regional consciousness. The primary driving force or starting point for this endeavor is the cultural self-awareness of the various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t also aligns with the cooperative enthusiasm of participating parties. This effort is not a momentary decision but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possibilities and realistic interests of th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also the result of competition and game among the ethnic nations in the region. It aims to establish a system of structural balance within the region. However, if the diversity of ethnic cultures and interethnic and regional differences are not considered, it can sometimes pose a crisis or a threat of deconstruction to nations. Therefore, many scholars have attempted to incorporate the traditional subject of ethnology into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science. They explor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ethnicity as an objective phenomenon within the national political system and investigate political avenues to resolve interethnic conflicts and ideological differences, ultimately achieving lasting national cohes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Using "culture" as a relatively mild concept as the basis and starting point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is quite persuasive. Additionally, adopting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as th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aligns with the long-term developmental goals and interests of the various countries in the region. As for the future developmental trends of the NEACEC, they will depend entirely on the efforts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and the variables that may arise in the overall atmosphere of politics, economics, culture, education, and other factor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However, a relatively clear outlook is that the NEACEC will undoubtedly become another shining regional community, similar to the European Community, and will fully play its rol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NEACEC is indeed the best choice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is choice is based on a thorough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rrent context of the region, as well a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interests and the balance of regional politics, security, and order among the countries. It aligns with the rational needs of various groups within the region and the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community as a whole.

번역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의 개념과 방향, 전망

기진욱 교수(중앙민족대, 중국)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문화경제공동체(NEACEC)에 속한 국가들은 복잡한 역사적 연관성, 긴밀한 인구 관계, 민족 상호 작용, 문화적 접촉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 국가 간 문화, 경제, 인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주로 세계화가 민족 국가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특히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가 특정 관련 집단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학제간 관점에서 NEACEC 구축을 위한 가능한 접근 방식과 개발 추세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제간 관점을 사용하여 이 공동체의 의미와 표시를 정의하고 이 공동체의 구축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공통성과 경제적 보완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NEACEC 구축과 관련된 원칙과 잠재적 경로에 대한 초기 탐색을 제공하고자 한다.

I 연구의 시작

세계화의 도래는 이전에 쇠퇴하거나 사라져가는 지역적 또는 지정학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부활과 부활을 가져왔고, 어느 정도는 특정 오래된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새로운 형태로 제시하였다. 민족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복잡한 상황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William Wallace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점점 더 다층화되고, 복잡해지고, 제도화되고, 공간적으로 분산되는 활동을 관리하는 동시에 표현, 충성심, 정체성이 전통적인 인종, 지역, 민족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도전적인 역설 속에 살고 있다.¹⁾

동북아 지역은 유라시아 전략축의 동부에 위치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의 공존과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국제 관계의 역사에서 동북아 정세의 변화는 종종 아시아태평양

1) Wallace, William. "The Sharing of Sovereignty: The European Paradox." originally published in *Political Studies*, vol. 47, no. 3, Aug. 1999, pp. 503-21. Now published in: Chen, Zhigang, translator. *Globalization/Anti-Globalization*. By David Held, Anthony McGrew, Social Science Academic Press (China), 2004, pp. 127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쳐 이들 강대국의 민감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세계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는 OSCE, ARF 등 지역통합 메커니즘이 성숙하고 상대적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냉전시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오히려 협력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질제와 대립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 관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연구, 개발 역학 분석, 전략적 동향 예측, 지역 질서 재구성, 지속 가능한 개발에 유익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확립은 지역 내 국가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탐구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취약했던 6자회담 메커니즘이 여러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지정학적 게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다. 각자의 국익.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심화되었다. 현재 한반도 정세의 궤적을 볼 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남북한의 대치와 적대감은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의 안보 위협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북아의 안보 딜레마를 탐구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시해 왔다. 그들은 지역 내 강대국들이 형성한 안보 환경, 특히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정책이 다자 안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북아 안보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새로운 안보관점의 확립과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이 중요한 문화적 기반임을 시사한다. 지역 안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핵 문제를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동북아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국-러시아-북한, 중국-일본-한국, 중국-미-일 3자 안보대화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²⁾

세계화와 경제 통합의 영향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 관계와 상호작용의 추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연합과 지역단체의 역할도 부각됐다. 그러나 다자 또는 양자 형태의 협력이 증가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대내외 정책에서 일방주의를 고집하거나 조장하며 종종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외교정책은 다원주의를 보편적 원칙으로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보수적 기조를 견지하며 다원주의에 저항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청교도 앵글로색슨 문화 전통을 고수하고 다문화주의와 그 가치에 반대하고 거부하며 국가의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다.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간의 불일치와 모순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조사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학자 Samuel Huntington은 다문화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문화 다원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을 옹호했다. 동시

2)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에 그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의 현실을 반대하고 거부하며,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한 국가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는 동서양 문화의 충돌과 갈등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문화 형태 간의 소통과 혼합을 거부했다.³⁾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일방주의를 효과적으로 고수할 수 없다. 2008년 후반 미국을 휩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파급효과는 세계경제의 상호연관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위기로 인해 전통적으로 자립적이었던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지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일방주의를 견지하는 것은 가능한 접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역적, 지역간 협력과 국가 간 긴밀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 '지역 상호 지원과 글로벌 협력'의 원칙은 정치가와 학계에서 널리 인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의 풍부한 문화 자원과 역사적 전통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 내 민족 집단/국가 간의 접촉과 교류를 촉진하고 초국적 문화 정체성의 매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EACEC를 구축하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내 수많은 초국적 민족 집단의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NEACEC 구축의 구체적인 단계와 구현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

II 문화적 정체성과 지정학의 게임: 상상의 동북아 공동체

현재 글로벌 지역 협력 모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차별화된 통합 모델은 선진국(EU의 동부 확장 이전)의 참여를 포함한다. 이 모델의 회원국은 경제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 체제가 유사하며,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회원국 간의 주권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 경제 협력의 급속한 진전을 가져온다. 1994년에 설립된 북미 수직적 전문화 모델은 격차가 심각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하나로 묶어 지역 경제 협력 조직의 새로운 모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형성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기능적 지역 협력 모델은 수직적 전문화를 기반으로 자발적이고 시장 중심적이며 기능적인 지역 경제 협력 관행을 통해 구축되었다. 1989년에 설립된 APEC은 이러한 실천의 결과이다.⁴⁾

동북아공동체 개념은 지리, 문화,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관점과 차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델이다. 그러나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의 정치, 재계, 학계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모두가 그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공동

3) Chen, Kexiong, translator.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By Samuel Huntington, Xinhua Publishing House, 2005.

4) Li, Jing. "Some Thoughts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handong Peninsula and South Korea." *Shandong Economics*, no. 3, 2004

체와 문화공동체의 발전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개발 접근 방식의 결함과 비실용성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관점, 즉 NEACEC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개념은 유망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1.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개념과 실천

i. 동북아경제공동체(NEAEC)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초기 초점은 중국, 일본, 한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육성하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루젠런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NEAEC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며 경제통합을 이룩하는 제도화된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동북아의 기능적 지역경제협력과는 다르다. 이 두 개념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공존합니다. 동북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성숙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이며, 따라서 중국, 일본,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NEAEC는 한·중·일 경제공동체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NEAEC와 동아시아 공동체 모두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⁵⁾

일본은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 모두의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NEAEC 건설에는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또한, 한중 협력 관계의 발전은 기존의 양국 관계 틀을 넘어 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체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다자간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등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이 지역 경제 협력의 발전을 방해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경제협력에 있어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북아공동체 건설은 중국과 한국만의 책임과 전략이 아니다. 이는 또한 이 지역의 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일본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중국, 일본, 한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명백하다.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지 말고, 오히려 일본의 열정과 참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지리적 이점 강화, 지역 협력 촉진, NEAEC 구축

2004년 9월 7일 신화통신 - 하얼빈 제5차 동북아지방정부협의회 회의가 9월 7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27개 지방정부 대표 112명이 하얼빈에 모여 동북아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동북아지역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주요현안과 지방정부협의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회원 지방정부간 협력과 발전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5) Lu, Jianren.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 no. 6, 2005, pp. 44-55

2년간의 각종 전문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협의회 상징물 설치, 상설사무국의 구조와 위치, 임기, 헌장 개정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1996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상반기 중국의 일본, 한국, 러시아와의 교역액은 약 782억 8천만 달러, 413억 2천만 달러, 9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6%, 50.5%, 39.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 몽골과의 교역액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ii. NEAEC 건설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 공동체는 더 큰 공동체의 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더욱이, 경제 공동체 내 산업 협력은 정부 협상이 필요하지 않고, 협력의 주요 주체가 특정 산업과 기업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과 기업의 열정을 자극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산업협력은 경제공동체 건설의 시험대이자 선봉이 되어야 한다.

관련 통계는 또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경제 협력의 전망과 지역 공동체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액은 1992년 50억 달러에서 2005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1,343억 1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 되었다. 2004년 중국의 대일 무역 총액은 168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 간 무역 총액을 넘어섰고,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 2006년 양국 간 교역총액은 2073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⁷⁾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중국, 일본, 한국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러시아, 몽골,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등의 조치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 중국의 전반적인 지정학적 목표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우호 및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에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평화로운 발전을 조성하는 것이다.⁸⁾

20세기 말,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가지 주요 추세와 동북아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동북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첫째,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완화되어 정치 및 안보에 대한 압박이 크게 감소

6) Gao, Zengshuang. "Representatives from over a hundred delegates from six countries gathered in Harbin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Xinhua News*, 7 Sep. 2004. <https://news.sohu.com/20040907/n221927361.shtml>.

7) *Enquiry on the Mechanism of Northeast Asian's Safety Cooperation*, edited by Jian He,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 Economics Press, 2008, pp. 14, 24-26.

8)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했다. 이들 국가 간의 경제, 문화 및 인구 교류는 점차 증가하여 이들 국가 간의 문화 및 경제 상호 작용을 객관적으로 자극했다. 둘째, 지역 내 정치, 경제, 안보, 문화교류 등과 관련된 실무적 정책의 필요성이 국가 간 소통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 지배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발전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두만강 공동 개발 프로그램, 발해-황해 경제 구역, NEAEC의 개념. 또한, 동북아 지역의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전략적 포지셔닝은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해 왔다. 한반도 문제, 핵위기, 석유전략 등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에서 민감한 국제적 이슈로 인해 지역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iii. 일부 연구자들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실제적 지정학적 역학과 그것이 끼친 영향을 바탕으로 20세기 중국, 일본, 러시아(구소련)의 역사적 관계를 회고적으로 살펴보면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두 개의 더 강한 세력이 더 약한 세력을 압도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뒤처지면 고통이 따른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보여주었다. 자립과 강화는 약한 사람들이 강한 이웃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가 간 장기적인 관계 유지의 '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국제 관계를 다루려면 타협이 필수적이다. "평화에는 상생, 전쟁에는 상해"라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명심하고 "좋은 이웃, 동지"의 원칙을 엄격히 견지해야 한다.⁹⁾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 독립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호혜적인' 국면과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중시하는' 두 국면을 거쳤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러시아의 광범위한 대외 외교 전략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처음에 러시아는 서방의 참여를 선호하는 "친서방" 외교 정책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서양을 모두 선호하는 '양두 독수리'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러시아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동시에,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반영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¹⁰⁾

일부 분석가들은 동북아 지역, 특히 안보 협력 분야의 협력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북핵 문제로 인한 도전, 정치적 신뢰 부족, 일본의 정치적 변혁의 장애물, 미국의 협력과 견제의 복잡성 등의 요인들은 현재의 동북아 공동체 구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¹¹⁾ 그 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사회적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남북한 갈등과 2010년 7월과 8월 동해와 서해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은 지역 안정을 실질적으로 붕괴시켰다. 천안함 사건의 지속적인 고조와 미국이 글로벌 전략적 고려에 따라 동북아 지역 관련

9) Chen, Jingyan. "On the Problem of Periodization of the History of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 Russia (Soviet Union) during the 20th Century." *Collected Papers of History Studies*, no. 1, 2005.

10) Xu, Wenji. "Russian Korean Peninsula Polict Readjustment and Goal Structure." *Russian Central Asian & East European Studies*, no. 3, 2005

11) *Enquiry on the Mechanism of Northeast Asian's Safety Cooperation*, edited by Jian He, Dongbei University of Finance & Economics Press, 2008, pp. 14, 24-26.

국가에 가하는 정치적, 군사적 압박은 이후 달성된 6차회담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03년 8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친 험난한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은 중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협이자 적수, 경쟁자로 인식했다. 이에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기 위해 미국은 점진적인 조치, 주변 작전, 중국의 이웃 동맹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노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 왔다. 중국 동부에서는 미국이 TMD 등 미사일방어체계를 핵심 구성요소로 삼는 등 일본,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 미·일 간 강력한 '아시아 전략동맹'을 구축했다. 그리고 한국, 중국 북부에서는 미국이 몽골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미국은 중국 서북부 국경지역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제하고 중앙아시아와 교전해 북서방어선을 전략적으로 구축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남태평양 지역 분쟁에 점점 더 개입해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의 힘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동북아 지역은 또한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상당한 야망과 전략적 고려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의 미래 패권 게임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미래 안보 상황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NEAEC 건설 개념은 다소 상상적인 유토피아적 색채를 띠고 있다.

연구자는 동북아 지역의 일차적 과제는 “상호 신뢰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의 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동북아 지역의 상호 신뢰 증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모든 참여 국가가 세계화 맥락에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역사적, 현재적 갈등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망한 진입점이 될 것이다.

NEAEC의 개념은 실제로 운영상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다. 한편 이는 동북아의 역사적, 현재적 현실에 따른 지정학적 게임과 영향력 때문이다. 반면, 주요국 간의 권력 게임과 상호 균형 행위로 인해 NEAEC 구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더욱이, 순전히 경제적 이익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지역의 조직적 틀을 형성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NEACC) 구축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경험에 따르면 참가국 간의 긴밀한 경제 무역 연계와 공유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오직 지역 문화적 정체성만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운영상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2. NEACC의 개념과 실천

i. 초국가적 문화공동체의 상상력은 문화에 의해 인도되고 초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다. 최근 국제학계에서는 문화적 관점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의의와 방향, 전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학자 정정숙은 문화공동체의 관점에서 동북아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경계, 문화 개념과 적용, 문화 공동체 이론 등을 비교하면서 NEACC의 개념을 탐구한다. 그의 분석은 설득력 있고 대표적이다.¹²⁾ 일부 연구자들은 21세기 동북아시아 문화가 독특한 기회와 이슈,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민족중심적 이해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는 동양적 지역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동북아 문화의 공통성은 지역 문화통합의 기반이 된다. 문화통합의 내적 동기는 동북아 지역통합과 안보협력이다. 그 외적 동기는 세계정치의 문화적 재구성과 문화융합의 새로운 경향이다.¹³⁾

한국학자 김홍명 씨는 “동북아는 독자적인 소설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는 과거의 수요에 맞춰 등장한 화의문화권이 아니라 이를 위해 구축된 동북아 문화권”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문화영역이 아니라 그 기반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영역이다. 일부 학자들은 NEACC 구축이 매우 필요하면서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 남북한, 일본은 역사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각 나라는 여전히 뚜렷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¹⁴⁾ 또한, 동북아 공동체의 가능한 발전 전망에 있어서, 공동체의 핵심으로서 중국, 일본, 한국이 수행하는 역할 또한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ii. 역사적, 현재적 과제는 NEACC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 현재적 관점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은 (1) 역사적 원한과 유산 문제, (2) 국가 간 영토 분쟁, (3) 안보 위기, (4) 갈등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 간의 이념과 반대의 차이, (5) 자원과 경제적 이익의 경쟁.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

연변대학교의 Fang Haofan 교수는 NEACC가 현재 이론적인 문제일 뿐이지만, 세계화가 발전함에 따라 이 지역이 직면해야 할 중요한 담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NEACC 건설은 역사적 태도와 현실, 공동체 내 리더십, 신흥 민족주의 의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NEACC의 원활한 구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주의의 정착과 문화의 실체가 없이는 동북아공동체 구축은 불가능하다.¹⁵⁾

냉전이 끝난 뒤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완화됐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지 않은 상태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정학 및 강대국 관계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고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복잡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12) Zheng Zhengshuk, *South Korea's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Framework*, Oruem Press, 2006, pp. 125-154

13) Kim Hong-myeong. "The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al Circl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Contemporary Korea*, no. 4, 1997

14) Li, Changshan. "Construction of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y." *Dongjiang Journal*, no. 1, 2007, pp. 11-13.

15) Fang, Haofan. "Reflections on the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 The Possibility of a China-Korea-Japan Cultural Community." *Collected Papers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on Confucianism and East Asian Culture*, Aug. 2006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햇빛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보다 유화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유지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반면 북한은 민족적 정서의 유대를 공동의 유대로 활용해 포괄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최대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 했다. 한국전쟁은 반세기 전에 끝났다.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북핵위기는 평화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핵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평화적 협상을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벗어나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¹⁶⁾

2007년 1월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한 정상회의에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공동 참석하여, 중·일·한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였다. 미래를 위한 3국간 협력의 강화는 3국 국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일·한의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그 체계를 강화하며, 3국간 협력과 ASEAN(10+1), ASEAN과 중국·일본·한국(10+3),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¹⁷⁾

현재 동아시아는 ASEAN, '10+1', '10+3', ASEAN 지역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등과 같은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공통의 이익과 제도화(또는 제도화의 진행과정)의 결과이다. 동아시아가 제도발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들 간의 상호간의 의심과 불신은 줄어들 것이며, 공통의 이익은 지역문제 해결의 기반과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매우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 독특한 지리적 분포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국가 간 수직적 역사적 연결과 수평적 교류 모두에서 많은 공통점과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내 7개 강대국이 정치적 공간, 자원배분, 경제적 이익, 외교채널, 국가안보 등을 둘러싸고 경쟁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 공동체 구축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공동체 구축 일정을 지연시키며, 다양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16)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17) "Joint News Statement of the Seventh China-Japan-South Korea Trilateral Summit." 6 Jul. 2007, https://www.mfa.gov.cn/web/ziliao_674904/1179_674909/200701/t20070114_9867628.shtml.

III 21세기 NEACEC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

앞서 언급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NEAEC 내 경제교역 및 투자 총액과 투자구조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은 중국의 동북부, 북부, 내몽골 지역임이 분명하다. 이는 이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남북한,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앞서 언급한 지역과 다양한 정도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 인구 간의 긴밀한 관계, 민족 상호 작용, 문화 교류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북동부와 내몽고 지역의 많은 소수민족은 역사적으로 이웃 국가 및 민족과 긴밀한 관계와 상호 작용을 해왔다. 중국 동북부의 어벤키족, 오로켄족, 다우르족, 허진족, 조선족, 몽골족 등 수많은 민족이 국경을 넘나드는 민족이다. 그들은 주변국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고 교류해 왔으며 문화적 정체성 측면에서 많은 공통된 문화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어느 정도 지역 문화 및 경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이자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의 사회적 결속은 동북아 지역 문화·경제 공동체의 발전과 완성을 더욱 촉진한다. 그러나 Arif Dirlik은 마르크스가 당시 언급한 것처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글로벌 수렴은 마르크스 시대의 성숙의 초기 신호이며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파열의 병행과정도 있다. 세계적으로는 자본주의 중심이 없을 때 발생하는 반면, 지역적으로는 생산과정의 단편화가 민족 지역과 지역 수준을 초월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초국가적 지역조직들이 이러한 단절을 지구적 규모로 드러내면서, 같은 민족 내의 지역들은 본질적으로 지역화 된 자본의 길을 점유하기 위해 경쟁하며 이러한 상황을 지역적 차원에서 드러낸다.¹⁸⁾

저자는 현재의 복잡한 국제환경과 긴박한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기존의 단일모드적 경제공동체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철저한 속고를 바탕으로 NEACEC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연결 자체가 국가 간 관계를 유지하는 실과 같기 때문이다. 여건 하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 간 긴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국가의 현실적인 상황과 민족 및 문화 역사, 민족 간 접촉 및 상호 작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다양한 국경 민족 집단 간의 긴밀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정체성과 결합된 이러한 유대는 지역적 다자간 관계, 상호작용 및 교류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여 NEACEC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18) Wang, Ning, translator. *Post-revolution Aural*. By Arif Dirlik, Chinese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2009, pp. 16.

1. NEACEC의 관련 정의

i. 동북아공동체의 지리적 정의: 지리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동북아공동체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 이웃 국가와 그 영토를 포함한다. 많은 학자들도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지리적 정체성의 의식 확립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분류를 지지한다.

ii. 경제공동체 관점에서의 정의: 경제공동체 관점에서는 크게 전통적인 지리적 분포를 포괄하지만, "중-한, 중-일, 한-일, 일본-"과 같은 양자간 경제무역협정 등 변형이 있다. 러시아, 러시아-한국, 중국-북한, 중국-몽골, 러시아-몽골, 일본-몽골, 한국-몽골 등이 있다. 이러한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 무역 협정은 상호 이익과 공동체와의 동일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NEAEC의 핵심은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으며, NEAEC 실현을 위한 잠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역사, 문화, 그리고 민족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유사성을 공유하고,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과 경제무역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NEAEC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⁹⁾ 또한,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이론적 고찰과 현재 현실, 미래 동향을 고려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일 FTA 기본협력협정 체결 이후 지역통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최소한이다. 또한 이론적 분석과 현재의 현실, 향후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동북아 지역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FTA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중국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지역통합의 가능성이 미미할 것이다.²⁰⁾

iii. 문화 공동체 관점의 정의: 문화적 일관성이나 동질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 공동체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 이 지역의 문화적 또는 민족적 유사성은 이들 국가의 인구 사이에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 그 중 '중일한'은 문화공동체의 핵심을 구성하며 문화교류와 상호작용의 주체이다.

iv. 안보공동체의 관점에서 정의: 실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의 대립과 미북, 일북, 러일, 남-일, 남-일, 중-일의 다양한 안보 및 영토분쟁을 고려할 때 동북아공동체는 안보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중국, 일본, 남-일, 북한, 몽골, 러시아, 미국 등 7개국으로 구성된 안보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다중적이고 다중적인 동심원과 중첩된 영역이 존재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

19) Jung Dong Park, "Northeast Asia and the Trends of the 21st Century: An Essay o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Asia-Pacific Affairs*, vol. 4, 2002, pp. 71-85.

20) Choi Young Jong,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Theoretical Perspectives,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rospect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7, no. 5, 2007, pp. 113-129.

는 것도 있고 전략적 경쟁을 수반하는 것도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비롯하여 중-북, 러시아-몽골, 미국-몽골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되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지리적 구분을 넘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v. 문화경제공동체 관점에서의 정의: 문화와 경제라는 이중적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공동체의 기반이고 경제는 공동체의 동기이자 동력원이다. 초월적인 지역정체성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기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의 구성에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이 포함된다. 이 공동체의 핵심은 양자 또는 삼자 경제 무역 협정(FTA)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동심원 및 교차 프레임워크와 함께 중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된다. 이 분류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삼국인 중국, 일본, 한국이 문화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의 핵심이다. 저자는 공동체 내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문화경제 공동체에서 미국의 역할을 적절하게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저자는 또 다른 균형 차원인 ASEAN을 추가하고 ASEAN과 동북아 공동체 간의 경제, 문화, 정치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교류, 상호 신뢰, 상호 작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2. NEACEC 구축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문화적 공통성의 원칙이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특히 종교, 문화윤리, 보편적 가치 등의 분야에서 문화적 유사성이 높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동방 정교회를 제외하고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몽골 등 이 지역의 여러 다른 국가들이 불교/티베트 불교 및 도교의 영향을 다양한 정도로 받았다. 샤머니즘은 한때 이 지역의 민간 신앙에서 널리 행해졌으며, 오늘날에도 민간 샤머니즘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교의 확산은 한국, 일본, 중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까지 스며들었다. 동북아 국가들로 구성된 지도를 보면 중국, 일본, 북한, 남한, 몽골은 모두 동양문화권에 속하며 한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아 지역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양립할 수 없는 '문명의 충돌'이 아닌 동북아 지역 내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강화하는 유라시아 가교 문화의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집단주의적 아시아 가치는 다양한 동북아 국가의 핵심가치체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며, NEACEC 구축의 중심이념이자 지역정체성 구축의 응집력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바로 거시주류 통합적 차원에서 공통의 기원과 기반을 의미하는 '동일성'과 민족문화의 개성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양성'의 유기적 결합이라고 지적해왔다. 동북아 지역의 미시적인 민족별 문화 발전은 이 지역에 엄청난 창의성을 가져왔다. 이 지역의 여러 민족은 서로 배우고 차용하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통합되어 공통의 문화 핵심을 형성하고 문화의 개성을 보존했다.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유교적 전통과 윤리적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문화적 기반이 안정적이다.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의 전통 유교 이념과 윤리적 가치가 강력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

는 '인(仁), 의(禮), 예(禮), 지혜(智), 신(信)'이라는 이념과 '자수(爲修), 화목(私寧), 나라 다스리기(治國), 화평(平贊)'이라는 집단적 가치에 뿌리를 둔 공통의 문화유산과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세계'는 '가족으로서의 국가'라는 총체적인 이념 아래 '화합', '중용', '천인합일' 등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에 참여할 수 있는 공유된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구축된 커뮤니티이다.

둘째, NEACEC의 건설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발전에 따른 상호보완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 내에 분산된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화로 인해 다른 지역 그룹이 제기하는 과제와 경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내부적으로도 저항과 갈등, 협상, 타협을 특징으로 한다. 일부 학자들은 동북아의 오래된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장점을 활용하고, 개방성을 높이고, 구조 조정, 기술 업그레이드, 제도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주변국, 특히 일본, 한국과의 지역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동북아의 오래된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실행은 일본과 한국의 상호 보완적이고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 기업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경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오래된 산업 기반을 변화시키는 데 일본과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며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²¹⁾

세 번째 원칙은 공생의 원칙이다. 공생이란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여 생존하며,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이 멸망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공존을 의미한다. 이승록 교수가 제시한 상생공생 개념은 NEACEC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협력하는 3차원 협력공간, 공생세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조, 금융, 정보기술, 문화 등의 분야가 중복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은 언어, 문화, 종교, 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초월하여 미래 동북아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²²⁾

일부 연구자들은 20세기 중국, 일본, 러시아(구소련) 관계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더 강한 세력이 더 약한 세력을 압도한다는 역사적 증거는 “뒤처지면 고통이 따른다”는 불가피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자립과 강화는 약한 사람들이 강한 이웃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가 간 장기적인 관계 유지는 '우정'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국제 관계를

21) Li, Yutan, Zhiheng Chen. “Revitalizing the Hold Industrial Base of the Northeast of China and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China, Japan and Korea.” *Jilin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Edition*, no. 1, 2005.

22) Lee Seung-rok. *Symbiotic Era: A New Roadmap for Northeast Asian Regional Development*, World Knowledge Publishing House, 2005.

다루려면 타협이 필수적이다. “평화에는 상생, 전쟁에는 상해”라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명심하고 “좋은 이웃, 동지”의 원칙을 엄격히 견지해야 한다.²³⁾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안보 과제를 탐구하고 동북아 안보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목하면서 동북아 강대국들이 형성한 안보 환경을 분석했다. 동북아 안보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새로운 안보관점 정립과 정체성의 문화적 기반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은 안보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 '중-러-북', '중-일-한', '중-미-일' 간의 안보대화 와 협의를 촉진하고, 북핵문제에 관한 베이징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²⁴⁾

3. NEACEC 구축방향 분석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상황과 역사를 고려하여 지역 민족 관계, 국가 간 상호 작용, 정치 및 경제 발전 측면에서 상호 공생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문화적 유사성이나 공통점에 대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와 실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질적인 차이는 문화적 동일성이나 융합에 대한 분석을 넘어설 수도 있다. 실제로 이론적 문화적 공통성과 실제 문화적 실천 사이의 단절은 사회 구성 이론의 역할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공유된 문화적 뿌리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논의는 그 자체로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우리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구성된 문화적 정체성에서 나오는 문화 및 경제 공동체의 잠재력과 추세를 탐구하는 것이다. 본 논의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지리의식의 출현과 발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 NEACEC 결성을 위한 잠재적 조건. 세계정치와 역사의 발전추세는 점차 지역간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우리는 문화의 힘을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문화적 전통이 유사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역 경제 공동체 동맹을 형성해 왔다.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에서 공유된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의 실마리는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명선이 되었다. ASEAN의 출현도 비슷한 고려에 기초한 것인 반면, NATO는 일시적인 정치적, 군사적 동맹일 뿐이다. NATO 참가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동일성이 부족하다. 그러한 군사-정치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될 뿐이며 그 효용은 제한적이다.

NEACEC의 구성은 공동체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정부간 협력의

23) Chen, Jingyan. “On the Problem of Periodization of the History of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 Russia (Soviet Union) during the 20th Century.” *Collected Papers of History Studies*, no. 1, 2005.

24) Liu, Qingcai, et al. *The Study of Northeast Asian Geopolitics and Chinese Geostrategies*. Tianjin People's Publishing House, 2007.

필요성과 정책 결정, 협력적 보호와 조직 구조, 초국가적 문화정체성에 대한 보호, 보호를 위한 보호, 사회적 활동기의 확장형 확장과 공유, 소수경제의 확장형 확장과 공유. 남한 학자들은 문화공동체 형성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결정, 협력적 관계, 문화가 이해하는 것, 사회적 지위를 활용하는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²⁵⁾ 중국과 한국 학자들이 공동체 개념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이해와 정체성의 역할, 문화 교류와 협력 메커니즘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ii. NEACEC 구축 모델의 선택과 전망.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Jin Xide는 동아시아 협력이 거시적 접근 방식에서 끊임없이 몇 가지 주요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선택 중 하나는 기능적 협력을 먼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경제 및 안보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협력은 우선 경제협력, 다음으로 정치-안보협력, 마지막으로 문화협력이라는 네 가지 접근방식에 직면해 있다. 정치, 안보 협력을 우선시하고 기타 분야 협력을 우선시한다. 경제, 정치, 안보 협력의 동시 발전; 문화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²⁶⁾ Jin은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은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에 불과해 정치, 안보, 문화통합은 멀다고 본다. 중국, 일본, 한국 등 일부 학자들은 지역정치, 안보, 경제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구체적인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만 문화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유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 역시 문화공동체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연계성, 초인종공동체, 미래지향적 공동체 등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 교류, 정치적 신뢰, 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국적 다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다.

저자는 동북아의 독특한 역사와 현실이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어떤 개념에도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역의 모든 변화는 균형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지역의 정치, 안보, 경제 상황의 복잡성만으로 인해 증폭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지역의 역사와 현재를 통틀어 가장 큰 공약수로서 공통의 문화적 기반과 그 매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으로, 동북아공동체 건설에서는 국가 간 문화교류와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인적 우호교류와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초민족 간 공유문화를 바탕으로 지리적 정체성의식을 재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민족 국가. 이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 간 경제 무역, 정치적 상호 신뢰 및 안보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동북아 공동체 구축은 일부 학자들이 언급한 네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각적이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동북아 지역정체성을 위한 문화공통성 기반을

25) Zheng Zhengshuk, *South Korea's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Its Theoretical Background and Framework*, Oruem Press, 2006, pp. 125-154

26) Jin, Xide. "The Progress, Challenge and Prospect of the East Asian Cooperation."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no. 1, 2009, pp. 49-55.

구축하려면 '통일하면서도 다양함'과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문화적 동질성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정체성의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정치적 신뢰 구축은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다. 동시에 역내 국가 간 경제교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공동체를 연결고리, 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정치안보메커니즘 발전을 의탁하는 경제협력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단계이다. 정치공동체와 지역안보동맹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NEACC의 발전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이 역내 핵심강국으로서 역사적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통상관계 강화와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등 교류를 위한 문화적 정체성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V 결론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NEACEC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지역의식의 각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차적인 원동력이자 출발점은 동북아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적 자의식이다. 이는 참여 당사자들의 협력적 열정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동북아공동체 건설도 그 지역 민족들 간의 경쟁과 게임의 결과이다. 지역 내 구조적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민족문화의 다양성과 인종간,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국가에 위기나 해체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민족학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정치학의 관점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국가정치체제 내에서 객관적인 현상으로서의 민족성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고, 민족간 갈등과 이념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지속적인 민족통합을 이룩한다. 동북아 공동체 구축의 기초이자 출발점으로 '문화'를 비교적 온건한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은 꽤 설득력이 있다. 또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 방향으로 문화 및 경제 공동체를 채택하는 것은 이 지역 내 다양한 국가들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 및 이익과 일치합니다. NEACEC의 향후 발전추세는 전적으로 참가 당사국들의 노력과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명확한 전망은 NEACEC가 의심할 바 없이 유럽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빛나는 지역 공동체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NEACEC는 동북아 지역의 발전에 발맞춘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택은 지역의 역사적, 현재적 맥락에 대한 철저한 고려와 국가 간 지역 정치, 안보, 질서의 이익과 균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합리적인 요구와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

들어가며

본 발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적으로 만주지역에서 한민족이 중심이 된 국가의 발자취와 국경을 확인하고, 그 활동 무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만주지역이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로 한다. 만주지역이란, 중국의 동북 지역을 지칭하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동북구(東北區)로 일컬어지는 3개의 성(省)인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으로 동북 삼성(東北三省)=동삼성(東三省)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의 지역이며, 광의로는 구 만주국에 해당하는 동삼성(東三省)과 내몽고의 동북부=내만주(內滿洲)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본 발표에서는 광의의 만주 지역을 상정하여 전개한다.

본 발표에서는 고대, 중세 및 근세,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에서 1945년까지로 시기를 구분하여 만주지역에서 한민족의 활동에 대해 고찰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諸)종족의 분포, 국경사,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세력, 그리고 그 세력 하에서 경계를 변화시키는 사건과 제 종족의 이동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한민족을 둘러싼 국경은 종래의 설과 최근의 새로운 학설(學說)을 소개하며 전개한다.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종래의 설과는 달리 만주지역에서 한민족의 발자취는 중세 및 근세 초기에까지 이어진다.

만주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조선으로부터 부여, 고구려, 발해의 본거지이며,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의 조선시대 말기에는 간도(間島)를 개척하고, 또 현대에 들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며 한민족이 활동을 하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 만주지역에서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鮮卑族, 契丹族, 蒙古族, 靺鞨族, 女真族(滿洲族) 등이 함께 생활의 기반을 두며 성장하고 또 소멸해 갔다.

1 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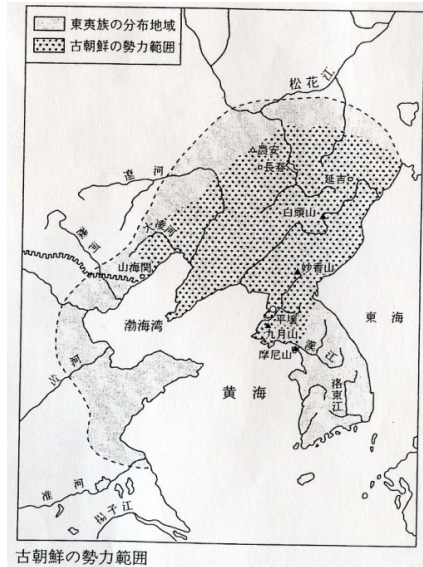
1-1. 삼국시대 이전

한국사에서 고조선은 신화로 취급을 하며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에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의 고대 역사연구자는 고조선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학계에서 정설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고인돌 및 비파형 동검이 발굴된다. 이 범위는 (도2)의 고조선 세력의 범위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과도 거의 일치가 된다. 즉, (도1)과 (도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조선의 범위, 고인돌 및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만주지역에까지 확장되며, 만주지역이 고인돌 및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던 종족의 활동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도1) 고인돌 · 비파형 동검의 분포



(도2) 고조선의 세력과 범위

고대에 한민족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종족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즉, 『시경』, 『논어』, 『중용』, 『맹자』에는 맥(貊), 한편 『사기』의 「홍노전」·「화식전」에는 예맥(濊貊)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예맥(濊貊)은 예(濊)와 맥(貊)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예맥으로 칭한다.

초기의 예맥족은 아무르강 부근의 숙신(肅愼)과 내몽고 지역의 동호(東胡)= 鮮卑族 사이에 끼어 만주의 松花江, 黑龍江,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유역 및 한반도 북부 지역인 함경도, 강원도 등지에 걸쳐 살았다. 예맥족은 부여(扶餘), 고구려, 동예(東濊), 옥저(沃沮)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국 북동부와 한반도의 동부 및 중부에까지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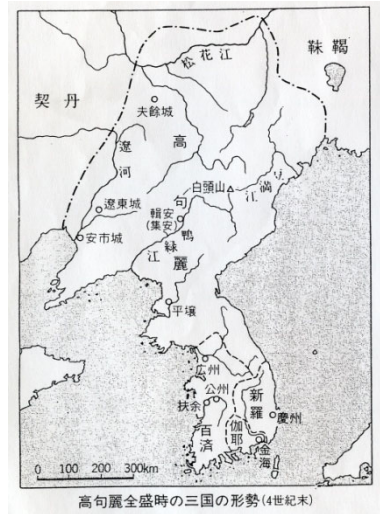
이 예맥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를 구성하는 종족집단을 이루었고, 한반도 중남부에 거주했던 한족(韓族)과 더불어 한민족 형성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 여하튼 최초 예맥의 주된 생활무대는 만주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동쪽에 사는 종족을 동이(東夷)라고 불렀다. 동이란 중화 중심의 사상에서 나온 명칭으로 중국을 중심에 두고 사방, 즉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에 사는 이민족을 비하하여 칭하는 말이다. 즉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 그것이다.

『後漢書』의 동이전에서는 동방을 이(夷)라고 한다. 이(夷)는 산둥반도로부터 淮泗 유역, 즉 현재의 江蘇省, 安徽省의 연안에 분포된 종족인데 이들이 한족(漢族)과 접촉을 시작하는 은대(殷代)부터 역사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B.C. 221년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뒤, 산둥반도가 진에 흡수됨으로써 발해만을 끼고 만주와 한반도에 분포하는 한·예맥(韓·濊貊)을 동이(東夷)라고 했다. 『後漢書』 동이열전의 서(序)에 「秦竝六國其淮泗夷皆散爲民戶」라는 기록, 즉 「秦나라가 六國을 합병한 후 淮水와 泗水 지방의 夷를 모두 분산시켜 秦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또 후한의 허신(許慎 ?~121)이 편저한 한자 사전인 『설문(說文)』에서는 예맥(濊貊)은 동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부여(扶餘) 건국설화는 고구려와 비슷하게 혼합되어 있다. 중국의 문헌인 『論衡』, 『魏略』, 『後漢書』, 『梁書』에는 부여의 시조가 동명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論衡』 吉驗篇에는 東明이 현재 만주의 松花江 상류 弱水를 중심으로 하는



(도3) 고조선 전성기의 삼국 형세

지역에서 건국을 했다고 한다. 현재의 黑龍江省 하얼빈 市賓縣에서는 부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유적(慶華古城)이 발견되었다. 이로보아 부여 역사의 무대가 만주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부여에서 남하했다고 한다. 주몽신화(朱蒙神話)에는 부여에서 피신한 주몽이 엄체수(淹遞水)에 이르렀을 때, 부여의 군사가 뒤를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주몽이 강물에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이요, 하백(河伯)의 외손이라」고 외치니 물속에서 자라와 물고기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몽 등이 무사히 건너자, 다시 흩어지니 추격병이 건너지 못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엄체수(淹遞水)라는 강은 사료에 따라서는 엄호수(奄澆水), 시엄수(施淹水), 엄사수(淹澆水), 엄리대수(奄利大水)라고도 일컬어진다.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제설(諸說)이 있으나 만주지역에 존재하는 강(江)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졸본(卒本)=홀본(忽本)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遼寧省 本溪市的 渾江유역으로 간주된다.

고구려는 압록강 건너편의 현재 중국 지역인 集安=국내성을 수도를 하였으며 이 지역에는 광개토대 왕비를 비롯한 고구려 시대의 고분들이 산재해 있다. 즉 고구려의 건국에 관한 설화뿐만 아니라 많은 유적이 만주지역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만주지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민족으로 이어지는 예맥 역사의 무대였으며, 특히 고구려 활동 중심지이기도 했다. 종래의 설에 의하면, 고구려 장수왕15(427)년에 도읍을 국내성에서 현재의 평양으로 천도를 하여, 그 활동영역을 한반도에까지 넓혔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설에 따르면 고구려는 8차례 천도를 하였으나, 한반도 내로의 이동은 없었으며,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현재의 중국 遼陽이라는 견해다¹⁾.

1) 허우범 「통일신라의 국경은 만주에 있었다」 (『월간조선』조선뉴스프레스, 2022년6월)

의 활동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발해는 최후의 왕인 대인선大謹諱 (?~926) 때, 즉 926년에 멸망하고 만주지역은 한민족으로 이어지는 종족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靺鞨族, 契丹族, 女真族(滿洲族)이 전면에 등장하여 역사를 이어가는 지역이 되었다. 이와같은 환경 하의 중세시대에 만주지역에서 한민족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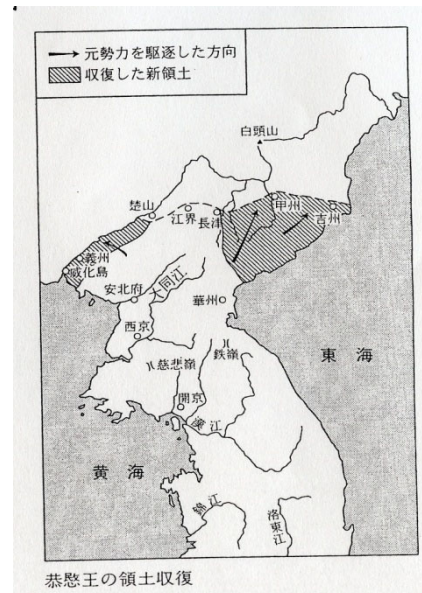
2 중세 및 근세

2-1. 고려시대

통일신라에 이어 918년 고려가 성립되고, 이후 938년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였으나, 그 국경은 (도6)보다 아래 쪽에 있었다는 것이 종래의 견해다. 이후 예종 2(1107)년에 윤관(尹瓘)이 함주·영주·웅주·길주·북주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9성을 축조하여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을 조금씩 회복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高麗史』에 의하면 신우가 평양에 머물며 각도의 군사 징발을 하고,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설치하게 하며, 배로 임견미 등의 가재(家材)를 서경으로 운반하였다. 또 우왕은 명(明)이 철령위(鐵嶺衛) 설치를 통보하자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遼東을 공격하기로 하는데 군사징발을 독려하는 곳은 평양, 군사물자를 두는 곳이 서경이었다. 즉 이들의 사례로 보아 고려의 서경은 현재의 평양이 아니라 중국대륙(압록강 위쪽)에 있었다고하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⁴⁾.

그리고 우왕 14(1388)년에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 출병을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을 하여 고려를 멸망시켰다. 최근의 국경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성계가 도중에 회군을 한 위화도는 압록강 하구의 지역이 아닌 압록강을 건너편의 지역, 즉 만주 지역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되었다⁵⁾. 즉 고려의 영토가 만주지역에 걸쳐 있었다는 의미이며, 고려시대에도 한민족이 만주지역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된다.



(도6) 공민왕의 영토 수복

4) 前掲허우범「통일신라의 국경은 만주에 있었다」
5) 허우범『여말선초 서북 국경과 위화도』(성안당,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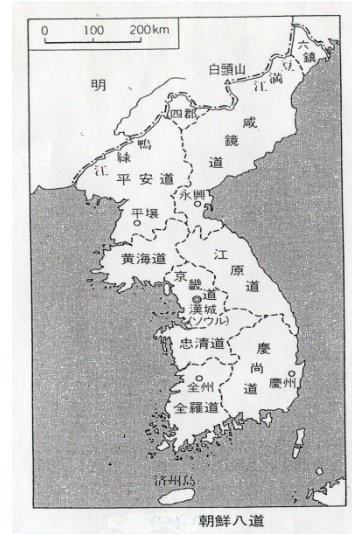
2-2.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세종 때는 최윤덕과 김종서를 시켜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침범해 오는 것을 막고 4군과 6진에 사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개척하였다. 이로써,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구역을 획정했다. 이는 새로운 국경설에서 보면, 고려 영토의 만주지역에서 조선의 영역이 한반도 지역으로 축소되고, 4군과 6진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중기에 접어들면서 중국대륙에서는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등장하게 된다. 청은 한족(漢族)이 아닌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이 만주족이란 말갈족의 후신으로 1635년 이전에는 여진족이라 불렀다. 이들 만주족의 출자, 즉 발상지는 만주지역이다. 이에 청은 1600년대 후반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1,000여 리 되는 만주지역을 봉금(封禁)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이후 조선의 숙종38(1712)년, 청의 강희제는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백두산 천지 동남쪽에 정계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 즉「서쪽으로는 압록이고, 동쪽으로는 토문이다, 따라서 분수령 위의 돌에 새겨 기록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과 백두산 부근의 경계를 명확히 한 최초의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중세 및 근세에는 옛 고구려 지역, 그리고 발해 지역을 조금 회복은 했지만 옛 만주지역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지배를 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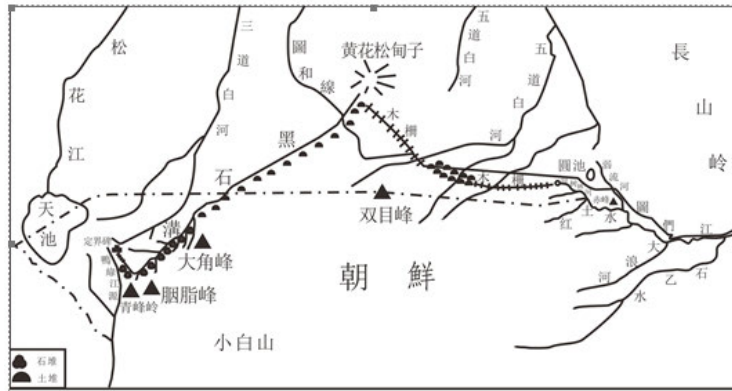
(도7) 조선 8도

3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에서 1945년까지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 즉 1880년대에 함경도 지역의 조선인이 두만강을 건너 間島지역(吉林省 延邊)에 들어가 개간을 하고 정착을 하였다. 1885년과 1887년에 조선과 청은 공동 감계(勘界)를 실시하였으나 두만강 상류의 육지가 이어지는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85년 조선의 감계사(勘界使) 이중하(李重夏)는 흑석구(黑石溝)의 토퇴(土堆) 끝부분에서 홍토수(紅土水)까지 퇴적과 목책이 연결되어 있고, 또 홍토수(紅土水)가 두만강(豆滿江)의 정원(正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이하의 (도8)을 보면 지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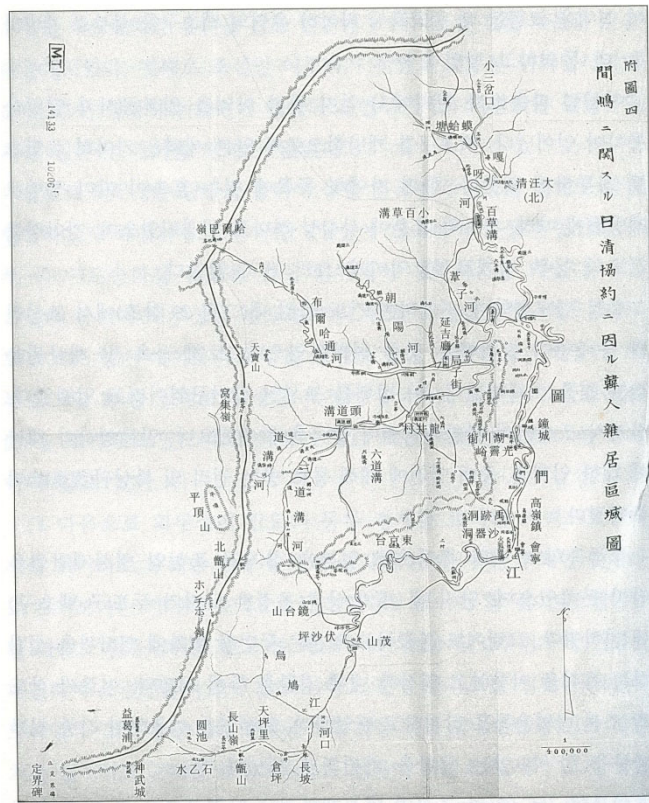
6) 李花子 「中国と北朝鮮の国境踏査記 - 白頭山における土堆群の新たな発見 -」 (『韓国文化研究』第7号, 韓国文化学会, 2017年, 日本)



(도8) 1712년 및 현재의 중국과 북한의 국경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또 대한제국과는 을사보호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은 간도(間島)지역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1907년 龍井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했다. 이로서 만주의 남부는 일본의 세력권, 북부는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재편되었다7).

(도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9년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부도(附圖)에는 간도 지역을 조선인 잡거 구역으로 정하여 이 지역을 조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의 「東爲土門」이라는 기록이 두만강 이북의 간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한국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



(도9) 간도협약 부도

1910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자, 조선인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만주지방으로

이주하는 것 보다는 일제(日帝)의 강점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동을 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을 보면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淸이 붕괴되고 중화민국(中華民國)이 등장하였으나 중국 대륙에서는 군벌(軍閥) 세력이 할거를 하게 된다. 만주 지역에서는 장작림(張作霖)의 군벌이 출현하며, 뒤를 이은 장학량(張學良)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력다툼을 벌였다.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키고, 1932년 3월 만주국을 수립하여 만주는 일본

7) 이화자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 (혜안, 2019년)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후 일제는 개척의 명목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만주에 대량으로 이주시켰다.

요컨대 이 시기에 만주지역에는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와 일제 강점기에 자주적으로 이주한 한민족, 그리고 만주국 수립 이후 일제가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킨 한민족이 생활을 하였다. 이들 한민족은 소위 말하는 현재 중국 만주지역의 「조선족」인 것이다.

나가며

고대에서 1945년에 이르기까지 만주지역은 한민족의 활동 무대였으며, 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종래의 설에 의하면 고대의 예맥에서 한민족으로 이어지는 종족의 생활 범위, 즉 부여, 고구려가 융성했던 시대에는 만주의 전역이 활동무대였고, 시대가 내려오며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만주지역에서 정착하고 활동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발해의 멸망 이후, 만주지역에서 국가형태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새로운 학설에서 본 바와 같이 국경에 대한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만주지역에서 한민족이 활동한 기간은 통일신라 이후, 고려까지 이어진다. 즉, 조선시대를 제외한 전근대의 만주지역에서 한민족의 국가적 정치 집단 하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세력을 동반하지 않는 생활 차원에서의 한민족의 원류는 변함없이 만주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 이후,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피해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은 현재에도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만주지역의 한민족 역사에 대해 중국의 주도 하에 실시된 동북부(만주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工程) = 「東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의 연구성과를 공표했다. 즉 1997년에 시작된 연구성과로 2000년 이후에 공개된 내용은 「고구려, 백제, 발해, 신라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항의를 한 결과, 한중 간의 학술적인 토론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로는 삼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여 일단 수습은 되었다.

중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역사 인식은 변방의 한민족 존재와 활동은 인정하지만,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며 자립된 정치집단으로 보지 않고 속국이라는 인식을 하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고구려, 발해가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오히려 명확한 사실로 인정을 한 셈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韓國の歴史』(明石書店、1997年、日本)

강선, 「4~5세기 고구려의 영토확장과 평양천도」(『속명한국사론』2, 1996년)

이기백, 『한국사 신론』(일조사, 1999년)

채희국, 『고구려 역사 연구-평양천도와 고구려의 강성-』(백산자료원, 1999년)

윤내현, 『고조선 우리 역사의 탄생』(만권당, 2016년)

李花子, 「中国と北朝鮮の国境踏査記 - 白頭山における土堆群の新たな発見 -」(『韓國文化研究』第7号、韓國文化学会、2017年、日本)

이화자, 『백두산 답사와 한중 국경사』(혜안, 2019년)

허우범, 『여말선초 서북 국경과 위화도』(성안당, 2021년)

허우범, 「통일신라의 국경은 만주에 있었다」(『월간조선』조선뉴스프레스, 2022년6월)

Discussion o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Manchu Hunting : As well as the Effect of Manchu Hunting on Sports

Zang Juanjuan (School of Education, Shandong Women's Univ., China)

Hunting production activities are the diligent and wise crystallization of the Manchu people. They not only possess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but also contain the ancient history and culture of the Manchu people,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nchu sports cultur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Manchu hunting, intending to provide a reference for the research of traditional Manchu sports culture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It also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nchu sports culture.

I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anchu Hunting

Every ethnic sport is established on specific customs, natural environments, and social contexts. In its process of origin,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it exhibits its own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Manchu traditional sports are no exception, and they possess very distinct features.

1. The Sacredness of Hunting

In the areas where the Manchu people predominantly reside in China, the regions are often abundant in natural resources and characterized by a high diversity of ecological and cultural elements. The ecological concepts within the Manchu way of life are frequently expressed through cultural forms such as religious beliefs, customs, taboos, and oral folklore. In the early stages of Manchu society, their survival heavily depended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not simply taking from nature but also protecting it. This protection was often achieved through primitive beliefs and religious ceremonies.

In their ethnic culture, religion is deeply integrated into daily life and shapes people's attitudes towards existence.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clan society and totem worship have evolved from the belief in the spirituality of all things during the early clan society

era. Totem worship differs from the general reverence for the spirituality of all things. The latter involves blind worship of natural phenomena and animals and plants in a general sense, while totem worship is the veneration of specific natural phenomena, animals, and plants. Totem worship initially involved material veneration of natural objects, and through long-term development, due to the personification of natural phenomena and specific animals and plants, it led to the creation of numerous deities[2].

The Manchu people have various religious beliefs, with Shamanism being the most important and representative one. "Shaman" is a transliteration of the Tungusic language and originally meant "one who is mad with excitement," similar to the concept of a "witch" in Chinese. Shamanism is a primitive religion that believes in the spirituality of all things and the immortality of the soul. It centers around the shaman, a figure believed to be capable of healing and communicating with spirits and deities, hence the name "Shamanism."

Under the strong political protection of the Qing Dynasty, Manchu Shamanism developed its unique characteristics. Notable features include the standardization of rituals, the worship of gods, spirits, crops, and objects, replacing the previous clan-based systems of Manchu shamanism.

The highest deity in Shamanism is the Heavenly God. Under the influence of external religions, Shamanism also incorporates the veneration of figures like Gautama Buddha and Guan Di.

In Shamanism, ceremonies involving divination, healing, and spells were initially led by female shamans. Later on, these roles were often taken up by men who dressed as women. The shamans, known as "Shamans," held a highly respected status and were referred to as "heavenly servants" or "heavenly attendants" in the Jurchen language. They performed unique rituals like "spirit dancing" to communicate with the divine, aiming to cure illnesses, protect the clan from disasters, predict the future, and pray for bountiful catches during fishing and hunting.

Manchu worship is a form of primitive polytheism, primarily focused on nature deities, animal and plant deities, and ancestral hero deities. Among these, the nature deities include the sun, moon, stars, thunder, rain, mountains, rivers, and are led by the fire deity. Animal deities encompass creatures like tigers, wolves, eagles, snakes, otters, magpies, crows, with the eagle deity as the primary figure.

Manchu eagle hunting is rooted in Manchu shamanistic culture, representing an ancient custom in Manchu life and a unique form of folk hunting. It is closely intertwined with Manchu traditional production, lifestyle, and religious beliefs, reflecting the Manchu people's history of production, life, and their sense of survival. It stands as a testament to their wisdom.

In the hearts of the Manchu people, the eagle is considered a divine bird, a sacred creature, and the national spirit of the Manchu culture. With its upright and majestic posture, the eagle exudes an air of superiority and invincible power. Its bold courage, ability to triumph over larger adversaries, and fearlessness have earned it admiration and reverence among the people. The eagle deity holds a special place among animal deities and is known in the Manchu language as "达拉加浑" or "达拉代敏," which translates to "chief eagle" or "chief hawk."

During the shamanistic rituals and spirit dance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eagle deity. The shaman's ceremonial headgear, clothing, and robes are adorned with eagle motifs, and they often incorporate iron or copper pieces that depict soaring eagles, symbolizing the eagle deity. In Manchu star festivals and bird deity ceremonies, the veneration of the eagle deity is central to the ritual, with dedicated ceremonies and words of praise. During the eagle-worshipping process, the shaman's dance movements faithfully imitate the actions of the eagle. They gracefully mimic the eagle's flight, swooping and soaring, creating a striking resemblance to a real eagle in flight.

Many customs and traditions of various ethnic minorities have their roots in religious beliefs and are often infused with strong elements of superstition. Some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even originated directly from religious rituals and practices, gradually evolving into games and competitive events, ultimately developing into traditional sports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hunting activities, there are often accompanying religious ceremonies. Manchu ancestors, before venturing into the mountains for hunting, would perform rituals to seek blessings for a safe and successful hunting expedition. These ceremonies were conducted to ensure the hunters' safety and good fortune during their hunts and to pray for a bountiful catch of game.

During these ceremonies, various animal deities are venerated, such as tigers, wolves, eagles, snakes, otters, magpies, and more, with the eagle deity holding a prominent position. In the course of the ritual, the chief shaman would invite the "souls" of these animals to attach themselves to him, and then he would faithfully emulate the diverse movements of these animals. At times, he would leap and at other times dive, replicating the behaviors of these animals with astonishing realism.

During these rituals, the shaman would sing incantations related to hunting: "Present the sticky cakes, offer the rice wine, sacrifice the black pig, and burn the incense of the year. We respectfully invite the great hunting deity to come. Bless us for a peaceful mountain entry, a smooth exit, and a plentiful harvest of game." With these invocations, they would beseech blessings for the hunters' safe and successful mountain expeditions and the capture of abundant game.

The Manchu people's reverence for crows is closely connected to their hunting activities. According to hunting traditions, before every mountain expedition, the Manchu people would make offerings to crows. The specific procedure involved hanging a large piece of meat on a tall tree near the mountain's summit, a place known as "Cuo Luozi," to attract the crows and provide them with a feast. People held a fondness for crows because they had the ability to guide lost hunters out of the mountains. It is believed that when hunters got lost deep in the mountains, they would seek out groups of crows. The direction in which the crows flew was an indication of the way back to the hunters' homes. This way, hunters could escape danger and avoid being stranded in the mountains due to getting lost. Therefore, during their rituals, the Manchu people would cut a small piece of meat from the sacrificial pig, wrap it in a bundle of grass, and scatter some grain. If crows came to partake, it was considered a cause for great joy.

Additionally, each family of a different surname had their own hunting deity within their pantheon of spirits. For example, the Fu clan would venerate the "Aisin Gioro Jincrow deity." This crow deity was believed to be swift and effective in hunting. Once it spotted prey during a hunt, it would swiftly chase it down and peck out their eyes, rendering the prey helpless and making it easier for the hunters to capture them. Other clans like the Ning and Guan clans would venerate deities like "Gu Lukumong Eleng," who were believed to be a hunting god stationed in the Changbai Mountains, possessing nine animal heads.

2.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Hunting

Human relationships with their natural environment are continuously evolving,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in a particular region are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the development of a nation's sports culture. This regional environment also provides the space for the survival and growth of a community. In the early stages of human society, the environment exerted a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human life, and human dependence on it was much stronger. To ensure their survival, early humans engaged in challenging activities such as navigating mountains and rivers, nomadic gathering, hunting, and defending against attacks by wild animals.

Through these struggles, they gradually became familiar with and understood the topography, landscape, flora, fauna, and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they inhabited. This process allowed them to accumulate a wealth of natural and geographical knowledge. Ethnic traditional sports and activities all developed within specific regional and social contexts, through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society's

production and daily life. These activities form the basis and prerequisites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sports within a culture. Therefore, to fully appreciate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ethnic traditional sports, it is essential to place them within their specific environmental context.

Manchu traditional sports, for example, are products of long-term social development that have evolved in uniqu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y reflec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Manchu ethnic identity.

The ancestors of the Manchu people were originally composed of three groups: the Jianzhou Manchus, the Haixi Manchus, and the Donghai Manchus, all of whom relied on hunting for their livelihood. Among these groups, the Jianzhou Manchus were the most economically and militarily powerful. They originated from the region of Sanying (now Yilan) in Heilongjiang, near the confluence of the Songhua River, Tangwang River, Wo'ken River, and Mudan River. Later, they migrated south along the Mudan River and settled in what is now the Mudanjiang and Ning'an areas. They continued their migration southward and established communities in the Hunchun River basin at the foot of Changbai Mountain, which became a sacred mountain for the Manchu people. They further moved west and settled in the present-day Liaoyang region of Liaoning.

In terms of the regions where the Manchu people lived, they were characterized by dense forests, towering mountains, and numerous rivers. Furthermore, these regions experienced harsh winters with strong cold winds, long-lasting snow cover, and extreme cold. This geographical environment provided the ideal hunting grounds for the ancestors of the Manchu people, and they thrived in this environment for generations.

During the hunting season, groups of hunters would disperse into the forests to capture various game animals. This ecological environment and way of life provided the geographical context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unting sports and competitions within the Manchu culture.

3. The Ethnic Characteristics of Hunting

Hegel once pointed out, "The religion of a nation, its political institutions, its theories, its legislation, its customs, even its science, art... all bear the mark of the national spirit."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Manchu sports culture, which is an important feature that distinguishes the Manchu people from other ethnic groups. In the long process of hunting, the Manchu people honed their national skills in horseback riding and archery, creating their unique hunting sports culture. This is one of the notable characteristics of hunting.

Furthermore, it reflects the enthusiasm and demand of the Manchu people for this particular sport. This demand has drive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ir national sports, leading to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4. The Military Aspects of Hunting

In the early 17th century, as the Manchu people entered the Liaodong region, they gradually shifted from a society primarily based on hunting to one centered around agriculture. Hunting assumed a secondary role, mainly used to supplement daily necessities. However, its military significance grew over time. The purpose of hunting was no longer solely about the harvest of game but about military training.

During the reign of Nurhaci,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rchery and horseback riding to meet the needs of military warfare. He stressed the significance of strong archery skills and martial prowess. Hunting was regarded as a means of military training. In the process of hunting, individuals who did not walk in formation or who were disorganized would face punishment. In practice, hunting had become a form of military exercise.

II The Social Functions of Manchu Hunting

1. Reflecting the Ethnic Aesthetic Function

Hunting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he Manchu people's production and life since ancient times, and it is a complex that combines folk art and traditional sports. The hunting methods and technical movements reveal the Manchu people's aesthetic concepts and interests. The entire process reflects the Manchu people's desire to achieve a perfect harmony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an aesthetic appreciation of symbolism.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this also contributes to ecological balance, encouraging people to coexist harmoniously with nature and fostering a positive attitude of loving, protecting, and being grateful to nature. This energy not only influences the Manchu people but also serves as a guide and reference for the cultural values of contemporary society.

In terms of attire, Manchu clothing inherits the traditions of the Jurchen people. Due to the requirements of their hunting lifestyle, both men and women wear robes. During the period outside the Great Wall, fur products were prevalent, but after the Qing Dynasty entered the Central Plains, clothing material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ingle-layer, padded, leather, and cott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Manchu robes is their round collar, narrow sleeves, folded lapels, buckled flaps, and connected garments. The narrow sleeves have a crescent-shaped sleeve end, resembling a horseshoe and commonly referred to as horseshoe sleeves or arrow sleeves. In daily life, the sleeves are rolled up, and they are let down during battles and hunting expeditions. In the winter, they provide insulation.

2. Function of Pleasure and Well-being

Manchu hunting activities primarily serve the purpose of bringing joy and well-being to individuals. These activities do not focus on highly technical movements but instead cater to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needs of people, emphasizing the enjoyment and recreational aspects. By incorporating elements of religious beliefs, labor, and festive celebrations, hunting activities highlight the entertainment aspect of traditional Manchu sports. With its unique charm and culturally enriching entertainment, it has attracted a growing number of participants, becoming one of the primary forms of leisure and entertainment among the Manchu people. As society has rapidly evolved with an accelerated pace of life, the stress endured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has increased. To alleviate these pressures, individuals engage in traditional Manchu sports to exercise their bodies and derive mental enjoyment, thus achieving the function of pleasuring and nourishing the mind and body.

3. Function of Alleviating Group Conflicts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Manchu hunting activities are part of folk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folklore theory, some unwritten rules, such as folk beliefs, have strong binding effects, encouraging people to consciously adhere to and maintain these rules, effectively upholding the social order of the community. These rules help resolve differences, discrepancies, and conflicts that may arise within the Manchu community during social development, promoting unity and harmony within the group, ultimately achieving social control objectives. Today, hunting has become a spectator activity during Manchu holiday celebrations. It serves to some extent as a means to alleviate and release the psychological pressures arising from work and daily life. Additionally, it helps divert any dissatisfaction and grievances that individuals may have toward society, offering them a form of spiritual solace. Engaging in or watching hunting activities also provides an outlet for negative emotions and relaxation, ultimately fostering social harmony and stability.

4. Function of Cultivating and Strengthening Group Identity and Cohesion

Similar to other collective sports activities, participants in hunting activities have a strong sense of competition, along with a collective sense of honor. Therefore, engaging in hunting sports cultivates a spirit of unity and cooperation among people, significantly strengthening their social group consciousness and enhancing cohesion among Manchu people. Hunting activities originate from specific geographic environments and cultural backgrounds, making them inherently ethnic, regional, highly competitive, and team-oriented. Whenever competitions are held, community members rarely put down their daily labor and come together. Participants engage in learning, imitation, competi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language, which results i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xchanges. This verbal and physical form of communication fosters mutual understanding among community members. Since this sport involves team competition, participants not only enhance their competitive spirits but also develop a sense of collective honor and teamwork. People who are not competing cheer passionately from the sidelines, creating an electrifying atmosphere. Thus, this sport serves as a bridge and bond for mutual connection and exchange among community members, catalyzing communication, integration, and unity while significantly increasing group cohesion.

5. Function of Carrying and Transmitting Ethnic Culture

Traditional ethnic sports culture is both the root of a nation's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the essence of its cultural heritage, demonstrating its cultural value through the process of inheritance. Every ethnic group has survived through long periods of social change, and the Manchu sports culture is no exception. With its long history, it has left behind a rich and precious cultural treasure for future generations. Manchu traditional sports activities serve as carriers of cultural transmission. For example, hunting sports evolved from early production labor and later developed into beloved sports among the Manchu people. Its development bears witness to the ever-changing historical processes in Manchu culture, an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hunting sports is conducive to the preservation of Manchu culture. To stud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Manchu people, one must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developmental journey of Manchu traditional sports culture.

In the early days of the Manchu people, their primary means of livelihood was the hereditary custom of collective hunting inherited from the Jurchen people, also known as "da wei" (encircling the prey). Collective hunting was predominantly conducted during the winter, highlighting the Manchu people's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strong cohesion. Initially, collective hunting was organized by clans, but as society evolved and

clan relationships disintegrated, most collective hunting was organized by villages or communities. In this context, hunters had to rely on one another, cooperate, and act in unison to achieve a successful hunt. During the winter season, young and able-bodied individuals from the entire village, led by the "Abuda" (hunting leader), would carry hunting tools such as "sasaha" (crossbows), "zherulusu" (nets), "wulu" (arrows), "jida" (spears), "zhuwende" (beating boards), and "gaijin" (net bags). They would use sleds pulled by dogs or horses to venture into the mountains, accompanied by numerous hunting dogs. These hunting dogs served as invaluable assistants, with most Manchu households raising a dozen or even twenty dogs. These dogs not only assisted their owners in capturing prey but also ensured their safety. During collective hunting, individuals were not allowed to act independently and had to obey the commands of the Abuda. After the hunt, the obtained prey was evenly distributed under the Abuda's supervision. At the end of the hunting expedition, a ritual was conducted on the mountainside, where they would offer sacrifices to "Banda Mafa," the hunting deity. During this ritual, the Abuda acted as a shaman, kindling a fire using a small iron cauldron ("han chu") and cooking various types of meat as offerings to the deity. This ritual was accompanied by songs and dances. Subsequently, the hunters, led by the Abuda, would return to the village on sleds laden with their catch.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s between hunters were frequent throughout the hunting expedition, leading to mutual understanding, the exchange of new inform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rpersonal bonds among the Manchu people. The hunting activity also symbolized unity among the Manchu people.

Since ancient times, the forebears of the Manchu people have predominantly adopted equestrian archery hunting as their primary means of livelihood. Equestrian archery hunting has been a core element of their traditional culture, a tradition that has been upheld and perpetuated since the time of the Sushen people. As the Manchu people began to rise, their proficiency in archery contributed to their success in achieving nationwide political power, ultimately founding the Qing Dynasty. The early documentation of the Manchu people's archery prowess is found in the "Bamboo Annals," which records a tribute of bows and arrows brought by the Xi Shen people during the twenty-fifth year of Emperor Shun's reign. The "History of the Yuan Dynasty" also mentions that the Shu Da Da and Nüzhi people adhered to their traditional customs, living in areas devoid of urban settlements, focusing on their nomadic lifestyle, and engaging in hunting as a profession. Additional records from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Book of Later Han," "The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The Book of Jin," and "The History of Liao" all make references to the archery skills of the Sushen and Wujishi people.

During the reign of Nurhaci, he utilized collective hunting as a means of training for

warfare.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Records of the Qing Dynasty - Rituals and Etiquette," Nurhaci proclaimed during his eleventh year of Tianming (1625) while leading his troops on a hunting expedition from Shenyang: "The sagacious Khan has always appreciated the practices of collective hunting and established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for military hunting, which are meticulously implemented... Historically, when embarking on military hunts, strict rules and regulations were enforced, distractions were prohibited, and clamor was discouraged." This approach was later adhered to by Huang Taiji, thus formally incorporating Manchu hunting into their martial training. The Manchu people were renowned for their archery prowess, and their hunting techniques were diverse, including equestrian hunting, falconry, and fishing. In winter, they practiced skiing as a means of hunting. The Manchu people engaged in hunting year-round, participating in small or large hunting expeditions, with large hunts lasting for approximately twenty days. The variety of game they captured was too numerous to count. These captures were transported back to the village using horse-drawn sleds and in winter, sleds pulled through the snow.

Falconry, as a method of hunting among the Manchu people, has a rich history that dates back to the Tang Dynasty and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ages to the present day. Falconry involves the training and use of falcons as tools for hunting. During the Qing Dynasty, there wer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is practice. The White Jade Falcon, for instance, was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emperor's amusement, and members of the imperial family and nobility were strictly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it.

Emperor Kangxi had a great passion for hunting, particularly for falconry. He even composed a poem that celebrated the hunting grounds in Jilin and Shengjing (now Shenyang), emphasizing the abundance of wildlife in the region. His poem reads: "Jilin province, Shengjing land, under the clear autumn skies, the beasts are plump and grand. This is where we galloped and hunted in days of old, and the pristine landscapes remain, or so I am told." The emperor also praised his beloved falcon: "With three hundred and sixty feathers, it belonged to the eastern Qing and stood out as the most intelligent."

In Emperor Qianlong's poem titled "Voyage to the Eastern Qing," he expressed that different species of raptors abounded, but the sea-green ones were exceptional. In the fourteenth year of Emperor Shunzhi's reign, the imperial court established the "Dashing Wula Supervisor's Office" in what is now the Longtan District, which encompassed an area of 7,000 square kilometers. As the Qing Dynasty fell, so did the tradition of offering falcons as tributes to the court.

Conclusion

Hunting bears unique cultural features and social functions within Manchu culture, embodying the historical heritage, ethnic and religious essence, and values of the Manchu people. It represents an essential component of traditional Manchu sports culture. Originating from the distinctive geographical environment of the northern regions and people's way of life, it showcases the spirit of valor and martial courage of the Manchu ethnicity.

Exploring and researching the cultural values and social functions carried by Manchu hunting activities is not only beneficial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Manchu sports culture but also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diversity of Manchu sports culture.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nchu sports culture.

Reference

- An Y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Minority Ecological Culture and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cademic Exchange*, 2011, (2).
- Zhang Changnian, Wang Zhankun, Tang Wenjie. Exploration of the Cultural Symbols and Social Functions of Traditional Sports of Ethnic Minorities: A Case Study of the Dance of the Miao Dragon. *Journal of Nanjing Sport Institute (Social Sciences Edition)*, 2014, (10).
- Gu Xiaoyan, Xu Hui.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ports of the Shui Ethnic Group. *Journal of Sport Science*, 2006, (11).
- Smith, John. Cultural Significance of Indigenous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Culture*, 2015, 7(2).
- Chen, Li, and Wang Qiang. Traditional Mongolian Wrestling: A Study of Cultural Significance and Rituals. *Journal of Asian Ethnology*, 2017, 56(2).
- Kim, Min Joo. Rituals and Symbolism in Korean Archery. *Journal of Korean Studies*, 2016, 30(1).
- García, María, et al. The Role of Indigenous Sports in Social Cohesion: Insights from South America. *Anthropological Quarterly*, 2018, 91(3).
- Smith, John. "Traditional Sports of Ethnic Minorities and Their Cultural Signific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tudies*, 2015, 10(2).
- Brown, Susan. "Manchu Hunting Practices: A Historical and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18, 45(3).
- Johnson, Robert. "The Role of Traditional Sports in Manchu Identity." *Asian Cultural Studies*, 2016, 7(4).

번역

만주족 수렵활동의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臧涓涓 (산둥여자대, 중국)

수렵생산활동은 만주족의 부지런하고 현명한 결정체이다.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족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향후 만주족 전통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만주사냥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고, 중국 동북지역 만주족 전통 체육문화 연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 만주스포츠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I 만주사냥의 문화적 특성

모든 민족 스포츠는 특정 관습, 자연 환경 및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기원, 전달, 발전 과정에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나타낸다. 만주 전통스포츠도 예외는 아니며 매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사냥의 신성함

중국 내 만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생태학적, 문화적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만주족의 생활 방식에 포함된 생태적 개념은 종교적 신념, 관습, 금기, 구전 민속과 같은 문화적 형태를 통해 자주 표현된다. 만주족 사회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의 생존은 자연 환경에 크게 의존했으며, 그들은 단순히 자연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보호는 종종 원시 신앙과 종교 의식을 통해 달성되었다.

그들의 민족 문화에서 종교는 일상 생활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형성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씨족사회와 토템숭배는 초기 씨족사회 시대의 만물의 영성에 대한 신앙에서 진화한 것이다. 토템 숭배는 모든 것의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과 다르다. 후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연 현상과 동식물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반면, 토템 숭배는 특정한 자연 현상과 동식물

을 숭배하는 것이다. 토템 숭배는 처음에는 자연물에 대한 물질적 숭배를 의미했으나, 장기간의 발전을 통해 자연 현상과 특정 동식물의 의인화로 인해 수많은 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¹⁾

만주족은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데, 샤머니즘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신앙이다. '샤먼'은 퉁구스어를 음역한 것으로 원래는 '흥분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중국어의 '마녀' 개념과 유사하다. 샤머니즘은 만물의 영성과 영혼불멸을 믿는 원시종교이다. 이는 영혼과 신을 치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인 샤먼을 중심으로 하며, 따라서 "샤머니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청나라의 강력한 정치적 보호 아래 만주족 샤머니즘은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켰다. 주목할만한 특징으로는 의례의 표준화, 신, 정령, 농작물 및 사물에 대한 숭배가 이전의 씨족 기반 만주족 샤머니즘 체계를 대체한다는 점이다.

샤머니즘의 최고신은 천신이다. 외부 종교의 영향으로 샤머니즘에는 고타마 붓대(Gautama Buddha)와 관제(Guan Di)와 같은 인물에 대한 숭배도 포함된다.

샤머니즘에서는 점술, 치유, 주술 등의 의식을 처음에는 여성 무당이 주도하였다. 나중에 이러한 역할은 종종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맡았다. "샤먼"으로 알려진 샤먼은 매우 존경받는 지위를 차지했으며 여진어에서는 "하늘의 하인" 또는 "하늘의 시종"으로 불렸다. 신과 소통하기 위해 신과 소통하는 '신의 춤'과 같은 독특한 의식을 거행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일족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며 미래를 점치고 낚시와 사냥 시 풍어를 기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만주 숭배는 원시 다신교의 한 형태로, 주로 자연신, 동식물 신, 조상의 영웅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 자연의 신으로는 해, 달, 별, 천둥, 비, 산, 강 등이 있으며, 불의 신이 이끄는 신이다. 동물신에는 호랑이, 늑대, 독수리, 뱀, 수달, 까치, 까마귀 등의 생물이 포함되며, 독수리신을 주요 인물로 삼는다.

만주족 독수리 사냥은 만주족의 무속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만주족 생활의 고대 풍습이자 독특한 형태의 민속사냥을 대표한다. 이는 만주족의 생산 역사, 생활 방식, 생존 의식을 반영하며 만주족의 전통 생산, 생활 방식, 종교적 신념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만주족의 마음 속에서 독수리는 신의 새, 신성한 생물, 만주 문화의 민족 정신으로 간주된다. 깨끗하고 장엄한 자세로 독수리는 우월한 분위기와 무적의 힘을 발산한다. 그 대담한 용기, 더 큰 적을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용맹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존경을 얻었다. 독수리 신은 동물 신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주어로는 "达拉加浑" 또는 "达拉代敏"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장 독수리" 또는 "수매 매"로 번역된다.

샤머니즘 의식과 신령 춤이 진행되는 동안 독수리 신에게 특별한 관심이 집중된다. 무당의 의례 용 머리장식, 의복, 의복은 독수리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독수리 신을 상징하는 비상하는 독수리

1) Zhang Changnian, Wang Zhankun, Tang Wenjie. Exploration of the Cultural Symbols and Social Functions of Traditional Sports of Ethnic Minorities: A Case Study of the Dance of the Miao Dragon. Journal of Nanjing Sport Institute (Social Sciences Edition), 2014, (10).

를 묘사한 철이나 구리 조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만주 별 축제와 새 신 의식에서는 독수리 신에 대한 숭배가 의식의 중심이 되며, 봉헌 의식과 찬양의 말이 포함된다. 독수리 숭배 과정에서 무당의 춤 동작은 독수리의 동작을 충실히 모방한다. 그들은 우아하게 독수리의 비행, 급강하 및 급상승을 모방하여 비행 중인 실제 독수리와 눈에 띄게 유사하다.

다양한 소수 민족의 많은 규칙과 전통은 단독으로 줄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미신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 일부 스포츠와 소수 활동은 예외 의식과 관례에서 직접적으로 파생하여 점차적인 게임과 경쟁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포함된 스포츠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사냥 활동의 맥락에서 종교 의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만주족 조상들은 사냥을 위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냥 원정을 위해 축복을 구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제사는 사냥꾼들의 사냥 중 안전과 행운을 보장하고, 사냥감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었다.

이 의식에서는 호랑이, 늑대, 독수리, 뱀, 수달, 까치 등 다양한 동물 신을 숭배하며, 독수리 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석 무당은 이 동물들의 "영혼"을 자신에게 연결하도록 초대한다. 다음 이 동물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충실하게 모방하였다. 때때로 그는 뛰어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다이빙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감으로 이 동물들의 행동을 재현하였다.

이 의식을 치르는 동안 무당은 사냥과 관련된 주문을 부르곤 했다. "떡을 바치고, 막걸리를 바치고, 흑돼지를 바치고, 한 해의 향을 피웁니다. 우리는 사냥의 대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평화로운 산 입구와 순조로운 출구, 그리고 풍부한 사냥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을 통해 그들은 사냥꾼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산악 탐험과 풍부한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축복을 간구했다.

까마귀에 대한 만주족의 숭배는 사냥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냥 전통에 따르면, 만주족은 산악 탐험을 하기 전에 까마귀에게 제물을 바쳤다. 구체적인 절차는 "Cuo Luozi"로 알려진 산 정상 근처의 높은 나무에 큰 고기 조각을 걸어 까마귀를 유인하고 잔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까마귀는 길 잃은 사냥꾼을 산 밖으로 안내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하였다. 사냥꾼들이 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까마귀 떼를 찾아 나선다고 믿어진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방향은 사냥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이로써 사냥꾼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길을 잃어 산에 발이 묶이는 일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만주족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제물로 바쳐지는 돼지의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풀로 싸서 곡식을 뿌렸다. 까마귀가 먹으러 오면 큰 기쁨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다른 성의 각 가족은 영혼의 판테온 내에서 자신의 사냥 신을 가졌다. 예를 들어, 푸 씨족은 "아이신 지오로 진크로우(Aisin Gioro Jincrow) 신"을 숭배한다. 이 까마귀 신은 사냥에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믿어졌다. 사냥 중에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쫓아가서 먹이의 눈을 쪼아서 먹이를 무력하게 만들어 사냥꾼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했다. Ning 씨족과 Guan 씨족과 같은 다른 씨족은 장백산에 주둔하고 9개의 동물 머리를 가진 사냥의 신으로 여겨지는 "Gu Lukumong Eleng"과 같은 신을 숭배하였다.

2. 수렵의 지역적 특성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환경조건은 국가의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은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간사회 초기에는 환경이 인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강했다. 초기 인류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산과 강을 향해하고, 유목 생활을 하며 채집하고, 사냥하고,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방어하는 등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그들은 점차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형, 풍경, 동식물, 생태학적 특성에 익숙해지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풍부한 자연 및 지리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민족 전통 스포츠와 활동은 모두 특정 지역적, 사회적 맥락 내에서 사회 생산과 일상생활의 실제 경험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 문화 내에서 전통 스포츠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와 전제 조건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민족 전통 스포츠의 근본적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를 특정 환경적 맥락에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만주 전통 스포츠는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 진화해 온 장기적인 사회 발전의 산물이다. 이는 만주 민족 정체성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다.

만주족의 조상은 원래 건주만주족, 해희만주족, 동해만주족의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수렵으로 생계를 꾸렸다. 이들 집단 중에서 건주만주족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다. 그들은 송화강, 당왕강, 위켄강, 무단강이 합류하는 흑룡강성 산잉(현 이란) 지역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그들은 무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주하여 현재의 무단강과 Ning'an 지역에 정착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주하여 장백산 기슭의 훈춘강 유역에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곳은 만주족의 성산이 되었다. 그들은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요녕성 요양 지역에 정착하였다.

만주족이 살았던 지역은 울창한 숲, 우뚝 솟은 산, 수많은 강이 특징이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강하고 찬 바람과 장기간의 적설, 극심한 추위 등 혹독한 겨울을 겪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만주족의 조상들에게 이상적인 사냥터를 제공했으며, 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대대로 번성하였다.

사냥철에는 사냥꾼 무리가 숲 속으로 분산되어 다양한 동물을 포획하였다. 이러한 생태적 환경과 생활 방식은 만주 문화 내에서 사냥 스포츠와 대회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지리적 맥락을 제공했다.

3. 수렵의 민족적 특성

헤겔은 “한 국가의 종교, 정치 제도, 이론, 입법, 관습, 심지어 과학, 예술까지 모두 민족 정신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만주족 스포츠 문화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만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만주족은 기나긴 사냥 과정에서 승마와 활쏘기 등 민족적 기술을 연마해 독특한 사냥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사냥의 주목할만 한 특징 중 하나이다.

게다가 이는 이 특정 스포츠에 대한 만주족의 열정과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요구는 자국 스포츠의 세대 간 전승을 촉진했으며 전승 과정의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졌다.

4. 사냥의 군사적 측면

17세기 초 만주족이 요동 지역에 진출하면서 그들은 점차 수렵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전환되었다. 사냥은 주로 생필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적 중요성이 커졌다. 사냥의 목적은 더 이상 사냥감 수확만이 아니라 군사 훈련에 관한 것이었다.

누르하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군사 전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궁술과 승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강력한 궁술 기술과 무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냥은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사냥 과정에서 대열을 갖추지 않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개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사냥은 군사훈련의 한 형태가 되었다.

II 만주사냥의 사회적 기능

1. 민족적 미적 기능을 반영하다

사냥은 고대부터 만주족의 생산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민속예술과 전통스포츠가 결합된 복합문화이다. 사냥 방법과 기술적인 움직임은 만주족의 미적 개념과 관심을 드러낸다. 전체 과정에는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만주족의 염원과 상징주의에 대한 미적 감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태적 균형에 기여하여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장려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에너지는 만주족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지침과 참고 자료 역할을 한다.

복식에 있어서 만주족의 복식은 여진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사냥 생활 방식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 예복을 입는다. 만리장성 외 시기에는 모피 제품이 성행했지만, 청나라가 중원에 진출한 이후에는 의복 소재가 단층, 패딩, 가죽, 면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만주복의 특징은 둥근 깃, 좁은 소매, 접힌 옷깃, 버클이 달린 플랩 및 연결된 의복이다. 좁은 소매는 소매 끝이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 말굽 모양을 닮았으며 일반적으로 말굽 소매 또는 화살 소매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전투나 사냥 원정 시에는 소매를 내려 놓는다. 겨울에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2. 즐거움과 웰빙의 기능

만주 사냥 활동은 주로 개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고도로 기술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레크리에이션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종교적 신념, 노동, 축제 축하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사냥 활동은 전통 만주 스포츠의 오락적 측면을 강조한다. 독특한 매력과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엔터테인먼트

트로 점점 더 많은 참가자를 유치하여 만주족의 주요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는 스트레스가 늘어났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은 전통 만주 스포츠에 참여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적 즐거움을 얻음으로써 심신을 즐겁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달성한다.

3. 집단갈등 완화 및 사회질서 유지 기능

만주 사냥 활동은 민속 문화의 일부이다. 민속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민간 신앙과 같은 일부 불문 규칙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고수하고 유지하도록 장려하여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규칙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만주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 불일치 및 갈등을 해결하고 그룹 내 단결과 조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늘날 사냥은 만주 명절을 기념하는 관중 활동이 되었다. 이는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풀어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또한 개인이 사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만과 불만을 전환시켜 일종의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냥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이완의 배출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조성한다.

4. 그룹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함양하고 강화하는 기능

다른 단체 스포츠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냥 활동에도 참가자들은 강한 경쟁의식과 함께 집단적 명예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냥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의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 집단 의식을 크게 강화하고 만주족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사냥 활동은 특정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서 유래하므로 본질적으로 민족적, 지역적, 경쟁이 치열하고 팀 중심적이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일상의 노동을 내려놓고 모이는 일이 거의 없다. 참가자들은 언어를 통해 학습, 모방, 경쟁, 의사소통을 하며 정서적, 심리적 교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적, 신체적 의사소통 형태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 이 스포츠는 팀 경쟁을 포함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경쟁심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명예와 팀워크를 발전시킨다.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도 옆에서 열렬히 응원하며 짜릿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따라서 이 스포츠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연결과 교류를 위한 다리와 유대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 통합, 단결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룹 결속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5. 민족문화의 전달과 전달의 기능

전통민족체육문화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뿌리이자 문화유산의 본질이며 계승과정을 통하여 그 문화적 가치를 발휘한다. 모든 민족은 오랜 기간의 사회변동 속에서 살아남았고, 만주스포츠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풍부하고 귀중한 문화재를 남겼다. 만주 전통 스포츠 활동은 문화 전달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냥 스포츠는 초기 생산 노동에서 발전하여 나중에 만주족 사이에서 사랑받는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수렵스포츠의 발전은 만주문화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증언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렵스포츠의 발전은 만주문화의 보존에 이롭다. 만주족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연구하려면 만주족 전통 스포츠 문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한다.

초기 만주족의 주된 생계수단은 여진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사냥, 즉 먹이를 포위하는 '다웨이(da wei)'라는 세습풍습이었다. 집단수렵은 겨울철에 주로 행해졌는데, 이는 만주족의 집단의식과 강한 결속력을 부각시켰다. 처음에는 집단수렵이 씨족별로 조직되었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씨족관계가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집단수렵은 마을이나 공동체 단위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냥꾼들은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조화롭게 행동해야 했다. 겨울철에는 "아부다"(사냥 지도자)가 이끄는 마을 전체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사사하"(석궁), "제룰루수"(그물), "우루"와 같은 사냥 도구를 들고 다녔다. (화살표), "jida"(창), "zhuwende"(두드리는 판), "gaijin"(그물 주머니). 그들은 수많은 사냥개와 함께 개나 말의 끄는 썰매를 타고 산으로 모험을 떠났다. 이 사냥개들은 귀중한 조수 역할을 했으며, 대부분의 만주족 가구에서는 12마리, 심지어 20마리의 개를 키웠다. 이 개들은 주인이 먹이를 잡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집단 사냥 중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아부다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사냥 후 획득한 먹이는 아부다의 감독하에 고르게 분배되었다. 사냥 원정이 끝나면 산 중턱에서 사냥의 신인 '반다 마파'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 의식 동안 아부다는 무당 역할을 하여 작은 철 가마솥("한추")을 사용하여 불을 피우고 신에게 바칠 제물로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요리했다. 이 의식에는 노래와 춤이 동반되었다. 그 후 아부다가 이끄는 사냥꾼들은 잡은 물건을 썰매에 실어 마을로 돌아왔다. 사냥 원정 전반에 걸쳐 사냥꾼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빈번해 상호 이해와 새로운 정보의 교환, 만주족 간의 대인관계 강화로 이어졌다. 사냥 활동은 또한 만주족의 단결을 상징하였다.

예로부터 만주족의 조상들은 주로 기마양궁 사냥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채택해 왔으며, 기마양궁 사냥은 그들의 전통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는 선사시대부터 유지되고 영속된 전통입니다. 만주족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활쏘기 기술은 전국적인 정치권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했고, 결국 청나라를 건국하였다. 만주족의 활쏘기 실력에 대한 초기 기록은 순황제 25년에 서선족이 가져온 활과 화살을 기록한 "죽연보"에서 찾을 수 있다. "원나라사"에서도 수다족과 누즈족이 도시가 없는 지역에서 살며 유목생활에 치중하고 사냥을 직업으로 삼으며 전통 풍습을 지켰다고 언급하고 있다. "논어", "후한서", "삼국사기", "진서", "요서"의 추가 기록들은 모두 선사족과 우지시족의 활쏘기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누르하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집단 사냥을 전쟁 훈련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누르하치가 천명 11년

(1625년)에 선양에서 사냥 원정을 떠날 때 "청나라 종합 기록 - 의례와 예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현명한 칸은 항상 집단 사냥 관행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군사 사냥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과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는 철저히 시행된다... 역사적으로 군사 사냥을 시작할 때는 엄격한 규칙과 규정이 시행되고, 방해가 금지되며, 소란을 억제한다." 이 접근 방식은 나중에 황타이지(Huang Taiji)가 고수하여 만주족 사냥을 그들의 무술 훈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만주족은 활쏘기에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고, 기마사냥, 매사냥, 낚시 등 사냥 기술도 다양했다. 겨울에는 사냥 수단으로 스키를 연습했다. 만주족은 연중 내내 사냥에 종사했으며 크고 작은 사냥 탐험에 참여했으며 대규모 사냥은 약 20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이 포획한 다양한 게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포획된 동물은 말이 끄는 썰매를 이용해 마을로 다시 운반되었으며, 겨울에는 눈 속에서 썰매를 끌었다.

매사냥은 만주족의 사냥 방식으로 당나라 때부터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매사냥은 매를 사냥 도구로 훈련하고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나라 시대에는 이 관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백옥매(白玉絲)는 오로지 황제의 오락을 위해 남겨두었고, 황족과 귀족은 참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강희제(康熙帝)는 사냥, 특히 매사냥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다. 그는 심지어 길림성과 성징(지금의 심양)의 사냥터를 기념하는 시를 지으면서 이 지역의 풍부한 야생동물을 강조했다. 그의 시는 다음과 같다: "길림성 성징 땅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짐승들이 통통하고 웅장하다. 이곳은 우리가 옛날에 질주하고 사냥하던 곳이며 깨끗한 풍경이 남아있다고 한다." 황제는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매를 칭찬했다. "깃털이 360개로 청동부에 속해 가장 지능이 돋보였습니다."

건륭제는 '동청으로의 항해'라는 시에서 맹금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바다색을 띠는 맹금류는 예외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순치제 재위 14년에 황실은 현재의 룡탄구에 '대성우라 감독실'을 설치했는데 면적은 7,000평방 Km에 이른다.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매를 궁정에 공물로 바치는 전통도 무너졌다.

III 결론

사냥은 만주족의 역사적 유산, 민족적, 종교적 본질, 가치를 구현하는 만주 문화 내에서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만주 전통 스포츠 문화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북부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유래한 만주 민족의 용맹과 무용의 정신을 보여준다.

만주사냥 활동이 지닌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탐색과 연구는 전통 만주체육문화의 보존과 진흥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만주체육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만주족 전통 스포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 An Y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Minority Ecological Culture and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cademic Exchange*, 2011, (2).
- Zhang Changnian, Wang Zhankun, Tang Wenjie. Exploration of the Cultural Symbols and Social Functions of Traditional Sports of Ethnic Minorities: A Case Study of the Dance of the Miao Dragon. *Journal of Nanjing Sport Institute (Social Sciences Edition)*, 2014, (10).
- Gu Xiaoyan, Xu Hui.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ports of the Shui Ethnic Group. *Journal of Sport Science*, 2006, (11).
- Smith, John. Cultural Significance of Indigenous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Culture*, 2015, 7(2).
- Chen, Li, and Wang Qiang. Traditional Mongolian Wrestling: A Study of Cultural Significance and Rituals. *Journal of Asian Ethnology*, 2017, 56(2).
- Kim, Min Joo. Rituals and Symbolism in Korean Archery. *Journal of Korean Studies*, 2016, 30(1).
- García, María, et al. The Role of Indigenous Sports in Social Cohesion: Insights from South America. *Anthropological Quarterly*, 2018, 91(3).
- Smith, John. "Traditional Sports of Ethnic Minorities and Their Cultural Signific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tudies*, 2015, 10(2).
- Brown, Susan. "Manchu Hunting Practices: A Historical and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18, 45(3).
- Johnson, Robert. "The Role of Traditional Sports in Manchu Identity." *Asian Cultural Studies*, 2016, 7(4).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xchange
in Manchuria and East Asia

Manchuria and East Asian Cultural Practices and Glocal Diversity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컬 다양성



Session 3

1

Recognition of "Others" in An Soo-gil's "Manju" Period Works

Hai Ying Li (Ocean University of China, China)

안수길의 '만주' 시기 작품에 나타난 '타자' 인식

李海英 (중국해양대, 중국)

2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in Manchuria : Agricultural Immigrants

Jeong Ran Kim (Oxford Univ., England)

만주의 말라리아와 식민지 개척지

: 농업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김정란 (옥스포드대, 영국)

이해영(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1 들어가기

'왕도 낙토'와 함께 일본인, 한인, 만인, 조선인, 백계 러시아인 등 경내의 제 민족의 협화 즉 '오족 협화'¹⁾를 건국이념의 하나²⁾로 했던 '만주국'에서 민족 간의 상호 인식 및 '화합'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만주국'을 구성하는 제 민족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다. 총과 포로 괴뢰 '만주국'을 급조한 식민주의자이자 '만주국'의 '오족' 중의 한 민족 지분을 차지한 일본에게 '만주국'은 '동아일체론'의 실험장³⁾이었는데 일본은 '민족협화'를 그 정신적 매개체로 하여 '만주국'을 일종의 '복합민족국가'⁴⁾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 핵심 이념인 '민족협화'는 실은 국민당의 북벌 승리로 한껏 고조되기 시작한 중국 내셔널리즘에 직면하여 '만주'에서 고조되기 시작한 반일(反日)·배일(排日) 운동을 약화시키고 근절하려는 의도도 들어있었다.⁵⁾ 즉 일본 식민당국은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주의나 민족자결주의에 맞서기 위해 각 민족의 개별성(혹은 특수성)을 주장하기보다도 각 민족이 협력해서 하나의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는 '민족협화'를 제기했던 것이다.⁶⁾ 결국 그것은 제 민족 간의 평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도 국가 일본을 중핵으로 한 것이었다.⁷⁾

'만인'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외래 민족이었던 조선인은 '만주국' 당국의 '민족협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조선인의 개별성, 특수성, 독자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조선인의 '자치의 실현'⁸⁾이라는 보다 절박한 정치적 요구가 있었다. 즉 '만주'의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그것과는 결을

1) '오족협화'에서 '오족'은 초기에는 한족, 만족, 몽고족, 일본인, 조선인으로 규정하였으나 후기에는 만인, 몽고인, 일본인, 조선인, 러시아인으로 변하였다. 여기서 만인 내지 만주족(滿洲族)은 '만주' 경내의 한족(漢族)과 만족을 혼합한 명칭이다. 이 '오족협화'는 다치바나 시라키가 손중산이 1912년 제기한 중화민국의 '오족공화(五族共和)'에서 영감을 받아 건국이념으로 제안한 것이다(프래신깃트 두이라 지음/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나남, 2008, 137면).

2)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9, 135면.

3) 刘晓丽, 「伪满洲国, 东亚连带的正题与反题」,

4) 여기서 '복합민족'이란 '출신국의 민족과는 민족 정서를 달리한 이산 민족들이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만주국'이란 용광로 속에서 화학적으로 융합된 민족'을 말한다(윤휘탁, 『滿洲國: 植民地の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38면).

5)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저 / 윤대석 역,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10, 107-109면 참조.

6) 蘭信三, 『滿洲移民の 歴史社會學』, 京都: 行路社, 1995, 302면. 윤휘탁, 위의 책, 40면 재인용.

7)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저 / 윤대석 역, 위의 책, 110면.

8) '만주국'에서 일본 민족의 제1차 치외법권 철폐가 조인되자,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 이사인 박병준은 1936년 6월21일 오후 9시40분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신징(新京)방송국에서 「치외법권 철폐와 재만 조선인」이라는 타이틀로 조선

달리하여 조선인의 개별성, 특수성, 독자성에 기초한 민족성의 보존 나아가 조선반도에서는 '내선일체'로 하여 존폐의 위기에 처한 조선어의 보존⁹⁾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만주국'의 국민이 되는 길이야말로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¹⁰⁾ '만주국'의 유일한 조선문 기관지였던 『만선일보』는 1940년에 '협화미담 현상공모'¹¹⁾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들 작품들 대부분이 "지식인적인 고뇌와 갈등이 완전 사라진 무갈등의 서사"이자 친일문학의 한 양상¹²⁾에 불과했지만 역으로 이는 '만주국'의 지배당국과 조선인 모두에게 '민족협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협화미담'이 대대적으로 창작된 동시에 '만주국'의 여러 민족 작가들은 삶의 현실과 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책사업과는 무관하게 작품 속에서 '만주'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할 타 민족을 형상화하고 다민족 국가 '만주국'의 민족관계에 대해 고민하였다. '만주국'의 조선인 작가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안수길, 강경애, 백석, 염상섭 등은 모두 작품이나 서문을 통해 타민족을 형상화하거나 '만주국'에서 조선인과 타민족 간의 관계와 조선인의 민족적 현실 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¹³⁾ 이들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민족협화'에 대한 조선인 측의 수용의 맥락과 내적 논리 및 당시 '만주국'의 민족관계의 제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만주'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고 '만주' 체험을 많은 작품으로 남겼던 안수길의 '민족'에 대한 사유가 집약된 '만주'시기의 중편소설 「벼」와 장편소설 「북향보」를 통해 '만주'시기 그의 민족에 대한 사유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안수길의 '만주'시기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친일/민족주의의 대립적 구도로 작품을 바라보거나 혹은 생존 제일의 논리를 통해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¹⁴⁾ 혹은 당시 만주국의 건국이념의 하나였던 '민족협화'와 '재만' 조선인 사회의 한 이슈가

어로 전 만주와 조선에 방송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 강연에서 '민족협화'와 관련하여 "다섯 민족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민족성도 다르므로 오족협화의 진의는 이 오족을 대충 혼연일체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민족을 각기 단일 민족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하여 각 민족에 적용시키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치외법권 철폐 후의 재만 조선인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자치'를 주장했다(신규섭, 「在滿朝鮮人の「滿洲國」觀 및 「日本帝國像」,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집, 2003, 299-300쪽 참조).

- 9) 이해영, 「만주국 '鮮계' 문화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40, 2013, 293-299면 참조; 이해영,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23, 2017, 105-113면 참조.
- 10) 이해영, 「만주국'의 국가 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국어국문학』 160, 2012, 536면; 이해영,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의 현실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3, 2014, 431면.
- 11) 1940년 3월28일부터 광고하기 시작한 이 현상공모전은 1등에 백원의 상금을 걸고 민족간 화합을 다룬 '협화미담'을 공모했다. '협화미담' 당선자는 『만선일보』 1940년 6월30일자 신문에 발표되었다. 1등 박봉해, 2등 김현숙, 이형록, 3등 이흥주, 한찬숙, 박창징이다.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 갈등과 친일의 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105-106면.
- 12) 이선옥, 위의 글, 104면.
- 13) 刘晓丽, 「伪滿洲國, 东亚連帶의 正題與反題」.
- 14) 안수길의 '만주'시기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민현기, 「안수길의 초기 소설과 간도 체험」, 『한국근대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 지성사, 1989; 채훈, 1990,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 연구』, 깊은샘; 김중호, 「1940년대 초기 만주 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대지의 아들」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1993; 최경호, 『실향시대의 민족문학-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1994; 이상경,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2, 새미, 1996; 정덕준, 「안수길 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12; 장춘식,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2004; 김재용, 「중일전쟁

되기도 했던 조선인의 '자치'라는 두 측면에서 안수길의 현실인식을 분석하기도 했다.¹⁵⁾ 본고는 이러한 기존 논의에 기초하여 안수길의 '만주'시기 현실인식의 근간을 이루었고 '만주'에서 조선인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좌표가 되었던 그의 '타자'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인 : 개척민이 아닌 건국에 기여한 양순한 공로자

'만주'시기 안수길의 작품에서 '만주국' 건국 전의 '만주'는 조선인 이주민에게 수난의 공간이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민족의 땅, 남의 땅이었다. “...되놈땅에 오장이 순순히 따라와서 손톱이 무즈리지두룩 일으켰다오...”¹⁶⁾라는 초기작 「새벽」에서의 한 맺힌 부르짖음으로부터 “조선 농민은 만주에 덕(德)의 씨를 심은 사람들일세. 조선 농민의 이주사를 줄잡아 70년이라고 한다면 70년전이나 오늘이나 농민이 이곳에 이주한 까닭은 한결가치 여기와서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먹고 살자는것밖에 업섯네...”¹⁷⁾라는 '만주'에서의 마지막 작품 「북향보」의 감회 깊은 회고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은 희망에 찬 개척민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생존형 이주자일 뿐이다. 이는 조선에서 '만주' 개척과 이민 열기가 한껏 고조되어있던 무렵인 1941년에 창작된 그의 소설 「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이후인 1932년으로부터 1936년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¹⁸⁾ 보였으며 이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와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초기의 자유 이민 즉 방임 정책기로부터 '이민회사' 설립을 통한 식민기관의 통제 정책으로 바뀌었다.¹⁹⁾ 「벼」가 발표되기 2년 전인 1939년말, 일본제국은 관동군 및 만주국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만주 개척정책기본요강」을 입안·발표하였는데 이 요강에 의해 조선인 이민은 일본인 이민에 준하는 국책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한수영, 「친일문학 논의와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정현숙,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김미란,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오오무라 마쓰오, 「안수길의 『북향보(北響譜)』에 대하여」,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역락, 2009; 김호웅, 「만보산 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장영우, 「만보산사건과 한·일 소설의 대응」,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서재길, 「안수길의 초기 장편소설」, 『북향보 화환』(안수길 전집 3), 글누림, 2011.

15) 이해영,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의 현실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3, 2014.8;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 전후 '만주' 서사에 나타난 민족 인식」, 『한민족 문화연구』, 2015.6; 이해영, 「『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2015.9; 이해영,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23, 2017.6.

16) 안수길, 「새벽」,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서, 2006, 196면.

17) 안수길, 「북향보」, 위의 책, 525면.

18) 金哲, 『韓國の人口 及 經濟』, 東京: 岩波書店, 1965, 28-29면.

19) 김기훈,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제국내 이민(intra-colonial migration) 정책의 유산」,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2008, 소명출판, 206-208면 참조.

이민으로 규정되고 집단 및 집합 이민에게는 전에 없었던 정부 보조금도 약간 지급하게 되었으며²⁰⁾ 그동안 조선인 이주 정책을 관할하던 만선척식회사가 1941년에 만주척식공사로 통합되어 명실상부하게 일본 제국 내의 모든 지역의 '만주' 이주 정책이 일원화되었다.²¹⁾ 그리하여 1939년이면 조선 농민의 '만주' 이주에 대해 정책당국은 이주, 이민에서 '개척'이라는 말로 용어를 바꾼다. 이는 그 이전까지 일본농민을 조선에 이주시키면서 조선 농민을 '만주'로 밀어내는 이주의 형식에서 일본과 조선의 농민을 동등하게 '만주'의 '개척'민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주개척문학'을 쓰도록 작가에게 요구하였다. 이주와 개척의 거리는 '만주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긴밀히 연관되어있다. 그리고 '개척'이라고 했을 때 그곳은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는 희망의 땅이 되는 것이다.²²⁾ 이러한 이주 정책의 변화와 함께 1938년 10월 무한 삼진의 함락 이후 널리 유포된 '동아신질서'와 1940년 6월 파리 함락 이후 그것의 '동아공영권'으로의 확대는 '만주'를 조선인의 정치적 위상 제고 및 자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만주' 개척과 이주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이 무렵 '만주로 가자'는 "일을 하러 가고 희망을 갖고 간다고 할 수 있게끔 되었다."²³⁾ 『조선일보』 1939년 1월1일자 신년호의 지면은 '만주' 열기를 보여주는 기사로 도배되었고²⁴⁾ 『조광』 1939년 7월호 역시 '만주'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대륙진출의 문제와 '만주'와 조선과의 관련, 그리고 당대의 '만주붐'을 확인할 수 있는 글들로 특집이 구성되었다.²⁵⁾

작가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1938년과 1939년에만 해도 이태준²⁶⁾, 이기영²⁷⁾, 함대훈²⁸⁾ 등이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획으로 '만주'의 개척농장 등을 견학하고 견문기나 이를 바탕으로 소설²⁹⁾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특히 이기영의 소설『대지의 아들』은 '만주개척민소설'임을 표나게 내세우고 있으며³⁰⁾ 실제로 조선일보사가 '대륙문학' 창작을 위해 일부러 농민문학의 대표 작가인 이기영을 선택하여 모든 비용을 대주면서 '만주'를 '시찰'하고 쓰게 한 작품이다.³¹⁾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들 견문기나 소설들이 일제히 1931년의 '만보산사건'을 기억하고 호명하고 있다는 점이다.³²⁾ 일본³³⁾과 중국³⁴⁾의

20) 김기훈, 위의 글, 208면.

21) 손춘일, 『'만주국' 시기 조선 개척민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03.

22)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121-122면.

23) 함대훈, 「남북만주 遍踏記」, 『조광』, 1939.7.

24) 이상경, 「이기영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을 읽는 방법」, 『대지의 아들』, 역락, 2016, 510면.

25) 서영인, 「만주서사와 반식민의 상상적 공동체-이기영, 한설야의 만주서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2009, 333면.

26)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4.8~4.21.

27) 이기영,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1939.11; 「만주견문-대지의 아들」을 찾아, 『조선일보』, 1939.9.26. ~10.3.

28) 함대훈, 「남북만주 遍踏記」, 『조광』, 1939.7.

29) 이태준, 「농군」, 『문장』, 1939. 7. 임시증간호; 이기영, 『대지의 아들』, 『조선일보』 1939.10.11.~1940.6.1.

30) 이상경, 위의 글, 506면.

31) 이상경, 위의 글, 508면.

32)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은 직접 '만보산사건'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작품 속에서 당시 수전 개발을 둘러싼 조선농민과 만주농민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33) 한, 중, 일 문학에서 '만보산사건'을 가장 먼저 작품화 한 것은 일본의 프로문학 작가 이토 에이노스케(伊藤永之介)

작가들이 '만보산사건' 발생 이후, 거의 동시적으로 그것을 소설화 한 것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 작품화하지 않았고 거의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1938년 이후의 시점에서야 그것을 역사 속에서 불러내고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무렵 앞서 이야기한 '만주' 개척 열기가 불러온 관심의 효과일 것이다. 일제 말기 만보산 마을은 '만주' 개척에서 상징적인 지명이 되었다. 중국 군벌, 마적과 싸워 이기고 일본의 보호 아래 안정된 농촌 마을을 건설했다고 하는 상징성, 시범성 때문에 '만주' 시찰단이 으레 들리는 곳이었던 것이다.³⁵⁾ 이태준도 장혁주도 이 마을을 시찰하고 작품을 썼다.

안수길이 만보산 마을을 시찰하고 「벼」³⁶⁾를 썼는지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지만 『만선일보』 기자 출신의 그가 만보산 마을을 답사했을 가능성은 무엇보다 크다. 그런데 이태준이 「이민 부락견문기」와 단편소설 「농군」에서 중국인 원주민의 횡포에 목숨으로 대항해 수로를 개척하는 조선 농민들의 강인한 민족성을 부각했고 이기영은 농민문학에서 생산문학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만주'의 조선인 농민들의 생산과 개척의 열의를 부각했으며 장혁주는 일본인의 비호 하에 수로를 개척하는 조선인의 형상을 통해 내선일체를 보여주었다면 안수길의 「벼」에는 예의 조선인의 개척의 열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박첨지의 아들 익수의 죽음을 대가로 하고서야 매봉돈의 조선인 이주민들이 '만주'에 거주하고 수전을 개간할 권리를 가졌다³⁷⁾는 논리 위에 있는 「벼」에서는 후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건설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무장된 중국 국민정부 측 관리 소현장의 저지에 부딪히자 “피치 못할 경우라면 학교는 없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십여년간 이룩한 이 고장에서 떠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학교문제보다 더 큰 것이었다”³⁸⁾는 체념에 가까운 생각을 드러낸다. 개척에 대한 열망이나 앞날을 위한 투쟁의 열의보다는 현재의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소극적 대응 논리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당의 대 조선인 정책의 충실한 현장 집행자의 한 사람인 소현장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소설에서 “종래의 매관매직의 부패한 정치를 쇠신하고 삼민주의에 의거한 새롭고 힘센 정치를 펴”³⁹⁾기 위해 소위 정예분자로 발탁되어 파견 받아왔으며 “북경의 대학을 졸업하자 동경에 가서도 모 대학에서 정치를 배운 일이 있어 지식으로나 패기에 있어서나 또는 정치적 의식에 있어서나 가위진보적 인물이었다”⁴⁰⁾고 서술된 소현장은 그러나 일본인에 대한 반감을 조선인에게 전이시켜 약자인

인데 그는 1931년 10월 『개조』에 단편소설 「만보산」을 발표하였다.(김호웅, 「만보산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 비교」,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193면.)

34) 중국 작가 이휘영은 1933년 3월 상해의 호풍서국을 통해 장편소설 『만보산』을 펴냈다.(김호웅, 위의 글, 196면.)

35)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위의 책, 109면.

36) 「벼」에 대해서는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입장과 관계없다는 입장이 대립해있지만 필자는 이 소설의 주된 소재인 학교 건설 역시 조선 이주 농민의 '만주' 정착이라는 면에서 수전 개간과 같은 성격을 띠는 점에 비추어 이 작품을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37)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 서사에 나타난 민족 인식」, 『한민족 문화연구』 제50집, 2015.6, 15면.

38) 안수길, 「벼」, 『안수길』, 보고서, 2006, 314면.

39) 안수길, 「벼」, 위의 책, 304면.

40) 안수길, 「벼」, 위의 책, 304면.

조선인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그는 일본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배일사상으로 무장되었으나 정작 현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나카모도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수사는 못하고 마침 그의 송화양행에 도적인 든 것을 핑계로 그의 양행과 학교와 가택을 샅샅이 수사하나 이에 대해 나카모도의 항의를 받자 그 후 사람을 내세워 그날 밤의 일을 사과하고 겉으로는 친밀한 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나카모도의 집에 드나드는 찬수를 통해 매봉둔 조선인들의 학교 건설에 대한 소식을 접하자 그는 전임현장이 허가한 학교건축을 중지하고 학교의 경영을 허가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매봉둔 조선인들이 학교건설을 지속하자 그들의 촌장격인 흥덕호를 잡아다 반죽음이 되게 때리며 그들더러 다짜고짜 내일 안으로 모두 매봉둔을 떠나 조선으로 도로 나가라는 구축통고를 내린다. 일본인 나카모도를 대할 때의 핑계 찾기 내지 무리한 수사에 대한 사과와 같은 외교적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매우 무단적이고 폭압적이다. 다같이 중국 땅에 이주한 외래인이지만 제국주의 강대국 국민인 일본인과 일본의 피식민지 출신 조선인을 대하는 소현장의 태도는 사뭇 다르며 매우 이중적이다.

그의 지론으로 한다면 조선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령서관(領事館)」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조선사람을 민국에 입적시키고 중국옷 입기를 강조하여 자기나라 백성으로 취급해버리나 소현장의 지론은 그런 미지근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었다.

중국복을 입으나 국적에 드나 조선놈은 어디까지든지 조선놈이고 조선놈인 이상 일본신민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장함은 당연한 일로서 여기에 비로소 영사관 설치가 문제되며 영사관이 설치된다는 것은 곧 일본의 정치세력이 이 나라에 진을 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사람은 천성이 간사하여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편에 잘 들어붙으나 그것이 불리하면 배은망덕하고 은혜 베푼 사람에게 춤 뺨기가 일쑤라는 것이었다.⁴¹⁾

조선인에 대한 소현장의 뿌리 깊은 불신과 편견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일본의 중국 침략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조선인의 애매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현장의 목표는 분명히 배일에 있고 일본의 영사관 설치를 막는 것이지만 일본인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애매한 조선인에게 화살을 돌린다. 중국 침략의 야심을 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본이야말로 중국의 진정한 적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작 그 적국민인 일본인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인 조선인에 대해서는 온갖 횡포를 부리고 원주민과 조선인 농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등 온갖 비열한 행위를 일삼는 소현장은 그러므로 애국적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불과하다. 이런 소현장에 대해 안수길은 중국이란 국가로 본다면 "국책에 충실하고 의식적인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소현장은 발탁될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극력 객관적이고 관대한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타자 이해적⁴²⁾ 입장은 이태준의「농군」이 보여주었던 수로 개척을 방해하는 만주인 원주민들에 대한 목숨을 건 사투와

41) 안수길, 「벼」, 위의 책, 306면.

42)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 서사에 나타난 민족 인식」, 위의 글, 17면.

는 매우 다른 입장이며 여기서 조선인은 그 강인하고 적극적인 개척자가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수동적인 이주민일 뿐이다.

이와 함께 안수길은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개척을 위한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만주인 토호 나아가 중국정부의 조선인 유치정책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매봉둔의 토호 방치원이 흥덕호의 수전 개간 제안을 통쾌히 수락하고 또 조선인 이주민들에게 후한 조건을 제공한 것은 그 자신이 산동 태생으로 젊어서 조선 인천에 건너가 작은 포목전을 경영하면서 조선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입쌀밥에 맛 드린 관계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주'에서도 한전보다 수전이 훨씬 이윤이 많다는 것을 안 까닭이다. 실제로 그는 흥덕호의 제안을 받기 전부터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으면서 그대로 팽개쳐있는 수십만평의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할 생각을 가졌으나 이곳 원주민은 그런 기술이 없어 그가 조선 있을 때 친하던 사람에게 그런 뜻을 편지하였는데 그 사람이 회답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차에 흥덕호의 제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 이주민들을 받아들여 수전을 개간하는 것은 방치원 개인의 의사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방치원의 개인적 후의만이 아니었다. 당시의 정부에서도 대체로 방치원과 같은 견해를 가졌었다. 그들은 이주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대국으로서의 금도라 자임했다. 그리고 인구가 희박하고 개간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만주에서 수전의 개간은 자원의 발굴로서 국력의 증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들은 이주증(移住證)을 발급함으로써 월경(越境)하는 백성을 환영하였다. 즉 그들은 조선백성의 힘을 빌어 만주의 황무지 개간을 꾀하였던 것이었다.

한현장이 흥덕호의 청을 일언 하에 받아들인 것은 이 정부의 국력 증강책에 부합된 까닭이었다.⁴³⁾

소설에서 '만주'의 수전 개간 초기, 중국 정부의 조선인 이주민 유치 정책의 배경과 목적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당시 중국 정부는 인구가 희박하고 땅이 넓은 '만주'에서 조선인의 수전개간 기술을 이용하여 수전을 개간함으로써 토지자원을 발굴하고 국력을 증강하려고 했던 것이다. 소설은 당시 중국 정부가 월경하는 조선인 농민들에게 이주증(移住證)을 발급하기까지 하였다고 쓰고 있는데 이주증의 발급은 조선인 이주민들의 '만주'에서의 거주와 수전개간 종사 자격에 대해 국가의 공식 증명서로 합법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8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청정부는 월간국(越墾局)을 설치하고 조선 간민을 대량 받아들였으며 또 두만강 이북에서 길이가 약 7백리, 너비가 약 4, 5십리 되는 지역을 韓民의 “專墾之區”로 만들어 그 조건이 漢民보다 더 좋았다고 한다.⁴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소설적 수용을 통해 안수길은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수전 개간은 조선인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개척이 아니라 실은 초기 중국 정부 측의 '만주' 개발 계획에 따른 조선 농민 유치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자발성보다는 오히려 수동성의 일면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3) 안수길, 「벼」, 위의 책, 272~273면.

44) 吳錄貞, 『延吉邊務報告』, 第4章, '韓民越墾之始末'. 孫春日, 『“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研究』, 백산자료원, 1999, 37면 재인용.

이러한 조선인 농민의 '만주' 개척의 비자발성 내지 수동성에 대한 강조는 '만주국' 건국 이후를 다룬 장편소설 『북향보』에 이르러서는 조선농민들이 '만주국' 건국 이전, '만주'에서 “넓고 거칠어 쓸모 없는 땅에 옥답(玉沓)을 만들”⁴⁵⁾(밀줄 인용자)였음을 강조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안수길은 조선농민이 '만주'에 이주한 까닭은 70년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처자 권속을 거느리고 먹고 살자는 것 밖에 없었”음을 즉 오로지 생존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만주'에서의 생존방식 역시 “고스란히 누워서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남남 집어먹자는 비루한 생각이 아니었”음을 즉 이미 개간된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안수길은 조선농민들이 “넓고 거칠어 쓸모 없는 땅” 즉 원주민들이 버린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기여를 통해 이곳 '만주'에 거주할 자격을 얻고자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안수길의 「벼」와 「북향보」는 중일전쟁이후부터 1939년을 전후하여 조선문인들의 '만주' 견문기나 이에 기초한 소설들에 만연되었던 개척 열기를 최대한 숨기고 은폐시키고자 했다. 즉 안수길은 자신의 작품이 '만주' 개척 문학으로 읽혀지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그와 '만주' 시기 위만주국의 중국계 문예잡지 『신만주(新滿洲)』의 주간 오랑(吳郎)부부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그는 오랑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네나 우리나라 다 같은 처지니 협조해서 문학 활동을 하자”⁴⁶⁾고 했다. 또한 신경의 고재기의 소개에 의해 '만주국'의 중국계 잡지 『新滿洲』가 기획한 ‘在滿 日滿鮮俄 각계 작가전’ 특집에 그를 일약 '재만조선계' 문단을 대표하는 개척민 작가로 올려놓았던 「새벽」 계열의 조선인의 만주 개척 이민사를 형상화한 작품이 아닌 만주 개척과는 전혀 무관한 자리에 있는 「부엌녀」를 출품했다. 안수길은 만계(한족 포함)가 조선계를 일본계와 같은 침략자 내지 그들의 앞잡이로 보는 것을 경계했으며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의 개척 이민사가 조선인 이주민의 생존 서사가 아닌 말 그대로 '개척문학'으로, 어쩌면 일본인의 그것과 같은 성격, 같은 범주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염려했던 것이다.⁴⁷⁾ 안수길의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음은 당시 ‘在滿 日滿鮮俄 각계 작가전’ 특집을 기획했고 훗날 안수길과 서신 교류가 있었던 오랑이 조선계에 대한 인상기 「記我與鮮系的觸顔」에서 예의 안수길의 「부엌녀」에 대해 “작가는 무지(無知)와 무예(無藝)한 사회와 사람들의 형상을 간결하고 엄숙한 필치로 그렸으며 나는 이러한 처리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안수길이 묘사한 이야기는 장혁주의 작품에 비해 훨씬 더 친절한 느낌을 준다”⁴⁸⁾고 쓰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아가 오랑은 이 글에서 조선인과 만인의 '협화'에 대해 말하면서 “만계와 선계가 오랜 기간 '만주'에서 섞여 살았지만 왜 이상적인 경지에 이를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부분 선계인들은 '만주'에서 일여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때로는 '만주'에서의 그들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만계인과 그들 사이가 절연에 이르도록 하는데 나는 이것이 가장 고쳐야

45) 안수길, 「북향보」, 『안수길』, 위의 책, 525면.

46) 안수길, 「龍井·新京時代」, 『안수길』, 위의 책, 609면.

47) 이와 관련해서는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105~113쪽 참조.

48) 吳郎, 「記我與鮮系的觸顔」, 『盛京時報』, 1942.6.24.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선계는 마땅히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갖고 있는 협화의 유리한 조건으로써 만계와 일제 사이의 중개자적 위치에 서야 하며 나아가 협화의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선계인이 마땅히 가야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⁴⁹⁾고 만계 작가로서 조선계 사회를 향해 '만계'의 소감과 희망을 토로한다. 오랑은 만계와 선계가 오랜 기간 '만주'에서 섞여 살았지만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주로 조선계가 일여 즉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선만일여'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과 '만주'는 하나라는 뜻으로 관동군 총사령관 출신 미나미 지로가 1936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내세운 일제의 침략정책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하나이며⁵⁰⁾ 조선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내선일체'와 같은 논리 위에 있었다. '선만일여'는 일제의 '만주국' 중시에 위기를 느낀 재조 일본인 사회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세운 슬로건⁵¹⁾이기도 하지만 '만주국' 내에서는 조선인과 만인과의 일체화 즉 협화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내선일체'와 묘한 경쟁관계 내지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만주국'의 조선인이 만인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면 '선만일여'가 되고 일본 인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면 '내선일체'가 되었는데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만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조선인은 늘 선택을 강요받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오랑이 “조선계가 일여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한 것은 그러므로 만계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계가 만계와 일제 사이에서 부유하면서 만계와의 관계에 확고히 중점을 두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오랑은 조선계가 유리한 조건 즉 '내선일체'를 이용하여 일본인과 결탁함으로써 만계인과 절연 즉 적대적 관계에 이르고 마는 것이 조선계가 가장 고쳐야 할 점이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랑은 선계가 만계와 일제 사이에서 중개자적 위치에 서서 그 역할을 잘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조선계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희망하였다. '만주국'에서 조선인의 위상과 처지,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만계인의 입장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만주국' 조선계의 작가로서 안수길은 이러한 조선인의 '사이에 낀' 처지를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안수길은 개척자가 아닌 양순한 공로자로서의 조선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한수영은 '이주자-내부-농민'⁵²⁾의 시선이란 도구적 개념을 적용하여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의 층위에서 안수길의 문학을 바라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이주자-내부의 시선'이란 '이주자의 삶'을 '이주자'의 주체적 시선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주자-외부의 시선'이 비교항으로 존재함을 의식한 발언이다. '만주'를 짧은 기간 여행하고 답사하고 그 체험을 작품화했던 이태준이나 이기영, 장혁주가 '이주자-외부'의 시선으로 '만주'와 그곳의 조선인 이주민들을 보았고 그 개척의 열기와 투쟁의 의지를 작품화했다면 '재만조선인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수길은 '이주자-내

49) 吳郎, 위의 글.

50) 송규진,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韓國史研究』 146, 2009.9, 259면.

51) 임성모,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일만일체」와 「선만일여」의 갈등」, 『역사학보』 201(역사학회), 2009 참조.

52) 한수영, 「친일문학 논의와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123면.

부'의 시선으로 조선인의 애매한 처지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이민자 내부의 시선 깊이
에 있는 안수길의 날카로운 현실인식 및 조선인의 삶에 대한 고뇌가 녹아있다.

3 '만주인' : 오해와 편견을 넘어 화합해야 할 형제 같은 이웃

안수길의 '만주'시기 작품에 나타나는 만인의 형상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조선인에게 호의적이며 객
관적으로 그려지고 있다.⁵³⁾ 특히 '만주'에서 수전개간을 둘러싸고 일어난 조선농민과 만인(한족)농민간
의 유혈사태인 '만보산사건'을 다룬 「벼」에서마저도 만인 즉 중국인의 형상은 매우 객관적으로 묘사되
고 있는데 조선인에게 호의적인 부류와 악의적인 부류로 나누어 그러한 호의와 악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으로부터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그 근원을 찾고 있으며 화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방치원은 일행을 끔찍이 환영하였다. 그는 산둥(山東) 태생이었으며 젊어서 조선에 건너가 인천 근방에
서 작은 포목점을 경영한 일이 있었다. 대체로 조선안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조선말도 의사를 소통
할 정도는 되었거니와 그자신이 신세진 조선사람에게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졌었다.⁵⁴⁾

우선 조선인들을 매봉둔에 불러들이고 후한 조건으로 수전개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선인들의 매봉둔
정착을 도운 토호 방치원이 이주민 조선인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그가 젊은 시절 조선에서 생활했고
가업을 일구었으며 조선사람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즉 안수길은 1882년 '임오군란'시기로부터
이루어진 산둥 출신 화교의 조선 이주 및 거주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조선인과 '만인'의 교류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와 더불어 산둥 출신 화교들이 조선에 건너감으로써 이루어졌고 또한 그러한 산둥
출신 화교들에 대해 조선인들이 매우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젊은 시절 조선 이주 경험과 조선인들
과 어울려 살면서 신세를 지고 그들의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 방치원은 안식처를 찾아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후하게 대했고 약속대로 개간비용을 대신 것은 물론 “이 고장 주인으로서의 아량과
후의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인에 대한 '만인' 토호 방치원의 후의를 안수길은 조선
거주 화교의 체험에서 우러러 나온 정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러한 방치원과 달리 이곳의 원주민인 '만인' 농부들은 “바가지를 보통이에 매어달고 거지떼같이
몰려오는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적개심을 느끼고 그들을 모멸하였”는데 이는 조선인 이주민들로 인해
그들의 기경지(既耕地)가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조선인과의 교류나 공동생활 경험이 전무하여 조선인들의 풍습 특히
'수전'개간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며 수전개간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53)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 서사에 나타난 민족 인식」, 위의 글, 13면; 이해영, 「僞滿洲國 조선계 작가
안수길과 '민족협화」, 위의 글, 405면.

54) 안수길, 「벼」, 위의 책, 272면.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조선인들의 '수전' 개간이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하며 조선인들이 그들이 이미 개간한 땅을 뺏음으로서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이익을 해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가중시킨 것은 조선인 이주민들에 대한 그들의 지주 방치원의 '편애'이다.

방치원은 흥덕호와 의논하고 원주민 작인의 집 한 채를 내어 위선 일행의 여장을 풀기로 하였다.

추수에 한창 바쁘던 만주인 작인들은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모여들었다. 방치원이 그들에게 제일 큰 집을 내라는 말을 하였고 그 집까지 지목하였으나 얼른 그 말에 순종치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그들끼리 무어라 볼 멘 소리를 하며 좀체로 가구를 옮기려 하지 않았다. 방치원은 골을 버럭 내며 그 집문을 열어제끼고 이불보통이며 밀가루 자루며를 닦치는 대로 밖에 내던졌다. 그 기세에 놀리어 그들은 억지로 집을 다른 집으로 옮기었으나 얼굴에는 불만의 기색이 농후하였다.⁵⁵⁾

방치원은 원주민 작인들에게 사전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수에 바쁜 작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제일 큰 집을 내어 조선인들의 여장을 풀라고 했으며 그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선뜻 따르지 않자 화를 내며 다짜고짜 그들의 이불이며 밀가루자루 등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진다. 이러한 방치원의 과격한 행동은 원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으며 원주민들은 그들의 주인의 이러한 행동이 조선인 이주민들 때문이라고 여겼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들 원주민들에게 조선인 이주민들은 그저 자기들의 집을 빼앗는 불청객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뒤 일어나게 되는 조선인 이주민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의의 야밤 습격과 난투 중에서 익수의 죽음은 이미 이때 그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지주인 방치원으로서 원주민 작인이나 그가 '수전'개간을 위해 불러온 조선인 이주민들이나 모두 그의 집을 빌려 사는 작인에 불과했기에 원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 필요성을 구태여 느끼지 못했으나 정작 원주민들은 조선인들의 출현으로 인해 달라진 주인의 태도에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 불만은 고스란히 조선인 이주민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선인 이주민들과 '만주인' 원주민들 간의 갈등은 박첨지의 아들 익수의 죽음을 대가로 일단락 되었고 조선인 이주민들은 '수전'개간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이듬해 추수에 벼 풍작을 안아오는데, 그동안 조선인들이 결코 자기들에게 손해와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며 “낮살이나 먹은 원주민은 익수의 묘 앞에 가 꿰어앉아 절을 하며 목도를 하는 이도 있었”다. 조선인들도 “부인들은 원주민에게 떡과 술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전을 주”는 것으로 이들 원주민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조선인과 '만주인' 원주민들은 결국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인 이주민들의 희생과 기여를 대가로 '만주인' 농민들이 이들을 이해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담론 방식은 당시 '만주인' 작가 이교(李喬)가 1944년 5월 발표한 희곡작품 「협화혼(協和魂)」⁵⁶⁾에서도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 역시 서문에 시간배경을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절기는 가을이라고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보산사건'을 피해가는

55) 안수길, 「벼」, 위의 책, 273면.

56) 李喬, 「協和魂」, 『青年文化』 第2卷5期, 1944年5月.

데 이는 당시 조선인 작가들이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하면서도 모두 그 시간배경을 '만보산사건' 이전으로 못박음으로써 '만보산사건'과 관계없음을 극력 강조하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 작품은 연일 퍼붓는 폭우로 강물이 제방을 넘어 마을이 홍수에 덮칠 위험에 놓이게 된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일한 방법은 강 하류를 막은 갑문을 여는 것인데 갑문은 오랫동안 열지 않고 내버려두었던 관계로 녹이 쓸어 그만 힘을 줘 주자 축이 끊어져버려 열 수가 없게 된다. 유일한 방법은 갑문 외부에서 나사를 틀어 갑문을 분리해내는 것인데 그 경우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나사를 틀러 들어간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대가로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므로 마을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갑문이 열리며 불었던 물이 방출되어 강 양안의 농민들은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강물에 떠내려온 시체가 바로 외래인인 조선인 농민 한씨네 둘째였다는 것이다. 이 한씨네는 마을에서 유일한 조선인으로 새로 유입된 수전개간민이며 마을의 '만주인' 원주민들로부터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온갖 오해와 멸시와 편견에 시달렸던 것이다. 작품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한씨네 둘째가 위기일발의 시각에 목숨을 바쳐 강 양안의 농민들을 구했고 그의 희생을 통해 조선인 및 외래인에 대한 '만주인' 원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이처럼 조선인 작가가, '만주인' 원주민과의 화해와 융화는 조선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바람직한 관계라고 보고 있었다면 '만주인' 작가는 조선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만주인' 원주민들이 외래인인 조선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조선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양측 모두 조선인의 희생이 기초로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은 유의미한 부분이다.

「벼」에서 조선인에게 끝까지 악의적인 부류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소현장인데 이 소현장에 대해서마저도 안수길은 그것을 일본의 중국 침략 위협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국가의 입장에서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타자 이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만주국' 건국 이전에 이렇게 어렵게 이룩한 원주민과의 화해와 융화의 관계는 '만주국' 건국 이후의『북향보』에 이르면 '호형호제'의 사이로 발전한다.

「만인(滿人) 말이유. 우리 조선서는 어찌니저찌니 하구 말들이 많드니만 여기와서 서로 같이 살아보니, 그에 더 좋은 사람들이 없구, 정드는 사람 없어요.»

「강서방, 반(潘)서방과 친하다지요.»

「어느사이에 그렇게 됐는지 친형제는 몰라두 촌수를 따진다면 육촌 맞잡이로는 친할거유-」⁵⁷⁾

'만주인' 반서방과 육촌 맞잡이로 친하게 지낸다는 조선인 이주민 강서방의 '만인'에 대한 위의 평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만주'에 와서 함께 살아보니 '만인'들이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만주'에 오기 전 조선에서 '만인'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면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반성한다. 이런저런 선입견들이야말로 오해나 편견에 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를

57) 안수길, 「북향보」, 『안수길』, 위의 책, 408면.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류와 삶의 현장에서의 부딪침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오해나 갈등이 실은 근거 없는 뿌리 깊은 편견이나 타자화에서 온 것임을 비판한다. 이 '만주인' 반성곡은 조선인 마을인 마가둔의 네 호박에 안되는 '만인' 중의 하나로 조선인 마을에 오래 섞여 살다보니 조선말도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감정까지도 속속들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조선인 마을의 대행사인 모내기에도 함께 참여하여 능숙하게 모를 뽑는 등 조선인에 의한 '만주인'의 상대적 변화⁵⁸⁾를 보인다.

「성님, 나도 그 소리 배와주오.」

「무슨 소리.」

「아까 논안서 성님이 부르던 소리를.」

.....

「동생네는 그런 노래 없소?」

「우리 나라 말두 있긴 있소. 밭이나 맬 때 하는 노래. 꽤 좋은 것이 있긴 있소.」

「그 소리 들어봅시다.」

「우리는 듣기 좋지만 조선사람이 듣기 나쁠게요.」

「그럴 까닭이 있겠소. 하여튼 그럼 우리 노래는 동생네 귀에 듣기 좋소?」

「네, 모두 같이 부르는게 듣기 좋소.」

「동생네 노래는 혼자 부르는거요?」

「아-니, 그런게 아니지만 여기 사람 얼마 없소.」

.....

「그럼, 동생, 날 동생네 노래 가르쳐주오. 그러면 난 또 우리 노래 동생 가르쳐주께. 서로 엇바꾸잔 말이야.」

강서방의 이 제안을 재미있게 여기는 듯 성곡은 대뜸 찬성하였다.

「그거 좋소. 나는 조선 소리 하고, 성님은 만주 노래 부르고, 그 아주 좋소.」⁵⁹⁾

조선사람들이 모내기때 함께 부르는 '덩지' 노래를 재미있다고 하며 강서방에게 배워달라고 하는 반서방은 자기네 '만인'들이 비록 조선에 못 가봤지만 강서방이랑 마가둔 사람들을 사귀어서 조선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조선이 좋은 줄 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민족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에서 실질적인 인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며 그러한 민족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주'야말로 민족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조선사람들의 공동 노동의 가요인 '덩지'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반서방에게 강서방은 그들 '만인'들에게는 그런 노래가 없는지 물어본다. 이에 반서방은 밭을 맬 때 부르는 '만인'들의 노래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조선사람들이 듣기에는 별로일거라고 한다. 이에 반서방은 조선사람들의 모내기 노래가 재미있는 이유를 묻는데 반서방은 "모두 같이 부르"기 때문에 듣기 좋다고 하며 '만인'들의 노래도 여럿이 부르는 것이나 현재 마가둔에 '만인'이 얼마 없으므로 함께 불러야 듣기 좋은 효과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는

58) 이해영,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의 현실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3, 2014.8, 417면.

59) 안수길, 「북향보」, 『안수길』, 위의 책, 530-531면.

반서방에게 강서방은 조선 노래와 '만주' 노래를 서로 배워서 엇바꾸어 부르자고 제안하며 이에 반성기도 꽤 찬성한다. 그리하여 강서방의 옆에서 모를 심으면서 강서방이 먹이는 소리를 받아 부르는 반성곡의 모내기 소리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으며 조선 농부들의 소리 속에 화해버린다. 말 그대로 한목소리로 화해버리는 속에서 진정한 화합과 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안수길은 '만주'의 주인인 만주인은 오해와 편견을 넘어 화합하고 융화해야 할 이웃이라고 보았다.

4 일본인 : 진정한 화합이 불가능한 만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

지금까지 재'만'조선인 소설들에는 '만주인'의 형상과 '만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가 다수 나타났으나 일본인의 형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며 일본인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 역시 극히 소략하게 나타났다. 안수길의 '만주' 시기 작품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시기의 대부분의 작품에 '만주인'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일본인이 등장한 작품은 「벼」와 『북향보』 뿐이며 그 비중 역시 '만주인'에 비해 훨씬 적다. 이는 조선 국내에서와 별반 다르없이 '만주'의 조선인 작가들에게도 일본인은 여전히 부담스운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안수길의 「벼」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현성에서 송화양행을 경영하면서 만민들과 조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푸는 '선량한' 성품의 나까모도가 유일한데 기존 연구는 주인공 찬수가 나까모도를 통해 일본 영사관과 연계하려 한 것에 주목하여 작품의 친일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선량한' 성품에 가려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나까모도의 특수한 신분과 그와 일본영사관과의 관계 및 매봉둔 조선인 학교 건설에 대한 그의 아낌없는 '지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매봉둔의 조선인들에게 나까모도는 "벼를 항상 사주고 여러 가지로 매봉둔 사람에게 고맙게 굴어"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늘 '만주복'을 입고 '만주말'을 유창하게 하는 나까모도는 얼핏 보면 '만주인'과 구별하기 힘들었으며 현성의 '만주인'들에게는 '친중파'로 존경받았다. 나까모도는 송화양행을 경영하는 일편 고아원 유치원 같은 것을 경영하고 나중에는 소학교도 여는 등 교육 사업에 열의를 보였는데 이는 아동을 통해 자기의 주의와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독교도는 아니었으나 그가 신앙하는 아지 못할 종교가 있어 다만 그것을 아동들에게 선전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였다. 일종 세계 동포애와 같은 교리였다. 그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 한 일이 없고 아동을 통하여 그의 주의와 신념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생의 업을 삼았다.

왜 일본에서 일을 못하였는가 의심이 되나 그러지 못할 심각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외국에 와서 외국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 그의 신념의 실행에 더 의의가 있다 생각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⁶⁰⁾

60) 안수길, 「벼」, 위의 책, 299면.

이처럼 나카모도가 신앙하는 종교는 아지 못할 종교인데 일종의 세계동포애와 같은 교리로서 그는 '만주'의 아동들을 통하여 그의 주의와 신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의 이 주의와 이념이 무슨 성격의 것인지는 누구도 몰랐는데 문제는 그가 이런 의미 있는 일 즉 자기의 주의와 이념을 실현하는 일을 본국인 일본에서 못하고 외국 즉 '만주'에 와서 외국사람 즉 '만주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다. 소설은 이에 대해 '일종 세계 동포애와 같은 교리'라고만 쓰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왜서 나카모도가 굳이 '세계 동포애'와 같은 주의와 이념을 굳이 쓸쓸한 '만주'의 벽지에 와서 '만주인'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수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듯이 알려진 나카모도가 실은 일본 영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일본어가 능통한 조선인 지식인 찬수를 만나서는 그의 정신적 지도자 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봉둔 조선인 학교 건설 문제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그가 결코 평범하고 개인적 영역에만 머문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찬수는 이튿날 일즉 매봉둔을 떠나 현성의 나카모도를 방문하였다. 나카모도한테 학교에 대한 현장의 통고를 이야기하였다.

나카모도는 그것은 결국 중국정권의 배일정책으로 나오는 것이라 말하며 내일 길림에 갈 일이 있으니 영사관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겠노라 말하였으며 어떻게하든지 처음 뜻을 굽히지 말고 학교는 문을 열도록 하라 격려하였다.(309면)

매봉둔 조선인 학교 건설에 대한 소현장의 무자비한 금지령 및 고압적인 정책이 실은 중국정권의 배일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 정치적 배경을 예리하게 짚어내며 길림의 일본 영사관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겠노라 말하면서 찬수에게 학교 건설의 뜻을 굽히지 말라고 격려하는 나카모도를 결코 평범한 일개 일본인 개인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한 나카모도에 비하면 매봉둔 조선인들의 지도자 격인 찬수는 이러한 중일간의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감각이 전무하다. 나카모도의 계몽과 지도를 받기 전까지 찬수를 포함하여 매봉둔 조선인들은 배일을 명분으로 내세운 소현장의 횡포와 억압에 직면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길림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연락하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카모도의 귀뜸을 받고서야 찬수는 비로서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찾게 되는데 “그럼으로 학교를 폐쇄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시일을 천연하여 나카모도를 중간에 넣어 길림영사관에 매봉둔 사건을 진정하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 짓는 것이 순서라 생각하”⁶¹⁾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 찬수는 “이백여호가 모아 살면서 지금까지 영사관과 연락이 없었던 것은 여기에 그럴듯한 지도자가 없었던 까닭이었다”⁶²⁾고 스스로의 정치적 무지를 반성한다. 이처럼 '만주국' 건국 이전의 '만주'에서 일본인은 조선인들에게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계몽자의 역할을 하며

61) 안수길, 「벼」, 위의 책, 314면.

62) 안수길, 「벼」, 위의 책, 314면.

또한 중국 국민당의 배타적 민족주의 앞에서 일본 영사관을 인지시키고 그들이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요청하도록 연결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만주국’ 건국이후의 『북향보』에 이르면 이제 일본인은 조선인들에게 정신적 지도자를 넘어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통제의 입장에 서게 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는 수직상하,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에 이른다. 우선 소설에서 성공서, 경찰서 등 모든 주요 부서의 관리들은 일본인이며 마가둔의 둔장 역시 일본인이다. 이들은 오찬구의 북향목장 건설에 호의적이며 박병익의 농간으로 북향목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최대한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들의 호의는 어디까지나 조선인들이 하는 일이 일본제국 및 ‘만주국’의 법적 질서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선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선행되는 것이다. 이는 탄광을 일본재벌에 팔아넘기기 위해 정학도의 북향정신을 자기의 사상인 듯이 떠벌이는 박병익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북향목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면 북향정신이란?」

.....

「북향정신이란 별것이 아니지요.」

.....

「목장과 도장에 대한 참고서류를 가지고 오시오.」

.....

「북향정신을 자세히 말해보오.」하고 어제 미진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찬구는 비교적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서원은 혹은 머리를 끄덕이고 혹은 기우뚱해가며 찬구의 말을 빼지 않고 듣고 있었는데 가끔 왕청같은 말을 들어 북향정신이란 불온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것을 밝히려는 태도도 있었다.

그랬으나 급기야 서원도 학도의 이상을 십분 이해하였다. 즉 부동성이 많은 조선농민으로 하여금 한 농촌에 정착케하여 농업만주에 기여케함은 건국정신에 즉한 것이요 제 사는 고장에 애착을 부침으로서 일로증산에 매진하여 결눈을 뜨지 않게 하는 것은 농촌사람의 생각을 온건하고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고.⁶³⁾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현성의 경찰서원이 조사과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소위 ‘북향사상’이다. 이에 대해 마가둔 조선인의 대표이자 사망한 스승 정학도의 유지를 받들어 북향목장을 이끌어가는 오찬구는 “북향정신이란 별것이 아니”라는 말로 정학도의 ‘북향정신’의 사상성을 극력 제거하며 경찰서원을 안심시켰으나 경찰서원은 여전히 찬구에게 북향목장과 도장의 참고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하기를 요청했다. 이튿날 찬구가 목장건설취지서, 도장건설계획서, 결산보고서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하자 경찰서원은 자료들을 뒤적거리려고 여전히 북향정신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였다. 찬구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원은 가끔 엉뚱한 말을 들어 북향정신의 불온성에 대해 의심하고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찬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곧 ‘북향

63) 안수길, 「북향보」, 『안수길』, 위의 책, 486-487면.

정신'이란 부동성이 많은 '만주'의 조선농민을 안착시키고 농업만주에 기여케 함으로써 조선농민을 온건하고 똑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일본이 '만주'에서도 여전히 조선인에 대한 강력한 사상통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사상의 불온성 여부가 여전히 조선인에 대한 사회 통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주'의 조선인 역시 최대한 일본과 '만주국'이 정해놓은 '법' 질서와 사상의 테두리 속에서 삶의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주'에서의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내선일체' 즉 대등한 황국신민의 관계가 아닌 수직상하, 감시와 피감시, 통제와 피통제의 강력한 등급관계였다. 이런 '만주'의 사회질서 속에서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아무리 함께 일을 도모하는 사이어도 그리고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여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친구 내지 화합해야 할 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만주국'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가 얼마나 께뻘럽고 애매한지는⁶⁴⁾ 찬구와 그와 이전에 현공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일본인 기와 사도미 마끼히도와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찬구에 대해 호감을 갖고 그를 성공서에 전근시키려고 따로 만난 술자리에서 사도미는 간도 조선인 농민들의 목축에 대한 사상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은연중에 조선인의 결점을 지적한다. 즉 선계의 젊은이들이 '만주국'의 수전개간과 수전경작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조선인의 '만주국' 국민의 자격 확보에 공헌한 자기를 선계의 농민들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할 대신 멸시를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찬구는 부끄럽고 언짢은 기분이다. 사도미 역시 자기의 '술직함'이 찬구의 오해를 살까봐 걱정한다. 이처럼 '만주국'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도와 피지도, 계몽과 피계몽의 사이이자 도움을 청해 받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내면의 화합은 이를 수 없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만주'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고 '만주' 체험을 많은 작품으로 남겼던 안수길의 '민족'에 대한 사유가 집약된 '만주'시기의 중편소설 「벼」와 장편소설 「북향보」를 통해 그가 위만주국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했고 또 '만주'라는 공간에서 함께 삶을 도모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동아시아의 이웃이자 우리의 '타자'였던 '만주인'과 일본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았다.

안수길은 위만주국에서 '우리' 즉 조선인을 개척민이 아닌 건국에 기여한 양순한 공로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익수의 죽음을 대가로 하고서야 '만주'에 수전을 풀게 되었고 일본의 침략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애매한 조선인에 대한 횡포를 일삼는 소현장에 대해서도 중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64) 이해영,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의 현실인식」, 위의 글, 420면.

있다는 타자 이해적 태도, 조선인의 초기 '만주' 이주의 이면에는 중국 정부 측의 '만주' 개발 계획에 따른 조선 농민 유치 정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조선농민은 이미 개간된 땅이 아닌 원주민들이 버린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인은 개척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만주국' 조선계 작가로서 안수길이 조선인의 '사이에 낀' 처지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만주인 작가 오랑은 '내선일체'와 '선만일여' 사이에서 조선인의 중개자적 위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만주'를 짧은 기간 여행했던 이태준이나 이기영 등이 '만보산 사건'을 호명하면서 조선인의 개척의 열기를 작품화했다면 안수길은 조선인의 애매한 처지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만주'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이자 조선인에게 가장 중요한 타자의 한 축인 '만주인'에 대해서는 안수길은 오해와 편견을 넘어 화합해야 할 형제 같은 이웃으로 보았다. 안수길의 '만주'시기 작품에 나타난 만인의 형상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조선인에게 호의적이며 객관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악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으로부터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그 근원을 찾고 있으며 화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선인 이주민들의 희생과 기여를 대가로 '만주인' 농민들이 이들을 이해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안수길 식 담론 방식은 당시 '만주인' 작가 이교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선인 작가가 '만주인' 원주민과의 화해와 융화는 조선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야할 바람직한 관계라고 보고 있었다면 '만주인' 작가는 조선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만주인' 원주민들이 외래인인 조선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조선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양측 모두 조선인의 희생이 기초로 되었다는 인식은 유의미한 부분이다.

일본인의 형상은 다른 작가와 마찬가지로 안수길의 작품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상인데 안수길은 일본인에 대해 진정한 화합이 불가능한 만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보았다. 「벼」에서의 나까모도의 특수한 신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만주국' 건국 이전의 '만주'에서 일본인은 조선인들에게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계몽자였으며 또한 중국 국민당의 배타적 민족주의 앞에서 일본 영사관을 인지시키고 그들이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요청하도록 연결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주국' 건국이후의 『북향보』에서는 일본인은 조선인들에게 정신적 지도자를 넘어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통제의 입장에 서게 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는 수직상하,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를 이루었다. '만주국'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지도와 피지도, 계몽과 피계몽의 사이이자 도움을 청해 받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내면의 화합은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안수길, 「벼」, 『안수길』, 보고서, 2006.
- 안수길, 「龍井·新京時代」, 『안수길』
- 안수길, 「북향보」,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서, 2006.
- 안수길, 「새벽」, 『안수길』(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보고서, 2006.
-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4.8~4.21.
- 이태준, 「농군」, 『문장』, 임시증간호, 1939.7.
- 이기영,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1939. 11.
- 이기영, 「만주견문-대지의 아들'을 찾아」, 『조선일보』, 1939.9.26.~10.3.
- 함대훈, 「남북만주遍踏記」, 『조광』, 1939.7.
- 李喬, 「協和魂」, 『青年文化』第2卷5期, 1944年5月.
- 吳郎, 「記我与鮮系的觸顔」, 『盛京时报』, 1942.6.24.

단행본

- 김윤식, 『안수길연구』, 정음사, 1986.
- 손춘일, 『「만주국」 시기 조선개척민 연구』, 연변대학출판사, 2003.
- 오양호, 『한국문학과간도』, 문예출판사, 1988.
- 아마무로신이치(山室信一) 저/윤대석 역, 『키메라-만주국의초상』, 소 명출판, 2010.
-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한국문학 연구』, 1990.
- 최경호, 『실향시대의 민족문학-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1994.
- 프래신짓트두아라 지음/한석정 옮김, 『주권과순수성』, 2008.
- 한석정, 『만주국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논문

- 金哲, 『韓國の人口と經濟』, 東京: 岩波書店, 1965.
- 蘭信三, 『滿洲移民の歴史社會學』, 京都: 行路社, 1995.
- 刘晓丽, 「伪滿洲国, 东亚连带的正题与反题」
- 吳錄貞, 『延吉邊務報告』, 第4章, 「韓民越墾之始末」. 孫春日, 『「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 政策研究』, 백산자료원.

- 1999.
- 김종호, 「1940년대 초기 만주유민소설에 나타난 '정착'의 의미-「대지의 아들」과 「북향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학회, 1993.
- 김재용,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조선인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도서출판역락, 2004.
- 김미란,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 김호웅, 「만보산사건을 다룬 동아시아 3국 소설비 교」, 『만보산사건과 한국 근대문학』, 역락, 2010.
- 김기훈, 「만주의 코리안디아스포라-제국내 이민(intra-colonial migration) 정책의 유산」,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 민현기, 「안수길의 초기소설과 간도 체험」, 『한국 근대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 지성사, 1989.
- 신규섭, 「在滿朝鮮人の '滿洲國' 觀 및 '日本帝國像」,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집』, 2003.
- 송규진,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韓國史研究』 146, 2009.9.
- 서재길, 「안수길의 초기장편소설」, 『북향보화환』(안수길전집 3), 글누림, 2011.
- 서영인, 「만주서사와 반식민의 상상적 공동체-이기영, 한설야의 만주서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6, 2009.
- 윤취탁, 『滿洲國: 植民地の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2013.
-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갈등과 친일의 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2004.
- 이해영, 「만주국 '鮮계' 문학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40, 2013.
- 이해영,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23, 2017.6.
- 이해영, 「만주국'의 국가성격과 안수길의 북향정신」, 『국어국문학』 160, 2012.
- 이해영,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의 현실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 43, 2014.8.
-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서사에 나타난 민족인식」, 『한민족문화연구』, 2015. 6.
- 이해영, 「『偽滿洲國'조선계작가안수길과'민족협화』」, 『국어국문학』 172, 2015.9.
- 임성모, 「중일전쟁전 야만주국-조선관계사의 소묘-'일만일체'와 '선만일여'의 갈등」, 『역사학보』 201(역사학회), 2009.
- 이상경,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2, 1996.
- 오오무라마쓰오, 「안수길의 『북향보(北嚮譜)』에 대하여」,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 역락, 2009.
-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 이상경, 「이기영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을 읽는 방법」, 『대지의아들』, 역락, 2016.
- 정덕준, 「안수길 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12
- 장춘식,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2004.
- 정현숙,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 54, 한국언어학회, 2005.
- 장영우, 「만보산사건과 한 일소설의 대응」,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 한수영, 「친일문학 논의와 '재만조선인문학'의 특수성」,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Jeong-Ran Kim (University of Oxford)

Introduction

During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malaria became a significant problem in many parts of the world. Although the disease had long been present in many parts of the world, colonial exploitation in the form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produced ecological disruption and mass movement of labourers, resulting in infections becoming more widespread and severe. Often, expansion of rice paddy caused an increase in malaria because expanded water surface for rice cultivation created an ideal environment for *Anopheles* mosquitoes. When human labour and mosquito breeding seasons were synchronized, it also increased in chances of human-vector contact.¹⁾ Occasionally, migrant labourers brought malaria parasites into non-malarial areas. These included not only cities but also rural areas in which plantation and other forms of cultivation were expanding. In Sarawak, for example, malaria became particularly severe in districts which received immigrant from China and Johore.²⁾ In such circumstances, farm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other socio-economic factors (income, education, access to affordable health services of decent quality, etc) affected their susceptibility to malaria.³⁾

Japan encountered similar problems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s it began to build an empire in Asia. In Taiwan, which was the first Japan's colony, malaria posed a significant obstacle to Japanese military and economic activities and mortality was far higher for Japanese in Taiwan than for local people, at least until the 1890s.⁴⁾ In the

1) Andres Baeza, Menno J. Bouma, Ramesh C. Dhiman, Edward B. Baskerville, Pietro Ceccato, Rajpal Singh Yadav and Mercedes Pascual, 'Long-lasting transition toward sustainable elimination of desert malaria under irrigation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3, 110-37, 15157-15162.

2) Health Organisation, "Enquiry into the Quinine Requirements of Malarial Countries and the World Prevalence of Malaria" in the Health Organisation (ed.), *Societe Des Nations* (Geneva: League of Nations, 1932), 66.

3) Galvez, J. A., et al,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Self-Rated Health: Study of 29 Countries Using European Social Surveys (2002-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3, 10, 747-761.

4) Yi-ping Lin and Shiyung Liu, "A Forgotten War: Malaria Eradication in Taiwan, 1905-65" in Angela Ki Che Leung and Charlotte Furth (eds), *Health and Hygiene in Chinese East Asia: Policies and Publics*

early 1910s, malaria was still the chief cause of mortality among Japanese and Taiwanese with the exception of cholera and plague epidemics.⁵⁾ In Korea, Japanese settlers and military faced malaria from the opening port period to the colonial era. The morbidity for malaria among Japanese settlers was usually higher than many other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the mortality was very low.⁶⁾ In addition, the average morbidity in malaria among Japanese soldiers in the colony was far higher than those of divisions in Japan in the 1920s.⁷⁾ In these two Japanese colonies, Japan's exploita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rapid urbanization due to the influx of labourers increased the incidence of malaria in many areas.

Malaria threats in Manchuria, however, were of different kind. Unlike in Taiwan and Korea, malaria was not an indigenous disease, or at least not a significant one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Malaria began to be recognized as a disease problem as Japan occupied and exploitatively developed Manchuria. Following the Japanese victory over Russia in 1905, control of the Liáodōng Peninsula was transferred to Japan. As a result of the Treaty of Portsmouth, Japan also acquired the most southerly section of the branch of the China Far East Railway. A year later,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南滿州鐵道株式会社, afterwards, SMRC) was established by the promulgation of a special law, which provided it with state protection. From then on, Manchuria was designated as the main supplier of raw materials and foodstuffs for Japan's imperialism. Particularly, Japan attempted to increase grain productions, including rice, through farm-land developing of vastly uncultivated land in Manchuria.⁸⁾ However, the expansion of paddy fields caused significant environmental change and created excellent sites for malaria mosquitoes. As a result, malaria became a common disease in the agricultural frontier in Manchuria. Increasingly, the disease sapped the manpower on which the Japanese imperial and - ultimately - wartime economy depended.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significant aspects of malaria problems in new agricultural frontiers in Manchuri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 will focus on the malaria epidemics among Japanese agricultural immigrants in Aikawamura as well as Korean farmers who migrated to Manchuria both voluntarily and forcibly in the wake of Japanese imperialism.

in the Long Twentieth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183-203.

5) Shimoda and Soda, 'Recent Health Condition of Taiwan', *The Journal of the Public Health Association of Japan*, 1936, 12, 28-38.

6) Jeong-Ran Kim, 'Malaria and Colonialism in Korea, c.1876-1945', *Social History of Medicine* 2016, 29, 360-383.

7) 軍医部, '朝鮮陸軍部隊に於ける「マラリア」について', *軍医団雑誌*, 1926, 157, 205-211.

8) John R. Stewart, 'Manchuria as Japan's Economic Life-Line', *Far Eastern Survey*, 1935, 4, 182-186.

Hazards of the Agricultural Frontier: Aikawamura (愛川村)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gricultural immigration into South Manchuria was the pivot of Japan's policies towards Manchuria.⁹⁾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Kodama Gentarō (児玉源太郎), Gotō Shinpei (後藤新平) and Komura Jutarō (小村壽太郎), who were key figures in the Meiji Government, were the leading promoters of Japanese mass immigration into Manchuria.¹⁰⁾ The main purpose of agricultural immigration into the region was to strengthen its influence on newly acquired territories.¹¹⁾ Moreover, it was necessary to increase the amount of cereal supply to Japan by sending the surplus population of Japanese to rural areas. The Kwantung garris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planned that Japanese immigrant farmers would reclaim waste lands and cultivate rice as well as other cereals with cheap Chinese or Korean labour forces.¹²⁾

One of the significant attempts to increase Japanese population in South Manchuria was the building of Aikawamura (愛川村) in Jinzhou (金州) near Dairen. Th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agricultural frontier was made by the Governor-General of Kwantung, Fukushima Yasumasa (福島安正, Governancy Period: April 1912-September 1914). At that time, he heard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Chinese farmers were engaged in farming in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 In addition, many Koreans had reclaimed waste-land and were cultivating rice in Jijin and Fengtian. The governor Fukushima thought that if Japanese farmers would succeed in reclaiming waste land and cultivating rice in Jinzhou, it would be a catalyst to develop new agricultural frontiers in many other parts of Manchuria.¹³⁾

The Kwantung Government carried out a preliminary survey and found a suitable place for rice farming. Then, they selected Japanese peasants for the immigration who had small piece of land but normally worked as tenant farmers at landlords' field. However farmers who did not have any of their own land were excluded from the immigration groups.¹⁴⁾ The first immigrant group of 18 households arrived in the village

9) 松村高夫, '日本帝国主義下における「満州」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三田学会雑誌*, 1970, 63-6, 61-87.

10)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Sixth Report on Progress in Manchuria to 1939* (Dairen: SMRC 1939), 116.

11) Robert John Perrins, "Doctors, Disease, and Development: Engineering Colonial Public Health in Southern Manchuria, 1905-1926" in Morris Low (ed.) *Building on Modern Jap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the Meiji Era and Beyo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103-133.

12) 関東州庁土木課編纂, *愛川村: 邦人満州移民の魂* (大連: 関東州庁土木課, 1935), 103; 손춘일, '만주사변 후 재만한 인안전농촌과 집단부락 건설 및 그 실태',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997, 12, 151-188; 윤휘탁,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 민족 국가'* (서울: 혜안, 2013), 122, 365.

13) 関東州庁土木課編纂, *愛川村*, 1935, 2-3.

14) *Ibid.*, 9-19.

in March 27, 1915, a year after Governor Fukushima left his post.¹⁵⁾ The name of the village was Aikawamura (愛川村) was from two villages (Mura, 村) in Japan which the first immigrants group left; Atagoson (愛宕村) and Kawashimoson (川下村) in Yamaguchi Prefecture.¹⁶⁾ Aikawamura was basin, and its three sides were mountains and the west side was open to the sea. The climate was relatively mild and the temperature between winter and summer was not so significant.¹⁷⁾

As soon as Japanese immigrants arrived in the village, however, they encountered several difficulties. Thus, sixteen households gave up agriculture and returned to Japan in the same year. In 1916, another 13 households arrived in the village, but most of them also abandoned their land and left for Japan immediately. There were several reasons why the immigrants gave up the land. At first, the natural environment was not familiar to them and living quarters were improperly built. As a result, many immigrants succumbed to respiratory disease and severe diarrhoea. In addition, there were not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and clinics. Although a contract doctor was supposed to visit the village regularly, he did not follow the contract rules well. Sometimes, the doctor overcharged for medical bills to the immigrants. Later, the director of the Dairen Hospital decided to provide special treatment for the village people with free or a half price of medical fee.¹⁸⁾ Also, some residents felt frustrated because they were forced to be engaged in farming like Chinese farmers. Before emigrating, they expected to live a better life than in Japan and not care much about farming. In contrast to their expectations, they struggled to prosper on their reclaimed farmland.¹⁹⁾ Furthermore, despite having only a small income, they had to pay high transportation costs and other socialising expenses to interact with Japanese living in the cities.²⁰⁾

A particular was problem was that the natural conditions in the areas were unsuitable for rice cultivation. The soil was highly saline and ill-fitted for rice farming. Also, there were many weeds in the reclaimed lands. In addition, the topography of the land was uneven and there was a risk of flooding. But there were no flood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village.²¹⁾ Above all, there was not enough water for rice cultivation. To make matters worse, the settlers suffered a severe drought in 1924, and their despair and fears reached the peak.²²⁾ To solve the problem of shortage of agricultural water, the

15) “関東州内に於て日本人農業移民：北滿進出上の生ける教訓”，大阪朝日新聞，19 Mar, 1934.

16) 関東州庁土木課編纂，愛川村，1935，95.

17) 北島栄太郎，‘南滿州金州愛川村及び営口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満州医学雑誌，1935，22，369-377.

18) 関東州庁土木課編纂，愛川村，1935，5-6，210.

19) John R. Stewart, ‘Japan’s Strategic Settlements in Manchukuo’, *Far Eastern Survey*, 1939, 8, 37-43.

20) 関東州庁土木課編纂，愛川村，1935，1935，5-6.

21) *Ibid.*, 9-19 and 127-139.

22) 大連商工会議所，関東州の水に就て（大連：大連商工会議所，1930）7，106 and 127.

Kwantung Bureau planned to create new water sources. In 1925, engineers of the Civil Engineering Department of the Kwantung Bureau found underwater. Then, the engineer team invented “Manchurian wells (滿洲井戸)” that stored underwater like water storage tanks.²³⁾ The water stored in the wells began to be supplied as agricultural and domestic water. With a sufficient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the farmers were eventually able to reap the first good harvest in 1931.²⁴⁾

However, this harvest was accompanied by a new menace in the form of malaria. Originally, malaria was a negligible disease in that area, although *Anopheles* mosquitoes existed. Reclamation of paddy fields and new water sources produced excellent sites for malaria mosquitoes. The main breeding site for malaria mosquitoes in Manchuria was rice paddy fields, although ditches, puddles and water plants were also suitable places for *Anopheles*.²⁵⁾ In 1933, there were 72 Japanese residents (10 households) living in Aikawamura. In addition, a few Chinese residential districts were located in its vicinity. In that year, two malaria patients and four carriers of parasites (gametocytes) were reported in the Japanese village. And there were 80 malaria patients in the Chinese villages.²⁶⁾ Japanese medical professionals carried out a field research at the Japanese village and found ou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Anopheles* mosquito larvae were found from rice paddy and puddle. Particularly, Japanese houses were located within 1 kilometre of paddies which were in the mosquito's flight range. In addition, there were several water pools around houses where *Anopheles* larvae were found.²⁷⁾

The following year, between January and August, 6 malaria cases were reported from Aikawamura and 116 from the Chinese villages. Japanese patients were treated with quinine and the Japanese began to use mosquito nets. However, the Chinese around Aikawamura were not able to acquire these commodities easily. As a result, they were exposed to malaria mosquitoes and many of them became chronic patients due to inadequate treatment.²⁸⁾ Generally speaking, there has been a noticeable link between malaria and poverty. It is difficult for poor people to access health care, sanitary facilities and education, and they live in houses which inadequate structures and overcrowding.²⁹⁾ Perhaps the Chinese around Aikawamura were in a similar situation.

23) 清水本之介, 『関東庁水源水利調査事業の概要』(大連: 関東庁土木局, 1933), 5-6.

24) 関東州土木課編纂, 『愛川村』, 1935, 244 and 291-293.

25) 岩田正俊, 『朝鮮及び滿州の「マラリア」蚊』, 『日新治療』, 1941, 特集号, 49-61; 岡田弥一郎, 『害虫と家庭衛生』(東京: 河合商店, 1942), 97.

26) 樺田憲太郎, 北島栄太郎, 『南滿州金州愛川村及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 in 『関東局移民衛生調査委員会 (ed.) 滿州に於ける寄生虫病とその対策』(新京: 移民衛生調査委員会, 1935), 27-30.

27) 北島栄太郎, 『南滿州金州愛川村及び營口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 1935, 369-377.

28) *Ibid.*

29) Ricci, F., 'Social Implications of Malaria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Poverty', *Mediterranean Journal of Hemat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2012, 4. doi: 10.4084/MJHID.2012.048.

Malaria in Korean villages

Malaria became a significant problem among Korean farmers in Manchuria, too. For a long time, rice cultivation had hardly been done in Manchuria because the natural environment was not suitable for wet-rice farming.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however, rice paddies were gradually expanded; mainly by Koreans. In the 1860s, many Koreans began to leave their country to find way out from poverty and tyranny, and they headed to Manchuria. Korean farmers reclaimed barren soil and found waterway to paddy fields. After hard work, many Koreans succeeded in rice farming and became called “the chief producers of rice in Manchuria”³⁰⁾

The first and the most popular refuge area for Koreans was Jiandao (間島, 간도), which is located in Northeast China and a border region between China and Korea along the River Duman (or Tumen). Around 1875, rice cultivation was begun there by Koreans and farming gradually spread to other regions.³¹⁾ In 1910, when Korea became Japan’s colony, there were already more than 100,000 Koreans living in Manchuria. Since then, many more Koreans fell into severe poverty due to oppressive colonial policies, such as the Agricultural Land Survey Project (土地調査事業) and the Increase Rice Production Plan (*Sanmi Jeungsan Gyehoek* 産米増産計画). As a result, many impoverished Koreans fled to Manchuria during 1910s and 1920s.³²⁾

Until 1921, Japanese consulates in Manchuria were responsible for consular affairs for Koreans. However, these roles had not been performed appropriately. In July of 1921,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egan to discuss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bout consular services for Koreans. As a resul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ok charge of education, public health, disease control, finance and relief for Koreans and the Japanese consulates were only responsible for police work.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ubsidized fund to operate only two hospitals in each Jiandao and Ju Zi Jie (局子街), Yanji (延吉), where large Korean communities were located. In other areas, the colonial government simply dispatched contract doctors to Korean villages.³³⁾

At that time, many Chinese thought that Koreans were assistants of Japanese imperialism because Japan used Korean farmers in Manchuria as an excuse to encroach on Chinese territories. When Koreans built a village and reclaimed waste-land for

30) 新京支社調査室編, *滿州に於ける水稻作の研究* (大連: SMRC, 1942), 8; Barbara J. Brooks, “Peopling the Japanese Empire: The Koreans in Manchuria and the Rhetoric of Inclusion” in Sharon A. Minichiello (ed.) *Japan’s Competing Modernities: Issues in Culture and Democracy 1900-193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25-44.

31) ‘在滿鮮農の社会的諸条件’, *滿鉄調査月報*, 1936, 16, 99-128.

32) 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における「滿州」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1970, 61-87; 김기훈,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국내 이민” in 한석정, 노기식 (eds)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서울: 소명출판, 2008), 197-214.

33) ‘在滿同胞への總督府諸施設全貌’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1934, 20, 78-86.

farming, Japan included the area as a consular jurisdiction. Also, Korean independence groups were sources of trouble for Chinese authorities because Japanese public power often invaded China's territories under the pretext of suppressing anti-Japanese movements by Koreans in Manchuria.³⁴⁾ In these circumstances, Chinese hostility towards Japanese as well as Koreans escalated.

In July 1931, a decisive conflict occurred between Chinese and Korean farmers, relating to an irrigation ditch problem in Wanpaoshan (萬寶山). It was not simply an incident surrounding an irrigation ditch but a collision (over the issue of Korean immigrant farmers) between Chinese nationalism and Japanese imperialism.³⁵⁾ *Wanpaoshan* was in a low marshy area located about 18 miles north of Changchun, and a group of Koreans subleased land from a local Chinese broker. The Koreans began to build an irrigation ditch extending from a river. But some Chinese arable land was damaged by the construction. Chinese farmers protested over the damage, and the Japanese Consulate in Changchun dispatched the police to quell the protest. In addition, the Japanese consulate made a false statement that a few Koreans were killed by Chinese farmers during the incident. The problem had grown serious when a Korean Newspaper, *Chosun-Ilbo*, reported the *Wanpaoshan incident*, quoting the Japanese consulate. As a result, antagonism against Chinese deepened in colonial Korea and many Chinese in the country were attacked by Koreans. This incident was also reported in China and Chinese hostility against Koreans escalated.³⁶⁾ Eventually, Koreans became the target of Chinese anger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occurred in September 1931 and many Koreans in Manchuria fled to the railway zone to avoid attack by Chinese.³⁷⁾

For a while, neither the Japanese consulates no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ok responsibility for Korean refugees and they were in an uncontrolled situation. Many of them gathered to a few big cities in the railway zones which the Japanese consulates and the police stationed.³⁸⁾ Late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Kwantung Army as well as the Manchukuo government (est. 1932) discussed to find solutions for Korean refugees. As a resul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ecided to build villages for them and ordered the Tōa Kangyō Company (東亜勸業会社) to establish five Secure

34) Erik W. Esselstrom, 'Rethinking the Colonial Conquest of Manchuria: The Japanese Consular Police in Jiandao, 1909-1937', *Modern Asian Studies*, 2005, 39-1, 39-75.

35) Edward Earl Pratt, *Wanpaoshan, 1931: Japanese Imperialism, Chinese Nationalism and the Korea problem in Northeast China on the eve of the Manchurian Incident*, MA thesis, University of Virginia (May 1983).

36) Michael Kim, 'The Hidden Impact of the 1931 Post-Wanpaoshan Riots: Credit Risk and the Chinese Commercial Network in Colonial Korea',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20, 10, 209-227.

37) Frank Jacob, 'The Korean Diaspora in Manchuria - Korean Ambitions, Manchurian Dreams, Japanese Realities', *UPF Journal of World History*, 2014, 6, 1-11.

38) 金永哲, '在滿朝鮮人の生活実態と「安全農村」', 2007, 43-58.

Villages (安全農村). These five villages were built between 1932 and 1935 (Table 1).

Table 1: Five Korean Secure Villages in Manchuria

Name of Village	Year of Foundation	Location	1935.9		1940.12	
			Families	People	Families	People
Tiělǐng (鐵嶺)	1932	Fèngtiān	269	1,235	383	925
Yingkou (營口)	1933	Fèngtiān	1,035	5,461	1,870	4,176
Hedong (河東)	1933	Binjiāng	789	3,372	728	1,825
Suihua (綏化)	1934	Binjiāng	337	1,314	446	1,142
Sanyuanpu (三原浦)	1935	Fèngtiān	-	-	172	355
Total			2,430	11,382	3,639	8,423

Source: 南滿州鐵道株式会社調査部編, 滿州農業移民概説 (大連: SMRC, 1939), 77-78.

Under unfair conditions demand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Korean farmers in the secure villages had to reclaim waste-land and build water system for cultivation. In addition, farmers suffered from malaria epidemics. The tendency clearly appeared in T'ien-chuang-tai (Denshōdai, 田庄台) in Yingkou (營口) which was the largest secure village. In 1933, this secure village was established in a reclaimed tidal flat area which was located near the River Liao. Many Korean refugees who fled from Antung, Fushun, Fengtian, Liaoyang and a few other places began to settle there. 3,012 Koreans (636 families), including 181 reserve ex-soldiers (40 families) settled the village at first.³⁹⁾ However, soil in the area contained a large amount of alkali salts which was not suitable for rice farming. Despite the unfavourable natural condition and a variety of hardships, Koreans were able to reclaim the land. They also created large-scale pumped irrigation systems from the River Liao to rice paddies. Eventually, Korean farmers succeeded in cultivating rice. With the success of rice farming, the number of people moving to the village from other parts of Manchuria or Korea increased. For example, when a large flood occurr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in 1934, many people lost their houses and work. The colonial government decided to send those victims to Korean villages in Manchuria, and the T'ien-chuang-tai accepted about 460 families.⁴⁰⁾

Although the Korean farmers succeeded in rice farming, their living conditions improved little. They were constantly exposed to unhygienic environments and had to live in a walled and confined space to prevent from 'external attack'. Korean settlers relied on water from public wells which were often contaminated. Moreover, their excessive work weakened their physical strength. In these situations, they became vulnerable to diverse diseases. Many Koreans were suffering from smallpox and digestive organ disorder was common.⁴¹⁾ Malaria also threatened the Koreans' health and labour

39) '朝鮮人安全農村に就て', 滿鐵調査月報, 1934, 14, 95-104.

40) "營口安全農村を觀る", 滿洲日報, 9-12 Jul, 1935.

41) 현은주, 1930年代 在滿朝鮮人社會에 대한 日帝의 統制政策 研究: 安全農村과 大屯部落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efficiency. Between August 8, 1933 and August 26, 1934, there were 411 malaria cases were reported from the T'ien-chuang-tai secure village. A research team carried out a blood test on 122 residents of the central district there. The research found that three people carried gametocytes and one person had merozoites. There were also several breeding places of Anopheles mosquitoes near the residential districts.⁴²⁾ Despite the result of the research, adequate malaria control was not implemented. As a result, malaria became the most prevalent endemic disease in the village, and the disease weakened Korean settler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between June and July.⁴³⁾

To make matters worse, the village had no medical facilities. Most people relied on herbal medicine, or left the sick people behind in worse case. Even though there were a few hospitals and clinics in the city of Yingkou, most Koreans could not afford to see a doctor or use a hospital.⁴⁴⁾ Sometimes, a contract doctor was dispatched the village to treat residents. But the doctor also had to carry out other sanitary duties with the police.⁴⁵⁾ Therefore, it was difficult for Korean villagers to receive medical care from the doctor. Later, a permanent clinic was built in the centre of the secure village with the subsidy from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⁴⁶⁾

Similar situations also arose in Datun (大屯) in Jilin Province where rice paddy had been expanded by Korean famers.⁴⁷⁾ From the 1890s, Koreans began to settle in the province, and around 1900, they started rice farming. Gradually, the number of Korean settlers increased. In June 1935, there were 11,897 Koreans (2,637 families) and most of them were engaged in rice cultivation.⁴⁸⁾ In the case of Datun, a Korean man named Kim Sewôn settled there for the first time in 1923. He reclaimed waste land and cultivated rice with seven Korean households. Datun was located in plain with rich soil near a branch of the River Songhua.⁴⁹⁾

Expansion of rice paddy in the wetland created the ideal breeding sites for malaria mosquitoes. As a result, the number of malaria cases increased among Koreans. However, poor farmers could not afford to buy medicine or mosquito nets. All residents were lower-middle classes and lived in small dugout houses. Also, people in the village shared 15 wells for drinking water. But these wells were contaminated because the locations were near pigsties or road sides. Due to poor hygienic conditions, the infant mortality

석사학위 논문, 2000.

42) 北島栄太郎, '南満州金州愛川村及び営口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 1935, 369-377.

43) 満鮮拓殖株式会社, 鮮満拓殖株式会社 満鮮拓殖株式会社 五年史 (新京: 満鮮拓殖株式会社, 1941), 213.

44) '営口朝鮮人民会', 全滿朝鮮人民会連合会會報, 1935, 29, 23-29.

45) '営口地方における朝鮮人事情', 満鉄調査月報, 1936, 16, 143-160.

46) '朝鮮人安全農村の経営管理と福利増進施設', 全滿朝鮮人民会連合会會報, 1936, 38, 13-19.

47) '満鮮人雜居地帯の村落調査-吉林省永吉県大屯部落の一例-', 満鉄調査月報, 1937, 17, 111-149.

48) *Ibid.*

49) 현은주, 1930년대 재만조선인사회에 대한 일제의 통제정책 연구, 2000.

rate under age five reached 64 percent in 1935. However, there was no modern clinic. Only one Chinese traditional doctor who did not have a medical licence provided Koreans with simple treatment. Worse of all, many Koreans could not afford to buy herbal medicine.⁵⁰⁾

Throughout this period,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was insufficient to protect Koreans from various diseases. Later, sanitary administration for Koreans were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of Manchukuo as the extraterritorial right over Japanese was abolished in December 1937. The Manchukuo government appointed doctors in charge of public health in Korean villages, who were formerly employed by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But, many Koreans were not able to enjoy the benefits of medical care and they wer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Manchurian administration.⁵¹⁾

“Like a Devil for Farmers”

From the mid-1930s, malaria was no longer confined to South Manchuria as the agricultural frontier gradually expanded to the border areas with the Soviet Union.⁵²⁾ The Kwantung Army aimed to lay agricultural soldiers (屯田兵) in the northern part of Manchukuo. In 1938, about 30,000 malaria cases were reported throughout Manchuria, although the actual number of the cases was expected to be much higher than the statistics. Particularly, malaria was prevalent in Fengtian Province. In 1939, the total number of malaria patients only in rural areas in Fengtian province was 18,189 and most malaria cases were middle-aged Chinese men who were the main labour force.⁵³⁾ As Japan began wars of aggression in earnest, malaria problems in Manchuria could no longer be neglected.

According to a report on malaria written by the chief enginee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Fengtian, Ōbito Eijirō (大人栄次郎), this rapid increase in malaria in the Fengtian Province resulted from several things. First, a rise in the number of *Anopheles* mosquitoes which wa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paddy fields in the province. In addition, the Secure Villages for Korean farmers, produced environments in which mosquitoes could easily spread malaria parasites to residents, since they were located in confined spaces near paddy fields. Also, malaria parasite carriers increased along with the number of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⁵⁴⁾ By contrast with Ōbito's observation,

50) ‘滿鮮人雜居地帯の村落調査’, 1937, 111-149.

51) 滿鮮拓殖株式会社, 鮮滿拓殖株式会社 五年史, 1941, 123; 윤휘태, 만주국, 2013, 423.

52) 宗形豊彌, “嫩江訓練所に於けるマラリア”, 1939, in 白鳥道博 (ed.)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關係資料 第五卷 (東京: 不二出版, 1993), 336-340.

53) 久保道夫, 大人栄次郎, ‘滿州のマラリアとその対策’, 臨床大陸, 1940, 2, 645- 652.

54) 大人栄次郎, ‘奉天省のマラリアに就て’, 滿州医学雜誌, 1941, 34, 285-304; 久保道夫, ‘滿州に於ける原虫性疾患

one earlier piece of research pointed out that some Japanese had brought malaria parasites with them to a few areas in Manchuria, such as Fushun, Fengtian and Tieling and led to malaria epidemics.⁵⁵⁾ However, Ōbito merely pinpointed Koreans and Chinese immigrants as a mobile reservoir of malaria. He also pointed out that most of Koreans and Chinese malaria patients did not take proper treatment for the disease due to their poverty and ignorance of the disease. As a result, many of them became chronic malaria patients and were seen as a source of new malaria infections. He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reatment for malaria among those tenant farmers.⁵⁶⁾ However, it was never fulfilled by their landlords or authorities.

As malaria caused a loss of manpower for agriculture in Manchuria, a concern was growing for declining in the output of cereals and other produce. Considering the stagnation of rice production in Japan due to labour shortages and lack of production materials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increasing rice production in Manchuria had become more demanding.⁵⁷⁾ However, labour shortage for farming had been a source of anxiety throughout Manchuria.⁵⁸⁾ In these circumstances, malaria was regarded as a significant menace for farming. A Japanese malariologist in Manchuria lamented that “malaria is not killing but is debilitating farm labourers’ physical strength. In other words, malaria is like a devil for frontier farmers in Fengtian”.⁵⁹⁾

The shortage of medical supplies in Manchuria became increasingly serious, too. Under the war regime, Manchukuo as well as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 and the Reorganised National Government of China, which was the puppet state of Japan in eastern part of China, faced difficulties importing medicine from Japan.⁶⁰⁾ Particularly, it became very difficult to obtain anti-malarial drugs such as quinine, atebine and plasmoquine because these drugs were supplied to Japanese military exclusively.⁶¹⁾ Thus, Japanese farmers and Youth Brigade members suffered from a shortage of anti-malaria drugs.⁶²⁾ Moreover, Japan’s war regime worsened gener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the deterioration of hygiene and nutrition in which many people

と医用昆虫’, *満州公衆保健協会雑誌*, 1942, 7-9, 3-10.

55) 豊田秀造, *渡満と衛生* (東京・大阪: 三省堂, 1933), 65-67.

56) 大人栄次郎, ‘奉天省のマラリアに就て’, 1941, 285-304.

57) 新京支社調査室編, *満州に於ける水稻作の研究*, 104.

58) 関東州経済会, *満洲開拓政策と関東州報国農場* (大連: 関東州経済会, 1944), 5-6 ; Margaret S. Culver, ‘Manchuria: Japan’s Supply Base’, *Far Eastern Survey*, 1945, 14, 160-163.

59) ‘奉天省マラリヤ下火’, *満州衛生事情通報*, 1939, 8, 10.

60) 木村雄四郎, ‘時局と和漢薬に就て’, *漢方と漢薬*, 1940, 7, 1-5 ; ‘薬品の輸入統制 満州医薬品輸入組合結成’, *現代の獣医界*, 1940, 7; 近森監介, ‘満州国医薬品統制要綱解説’, *日本薬報*, 1941, 2, 19-20.

61) Jeongran Kim,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Manchuria, 1905-1940s’, *Social Science Diliman*, 2018, 14, 1-23.

62) 白井清隆, 竹森博, ‘満鉄取柴河訓練所’, 1940 in 白鳥道博 (ed.) *満蒙開拓青少年義勇軍関係資料 第七巻* (東京: 不二出版, 1993), 324-325.

became mo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alaria.⁶³⁾ In this situation, there was little hope for Korean farmers who were in poorer economic conditions.

For Japanese authorities in Manchuria, it was necessary to find a new solution to control malaria at small cost. Kubo Michio and his research team at the Manshū Medical College developed a way to kill *Anopheles* larvae using waste oil from producing shale-oil at the Fushun Mines operated by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In the Fushun Mines, there was a thick covering of shale over the coal-stream of open-cast mining, which contained about 5,400 million tons on the upper layers of the coal deposits.⁶⁴⁾ Production of shale-oil began with a military purpose because Japan heavily relied on oil from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from the US. To resolve this problem, Japan attempted to produce its own fuel. From December 1929, the Mines began to produce shale-oil and to supply more shale, and opened a new open-cast mining site, the Higashi open-cast,⁶⁵⁾ this site which later became a hotspot of malaria.⁶⁶⁾ Kubo discovered that a by-product from the shale-oil plant was effective in killing mosquito larvae, as well as other harmful insects on paddy fields and puddles.⁶⁷⁾ They described effective use of the oil as follow: drip the waste oil little by little in a place where the flow is relatively fast upstream of the irrigation ditch. However, there were a few problems. Relatively low temperatures solidified the oil and the system worked less effectively. In addition, this method caused labour costs to carry and drip the oil into irrigation ditches. Moreover, it would need more expenses for transportation if this method would be applied outside Fushun.⁶⁸⁾

Thus, Kubo and his team developed an environmental approach to control of malaria in paddy-fields, whereby each paddy was divided into sections and the water was drained from each section sequentially. A period of one day's drying occurred before each section was refilled and this method had to be repeated once every ten days. It was therefore hoped that *Anopheles* mosquito larvae would perish because they were vulnerable to desiccation. This method was possible only if the paddy-field was located on a slope, although only a gentle slope was required. Water drained from one section into a section lower down the slope after a sluice was opened and this process was repeated continually.⁶⁹⁾ The research team concluded that this method worked and did

63) O'Meara W.P., et al, 'The impact of primary health care on malaria morbidity--defining access by disease burden, *Tropical Medicine and International Health*', 2009 Jan, 14-1, 29-35, doi: 10.1111/j.1365-3156.2008.02194.x. Epub 2008 Dec 11. PMID: 19121148; PMCID: PMC2658804.

64) "Labour management at Fushun Coal Mines", *The Manchuria Daily News*, 22 Sep, 1938

65) 満鉄東京撫順会, *撫順炭鉱終戦の記* (東京: 満鉄東京撫順会, 2004), 46.

66) Jeongran Kim,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2018.

67) 'マラリヤ撲滅の名案オイルセールの廃油を利用', *満州衛生事情通報*, 1939, 9, 21.

68) 岩田正俊, '朝鮮及び満州の「マラリア」蚊', 1941, 49-61.

69) 久保道夫, '満州に於ける原虫性疾患と医用昆虫', 1942, 3-10.

not incur financial costs.⁷⁰⁾

Unfortunately, it is not clear that how much the two methods reduced malaria incidence in rural areas. What is clear is that living conditions deteriorated throughout Manchuria. Wartime shortages in food and medicine became more severe and the intensity of work increased due to greater demand for cereal production.⁷¹⁾ In these circumstances, malaria and other diseases became more prevalent.

Conclusion

This paper has shown that after Japan acquired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 and southern part of Manchuria, Japanese agricultural immigration and an influx of Chinese and Korean labourers produced ecological disruption, resulting in malaria becoming a new menace in the region. The Japanese agricultural frontier of Aikawamura provides a typical example, with the reclamation of waste-land was reclaimed and provision of new water sources for rice farming. Eventually, rice farming succeeded, but the Japanese encountered a malaria epidemic from the early 1930s. Some Japanese farmers succumbed to malaria, but far fewer than Chinese farmers living in neighbouring areas. Also, Japanese farmers were able to access medical care to treat malaria while many Chinese farmers were not. The situation faced by Korean farmers was even worse.

As in many countries, the enrichment of land and expansion of irrigation helped to increase income from rice farming and this had positive consequences in controlling malaria because many more farmers were able to access medical care and education, and have better living conditions. At least, it became easier for them to acquire anti-malaria drugs and mosquito nets.⁷²⁾ However, most Korean farmers did not enjoy these benefits. Their inferior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made them more susceptible to malaria.

After Manchukuo was established in 1932, the northern region of Manchuria, which bordered the Soviet, came under the Japanese influence and malaria expanded northwards, debilitating farmers and resulting in a huge loss of manpower for agriculture. Wartime austerity worsened the situation because of a severe shortage of anti-malarial drugs. In this situation, farmers became more vulnerable to malaria. In response to this threat, Japanese experts tried to find new solutions at a low cost to

70) 久保道夫, 大人栄次郎, '滿洲のマラリアと其対策', 1943, 12-18.

71) Margaret S. Culver, 'Manchuria: Japan's Supply Base', *Far Eastern Survey*, 1945, 14, 160-163; 白井清隆, 竹森博, "滿鉄取柴河訓練所", 1940, 324-325.

72) Asanterabi Lowassa, et al, 'Social economic factors and malaria transmission in Lower Moshi', *Northern Tanzania, Parasites & Vectors*, 2012, 5, 1-9.

suppress malaria but the methods they developed were ineffective because vector control was not sufficiently intensive and medical treatment was inadequate, as were public health, education, and housing.⁷³⁾ These socio-economic factors did not improved for most farmers in Manchuria under the war regime and anti-malarial methods were unable to bear fruit over the long term, particularly for Korean farmers who, as imperial subjects, lived in poorer conditions.

73) Randall M. Packard, *A History of Global Health, Interventions into the Lives of Other Peopl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 27, 34.

번역

만주의 말라리아와 식민지 개척지

: 농업 이민자를 중심으로

김정란 (옥스포드대, 영국)

서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말라리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 질병은 오랫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 존재해 왔지만, 농업과 산업 발전이라는 형태의 식민지 착취로 인해 생태학적 파괴와 노동자의 대량 이동이 발생했고, 그 결과 감염이 더욱 널리 퍼지고 심각해졌다. 논의 확장으로 인해 말라리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벼 재배를 위한 수면 확장으로 인해 아노펠레스 모기가 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동과 모기 번식기가 동기화되면 인간-매개체 계약 가능성도 높아졌다.¹⁾ 때때로 이주 노동자들이 말라리아 기생충을 말라리아가 아닌 지역으로 가져왔다. 여기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장과 기타 경작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농촌 지역도 포함되었다.²⁾ 예를 들어, 사라왁에서는 중국과 조호르 출신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특히 심해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농민의 작업 및 생활 조건은 물론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소득, 교육, 적절한 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이 말라리아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미쳤다.³⁾

일본은 19세기 후반 아시아에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일본 최초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는 말라리아가 일본의 군사 및 경제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고, 적어도 1890년대까지는 대만 내 일본인의 사망률이 현지인보다 훨씬 높았다.⁴⁾ 1910년대 초에도 콜레라와 전염병을 제외하면 말라리아는 여전히 일본인과 대만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⁵⁾ 한국에서는 개항기부터

1) Andres Baeza, Menno J. Bouma, Ramesh C. Dhiman, Edward B. Baskerville, Pietro Ceccato, Rajpal Singh Yadav and Mercedes Pascual, 'Long-lasting transition toward sustainable elimination of desert malaria under irrigation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3, 110-37, 15157-15162.

2) Health Organisation, "Enquiry into the Quinine Requirements of Malarial Countries and the World Prevalence of Malaria" in the Health Organisation (ed.), *Societe Des Nations* (Geneva: League of Nations, 1932), 66.

3) Galvez, J. A., et al,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Self-Rated Health: Study of 29 Countries Using European Social Surveys (2002-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13, 10, 747-761.

4) Yi-ping Lin and Shiyung Liu, "A Forgotten War: Malaria Eradication in Taiwan, 1905-65" in Angela Ki Che Leung and Charlotte Furth (eds), *Health and Hygiene in Chinese East Asia: Policies and Publics in the Long Twentieth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183-203.

식민지 시대까지 일본 이주민과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시달렸다. 일본인 정착민의 말라리아 발병률은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전염병보다 높았지만 사망률은 매우 낮았다.⁶⁾ 또한, 식민지 일본군 평균 말라리아 이환율은 1920년대 일본 사단의 평균 질병률보다 훨씬 높았다.⁷⁾ 이 두 일본 식민지에서는 일본의 착취적인 경제 발전과 노동자 유입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말라리아 위협은 종류가 달랐다. 대만이나 한국과 달리 말라리아는 토착 질병이 아니었고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착취적으로 개발 하면서 말라리아가 질병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05년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한 후 요동반도의 지배권이 일본에 이양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 일본은 중국 극동 철도 지선의 최남단 구간도 획득하였다. 1년 후 특별법이 공포되어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이하 SMRC)가 설립 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후 만주는 일제의 원자재와 식량의 주요 공급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일본은 만주의 광대한 미경작지를 농경지 개발을 통해 쌀을 비롯한 곡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였다.⁸⁾ 그러나 논 확장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말라리아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서식처를 만들었다. 그 결과 말라리아는 만주의 농업 변경 지역에서 흔한 질병이 되었다. 이 질병은 일본 제국과 궁극적으로 전시 경제에 의존했던 인력을 점점 더 약화시켰다.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만주의 새로운 농업 개척지에서 말라리아 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조사할 것이다. 연구자는 아이카와무라의 일본 농업 이주자들과 일제의 여파로 자발적으로나 강제로 만주로 이주한 한국 농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말라리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농업 변경의 위험: 아이카와무라(愛川村)

20세기 전반에 걸쳐 남만주로의 농업이민은 일본의 만주정책의 구심점이었다.⁹⁾ 20세기 초 메이지 정부의 핵심 인물인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는 일본인의 만주 대량 이주를 주도한 인물이었다.¹⁰⁾ 이 지역으로의 농업 이민의 주요 목적은 새로 획득한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¹¹⁾ 또한 잉여 일본인을 농촌으로 보내 일본에 대한 곡물

5) Shimoda and Soda, 'Recent Health Condition of Taiwan', The Journal of the Public Health Association of Japan, 1936, 12, 28-38.

6) Jeong-Ran Kim, 'Malaria and Colonialism in Korea, c.1876-1945', Social History of Medicine 2016, 29, 360-383.

7) 軍医部, '朝鮮陸軍部隊に於ける「マラリア」について', 軍医団雜誌, 1926, 157, 205-211.

8) John R. Stewart, 'Manchuria as Japan's Economic Life-Line', Far Eastern Survey, 1935, 4, 182-186.

9) 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滿州」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三田学会雜誌, 1970, 63-6, 61-87.

10)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Sixth Report on Progress in Manchuria to 1939 (Dairen: SMRC 1939), 116.

11) Robert John Perrins, "Doctors, Disease, and Development: Engineering Colonial Public Health in Southern Manchuria, 1905-1926" in Morris Low (ed.) Building on Modern Japa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the Meiji Era and Beyo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관동 수비대와 일본 정부는 일본인 이주 농민들이 값싼 중국인이나 조선인 노동력을 이용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쌀과 기타 곡물을 재배할 계획을 세웠다.¹²⁾

남만주에서 일본인 인구를 늘리려는 중요한 시도 중 하나는 대인 근처 금주(金州)에 아이카와무라(愛川村)를 건설한 것이었다. 일본의 농업 개척 계획은 관동 총독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 통치 기간: 1912년 4월~1914년 9월)에 의해 수립되었다. 그때 그는 관동임대지에서 상당수의 중국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많은 조선인들이 지지진과 봉천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 후쿠시마 지사는 만약 일본 농민들이 금주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벼농사를 짓는 데 성공한다면 만주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농업 개척지를 개발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¹³⁾

관동정부에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벼농사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주의 밭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일본 농민들을 이민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토지가 전혀 없는 농민들은 이민집단에서 제외되었다.¹⁴⁾ 후쿠시마 지사가 사임한 지 1년 후인 1915년 3월 27일, 18가구로 구성된 최초의 이민자 집단이 마을에 도착하였다.¹⁵⁾ 이 마을의 이름은 아이카와무라(愛川村)로, 첫 번째 이민자 그룹이 떠난 일본의 두 마을(村 무라), 야마구치현의 아타고손(愛宕村)과 가와시모손(川下村)에서 유래하였다.¹⁶⁾ 아이카와무라는 분지였으며, 삼면이 산이고 서쪽은 바다에 접해 있었다.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고 겨울과 여름의 기온도 그다지 크지 않다.¹⁷⁾ 그러나 일본 이민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에 16가구가 농업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1916년에는 13가구가 더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들 대부분도 땅을 버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이민자들이 땅을 포기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는 자연환경이 낯설었고, 주거공간도 부적절하게 지어졌다. 그 결과 많은 이민자들이 호흡기 질환과 심한 설사에 걸렸다. 게다가 학교, 진료소 등 공공시설도 없었다. 계약 의사가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 규칙을 잘 따르지 않았다. 때로는 의사가 이민자들에게 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대인병원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무료 또는 반액으로 특별 진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¹⁸⁾ 또한 일부 주민들은 중국 농민처럼 농사일을 강요당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주하기 전 그들은 일본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고, 농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간척된 농지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 애썼다.¹⁹⁾ 더욱이 그들은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교류하기 위해 높은 교통비와 기타 사교비를 지불해야 했다.²⁰⁾

103-133.

12) 関東州庁土木課編纂, 愛川村: 邦人満州移民の魂 (大連: 関東州庁土木課, 1935), 103; 손춘일, '만주사변 후 재만한 인안전농촌과 집단부락 건설 및 그 실태',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997, 12, 151-188; 윤휘탁,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 민족 국가' (서울: 혜안, 2013), 122, 365

13) 関東州庁土木課編纂, 愛川村, 1935, 2-3.

14) Ibid., 9-19.

15) "関東州内に於て日本人農業移民: 北滿進出上の生ける教訓", 大阪朝日新聞, 19 Mar, 1934

16) 関東州庁土木課編纂, 愛川村, 1935, 95.

17) 北島榮太郎, '南滿州金州愛川村及び當口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 満州医学雑誌, 1935, 22, 369-377.

18) 関東州庁土木課編纂, 愛川村, 1935, 5-6, 210.

19) John R. Stewart, 'Japan's Strategic Settlements in Manchukuo', Far Eastern Survey, 1939, 8, 37-43.

20) 関東州庁土木課編纂, 愛川村, 1935, 1935, 5-6.

특히 문제는 이 지역의 자연 조건이 쌀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토양은 염분 함량이 높아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간척지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 또한, 토지의 지형이 고르지 않아 침수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는 홍수 예방 시설이 없었다.²¹⁾ 무엇보다 벼농사에 필요한 물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착민들은 1924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다.²²⁾ 관동국은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원을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1925년 관동국 토목공학과 기술자들이 수증을 발견했다. 그러다가 엔지니어팀은 저수조처럼 물속에 저장하는 '만주우물(滿洲井戸)'을 발명했다.²³⁾ 우물에 저장된 물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충분한 양의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농부들은 마침내 1931년 첫 풍년을 거둘 수 있었다.²⁴⁾

그러나 이번 수확에는 말라리아라는 새로운 위협이 동반되었다. 원래 말라리아는 그 지역에서 무시할 만한 질병이었지만 아노펠레스(Anopheles) 모기가 존재했다. 논 매립과 새로운 수원으로 인해 말라리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생겼다. 만주에서 말라리아 모기의 주요 번식지는 논이었지만 도랑, 웅덩이, 수생 식물도 아노펠레스에 적합한 장소였다.²⁵⁾ 1933년 당시 아이카와무라에는 일본인 주민 72명(10가구)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인근에는 중국인 주거지역이 몇 군데 위치해 있었다. 그해 일본 마을에서는 말라리아 환자 2명과 기생충(배우세포) 보균자 4명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국 마을에는 8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있었다.²⁶⁾ 일본 의료 전문가들이 일본 마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과 웅덩이에서 상당수의 아노펠레스 모기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모기가 날아갈 수 있는 논에서 1km 이내에 일본 가옥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또한, 아노펠레스 유충이 발견된 집 주변에는 여러 개의 물웅덩이가 있었다.²⁷⁾ 다음 해 1월부터 8월까지 아이카와무라에서 6건, 중국 마을에서 116건의 말라리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본인 환자들은 퀴닌으로 치료를 받았고 일본인들은 모기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카와무라 주변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물품을 쉽게 얻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말라리아 모기에 노출됐고,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상당수가 만성환자가 됐다.²⁸⁾ 일반적으로 말라리아와 빈곤 사이에는 눈에 띄는 연관성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위생 시설, 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구조가 부적절하고 과밀한 집에 살고 있다.²⁹⁾ 아마도 아이카와무라 주변의 중국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21) Ibid., 9-19 and 127-139.

22) 大連商工会議所, 関東州の水に就て (大連: 大連商工会議所, 1930) 7, 106 and 127.

23) 清水本之介, 関東庁水源水利調査事業の概要 (大連: 関東庁土木局, 1933), 5-6.

24) 関東州土木課編纂, 愛川村, 1935, 244 and 291-293.

25) 岩田正俊, '朝鮮及び滿州の「マラリア」蚊', 日新治療, 1941, 特集号, 49-61; 岡田弥一郎, 害虫と家庭衛生 (東京: 河合商店, 1942), 97.

26) 樺田憲太郎, 北島栄太郎, "南滿州金州愛川村及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 in 関東局移民衛生調査委員会 (ed.) 滿州に於ける寄生虫病とその対策 (新京: 移民衛生調査委員会, 1935), 27-30.

27) 北島栄太郎, '南滿州金州愛川村及び營口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 1935, 369-377.

28) Ibid.

29) Ricci, F., 'Social Implications of Malaria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Poverty', Mediterranean Journal of Hemat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2012, 4. doi: 10.4084/MJHID.2012.048.

한국인 거주지역의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만주의 한인 농민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만주에서는 오랫동안 벼농사를 짓기에는 자연환경이 좋지 않아 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논은 점차 확대되었다. 주로 한국인이, 1860년대 많은 한국인들은 가난과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국을 떠나 만주로 향했다. 한국 농부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논으로 가는 물길을 찾았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많은 조선인들이 벼농사에 성공하여 '만주 쌀의 최고 생산자'로 불리게 되었다.³⁰⁾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피난했던 곳은 간도(간도, 간도)로, 중국 동북부에 위치하며 두만강(또는 두만강)을 따라 중국과 한국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 1875년경부터 한국인에 의해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점차 농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³¹⁾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만주에는 이미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후 농지측량사업(土地調査事業), 산미증산계획(産米増産計画) 등의 탄압적인 식민정책으로 극심한 빈곤에 빠진 한국인이 늘어났다. 그 결과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많은 빈곤한 조선인들이 만주로 탈출하였다.³²⁾

1921년까지 만주일본영사관은 조선인에 대한 영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1921년 7월, 총독부는 조선인에 대한 영사업무에 관해 외무부와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에 대한 교육, 보건, 방역, 재정, 구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일본영사관은 경찰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한인사회가 많이 밀집해 있는 간도와 연길(延吉), 주지걸(局子街)에 각각 2개의 병원만 운영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식민정부가 단순히 조선인 마을에 계약의사를 파견했다.³³⁾

당시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 농부들을 핑계로 중국 영토를 침범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보조자라고 생각했다. 조선인들이 마을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을 때 일본은 그 지역을 영사관 관할구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일본 공권력이 만주 한인의 항일운동을 탄압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영토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인독립단체는 중국 당국에 문제를 일으켰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은 물론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도 커졌다.

1931년 7월 만보산(萬寶山)의 관개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농민 사이에 결정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이는 단순히 수로를 둘러싼 사건이 아니라 중국 민족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충돌(한인 이주 농민 문제)이었다.³⁵⁾ 만보산은 창춘에서 북쪽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저지대 습지 지역에 있었고, 한 무리의

30) 新京支社調査室編, 滿州に於ける水稻作の研究 (大連: SMRC, 1942), 8; Barbara J. Brooks, "Peopling the Japanese Empire: The Koreans in Manchuria and the Rhetoric of Inclusion" in Sharon A. Minichiello (ed.) *Japan's Competing Modernities: Issues in Culture and Democracy 1900-193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25-44.

31) '在滿鮮農의 社会的諸条件', 滿鉄調査月報, 1936, 16, 99-128.

32) 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における「滿州」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1970, 61-87; 김기훈,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국내 이민" in 한석정, 노기식 (eds)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서울: 소명출판, 2008), 197-214.

33) '在滿同胞への總督府諸施設全貌'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1934, 20, 78-86.

34) Erik W. Esselstrom, 'Rethinking the Colonial Conquest of Manchuria: The Japanese Consular Police in Jiandao, 1909-1937', *Modern Asian Studies*, 2005, 39-1, 39-75.

35) Edward Earl Pratt, *Wanpaoshan, 1931: Japanese Imperialism, Chinese Nationalism and the Korea problem in Northeast China on the eve of the Manchurian Incident*, MA thesis, University of Virginia (May 1983).

한국인이 현지 중국인 중개업자로부터 토지를 전대하였다. 한국인들은 강에서 뺏어나온 관개수로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경작지는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중국 농민들은 피해에 항의했고, 창춘 주재 일본 영사관은 경찰을 파견해 시위를 진압했다. 게다가 일본 영사관은 이번 사건 당시 조선인 몇 명이 중국 농민들에 의해 살해됐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일본 영사관의 말을 인용해 완보산 사건을 보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되었고, 국내의 많은 중국인이 조선인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도 보도돼 한국인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이 고조됐다.³⁶⁾ 결국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생하면서 한인들은 중국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만주에 있던 많은 한인들은 중국인의 공격을 피해 철로지역으로 피난했다.³⁷⁾

한동안 일본영사관도, 조선총독부도 한국인 난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들 중 다수는 일본 영사관과 경찰이 주둔하는 철로 지역의 몇몇 대도시로 집결했다.³⁸⁾ 이후 조선총독부와 관동군, 만주국 정부(1932년 설립)는 조선인 피난민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그들을 위해 마을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도아강교회사(東亜勸業會社)에 5개의 안전마을(安全農村)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5개 마을은 1932년에서 1935년 사이에 건설되었다(표 1).

Table 1: Five Korean Secure Villages in Manchuria

Name of Village	Year of Foundation	Location	1935.9		1940.12	
			Families	People	Families	People
Tiělǐng (鐵嶺)	1932	Fèngtiān	269	1,235	383	925
Yingkou (營口)	1933	Fèngtiān	1,035	5,461	1,870	4,176
Hedong (河東)	1933	Binjiāng	789	3,372	728	1,825
Suihua (綏化)	1934	Binjiāng	337	1,314	446	1,142
Sanyuanpu (三原浦)	1935	Fèngtiān	-	-	172	355
Total			2,430	11,382	3,639	8,423

Source: 南滿州鐵道株式會社調查部編, 滿州農業移民概說 (大連: SMRC, 1939), 77-78.

조선총독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안전한 마을에 사는 조선인 농민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해야 했다. 게다가 농부들은 말라리아 전염병에 시달렸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큰 안전마을인 영구(營口)의 천창대(田庄台)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1933년에 요강(遼河) 근처에 위치한 매립 갯벌 지역에 이 안전한 마을이 설립되었다. 안둥(Antung), 푸순(Fushun), 핑텐(Fengtian), 요양(Liaoyang) 및 기타 몇몇 지역에서 도망친 많은 한인 피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예비군 181명(40가구)을 포함해 한인 3,012명(636가구)이 마을에 정착했다.³⁹⁾ 그러나 이 지역의 토양에는 알칼리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불리한 자연조

36) Michael Kim, 'The Hidden Impact of the 1931 Post-Wanpaoshan Riots: Credit Risk and the Chinese Commercial Network in Colonial Korea',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020, 10, 209-227.

37) Frank Jacob, 'The Korean Diaspora in Manchuria - Korean Ambitions, Manchurian Dreams, Japanese Realities', *UPF Journal of World History*, 2014, 6, 1-11.

38) 金永哲, '在滿朝鮮人の生活実態と「安全農村」', 2007, 43-58.

39) '朝鮮人安全農村に就て', *滿鐵調査月報*, 1934, 14, 95-104.

건과 갖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랴오 강에서 논까지 대규모 양수 관개 시스템을 만들었다. 결국 한국 농민들은 쌀 재배에 성공했다. 벼농사가 성공하면서 만주 다른 지역이나 조선인에서 마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1934년 한국 남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잃었다. 식민정부는 이들을 만주의 한인마을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천창대에서는 약 460가구를 받아들였다.⁴⁰⁾ 한국 농민들은 벼농사에 성공했지만 생활 여건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됐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 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다. 한국 정착민들은 종종 오염된 공공 우물의 물에 의존했다. 게다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체력도 약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다양한 질병에 취약해졌다. 한국인 중에는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많았고, 소화기 장애도 흔했다.⁴¹⁾ 말라리아는 한국인의 건강과 노동 효율성도 위협했다. 1933년 8월 8일부터 1934년 8월 26일까지 천추앙타이(T'ien-chuang-tai) 보안 마을에서 411건의 말라리아 사례가 보고되었다. 연구팀이 이곳 중부지구 주민 122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세 사람은 배우자 세포를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메로조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 근처에는 아노펠레스 모기의 번식지도 여러 군데 있었다.⁴²⁾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말라리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말라리아는 마을에서 가장 널리 퍼진 풍토병이 되었고, 6월부터 7월 사이의 바쁜 농사철에 한인 정착민들은 말라리아에 취약해졌다.⁴³⁾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의료시설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초에 의존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을 남겨 두었다. 잉커우시에는 병원과 진료소가 몇 군데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을 이용할 여유가 없었다.⁴⁴⁾ 때로는 계약의사가 마을에 파견돼 주민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는 경찰과 함께 다른 위생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⁴⁵⁾ 따라서 한국 마을 주민들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안전한 마을 중앙에 상설 진료소를 건립하였다.⁴⁶⁾

조선인 농민들이 논을 확장한 길림성 대둔(大屯)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⁴⁷⁾ 1890년대부터 한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1900년경부터 벼농사를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한인 정착민의 수가 증가했다. 1935년 6월 당시 조선인 인구는 11,897명(2,637가구)이었고, 그들 대부분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⁴⁸⁾ 다툰의 경우 1923년 김세원이라는 한국인이 처음 정착했다. 그는 한인 7가구와 함께 황폐한 땅을 개간하고 쌀을 재배했다. 다툰은 송화강 지류 근처의 비옥한 평야에 위치해 있었다.⁴⁹⁾

습지의 논 확장은 말라리아 모기의 이상적인 번식지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의 말라리아 발병

40) “當口安全農村を觀る”, 滿洲日報, 9-12 Jul, 1935.

41) 현은주, 1930년대 在滿朝鮮人社會에 대한 日帝의 統制政策 研究 : 安全農村과 大屯部落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42) 北島 栄太郎, ‘南滿州金州愛川村及び當口田庄台農場に於ける移民の寄生虫病に就て’, 1935, 369-377.

43) 滿鮮拓殖株式會社, 鮮滿拓殖株式會社 滿鮮拓殖株式會社 五年史 (新京: 滿鮮拓殖株式會社, 1941), 213.

44) ‘當口朝鮮人民會’, 全滿朝鮮人民會連合會會報, 1935, 29, 23-29.

45) ‘當口地方における朝鮮人事情’, 滿鐵調査月報, 1936, 16, 143-160.

46) ‘朝鮮人安全農村の經營管理と福利増進施設’, 全滿朝鮮人民會連合會會報, 1936, 38, 13-19.

47) ‘滿鮮人雜居地帶の村落調査—吉林省永吉縣大屯部落の一例—’, 滿鐵調査月報, 1937, 17, 111-149.

48) Ibid.

49) 현은주, 1930년대 재만조선인사회에 대한 일제의 통제정책 연구, 2000.

건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들은 약이나 모기장을 살 여유가 없었다. 모든 주민들은 중하층이었고 작은 덕아웃 주택에서 살았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식수를 위해 우물 15개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 우물은 돼지우리나 길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오염되었다.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1935년에는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64%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대적인 진료소가 없었다. 의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 의사 중 단 한 명만이 한국인에게 간단한 진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더 나쁜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한약을 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⁵⁰⁾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보건행정이 미흡했다. 이후 1937년 12월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이 폐지되면서 조선인 위생행정은 만주국 정부로 이관됐다. 만주국 정부는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던 조선인 마을의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의사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만주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⁵¹⁾

“농민에게는 악마와 같다”

1930년대 중반부터 말라리아는 더 이상 남만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업의 국경이 소련과의 접경지역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말라리아는 더 이상 남만주에 국한되지 않았다.⁵²⁾ 관동군은 만주국 북부에 농업군(屯田兵)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38년에는 만주 전역에서 약 30,000건의 말라리아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실제 사례 수는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평텐(峯丹)성에서는 말라리아가 만연했다. 1939년 봉천성 농촌에만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의 총수는 18,189명이었고 대부분의 말라리아 환자는 주요 노동력인 중국 중년 남성이었다.⁵³⁾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략전쟁을 시작하면서 만주의 말라리아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평텐성 정부의 수석 기술자인 오비토 에이지로(大人栄次郎)가 작성한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평텐성에서 말라리아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지방의 논확장으로 인한 아노펠레스모기의 증가이다. 또한, 한국농민안전마을은 논 근처의 밀폐된 공간에 모기가 거주민에게 말라리아 기생충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 기생충 보균자가 증가했다.⁵⁴⁾ 오비토의 관찰과 대조적으로, 이전의 한 연구에서는 일부 일본인이 푸순(Fushun), 평텐(Fengtian), 테링(Tiering)과 같은 만주의 몇몇 지역에 말라리아 기생충을 가져와 말라리아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지적하였다.⁵⁵⁾ 그러나 오비토는 한국인과 중국인 이민자들을 말라리아의 이동식 저장소로 지목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말라리아 환자 대부분이 가난과 질병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그들 중 다수가 만성 말라리아 환자가 되었고, 새로운 말라리아 감염의 근원지로 여겨졌다. 그는

50) ‘滿鮮人雜居地帯の村落調査’, 1937, 111-149.

51) 滿鮮拓殖株式会社, 鮮滿拓殖株式会社 五年史, 1941, 123; 윤휘태, 만주국, 2013, 423.

52) 宗形豊彌, “嫩江訓練所に於けるマラリア”, 1939, in 白鳥道博 (ed.)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關係資料 第五卷 (東京: 不二出版, 1993), 336-340.

53) 久保道夫, 大人栄次郎, ‘滿州のマラリアとその対策’, 臨床大陸, 1940, 2, 645- 652.

54) 大人栄次郎, ‘奉天省のマラリアに就て’, 滿州医学雑誌, 1941, 34, 285-304; 久保道夫, ‘滿州に於ける原虫性疾患と医用昆虫’, 滿州公衆保健協會雑誌, 1942, 7-9, 3-10.

55) 豊田秀造, 渡滿と衛生 (東京・大阪: 三省堂, 1933), 65-67.

소작농의 말라리아 치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⁵⁶⁾ 그러나 집주인이나 당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말라리아로 인해 만주에서 농업 인력 손실이 발생하면서 곡물 등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과 생산자재 부족으로 인한 일본의 쌀 생산 정체를 고려하면, 만주에서의 쌀 증산은 더욱 까다로워졌다.⁵⁷⁾ 그러나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은 만주 전역의 불안 요인이었다.⁵⁸⁾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리아는 농업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만주의 한 일본인 말라리아학자는 “말라리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농장 노동자들의 체력을 약화시킨다고 한탄했다. 즉, 말라리아는 평톈(Fengtian)의 변경 농부들에게 악마와 같다.”⁵⁹⁾

만주의 의료물자 부족 현상도 날로 심각해졌다. 전쟁정권 하에서 만주국은 물론 중국 동부의 일본 괴뢰국이었던 관동임대지역과 재조직된 중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의약품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다.⁶⁰⁾ 특히 퀴닌, 아테브린, 플라스모퀸 등 말라리아 치료제는 일본군에만 독점 공급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⁶¹⁾ 이로 인해 일본 농민과 청년단원들은 말라리아 예방약 부족에 시달렸다.⁶²⁾ 더욱이 일본의 전쟁정권은 위생과 영양의 악화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등 전염병에 더욱 취약해졌다.⁶³⁾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한국 농민들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었다.

만주에 있는 일본 당국은 적은 비용으로 말라리아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했다. 만주 의과대학의 구보 미치오(Kubo Michio)와 그의 연구팀은 남만주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푸순 광산에서 세일 오일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유를 사용하여 아노펠레스(Anopheles) 유충을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푸순 광산에는 노천 채굴 석탄 흐름 위에 두꺼운 세일 층이 덮여 있었고, 석탄 매장지 상층에는 약 54억 톤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⁴⁾ 세일오일 생산은 일본이 해외, 특히 미국에 석유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자체 연료 생산을 시도했다. 1929년 12월부터 광산에서는 세일 오일을 생산하고 더 많은 세일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노천 채굴장인 히가시 노천 광산을 열었다.⁶⁵⁾ 나중에 이 장소는 말라리아 발생의 핵심지가 된다.⁶⁶⁾ Kubo는 세일 오일 공장의 부산물이 논과 웅덩이에 있는 모기 유충뿐만 아니라 기타 해충을

56) 大人栄次郎, ‘奉天省のマラリアに就て’, 1941, 285-304.

57) 新京支社調査室編, 満州に於ける水稻作の研究, 104.

58) 関東州経済会, 満洲開拓政策と関東州報国農場 (大連: 関東州経済会, 1944), 5-6 ; Margaret S. Culver, ‘Manchuria: Japan’s Supply Base’, Far Eastern Survey, 1945, 14, 160-163.

59) ‘奉天省マラリヤ下火’, 満州衛生事情通報, 1939, 8, 10.

60) 木村雄四郎, ‘時局と和漢薬に就て’, 漢方と漢薬, 1940, 7, 1-5 ; ‘薬品の輸入統制 満州医薬品輸入組合結成’, 現代の獣医界, 1940, 7; 近森監介, ‘満州国医薬品統制要綱解説’, 日本薬報, 1941, 2, 19-20.

61) Jeongran Kim,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Manchuria, 1905-1940s’, Social Science Diliman, 2018, 14, 1-23.

62) 白井清隆, 竹森博, ‘満鉄取柴河訓練所’, 1940 in 白鳥道博 (ed.) 満蒙開拓青少年義勇軍関係資料 第七卷 (東京: 不二出版, 1993), 324-325

63) O’Meara W.P., et al, ‘The impact of primary health care on malaria morbidity--defining access by disease burden, Tropical Medicine and International Health’, 2009 Jan, 14-1, 29-35, doi: 10.1111/j.1365-3156.2008.02194.x. Epub 2008 Dec 11. PMID: 19121148; PMCID: PMC2658804.

64) ‘Labour management at Fushun Coal Mines’, The Manchuria Daily News, 22 Sep, 1938

65) 満鉄東京撫順会, 撫順炭鉱終戦の記, (東京: 満鉄東京撫順会, 2004), 46.

66) Jeongran Kim, ‘Malaria and Colonial Frontier’ 2018.

죽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⁶⁷⁾ 그들은 기름의 효과적인 사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관개로 상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빠른 곳에 폐유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인해 오일이 굳어 시스템이 덜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 게다가 이 방법은 기름을 관개수로 운반하고 떨어뜨리는 데 드는 인건비를 발생하였다. 게다가 이 방법을 푸순 외 지역에서 적용한다면 운송 비용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었다.⁶⁸⁾

따라서 Kubo와 그의 팀은 논에서 말라리아를 통제하기 위한 환경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각 논을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서 물을 순차적으로 배수했다. 각 섹션을 다시 채우기 전에 하루의 건조 기간이 발생했으며 이 방법은 10일에 한 번씩 반복되어야 했다. 따라서 Anopheles 모기 유충은 건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방법은 완만한 경사면이 필요하지만 논이 경사면에 위치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수문이 열린 후 한 구역에서 경사면 아래로 낮은 구역으로 물이 배수되었으며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⁶⁹⁾ 연구팀은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금전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⁷⁰⁾

불행하게도 두 가지 방법이 농촌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만주 전역의 생활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식량과 의약품의 전시부족은 더욱 심각해졌고, 곡물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노동 강도도 높아졌다.⁷¹⁾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이 더욱 만연해졌다.

결론

이 연구는 일본이 관동임대지와 만주 남부를 획득한 이후 일본의 농업 이주와 중국과 한국의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생태학적 혼란이 발생하고 말라리아가 이 지역의 새로운 위협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농업 개척지인 아이카와무라는 황무지를 매립하고 벼농사를 위한 새로운 수원을 공급하는 등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결국 벼농사가 성공했지만 일본인들은 1930년대 초부터 말라리아 전염병에 직면했다. 일부 일본 농부들은 말라리아에 걸렸지만, 인근 지역에 사는 중국 농부들에 비해 훨씬 적다. 또한 일본 농부들은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중국 농부들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 농민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많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 비옥화와 관개 확장은 벼농사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더 많은 농부들이 의료 및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말라리아 통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적어도 말라리아 예방약과 모기장을 구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농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열악한 노동 및 생활 환경으로 인해 말라리아에 더 취약해졌다.

67) ‘マラリア撲滅の名案オイルセールの廃油を利用’, 満州衛生事情通報, 1939, 9, 21.

68) 岩田正俊, ‘朝鮮及び満州の「マラリア」蚊’, 1941, 49-61.

69) 久保道夫, ‘満州に於ける原虫性疾患と医用昆虫’, 1942, 3-10.

70) 久保道夫, 大人栄次郎, ‘満州のマラリアと其対策’, 1943, 12-18.

71) Margaret S. Culver, ‘Manchuria: Japan’s Supply Base’, Far Eastern Survey, 1945, 14, 160-163; 白井清隆, 竹森博, ‘満鉄取柴河訓練所’, 1940, 324-325.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된 이후 소련과 접경한 만주 북부지역은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말라리아가 북쪽으로 퍼져 농민들이 쇠약해지고 농업인력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전시 긴급정책으로 인해 항말라리아제의 심각한 부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말라리아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일본 전문가들은 말라리아를 억제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개발한 방법은 매개체 통제가 충분히 집중적이지 않았고 공중 보건, 교육 및 주택과 마찬가지로 의료 치료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은 전쟁정권 하에서 대부분의 만주 농민들에게 개선되지 않았고, 말라리아 예방 방법은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특히 제국주의 신민으로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한국 농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xchange
in Manchuria and East Asia

**Manchuria and East Asian
Cultural Practices and Glocal Diversity**

2023 만주·동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공동 국제학술대회

만주 및 동아시아 문화 실천과 글로컬 다양성



Research Ethics Education

I 연구윤리교육

질적연구의 시작

질적연구와 IRB
: 윤리적 이슈

질적연구의 즐거움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이유

* 질적연구가 '기관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

첫째,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참여자가 있는 현장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참여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생활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둘째, 질적연구에서 자료는 양적연구처럼 숫자와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문장이나 사진, 비디오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기 때문

셋째, 질적연구는 과정에 중심을 두는 연구로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속한 공간과 참여자의 경험을 존중해야 함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이유

* 질적연구가 '기관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

넷째,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참여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지에 관심이 있음

다섯째, 질적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설정했던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자료나 증거를 찾지 않음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과학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

• IRB 설치의 주요 목적

- 모든 생명에 대한 과학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
- 이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연구계획서,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심의 및 승인하여 적절한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의 기본 원칙

첫째,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연구는 인간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참여자의 위험은 최소화되고 안녕은 다른 모든 이익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함

둘째, 연구참여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연구참여 동의는 충분한 사전 설명에 의한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함

셋째, 연구대상자 등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혹은 개인 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혹은 다른 법령 또는 고시 등 특별한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함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의 기본 원칙

넷째, 위원회는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함

다섯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참여자(개인, 집단)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

여섯째, 위원회의 활동은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헬싱키 선언 등 국내외 지침 및 규정에 명시된 인간연구대상자와 관련된 보편적 윤리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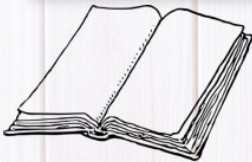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의 기본 원칙

일곱째, 위원회는 총장 직속의 기관으로 위원회 구성, 심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내 혹은 교외의 제도, 단체, 기관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여덟째, 위원회의 구성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



2 연구윤리와 IRB

2) 연구윤리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종류

<표 4-1> 심의 종류와 내용

심의 종류	심의 내용
정규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족수 등의 형식을 갖춘 심의 · 일반적으로 정기회의 시 정규 심의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이 심의를 담당 · 의결정족수는 패널 재적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이때 교외 위원 및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 평가 위원 각 1인 이상 포함 · 다수결 방식으로 도출하고 승인, 조건부 승인(시정승인), 수정후재심의, 반려, 보류 등 결정
신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심의 전 심의를 진행하고, 정규 심의 때 그 결과를 보고 · 연구의 위험 정도가 '최소한의 위험' 이하인 연구의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며,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의 결정만 가능 · 수정후재심의, 반려 등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심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지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심의에서 결정된 심의 주기에 따라 연구기간 중 진행되는 심의 · IRB의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원칙하에 지속, 심의 주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윤리와 I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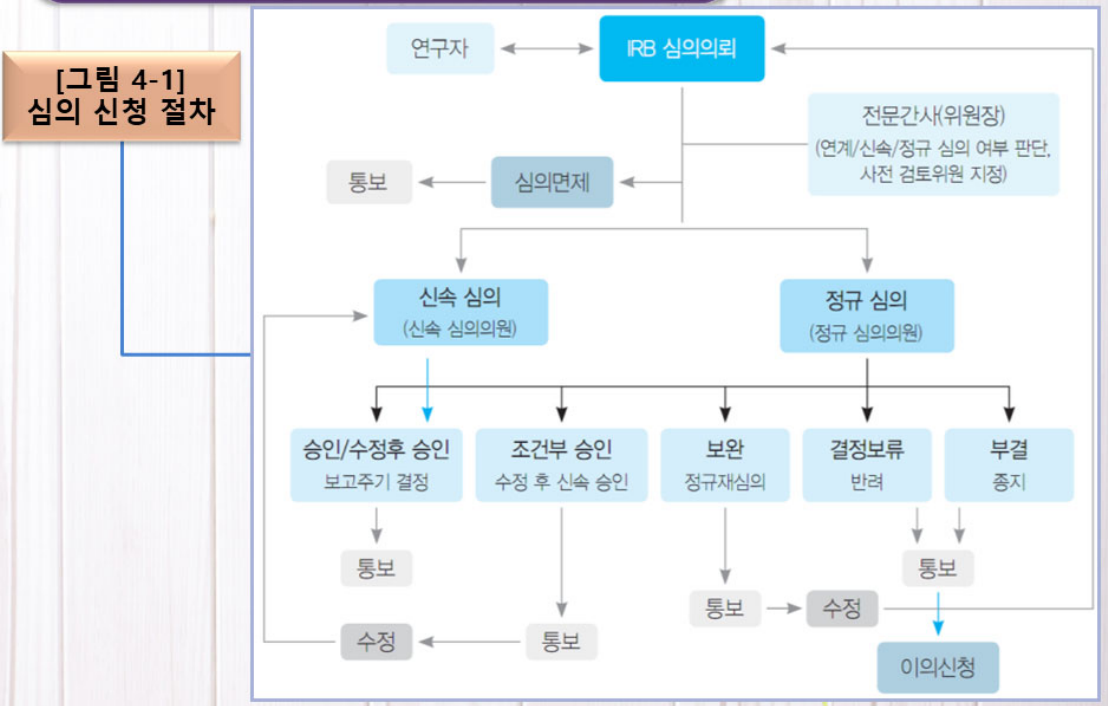
2) 연구윤리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종류

<표 4-1> 심의 종류와 내용

심의 종류	심의 내용
최종결과보고 심의	·IRB 승인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로 연구 종료 후 6개월 내에 IR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심의함
계획서, 변동 위반 심의	·초기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 내용에 변동, 위반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심의함
조기종료보고 심의	·심의된 연구가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에 대한 심의
심의면제 여부 심의	·대중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는 심의 면제 가능 ·단,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심의 면제가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IRB 승인을 요함

2 연구윤리와 IRB

3) 심의 신청 절차 및 승인 후 관리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1)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수 요소 및 연구참여자 윤리에 관한 고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침해 요소를 고려할 사항

첫째, 연구로부터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사항을 고려할 때 연구참여자나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연구의 위험과 이익평가 시,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위험 및 이익과는 별개로 해당 연구로부터의 위험과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셋째,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급 효과(가령, 공공정책에 미칠 연구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하여 연구참여자가 해당 연구에서 경험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지 않음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1)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수 요소 및 연구참여자 윤리에 관한 고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침해 요소를 고려할 사항

넷째, 취약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시해야 함

다섯째, 연구결과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한 과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의 이유를 명시해야 함

여섯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상해(심리적 부담감, 정서 장애 등)의 경우 보상 또는 치료·치유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1)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수 요소 및 연구참여자 윤리에 관한 고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침해 요소를 고려할 사항

일곱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상액 및 보상 방법과 금전적 보상이 연구참여자의 연구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함

여덟째, 연구과정 중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술하여야 함

아홉째, 연구결과의 출판 및 공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연구참여 동의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첫째, 동의서 작성은 해당 법률 및 규정 등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둘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연구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참여 여부 결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연구 관련 질문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어야 함

셋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연구참여를 강요하거나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연구참여 동의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넷째,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사용된 용어는 연구참여자 또는 동의권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으로 작성해야 함

다섯째, 연구참여자의 지속적인 연구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알려지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함

여섯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 등 동의권자)와 동의를 받은 연구자는 동의서 서식에 이름을 자필로 성명과 해당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연구참여 동의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일곱째,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서식, 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하여야 함

여덟째, 아동이나 심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연구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스스로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날짜를 기입하여야 함

아홉째, 취약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서면 동의 이외에도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IRB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를 작성하는 방법

첫째, 동의권자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둘째, 연구자 소개 및 연구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

셋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시간/기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연구참여시 주의사항, 연구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

넷째, 연구참여자에게 예상되는 이익 또는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확인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IRB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를 작성하는 방법

다섯째, 연구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했는지 확인

여섯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의 수집,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 및 폐기하는 시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일곱째,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구참여자의 이상 반응이나 연구철회 등에 대하여 연락하거나 연구에 대하여 의문점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함

여덟째, 동의권자와 동의획득자가 각각 자신의 성명, 서명 동의일을 기재할 수 있는 서명란이 있는지 확인

4 IRB 제출 서류

- IRB에 연구계획 심의 의뢰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 연구계획서(설문지 포함), 연구동의서(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심의의뢰서, 연구책임자 이력서, 인간 대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사본 등

- 이와 같은 필수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 설치된 IRB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필수 항목을 준수하여 제출하면 됨



수고하셨습니다.

